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71n1414

了菴清欲禪師語錄

(參學)一志·元皓·可興·
文康·祖運·志道·祖杲·得度·
文煥·克明·宗成·宗胤·
起宗·汝現·元寶·慧朗·
景毅·大圓·海壽·祖灑 等編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 1414-A 南堂了菴禪師語錄序](#)
 - [了菴和尚語錄目次](#)
 - [初住集慶路中山開福禪寺語錄](#)
 - [住嘉興路本覺禪寺語錄](#)
 - [住平江路靈巖禪寺語錄](#)
 - [舉古](#)
 - [頌古](#)
 - [世尊初生](#)
 - [世尊拈華](#)
 - [世尊陞座文殊白椎](#)
 - [未離兜率已降王宮](#)
 - [不問有言不問無言](#)
 - [調達謗佛生陷地獄](#)
 - [梵志獻華](#)
 - [金棺自舉](#)
 - [阿難問迦葉金襴外別傳何物](#)
 - [殃崛摩羅持鉢](#)
 - [維摩示疾](#)
 - [善財南詢](#)
 - [阿育王問賓頭盧](#)
 - [廓然無聖](#)
 - [龐公問馬祖不昧本來身](#)
 - [肅宗問國師十身調御](#)
 - [馬祖即心是佛](#)
 - [趙州勘婆](#)
 - [狗子佛性](#)
 - [寒暑到來何處回避](#)
 - [百市千重是何人境界](#)
 - [俱胝豎指](#)
 - [趙州訪臨濟](#)
 - [大禪佛到霍山](#)
 - [庭前栢樹子](#)

- [日面佛月面佛](#)
- [有句無句](#)
- [僧問趙州書昇兜率夜降閻浮為甚摩尼珠不現](#)
- [臘月火燒山](#)
- [體露金風](#)
- [如何是道墻外底](#)
- [前三三後三三](#)
- [丹霞燒木佛](#)
- [夾山見船子](#)
- [德山托鉢](#)
- [仰山問漁山云大用現前請師辨別](#)
- [常在家舍不離途中](#)
- [法眼問覺鐵觜趙州栢樹子話](#)
- [洞山恁麼道即易相續也大難](#)
- [鰲山雪夜](#)
- [雪峯鞦韆](#)
- [雪峯示眾](#)
- [玄沙白紙](#)
- [中原一寶](#)
- [五祖室中舉小艷詩](#)
- [鉢囉娘](#)
- [如何是佛肥從口入](#)
- [向上一路千聖不傳](#)
- [贊語](#)
 - [出山相](#)
 - [梅檀佛](#)
 - [有異比丘以金剛經寫成釋迦佛像高不五寸廣則半之可視不可讀為作贊曰](#)
 - [高安陳茂卿書四大部經求贊](#)
 - [何山復藏主血書法華募印藏教建殿曰毗盧性海](#)
 - [承天量維那集同志書雜華大經為十卷其二乃吾雪心所寫端楷入神求余題之說偈以贊曰](#)
 - [天台碧上人歸百丈山建楞嚴精舍求贊](#)
 - [靈隱昇藏主書華嚴塔求贊](#)
 - [法華塔贊](#)
 - [法華經塔為道藏主贊](#)
 - [王朋梅墓刻阿育王塔贊](#)
 - [文殊大士](#)

- [普賢大士](#)
- [維摩居士](#)
- [觀音大士](#)
- [布袋和尚](#)
- [布袋魚籃同嶮](#)
- [寒拾二大士](#)
- [阿羅漢](#)
- [朝陽對月](#)
- [四睡](#)
- [達磨大師](#)
- [栽松道者](#)
- [栽松粥薪圖](#)
- [李習之見藥山和尚](#)
- [白樂天見鳥窠和尚](#)
- [李軍容見溈山和尚](#)
- [呂洞賓見黃龍禪師](#)
- [三笑圖](#)
- [德山和尚](#)
- [船子和尚](#)
- [普化和尚](#)
- [自初祖至先保寧凡二十八世日東壽藏主各求一贊歸而圖之刻諸楞伽院](#)
- [龐居士](#)
- [靈運淵明](#)
- [黃山谷參晦堂和尚](#)
- [大慧禪師](#)
- [宏智禪師](#)
- [耀菴超禪師](#)
- [野菴璿禪師](#)
- [無準和尚](#)
- [先保寧和尚](#)
- [文廟御書大光明藏四字僧光獲一明字求贊](#)
- [高峯幻住千巖三翁同嶮僧傅請贊](#)
- [虔谷和尚直梅長老請贊](#)
- [曇芳和尚直鉄佛燈白明請贊](#)
- [壽昌別源和尚直天童亢明請贊](#)
- [聖壽敬叟譚和尚直景德雲海請贊](#)
- [南楚和尚直為延聖剛中贊](#)

- [珩琅一關和尚直小師雲渺首座請贊](#)
- [開福月菴老衲月林無門法燈高山凡七世日東久藏主繪其像請贊以歸](#)
- [仙岩仲謀和尚直敬藏主請贊](#)
- [自贊](#)
 - [大雲志長老請贊](#)
 - [長蘆毅長老請贊](#)
 - [慶善皓長老請贊](#)
 - [世首座請贊](#)
 - [泉藏主請贊](#)
 - [壽藏主請贊](#)
 - [度藏主請贊](#)
 - [碩藏主請贊](#)
 - [明岩康長老請贊](#)
 - [梨洲興長老請贊](#)
 - [明因道長老請贊](#)
 - [寶藏主請贊](#)
- [偈頌](#)
 - [次無想仲謀韻送皎首座](#)
 - [次仲謀法兄韻送肇侍者](#)
 - [送慧藏主](#)
 - [送徹上人](#)
 - [贈住首座](#)
 - [雪峯具知客禮祖](#)
 - [送百丈清藏主](#)
 - [送懋藏主](#)
 - [送祖侍者歸溫州](#)
 - [送霖侍者](#)
 - [送成侍者](#)
 - [送明藏主之浙東](#)
 - [送雅藏主](#)
 - [贈普光長老](#)
 - [送能藏主之金陵](#)
 - [送蔣山德藏主](#)
 - [送淨慈涇藏主](#)
 - [送度侍者](#)
 - [送初上人](#)
 - [次絕照翁送小師藻侍者韻](#)

- [送如維那](#)
- [送寧藏主之上藍](#)
- [送畏上人歸省萬壽華國](#)
- [直藏主求悟蕃說答之以偈](#)
- [送明侍者參竺元和尚](#)
- [送達侍者](#)
- [送慧侍者](#)
- [送機維那](#)
- [送閑藏主之金陵](#)
- [送明侍者歸道場](#)
- [送華藏性維那](#)
- [送苒侍者](#)
- [送雲侍者歸雲門](#)
- [送大乘覺首座再參松月翁](#)
- [送仰山初侍者](#)
- [送昂維那之江湘](#)
- [送岐藏主](#)
- [送朋侍者歸雲門](#)
- [琦上人求警策](#)
- [送聚書記](#)
- [送楚藏主自鍾山回天台省親](#)
- [示志藏主](#)
- [送明侍者見松月翁](#)
- [送琦侍者](#)
- [送徹藏主](#)
- [送天童覺藏主](#)
- [送慧禪人禮祖](#)
- [次韻贈忻侍者](#)
- [送煥藏主](#)
- [送聰藏主謁晉卿學士為竺元和尚求塔銘](#)
- [送見書記歸仰山](#)
- [送操侍者歸道場](#)
- [次仲謀師兄韻贈煥上人](#)
- [送源侍者歸江心](#)
- [送裕侍者省師](#)
- [送明書記](#)
- [送慶雲東歸積善](#)
- [次松月翁韻送育王旭書記](#)

- [贈萬壽澤藏主](#)
- [送浩首座東還](#)
- [次仲謀法兄送徒弟徹藏主韻](#)
- [送永知客](#)
- [送榕藏主](#)
- [送瑾侍者之廬山](#)
- [華亭陸子才書華嚴經三部善住玉岡作偈美之寶林別峯仲寬潘公輩十人咸和之玉岡索予次韻](#)
- [送天平十瞻之仰山為其師佛智立碑](#)
- [送柔首座](#)
- [送義侍者之何山](#)
- [送玄首座之台鴈](#)
- [送資首座禮佛性塔還江心](#)
- [送昇侍者游江西](#)
- [送靈隱康首座](#)
- [次韻送仰山珍藏主](#)
- [次韻贈熙侍者](#)
- [送敬藏主歸永嘉](#)
- [送梓藏主北上省師南山](#)
- [次松月翁韻送清上人](#)
- [送現藏主](#)
- [次仰山了堂韻贈齊藏主](#)
- [送國清朗藏主歸太平](#)
- [送道藏主歸蔣山](#)
- [次東山法兄韻送允藏主](#)
- [前江心無言作偈送暢藏主來靈岩無際仲謀和之會余已謝事因次韻以贈](#)
- [送昶藏主](#)
- [次韻贈仰山繁侍者](#)
- [次松月法兄韻送杲上人](#)
- [次韻送靈隱芳侍者](#)
- [送芾藏主歸翠岩](#)
- [送効藏主之國清](#)
- [送理藏主](#)
- [次紫擇了堂法兄示智上人韻](#)
- [和仲謀兄韻送埴侍者](#)
- [送隱侍者](#)
- [送淨慈明藏主](#)

- [送廣藏主](#)
- [送遠藏主歸省白鶴雪心](#)
- [贈模藏主](#)
- [送皓藏主](#)
- [送慶侍者之淨慈](#)
- [次韻送僧歸蜀](#)
- [次育王雪窻韻贈印書記](#)
- [送淨慈拱藏主再參前蔣山正宗](#)
- [次韻送洽侍者](#)
- [贈操栢庭](#)
- [送杲藏主](#)
- [韻碩藏主](#)
- [送慧藏主歸上江兼來能仁清懶圓通約之歸宗玉巖](#)
- [送錫藏主自大仰東還寧親](#)
- [先保寧和尚送宣維那偈弘藏主求和](#)
- [送雪竇良藏主](#)
- [送萬壽直藏主游台雁](#)
- [行可出先保寧贈偈求和](#)
- [送法喜滅宗](#)
- [次韻贈思侍者](#)
- [贈南宗](#)
- [用本覺楚石韻贈怡雲屋](#)
- [贈無為道者](#)
- [次石佛元菴韻送聚維那之龍河](#)
- [送輿藏主歸省保福一菴法兄](#)
- [和仲謀韻贈舟維那](#)
- [送珍上人回鄉](#)
- [次仙岩仲謀韻贈堯上人](#)
- [雪菴瑾和尚偈禪者求和](#)
- [送蔣山淵維那歸蜀](#)
- [送敏侍者](#)
- [示中上人](#)
- [次韻贈善上人閱經](#)
- [次韻示僧道舍人](#)
- [送曙藏主](#)
- [贈徑山經侍者](#)
- [贈淨慈戩藏主](#)
- [示靈隱景岩藏主](#)

- [送來維那參松月翁](#)
- [送壽藏主東歸](#)
- [洞庭謠送本藏主](#)
- [台鴈謠送景侍者](#)
- [廬山謠送油首座](#)
- [杯渡尊者祥雲蕃偈珩琅渺首座求和](#)
- [珩琅一關法兄用前韻見招因答之](#)
- [蘆圃室歌](#)
- [妙乘舟歌](#)
- [止止軒贈張君茂](#)
- [半山古原作曠居榜曰信蕃因璉藏主來徵偈](#)
- [竹堂贈琦藏主](#)
- [芥室贈靈藏主](#)
- [煮雪齋贈壽首座](#)
- [靜趣軒](#)
- [大樹軒](#)
- [聽夢樓](#)
- [環翠樓](#)
- [聽松堂](#)
- [空空室](#)
- [歸雲亭](#)
- [綠雲軒](#)
- [朴菴贈華侍者](#)
- [止堂贈運侍者](#)
- [承天毅首座號木翁松月翁更曰剛中求正於余余曰剛中其字也木翁其號也為說歌曰](#)
- [獨木贈林侍者](#)
- [獨峯贈昂侍者](#)
- [無牛贈度藏主](#)
- [白牛贈昌山主](#)
- [天印示普侍者](#)
- [滅宗示胤侍者](#)
- [東白贈昇侍者](#)
- [思遠贈傳侍者](#)
- [東雲贈海侍者](#)
- [物外示道侍者](#)
- [宗遠示世侍者](#)
- [默堂贈辯侍者](#)

- [雪窻贈榮藏主](#)
- [大明贈韜侍者](#)
- [無我贈吾藏主](#)
- [性海贈明書記](#)
- [秀岩贈挺首座](#)
- [愚中贈哲藏主](#)
- [樂菴贈常首座](#)
- [月鏡贈滿書記](#)
- [香巖贈芷首座](#)
- [夢菴贈一侍者](#)
- [椿庭示壽藏主](#)
- [古音贈韶藏主](#)
- [中山贈穎侍者](#)
- [太虓](#)
- [空巖](#)
- [雪山](#)
- [牧石](#)
- [空海](#)
- [自牧](#)
- [空漚](#)
- [贈陸平原兼示灑姪諸子](#)
- [送壽藏主](#)
- [送英侍者回彭教](#)
- [慧藏主微格外提持之句](#)
- [復藏主寂照寂](#)
- [送輦直巴大師再之補陀](#)
- [送空上人之金山](#)
- [答渭友竹寄傳燈錄](#)
- [次松月法兄韻送京維那歸省龍翔](#)
- [送淨藏主游浙](#)
- [送忍侍者上徑山](#)
- [次韻江心無言方外乾坤](#)
- [靈澄和尚山居偈寶藏主求和](#)
- [次松月翁韻送承天藏維那禮祖](#)
- [贈隱禪人默法華經](#)
- [送雲菴師首座歸隆興](#)
- [送琬上人之四明兼柬翠山大朴](#)
- [送璘上人游四明天台省親](#)

- [次松月翁韻送育王竺首座歸閩](#)
- [次韻送曙藏主禮宏智塔](#)
- [鉄鼓歸根塔](#)
- [次韻吞龍翔一首座](#)
- [送僧省香山雪溪](#)
- [用雲深韻謝中竺空海見招](#)
- [寄報國無住慧雲木岩萬壽大明](#)
- [寄杲宗二侍者](#)
- [寄旻春谷](#)
- [寄演福大用](#)
- [寄覺宗聖敏仲虜起滅宗](#)
- [次東山無際送玫侍者來靈岩韻](#)
- [贈中竺時首座](#)
- [懷龍華會翁福臻希文](#)
- [次雪竇華國韻贈明首座](#)
- [送光侍者歸廣化](#)
- [送觀首座歸三祖](#)
- [贈雲藏主默誦蓮經](#)
- [送天台玄藏主之江西](#)
- [華頂天心同塢大章至出似懷蘊恕中之什次韻二首一以為東遊之贈一以簡能仁用章天章用貞](#)
- [次韻答圓通約之時留天章](#)
- [次前韻答天章用貞文明天民](#)
- [次前韻寄能仁用章寶林別峯](#)
- [國清栖雲閣](#)
- [贈天寧壽首座](#)
- [懷天封一宗龍華友石](#)
- [次韻答芷首座](#)
- [萬壽愚隱先天瑞嫡孫開法中吳未阜修賀先勤書問侑以湯濟因過其孫仁壽天澤閱白馬元明偈和二首一以謝愚隱一以贈天澤庶延聖剛中見之同一笑也](#)
- [松月翁佛生成道涅槃梅檀像觀音五偈善禪人求和](#)
- [送可上人歸省隆教古鼎](#)
- [次韻答伯儀張教授](#)
- [贈函書記](#)
- [贈端禪人默蓮經](#)
- [次韻送心侍者](#)
- [和晦機和尚韻贈定上人](#)

- [和松月法兄韻送明首座游五臺](#)
- [次韻送阜上人](#)
- [送顯維那禮五臺](#)
- [次韻贈蔣山輔侍者](#)
- [送緣藏主之金陵](#)
- [示昂禪人](#)
- [次韻贈志侍者](#)
- [次韻贈本侍者](#)
- [次韻送宗侍者再參蔣山](#)
- [次韻送檀維那](#)
- [次韻悼感聖雲菴](#)
- [勉菴贈邵上人](#)
- [鈍潛贈穎上人](#)
- [次蔣山正宗韻送琦侍者](#)
- [竺元和尚山謳四首壽藏主求和](#)
- [禮應菴祖塔](#)
- [禮大梅祖塔](#)
- [和皎首座雜言韻](#)
- [送光知客歸雙溪](#)
- [悼報國希白和尚](#)
- [送德茂鑑三禪人禮祖](#)
- [和竺元和尚閑居雜言韻](#)
- [示僧](#)
- [送僧](#)
- [次韻悼華頂無見和尚](#)
- [送魁藏主歸省竺元和尚](#)
- [送靜維那歸越上](#)
- [析玉峯講主送小師皓侍者偈](#)
- [送相胤慧明四禪人之金陵](#)
- [送炬禪人歸省瑞岩萬里](#)
- [次韻示興平二禪客](#)
- [病中](#)
- [追和西丘太師祖梅屋偈韻](#)
- [送脩知客](#)
- [送靜上人歸雲門](#)
- [送忠侍者省師](#)
- [和訥無言十二時歌韻](#)
- [四威儀](#)

- [次韻送滿鎮成康四上人](#)
- [送金山栢首座禮峨眉](#)
- [資福道元法兄惠筆且謂少助貫華之興答以二偈](#)
- [癡絕翁所磨白雲端祖山居偈忠藏主求和](#)
- [送訢藏主禮永安塔](#)
- [寄報忠直菴](#)
- [寄謝石山孤月雪山](#)
- [贈宗嵩妙三上人](#)
- [送尹侍者](#)
- [次天寧空海韻送珂維那](#)
- [送南華立首座](#)
- [雨窗示聚上人](#)
- [悼建長竺仙法兄](#)
- [送心侍者省雲岩](#)
- [送明藏主游廬山](#)
- [送壽首座](#)
- [聞北山悅堂歸東禪兼簡永懷岳雲](#)
- [次韻答中山行可西國古航四友](#)
- [次松月法兄韻送行宏二上人](#)
- [覺首座送松月翁遺硯至作偈贈之](#)
- [次淨慈平山贈祖灑首座韻](#)
- [次龜峯道元韻悼薦福竺源禪師](#)
- [寄九巖道純兼簡石佛清遠](#)
- [聞明巖穆菴出世](#)
- [送忠藏主](#)
- [寄景山岳雲](#)
- [悼定慧大方](#)
- [兵後過三塔即事](#)
- [次韻答景山南洲](#)
- [志清隱至贈以四偈](#)
- [次韻答雪崖](#)
- [次前韻答芷首座](#)
- [懷仲文覺民一宗三弟](#)
- [次韻答景德雲海法兄](#)
- [常山銘贈直藏主](#)
- [坐禪銘示琳藏主](#)
- [虔白銘示杲侍者](#)
- [瑞田銘贈祥上人](#)

- [清隱銘贈志藏主](#)
- [少林銘贈効藏主](#)
- [友石銘贈琪侍者](#)
- [此宗銘贈任首座](#)
- [竺先銘贈元侍者](#)
- [聽松軒銘贈聞首座](#)
- [北窻銘贈旻首座](#)
- [西軒銘贈立信中](#)
- [蒲室銘示毅本中](#)
- [心華室銘贈吾藏主](#)
- [直際銘贈詣首座](#)
- [覺照銘](#)
- [硯銘并序](#)
- [性空銘](#)
- [密室銘](#)
- [太冶銘](#)
- [介石銘](#)
- [則堂銘](#)
- [知足軒銘贈燈藏主](#)
- [鑑止軒銘](#)
- [性空銘](#)
- [白雲山舍銘贈墳書記](#)
- [涵春室銘](#)
- [山堂銘](#)
- [法語](#)
 - [示欽維那](#)
 - [示寶藏主](#)
 - [示杲藏主](#)
 - [示快藏主](#)
 - [示景維那](#)
 - [示世侍者](#)
 - [示煜藏主](#)
 - [示化主](#)
 - [示芾藏主](#)
 - [示道侍者](#)
 - [示琮藏主](#)
 - [示胤侍者](#)
 - [示興藏主](#)

- [示燈藏主](#)
- [示覺首座](#)
- [示暢藏主](#)
- [示祖灑首座](#)
- [示壽藏主](#)
- [題跋](#)
 - [羅漢圖](#)
 - [佛果禪師書](#)
 - [大慧和尚墨蹟](#)
 - [五尊宿直跡](#)
 - [妙喜禪師聖徒首座二帖](#)
 - [宋孝廟賜佛照禪師御札](#)
 - [佛照禪師墨跡](#)
 - [別峯塗毒二禪師手澤](#)
 - [塗毒禪師墨跡](#)
 - [佛燈珣和尚墨跡](#)
 - [長靈卓和尚手帖](#)
 - [慈受深禪師偈](#)
 - [應菴和尚送中峯偈](#)
 - [張魏公所書心經](#)
 - [陸放翁所製無用禪師語錄序](#)
 - [密菴和尚墨跡](#)
 - [松源老祖家書](#)
 - [中峯老祖廣錄](#)
 - [無準和尚筆蹟](#)
 - [西丘和尚朴翁禪師吟藁](#)
 - [此菴師祖手帖](#)
 - [山寮雜言](#)
 - [溫日觀手書大慧禪師過移忠小詞](#)
 - [幻住禪師贈高麗瀋王十偈](#)
 - [古林和尚小參](#)
 - [江山萬里圖](#)
 - [孤雲翁書雲峯禪師小參](#)
 - [佛果老祖示冲老法語](#)
- [癡絕和尚書應菴師祖法語](#)
- [靈源癡絕二禪師二帖](#)
- [陸放翁小簡](#)
- [陸放翁所作海淨大師塔銘](#)

- [No. 1414-B 慈雲普濟禪師了菴欲公行道記](#)
- [No. 1414-C](#)
- [No. 1414-D](#)
- [南堂和尚語錄續集](#)
 - [No. 1414-E 南堂和尚語錄續集序](#)
 - [無言住能仁江](#)
 - [一宗主護國同門](#)
 - [則方岩住圓覺三宗](#)
 - [石室住育王](#)
 - [南堂住靈岩嘉興諸](#)
 - [開南堂和尚語錄板](#)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No. 1414-A 南堂了菴禪師語錄序

予壯齡時。與千巖長公。為方外交。千巖以南堂禪師偈贊示予。予讀之。驚曰。是有所證悟者之言也。絕枝蔓。去町畦。而不墮於情識之境。不意大法凋零。而能見斯人哉。千巖以予言為然。當時之所見。僅一二章耳。自時厥後。或吳或楚。或梁宋。或魯衛。名僧開士。多有謁予浦陽江之上者。予既見輒問。見南堂否。曰見之。曰有何言。遂各解囊相示。見漸多。則其心慕之。為愈至。及來京師。其弟子祖灑海壽。復持三會語。畀予而求為之序。讀之連日。因獲盡其大觀焉。嗚呼。據獅子座。演如來法。其任甚不輕也。在他人為之。東剽西掠。拈綴成篇。而椎鑿之痕故在。師則渾融無跡。不異雲流而天空者矣。在他人。為之拘滯一隅。動輒有礙。或得乎此。竟遺於彼。師於殺活之機。縱橫皆自如矣。在他人。為之氣索神沮。不自振拔。而無以應來學之求。師乃圓滿充足。覃及於諸方矣。有若師者。其所造詣。誠非凡情之可度量哉。夫以少林西來。惟究心源。言辭直截。初無隱晦。傳至大鑿。恐為世諦流布。不得不秘護。而密持之。歷代碩師。隨時升降。慈憫峻厲。各立戶庭。其接引雖若有不同。所以祛逐妄緣。而挽入正途者。則一而已矣。迨及宋季。尚奇騁異。背其師授。而流於頗僻者。漸多有之。君子言之。未嘗不為之太息。師能循蹈矩矱。惟祖武是繩。提唱真乘。使人復見大鑿遺意。其扶樹正宗之功。夫豈小哉。予之慕師非一日。鉅細之辭。皆獲觀焉。故知師為獨深。而謂非他人之所能及。然可惜者。師之名位。不滿於德。使其說法五山。布鬣鬣之慈雲。澍滂沱之教雨。則其功逮被。又不止今之所見而已。雖然名外也。非內也。德內也。非外也。師內重而外輕者也。苟以在外者之崇卑。以為在內者之低昂。是不知師者也。師之行業。予既詳書成記。勒之堅珉。復為讀斯錄者。著其說如此。千巖在定光中。又未必不以予言為然也。師諱清欲。字了菴。南堂其號也。族姓朱氏。台之臨海人。嘗住開福本覺靈巖三禪剎云。

洪武三年歲次庚戌春二月辛酉朔。翰林學士亞中大夫知制誥兼脩國史金華宋濂景濂序。

了菴和尚語錄目次

- 卷第一
 - 宋濂序
 - 集慶路中山開福禪寺語錄

- 卷第二
 - 嘉興路本覺禪寺語錄
- 卷第三
 - 平江路靈巖禪寺語錄
- 卷第四
 - 舉古
- 卷第五
 - 頌古
 - 贊語
- 卷第六
 - 偈頌
- 卷第七
 - 偈頌
- 卷第八
 - 法語
- 卷第九
 - 題跋
 - 宋濂撰行道記
 - 正印撰跋
- 附錄
 - 至仁撰續集序
 - 續集
 - 行狀

No. 1414

了菴和尚語錄卷第一

初住集慶路中山開福禪寺語錄

參學比丘 一志 元皓 等編

天曆二年七月十八日入寺。指山門云。我此法門。直出直入。中下之流。自望不及。喝一喝。佛殿。世尊拈華。迦葉微笑。咄。賴有文殊與普賢。熨斗煎茶不同銚。據室。真不掩偽。曲不藏直。石裂崖崩。雷轟電激。轉得身來。未有棒喫。喝一喝。諸山疏。一佛出世。各坐一華。接影連輝。互不相借。

山門疏。有主有賓。有酬有唱。坐斷舌頭。一椎兩當。
指法座云。須彌燈王。面目見在。未善觀瞻。為吾作禮。便陞座。
拈香云。此香。恭為祝延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次拈香
云。奉為見住保寧禪寺。古林大和尚。一爐爇却。不圖報德酬恩。
只貴遞相鈍置。遂就座。無想和尚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
義。師乃顧視大眾云。只此一會。不異靈山。莫有為眾竭力者麼。
僧問。丹山鸞鳳九苞文。地位清高隔五雲。四海具瞻時一見。願聞真
唱答。

明君。師云。千峯朝華岳。萬派肅滄溟。進云。萬方有道歸。
明主。一句無私利有情。師云。黃河九曲。水出崑崙。進云。祝贊
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云。眼不見鼻孔。進云。曹溪流
非止水。一滴忽來千波競起時如何。師云。退後退後。進云。平生
不解藏人善。到處逢人說項斯。師云。莫謗山僧好。又僧問。天不
言四時行。地不言萬物生。學人有疑。願聞開示。師云。萬人遐仰
處。紅日到天心。進云。野老不知堯舜力。鑿鑿打鼓祭江神。師
云。眼見如盲。口說如啞。進云。千古華山山脚下。又添潘閻倒騎
驢。師便喝。僧禮拜。師乃云。建法幢立宗旨。拓開無上妙門。顯
示第一義諦。天何寬地何窄。青山不青。白雲不白。十字街頭醉翁
子。夢裡惺惺。三家村裡臭胡孫。甚生標格。掀翻是非窠窟。截斷
凡聖蹤由。德山棒頭全彰大用。臨濟喝下脫體風流。垂衣正裳。
聖天子繼唐虞之化。修文偃武。賢宰相霽霖雨之秋。所以道一毛見
神變。一切佛同說。經於無量劫。不得其邊際。喝一喝云。將謂合
有恁麼說話。拈拄杖云。拄杖子穿過諸人鼻孔。即不問。梁寶公。
騎佛殿出山門。畢竟成得箇什麼事。卓拄杖云。千尺鯨噴洪浪飛。
一聲雷震清森起。

復舉祖師云。吾本來此土。傳法救迷情。一華開五葉。結果自然
成。五祖法演和尚云。達磨大師。信脚來信口道。後代兒孫。多成
計較。諸人要會開華結果處麼。鄭州梨青州棗。萬物無過出處好。
師云。提本分鉗鎚。碎情解窠窟。還他五祖老人。要見開華結果
處。則大遠在。諸人要會開華結果處麼。拈却鄭州梨。放下青州
棗。出門便是長安道。久立珍重。

小參。鳳凰臺上對三山。嘯月眠雲趣自閑。一疏忽從天外至。又移
身入鬧籃間。是知道人行處。如火消冰。動靜去來。該他不著。一
抽三二添四。截鐵斬釘。和泥合水。有來由無本據。擊碎上頭關。
千華生碓觜。豈不見。長沙和尚云。百尺竿頭坐底人。雖然得入未
為真。百竿尺頭重進步。十方世界見全身。拈拄杖云。騎駿馬驟高
樓。萬里銀河鞦韆玉毬。卓拄杖云。有時乘好月。不覺過滄洲。

復舉德山小參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德山劈脊便棒。僧云。某甲話也未問。因甚便打。山云。你是甚處人。僧云。新羅人。山云。未跨船舷。好與三十棒。後來此菴元和尚拈云。忒殺倚勢欺人。山僧見處。也要諸人共知。者僧當時若是箇漢。待他道你是甚處人。便與掀倒禪床。踢起便行。直饒德山牙如劍樹。口似血盆。也須倒退三千。何故。識法者懼。師云。德山正令當行。者僧點兒落節。若謂倚勢欺人。屈他先德不少。雖然。還知此菴老人落處麼。劍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餅。

中秋上堂。舉馬祖與西堂百丈南泉翫月次。祖云。正與麼時如何。堂云。正好供養。丈云。正好修行。泉拂袖便行。祖云。經歸藏禪歸海。唯有普願。獨超物外。師云。言氣相投。機感相應。古今盡謂翫月話奇特。殊不知。馬大師憐兒不覺醜。若也據令而行。者一隊弄光影漢。總好與本分草料。免見門戶寂寥。拍禪床云。禹力不到處。河聲流向西。

上堂。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是什麼字。師云。點畫分明。進云。曾有問地藏。藏云。看取下面註脚。且道。註脚道什麼。師云。未會註脚。且看正文。進云。如何是正文。師云。以字不成。八字不是。進云。和尚莫瞞人好。師云。你曾問幾人來。進云。即今問和尚。師云。却是你瞞我。僧禮拜。師乃云。參禪須透祖師關。妙悟要窮心路絕。殺人劍下驀翻身。活人刀邊流出血。曜靈寒顧兔熱。四七二三難辨別。別別。使八極頂目者不自爭衡。見斯人兮駕御昂枿。

上堂。舉白雲示眾云。金蕖叢叢帶露新。采來烹茗賞佳辰。浮盃何必須宜酒。但有清香自醉人。師云。白雲老人。大似巧媳婦做出無麪饅頭。惜乎知味者少。開福効顰亦有一偈。重陽黃菊未成花。落帽無勞憶孟嘉。但得青山長在眼。不妨流水去無涯。

上堂。今朝九月半。萬事隨時變。霜風刮地來。木葉盡零亂。古人道。要識不還義。但向萬物凋落處會取。是你諸人會也未。若也會得。旋嵐偃岳而常靜。江河競注而不流。野馬飄鼓而不動。日月歷天而不周。其或未然。只知事逐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

上堂。即心即佛。非心非佛。不是心。不是佛。不是物。靈光洞耀。迥脫根塵。躄露真常。不拘文字。天開地闢。日照月臨。新羅國裡打鐵。火星燒你脚跟。賓頭盧尊者。忍痛不禁。鑽入阿耨達池中去也。唵摩尼達哩悉哩蘇盧。

上堂。歸宗事理絕。日輪正卓午。自在如師子。不與物依怙。看他古人。得恁麼自在。得恁麼快活。開福者裡。波波挈挈。百醜千拙。即事即理。拖泥帶水。手指東西。眼觀子午。喝下驚翻踈屎

豬。棒頭敲出金師子。且道。與古人是同是別。相逢自有知音知。何必清風動天地。

客至上堂。摩尼珠人不識。如來藏裡親收得。萬象森羅影現中。一顆圓光色非色。永嘉大似乞兒暴富。開福道。摩尼珠誰不識。擊碎分文也不直。拋向虛空更那邊。免使時人掛胸臆。然則雲開日出。職到威成。撞著本色道流。恰似泗洲人見大聖。

小參。坐立儼然。賓主歷然。百千法門。同歸方寸。河沙妙德。總在心源。直得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又說甚晷運推移。日南長至。禪之與道。拈放一邊。妙之與玄。置之一處。山僧不作佛法商量。諸人不作世諦流布。明朝起來淨洗了面。大佛殿上禮拜燒香。依舊只是尋常事例。縣橋頭李八伯。半醒半醉。不覺起來。呵呵大笑。且道。笑箇甚麼。壁上安燈盞。堂前置酒臺。悶來打三碗何。處得愁來。

復舉洞山冬夜喫菓子次。山云。有一物上拄天。下拄地。過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過在什麼處。泰首座云。過在動用中。山喚侍者。掇退菓卓。師云。大阿橫按。凜凜神威。寶鑑當臺。澄澄光采。只如掇退菓卓。又作麼生。雲自帝鄉去。水歸江漢流。

小參。真宗絕眈。妙道虛玄。一句截流。萬機寢削。釋迦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須菩提唱無說而顯道。天帝釋絕視聽而雨華。鈎頭有餌。秤尾無星。據令而行。總須按過。開福今夜年窮歲盡。搥三通鼓。聚集片時。不似北禪烹露地白牛。大驚小怪。張龍打鳳。漉蜆撈蝦。但願。明年蚕熟麥熟稻熟。鼓腹謳歌樂太平。六六還佗三十六。

復舉僧問古德。年窮歲盡時如何。德云。東村王老夜燒錢。師頌云。東村王老夜燒錢。爆竹聲中又換年。好是門前泥力士。不將閑事污心田。

上堂。一二三四五。五四三二一。渡水不穿靴。黃昏候日出。元正啟祚。萬物咸新。看取千花生碓觜。太平元不在麒麟。

天壽聖節滿散上堂。摩醯正眼。洞徹十虛。迦陵仙音。徧周沙界。標三才而建立。舉四海而安之。續列聖之否圖。膺靈山之付囑。摧怨破敵。運金剛輪。發政施仁。作師子吼。當流虹之瑞旦。慶萬世之昌期。然則蕢桴土鼓。共樂升平。堯舜之君猶有化在。所以道。向上一路千聖不傳。萬仞崖頭。縱橫得妙。卓拄杖云。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元宵上堂。鏡鏡交輝。燈燈相燭。境智互融。事理俱備。喚作華藏性海。正是平地揚波。直饒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時節。便恁麼去。法堂前何止草深一丈。放過一著。有箇商量。山門新舊知事。隨年進退。因時

請得。首座表率。維那舉唱。洗光佛日。重整頹綱。見前諸德。一一循規守矩。人人舍短從長。信手揭開釋迦老子青蓮華眼。徐步踏著達磨大師生鉄脊梁。有底碩學飽參。與汝證據。無底良辰美景。與汝敷揚。以拂子畫一畫云。好事不須頻話會。留將和氣暖肝腸。上堂。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釋迦老子不唧[口*留]。十萬里來。九年面壁。直指人心。見性成佛。達磨大師不唧[口*留]。朝往天台。暮歸南岳。撥草擔風。尋師訪道。衲僧家不唧[口*留]。拈拄杖卓一下云。離四句絕百非。動用揚古路。不墮悄然機。喝一喝。

上堂。國師三喚。侍者三應。可謂形直影端。及乎道箇將謂吾孤負汝却是汝孤負吾。便見分疎不下。且譎訛在什麼處。者裡悟去。非唯識得國師。亦表參學眼正。其或未然。三十年後。不得道見開福來。

聖旨至上堂。久晴不雨。田夫皺斷眉頭。久雨不晴。衲僧浸爛鼻孔。進一步撞倒百億須彌山。退一步踏翻無邊香水海。且截斷千差。孤危不立一句。作麼生道。好大眾。疊疊 綸音下九天。融融春意滿林泉。一爐沈水一聲佛。仰祝吾 皇億萬年。

浴佛施主羞供上堂。身口意清淨。是名佛出世。身口意不淨。是名佛滅度。有般說話。譬如懸百千日月於青冥之中。阿誰不見。阿誰不知。因什麼十箇有五雙。當面蹉過。且利害在什麼處。山僧明明向你道。只為你信根少。你若信得及了。推而行之。便是出三界二十五有之日。便是證十地滿心之時。所以大覺世尊。從無始劫。發菩提心。積功累德。難行能行。難舍能舍。勇猛精進速得成佛。看他從兜率陀天。駕日輪香象。入摩耶夫人胎藏中。處旃檀寶樓閣。與諸菩薩說受生法。滿足十月。於毗藍園無憂樹下。右脇降誕。當是時也。十方佛刹。同放寶光。九龍吐香水。灌沐金色身。地湧青蓮華。自然捧雙足。南北及東西。各行於七步。分手指天地。作大師子吼。上下及四維。無能尊我者。豈不是大丈夫兒。成就大丈夫事。汝等諸人。幸生聖世。得聞正法。快須信取。勤而行之。設或暫肯回光。則山僧鼓兩片皮。搖三寸舌。不為分外。施主辨供。功有所歸。擊拂子云。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

小參。有問有答。有佛有法。無問無答。佛法在什麼處。豎起拂子云。還見麼。擊拂子云。還聞麼。聞見歷然。是箇什麼。莫忽忽休草草。燈籠皺斷眉頭。露柱呵呵大笑。昨日生今日老。兩手競拏瓶裡雀。頂門失却冲天鷄。又擊拂子云。龐居士來也。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喝一喝。春風得意馬蹄疾。一日看盡長安花。

復舉僧問睦州。一言道盡時如何。州云。老僧在你鉢囊裡。又問雲門。門云。裂破。師云。二老各逞神通。却被者僧勘破。有問開福。只向他道。相逢且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久立。

上堂。十四十五。考鐘伐鼓。結却布袋頭。剎海無行路。日不待火而熱。月不待風而涼。是人知有。南斗七北斗八。一句又作麼生道。良久云。幸然平似鏡。何用曲如鈎。

上堂。十五日已前。有得有失。有長有短。十五日已後。無高無下。無黨無偏。正當十五。洞裡無雲別有天。桃華如錦柳如綿。仙家不解論冬夏。石爛松枯是一年。

上堂。舉五祖和尚云。難難幾何般。易易沒巴鼻。好好催人老。默默從此得。過者四重關了。泗洲人見大聖。參。師云。山僧即不然。難難沒多般。易易有巴鼻。好好元不老。默默無所得。過者四重關了。普州人送賊。喝一喝。

上堂。識得一萬事畢。衲僧手裡秤錘。無端捻得汁出。拋三放兩有箇商量。不覺秋深夜又長。

小參。道大不有。功成不居。作無所作。為無所為。會萬物于自己。與千聖而同途。九旬制滿。自恣當時。誰遠誰近。誰是誰非。文殊大士。三處度夏。迦葉尊者正令全提。一人脚跟下痛領三十。一人頂門上猶欠一錐。者兩箇老漢。諸方決定放渠不過。山僧者裡寬之有餘。好大哥。不思議解脫力。妙用恒沙也無極。百草頭邊活祖師。一言勘破維摩詰。

復舉應菴和尚云。參學人切忌錯用心。悟明心地。是錯用心。成佛作祖。是錯用心。看經講教是錯用心。行住坐臥。語言三昧。是錯用心。喫粥喫飯。屙屎送尿。是錯用心。一動一靜。一來一往。是錯用心。更有一處。是錯用心。歸宗不敢與諸人說破。何故。一字入公門。九牛拽不出。師云。好箇一字入公門。九牛拽不出。妙喜云。華姪提唱。為人徑捷。便是者箇道理也。雖然。只解理上掃除。不解事上建立。山僧道。參學人直須善用心。悟明心地。是善用心。成佛作祖。是善用心。看經講教。是善用心。行住坐臥。語言三昧。是善用心。喫粥喫飯。屙屎送尿。是善用心。一動一靜。一來一往。是善用心。所以道。於一切處善用其心。自然獲諸勝妙功德。諸人若能善用心。便知錯用心。若知錯用心。便能善用心。還信得及麼。今年桃李貴。一顆直千金。

上堂。解制諸方有舉揚。中山一切只尋常。尋常恰似秋風至。無意涼人人自涼。豈不見。趙州問南泉。如何是道。泉云平常心是道。州云。還假趣向否。泉云。擬向即乖。州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覺。不知是無記。若真達不疑之道。廓然蕩豁。如太虛空。豈可強是非耶。者般說話。正如鬧市裡

颺碌磚相似。直是著者方知。趙州既是打著。當下如暗得燈。如貧得寶。如渡得船。如賈客得海。粉骨碎身未足酬。一句了然超百億。如今者一片磚。落在山僧手裡。自去年此時離鳳臺來此。十字街頭東拋西擲。只是未曾輕輕打著一人。擊拂子云。黃河三千年一度清。

宣州天寧遺書至。上堂。鉄牛吼破雙溪月。石女含笙悲不徹。鶻眼龍睛總不知。聾子親聞啞人說。山僧二十年前。親見草庭老子。向萬仞崖頭。拾得箇斷貫索。到處穿他天下宗師鼻孔。及乎應緣而出瑞世天寧。水到渠成。風行草偃。又却用此索。穿他天下衲僧鼻孔。化緣既畢。奄爾真歸。撒手那邊。全無朕跡。所以道。聲前非聲。色後非色。蚊子上鉄牛。無你下觜處。山僧今日不免倒行此令去也。小間下座。詣靈前燒一炷香。點一盞茶。却與他穿了鼻孔。何故。喫拳須記打拳時。下座。

上堂。趙州喫茶。睦州擔板。喝水成冰。蒸沙作飯。披萬象獨露全身。破微塵出大經卷。拈拄杖云。權實空有。偏圓半滿。百般製造由人。到底無過是麪。卓拄杖。喝一喝。

上堂。深不深密不密。昨夜三更黑如漆。海神推出夜明符。萬象莫能逃形質。釋迦自釋迦。彌勒自彌勒。達磨老臊胡。何處尋蹤跡。刹竿頭上禮西方。九蓮開作黃金色。喝一喝。

上堂。心王不妄動。六國一時通。罷拈三尺劍。休弄一張弓。古人可謂運籌帷幄。決勝千里。山僧即不然。五鳳樓前聽玉漏。須彌頂上擊金鐘。一毛頭上三千界。雲月溪山處處同。

開爐上堂。今朝十月旦。開爐無獸炭。倒轉死柴頭。光明何燦爛。三世諸佛在此光裡轉大法輪。六代祖師在此光裡聯芳續焰。天下老和尚在此光裡各立門庭。光光相羅。如寶絲網。大用現前。清機歷掌。有功者罰。無功者賞。引水澆蔬五老前。披蓑側笠千峯上。喝。

上堂昨日十四今日十五。大法難明。時光易度。動則涉塵勞之境。靜則沈昏醉之鄉。動靜雙泯則落空亡。動靜雙收則顯預佛性。到者裡。須知有透脫一句始得。拈拄杖云。倒跨楊岐驢。蹈殺長沙虎。擲下拄杖云。三歲孩兒抱花鼓。莫來攔我毬門路。

上堂。舉寒山子道。我見瞞人漢。如籃提水走。急急走歸家。籃裡何曾有。保寧勇和尚舉了拍手大笑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云。然則下坡不走。快便難逢。保寧老漢脚跟下。好與三十棒。

小參。僧問。仲冬嚴寒年年事。晷運推移事若何。師云。昨夜日輪飄桂華。今朝月窟出芝草。進云。仰山近前叉手。意旨如何。師云。奴見婢殷勤。進云。香巖叉手近前。又作麼生。師云。大家廝

滬[泳-永+盾]。進云。去此二途。請師別道。師云。無人處斫額望汝。師乃云。朕兆未分。陰陽已具。乾坤既剖。萬彙茲彰。水肅霜清。風高木落。突出無位真人。一箇箇面前孤迥迥地。新羅國裡打鼓。大唐國裡上堂。洗面摸著鼻。啜茶濕却鬚。七十三八十四。把住雪峯趙州。放過德山臨濟。倒著襌衫舞柘枝。萬仞峯前恣遊戲。喝一喝。

復舉圓悟和尚示眾云。到即不點。一大藏教錦上鋪花。點即不到。祖師西來金聲玉振。且祖意教意是同是別。碧潭雲外不相關。師云。老佛果。只解步步登高。不解從空放下。人前一味拍盲。豈信弄真像假。山僧與麼批判。諸人還證明得麼。良久。捧上不成龍。上堂。華綻老梅。日南長至。笋迸陰崖。吉無不利。東隣西舍鐘鼓喧天。後巷前街笙簧聒地。冷風吹帽正中偏。顛雨打窗粗裡細。是非榮辱何似生。瞎驢不受靈山記。

客至上堂。三世如來同一舌。大藏教中無法說。衲僧手裡定盤星。萬里長天耀孤月。首座有長處。且不循途轍。荊棘林中放步行。拔出時人釘根橛。

先保寧和尚忌日拈香。出黃泉又入黃泉。穴鼻無繩不受牽。倒轉一枝無孔笛。蘆華明月滿平川。你諸人。還知我老和尚落處麼。卷四大海水于舌端。不見涓滴。置微塵刹土於毛孔。囊括大千。總謂其嫌白雲之語拙。愛五祖之說禪。夫豈善用黑豆之活法。契鷲峰之正傳。以香扣爐云。相席打令。飲水思源。盤山會裡翻筋斗。到此誰知普化顛。

上堂。竺土大仙心。東西密相付。以字既不成。八字亦不是。昨夜三更虎咬大蟲。今早起來蛇吞鼈鼻。拍禪床云。有利無利不離行市。生鉄秤錘却被虫蛀。喝一喝。

臘八上堂。日日佛誕生。日日佛成道。空裡無華折去難。水中有月看來好。賣狗懸羊。一體三寶。垢面蓬頭輓出時。何異大虫裹紙帽。咄。

天壽節啟建上堂。煩惱無邊誓願斷。法門無邊誓願學。眾生無邊誓願度。佛道無邊誓願成。釋迦老子三大阿僧祇劫修習。所得法門不出者四句子。堪報不報之恩。用助無為之化。所謂我此法印。為欲利益世間故說。今日啟建金剛道場。山僧亦有四弘誓願。一願皇帝萬歲。二願重臣千秋。三願海晏河清。四願民康物阜。金香爐下鉄昆崙鼻孔遼天。山門頭樓至德如來兩脚踏地。蕢桴土鼓賀堯年。紫煙匝匝祥風至。

上堂。天清地寧。時康道泰。興化令行。漆桶不快。高唱低酬。貴買賤賣。寄語諸方。不要捏怪。下座。

小參。利劍拈來斬是非。何妨高駕鉄牛機。東村王老燒錢夜。正是年窮歲盡時。事存函蓋合。理應箭鋒拄。鬼家活計不要施呈。大丈夫兒別有天地。我若坐時你須立。你若立時我須坐。趙州勘破臺山婆。子湖要打劉鐵磨。千古萬古黑漫漫。一曲胡笳少人和。元旦上堂。昨日是歲除。今朝是正旦。送舊與迎新。司空曾見慣。卓拄杖。六龍已駕隨羲和。四海八荒光燦爛。天壽節滿散上堂。萬法是心光。諸緣唯性曉。本無迷悟人。只要今日了。且道。了箇什麼。良久云。甲辰正月十一日。大元天子降生時。剎海塵毛咸稽首。萬年松長萬年枝。上堂。二三月來。天氣和暖。常憶真淨老師。偏愛說長話短。又爭如東山老人哈歌頻打拍板。烏雞走入鵝群。鴨兒凍得觜匾。水面或沈或浮。何時解成瑚璉。大眾還會麼。三面狸奴腳踏月。兩頭白牯手拏煙。戴冠碧兔立庭栢。脫殼烏龜飛上天。上堂。千波競起是文殊家風。一亘晴空是普賢床榻。且毗盧師法身主。又作麼生言論。直饒道得個儻分明。衲僧門下。未放你在。何故。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拍禪床下座。浴佛上堂。釋迦文也希有。脫珍御著弊垢。降王宮開大口。老雲門真傑斗。一棒打將餵狗。山僧擊鼓陞堂。豈是自揚家醜。少間殿上沐浴金軀。也要諸人各出隻手。會麼。風吹石臼爭哮吼。泥捏金剛水底走。蹈翻海月爛波生。驚起土星犯北斗。喝一喝。小參。擘開太華逗黃河。直下商量不較多。推起一輪滄海月。三山倒影蘸清波。理隨事變。狸奴白牯同證菩提。事得理融。十聖三賢一場懨懨。長期百二十日。中期百日。下期八十日。釋迦老子。將你諸人。束縛了拋向萬仞坑裡。克由耐耐。設有一箇半箇翻身一擲抹過太虛。方知道。眼若不睡。諸夢自除。心若不異。萬法一如。火聚刀山平等性智。紅塵鬧市任性安居。卓拄杖云。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復舉僧問古德。寒暑到來。却向甚麼處回避。德云。鑊湯爐炭裡回避。僧云。鑊湯爐炭裡。作麼生回避。德云。眾苦不能到。師云。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上堂。四月十五結。七月十五解。解結本同心。無縛無脫者。以拄杖敲香臺云。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現在諸菩薩。今覺入圓明。未來修學人。當依如是法。卓拄杖。白鷺下田千點雪。黃鸝上樹一枝花。上堂。僧問。鐘樓上念讚。床脚下種菜。意旨如何。師云。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進云。畢竟如何。師云。平蕪盡處是青山。行人更在青山外。僧禮拜。師乃云。喫飯療飢。飲酒圖醉。本色衲僧

討甚巴鼻。鐘樓上念讚。床脚下種菜。卓拄杖云。平蕪盡處是青山。行人更在青山外。

上堂。拈拄杖云。一處不通。兩處失功。兩處不通。觸途成滯。卓拄杖云。一拳拳倒黃鶴樓。一躍躍翻鸚鵡洲。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擲下拄杖。下座。

上堂。久晴喜雨。久雨喜晴。

太元天子。坐致太平。遽起身云。萬歲萬歲萬萬歲。下座。

上堂。舉睦州看華嚴次。僧問。和尚看什麼經。州云。青色光明雲。紫色光明雲。大光明雲。那邊是什麼雲。僧云。黑雲。州云。今朝定有雨。師云。奇怪諸禪德。惺惺底直是惺惺。惺惺底直是惺惺。會麼。拍禪床云。三冬鐵樹滿林華。六月黃河連底凍。喝一喝。

上堂。一葉落。天下秋。百川東到海。何時復西流。朝錄錄暮悠悠。看看白盡少年頭。拈拄杖云。用楔出楔。看樓打樓。卓拄杖。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擲下拄杖。

小參。佛懽喜僧自恣。萬人叢裡奪高標。到頭恰似小兒戲。雪峯鞦韆三箇木毬。仰山推出枕头。蛇頭揩痒。虎頰編須。不有師子爪牙。便見橫尸萬里。是你諸人九十日內。渴飲飢餐早眠晏起。既云識果知因。且免破規越矩。卓拄杖云。水東流日西去。三更五更唱巴歌。無端驚起梵王睡。喝一喝。

報恩長老至上堂。今朝十月一。天寒下暖簾。黃昏一覺睡。南海出榆柑。好大眾。稱性說法。本分鉗鎚。往往諸方。只作無事會了。所以道。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者是好手。不是南宗和尚到來。開福決定無因開口。何以如此。醍醐上味。為世所珍。遇斯等人。翻成毒藥。卓拄杖云。入荒田不揀。信手拈來草。撞著大哥妻。元來是嫂嫂。喝一喝。

上堂。一即一切。一切即一。一心不生。萬法俱息。拈拄杖云。祖師鼻孔在者裡。卓拄杖云。穿過諸人髑髏。擲下拄杖云。更嫌何處不風流。喝一喝。

上堂。日日日。時時時。龍門老。心自知。日日日。時時時。開福老。都不知。唧嗚咿。牧童嶺上一聲笛。驚起群鴉繞樹飛。

小參。明朝冬至。今夜小參。燈籠發問。露柱指南。一箇道有佛有法。一箇道無二無三。兩箇亂呈懵袋。無非誑謔閭閻。若也據令而行。總須貶向二鐵圍山。幸而拄杖子有箇方便。與伊解結釋冤。乃拈拄杖云。俺部臨俺齒臨。強中強吉中吉。一切不初心真實。卓拄杖。喝一喝。

上堂。宗門有三句。未舉先分付。更擬問如何。知君太莽鹵。雖然。更為你註解一遍。法鼓未鳴。諸人未集。是第二句。即今坐立

儼然。說黃道異。是第三句。作麼生是第一句。若也道得。許你應時納祐。若道不得。路從平處險。人向靜中忙。喝一喝。

上堂。三四五六七八九。釋迦老子不知有。雪山六載眼眯麻。錯認南箕為北斗。一毛頭上見全身。百億毛頭誇好手。堂前鐵鋸舞三臺。嶺上石人開笑口。喝一喝。

上堂。夜來州中琴堂上搬雜劇。也有端嚴奇特。也有醜陋不堪。鬼面神頭亦自好笑。且道笑箇什麼。我觀世間人。是箇大雜劇。所謂。文武醫卜。士農工商。各逞己能。互相欺誑。逗到臘月盡頭。不覺一場敗闕。具眼旁觀。掩口不暇。喝一喝云。元正啟祚。萬物咸新。岸柳搖金梅破玉。萬邦一氣轉洪鈞。下座巡堂喫茶。

上堂。豎起拂子云。佛佛授手。祖祖相傳。有半有滿。有偏有圓。有空有有。有實有權。有頓有漸。有聖有凡。擊拂子云。凡也不可得。聖也不可得。漸也不可得。頓也不可得。權也不可得。實也不可得。有也不可得。空也不可得。圓也不可得。偏也不可得。滿也不可得。半也不可得。傳也不可得。授也不可得。祖也不可得。佛也不可得。只此不可得亦不可得。所以道。取不得舍不得不可得中只麼得。得之於心。猗蘭作旃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栗棘蓬金剛圈。吞透得過。三三兩兩。擺撥不下。萬萬千千。欽遇天壽聖節。為君擊碎重玄。還會麼。御樓籠紫氣。金殿擁祥煙。

上堂。有情之本。依智海以還源。含識之流。總法身而為體。卓拄杖云。在家疑是客。別國却為親。

佛涅槃上堂。十五日己前。諸佛不出世。十五日己後。亦無有涅槃。正當十五日。柳綠花紅。山明水碧。頭頭見劫外風光。處處是大人境界。只貴當陽坐斷。直下知歸。稍涉思惟。便成剩法。拍禪床云。隣牆難隔借來竹。險不傾端坐船。

上堂。舉保寧勇和尚示眾云。風鳴條雨破塊。曉來枕上鶯聲碎。蝦蟇蚯蚓一時鳴。妙德空生都不會都不會三个成群四箇作隊。向前村後村。折得梨花李花。一佩兩佩。師云。保寧大似二八少年風流才子。一向賣峭。於唱教門中。足可觀光。若約衲僧門下。正好喫棒。何故。禾黍不陽艷。競栽桃李春。翻令力耕者。半作賣花人。浴佛上堂。撲落非他物。縱橫不是塵。山河并大地。全露法王身。者裡悟去。未離兜率。己降王宮。未出母胎。度人己畢。是真語者。是實語者。是不誑語者。是不異語者。拈拄杖。卓一下。八解之浴池。定水湛然滿。布以七淨花。浴此無垢人。

小參。季春己去。孟夏到來。衲僧分上。不用安排。豈不見道。盡乾坤大地。是沙門一隻眼。盡乾坤大地。是沙門全身。何覺不圓。何修不證。所以大覺世尊。二千年前。靈山會上。釘虛空中鐵橛。

開福山僧。四月十五日。與見前大眾。駕平地上鐵船。逆長風而把柁。節清歌而扣舷。卓拄杖云。翡翠踏翻荷葉雨。鷺鷥衝破竹林煙。喝一喝。

妙智長老至上堂。瞿曇舌頭無骨。妙智皮下有血。西天解守蠟人冰。東土不聞鵝護雪。翻思百丈有三訣。喫茶珍重歸堂歇。末法師僧幾箇知。茫茫弄巧翻成拙。喝。

佛涅槃上堂。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即神。佛世尊入般涅槃。已得二千二百有餘載。作麼生得體之即神去。莫是觀身實相觀佛亦然。觀佛實相觀法亦然。觀法實相觀僧亦然麼。若恁麼會。如狐渡水。有甚快活。畢竟如何。忿怒那吒撲帝鐘。

蹊首座至上堂。杲日麗天。盲人摸地。本色衲僧。無處出氣。豈不見。興化一日同參到。纔上法堂。化便喝。僧亦喝。化又喝。僧復喝。化云。你看者瞎漢。猶作主在。僧擬議。化拽拄杖直打下法堂。侍者云。者僧觸忤和尚化云。是他適來。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及乎我將手向伊面前橫兩橫。便去不得。似者般瞎漢。不打更待何時。阿呵呵。師子兒返擲。龍馬駒[跳-兆+孛]跳。打破上頭關。主賓俱失照。有底便道。當時好再與一喝。不然。掀倒禪床拂袖而去。有甚共語處。山僧不逢別者。終不開拳。適值大道師兄遠臨。要使現前一眾。與他古人兩得相見。還委悉麼。青山不鎖長飛勢。滄浴合知來處高。

浴佛上堂。一念普觀無量劫。無去無來亦無住。如是了知三世事。超諸方便成十力。大眾。者一箇圈繢子。過見未來塵沙諸佛。無有能出得者。只如釋迦老子。未離兜率。也出者圈繢不得。已降王宮。也出者圈繢不得。至於半夜逾城。六年雪嶺。起道樹詣鹿苑。鷺池鷺嶺海甸菴園。三百法會橫說豎說。直說曲說。密說顯說。無問而自說。也出者圈繢不得。末後拈起一枝華。直得金色尊者破顏微笑。付囑法眼。也出者圈繢不得。是你諸人。信也出者圈繢不得。不信也出者圈繢不得。會也出者圈繢不得。不會也出者圈繢不得。雖然。且道。山僧還在裡許也無。擊拂子云。此時若不究根元。直待當來問彌勒。

上堂。知有底道得。道得底知有。信手斫方圓。面南看北斗。野干鳴師子吼。稽首文殊普賢。摩訶泥豬疥狗。

小參。少室峯前動絃別曲。曹溪路上葉落知秋。放開也。雲生八極。把住也。四海截流。拈拄杖云。總在拄杖頭上。還見麼。大元天子。混一區宇。釋迦文佛大闡玄猷。文殊三處度夏。懶安一向牧牛。踏破脚版。拽脫鼻頭。且畢竟發明箇甚麼邊事。卓拄杖云。釣竿斫盡重栽竹。不計功程得便休。

復舉文殊三處度夏機緣。師頌云。正令當行下一椎。從教徧界是文殊。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

上堂。拈拄杖云。與麼來者彩鳳舞丹霄。不與麼來者鐵蛇橫古路。直饒與麼不與麼去來道絕。也是秤錘蘸醋。卓拄杖。下座。

上堂。大用現前。不存途轍。要默即默。要說即說。指鹿為馬。喚日作月。臨濟德山。只一得檝。喝一喝。

僧相看。師問云。甚處來。僧云廬山。師云。五老峯頭白也未。僧云白也。師云。年多少。僧無語。師云。你豈不是廬山來。僧云是。師便打出。

上堂。十五日巳前。水向石邊流出冷。十五日巳後。風從花裡過來香。正當十五日。火後一莖茅。鐵蛇鑽不入。喝一喝。

臘八上堂。萬法是心光。諸緣惟性曉。本無迷悟人。只要今日了。咄哉老瞿曇。討甚閑煩惱。出山與入山。自起還自倒。夜來斗轉玉繩橫。不覺全身墮荒草。喝一喝。

上堂。舉拂子云。還見麼。見之不取。千載難忘。取則不無。作麼生說箇見底道理。莫是有見見麼。莫是無見見麼。莫是不有不無見見麼。莫是不有不不無見見麼。若也與麼。要作他座主奴。也未得在。所以道。了了見無一物。亦無人亦無佛。大千沙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好諸禪德。稜道者坐破七箇蒲團。末後於卷簾處。驀然見得。便道。也大差也大差。卷起簾來見天下。有人問我解何宗。拈起拂子劈口打。是他古人。不妨性躁。不妨快活。若約檢點將來。者拂子合是稜道者自喫始得。何故。太平只許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上堂。拈一放一。本分宗師。蓋地蓋天。罕逢作者。刁刀相似。魚魯參差。任是鶻眼龍睛。未免錯認驢鞍橋。作阿爺下頷。喝一喝。歸堂喫茶。

上堂。釋迦拈花。飲光微笑。達磨面壁。二祖安心。驀拈拄杖卓一下云。白雲為蓋。流泉作琴。一曲兩曲無人會。雨過野塘春水深。擲下拄杖。下座。

上堂。僧問。單傳直指。巳涉離微。坐斷千差。請師答話。師云。破鏡不重照。落花難上枝。進云。豈無方便。師云。烏龜鑽敗壁。師乃云。單傳直指。正涉離微。坐斷千差。開眼落井。拈拄杖卓一下。烏龜鑽敗壁。雞向五更啼。

上堂。兜率悅和尚云。撥草瞻風。只圖見性。即今上人。性在甚處。識得自性。方脫生死。眼光落地時。作麼生脫。脫得生死。便知去處。四大分離。向什麼處去。好大眾。一等提唱。一等垂示。不妨徑截。灼然要出離生死。須是悟自本心。見自本性始得。敢問諸人。此性此心。畢竟作何形段。為是青是黃。是白是黑。是長是

短。是大是小。有底聞恁麼說了。便道不青不黃。不白不黑。不長不短。不大不小。似則似矣。是則未是。所謂矮子看戲。隨人上下。有甚用處。眼親手辨底。便好向者裡指出來看。一表參學眼正。二表叢林有人。三表可以開悟後學。四使佛祖慧命不斷。有麼有麼。其或未然。聽取一頌。九夏工夫一月過。克期參究事如何。莫嫌老拙頻忪怛。浪死虛生數甚多。珍重。

上堂。僧問。一牛飲水。五馬不嘶。此意如何。師云。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進云。隔江招手。便乃橫趨。畢竟是什麼眼。師云。莫謗高亭好。僧禮拜。師乃云。未明心地印。難透祖師關。欲透祖師關。須明心地印。拈拄杖云。不是心地印。卓拄杖云。不是祖師關。明得透得。一大藏教。五千四十八卷。半滿偏圓。權實空有。不消一擊。卓拄杖一下。三脚驢子弄蹄行。踏碎乾坤無寸土。喝。

上堂。行住坐臥。折旋俯仰。打破鏡來。全無影像。喝一喝。誌公不是閑和尚。

上堂。僧問。即色明心。附物顯理時如何。師云。癩馬繫枯椿。進云。三九二十七。牛頭南馬頭北。如何是接手句。師云。百花深處鷓鴣啼。僧禮拜。師乃云。百花深處鷓鴣啼。日出東方又落西。昨夜一番新雨過。今朝流水漲前溪。下座。

上堂。真不掩偽。曲不藏直。白日青天。雷轟電激。坐斷報化佛頭。超出聖凡閩域。大藏與小藏。演出復演入。卓拄杖云。一毛師子眾毛畢。

上堂。舉古德道。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十字街頭立。被人喚作賊。師云。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十字街頭立底是什麼。喝一喝云。賊賊。便下座。

上堂。荊棘林中。有通天大路。長安市上。有陷虎危機。透得過者。一任八面四方。透不過者。未免墮坑落壑。豈不見。鹽官國師一日喚侍者云。將我犀牛扇子來。侍者云。扇子破也。國師云。還我犀牛兒來。侍者無語。便是者个道理也。靈利漢向者裡下得一轉語。實謂清風再振。頭角重生。非唯鹽官老漢滿面慚惶。抑且山僧通身懽喜。有麼有麼。良久云。江上青山老。屋頭春色遲。箇中消息子。能有幾人知。

上堂。舉世尊初生下時。周行七步。目顧四方。分手指天地。便云。天上天下唯我獨尊。後來雲門大師云。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貴圖天下太平。師云。雲門好棒。可殺驚人。檢點將來。未免傷鋒犯手。山僧當時若見。只消道箇澣盆澣盆。老漢若也知方。管取暗裏抽身。免見明中落節。事到如今。且放過一著。何故。砒霜鴆毒難拈出。蜜水糖湯一例澆。

上堂。兩桂垂陰。莫匪少林風旨。一華現瑞。是皆鷲嶺宗猷。而況龍門上客駢臻。致此道場增勝。庶幾勇猛。以廣熏修。說甚威音王已前王老師。直須打徹毗盧藏中第一義。驀拈拄杖卓一下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上堂。一雨普滋。三草二木。雷聲遠震。地上清涼。如來說一合相。即非一合相。且出息不涉萬緣。入息不居陰界。一句作麼生道。良久。空生不解岩中坐。惹得天華動地來。

上堂。僧問。一不做二不休時如何。師云。水底撈明月。進云。退一步修安樂法。又作麼生。師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僧禮拜。師乃云。絕羅籠脫羈鎖。雖是善因而招惡果。咄。老松源與麼說話。於唱教門中。足可觀光。要作臨濟兒孫。未得在。開福莫有長處麼。擊拂子云。星河秋一鴈。碓杵夜千家。

小參。一毛穿眾穴。眾穴一毛收。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龍睛鵝眼。罔測端倪。疥狗泥豬。虛張意氣。五祖和尚云。汝等諸人。見山僧豎起拂子。便作勝解。及乎山禽聚集。牛動尾巴。却作等閑。殊不知。櫛聲不斷前旬雨。電影還連後夜雷。大眾。者箇便是金剛圈栗棘蓬。若也吞得透得。參學事畢。山僧一夏已來。公委出入。不能與諸人東語西話。然亦未嘗不眉毛廝結。其奈不覺不知。翻成踈外。今夜向箇裡。搖唇鼓舌。撒土拋沙。檢點將來。大似不識好惡。眾中忽有忍俊不禁底出來。掀倒禪床喝散大眾。山僧大展坐具。禮他三拜。何也。莫怪坐來頻勸酒。自從別後見君希。

上堂。舉圓悟和尚示眾云。古德道。結夏已十一日。寒山子作麼生。又有道。結夏已十一日。水牯牛作麼生。山僧即不然。結夏已十一日。燈籠露柱作麼生。若識得燈籠露柱。即識得水牯牛。若識得水牯牛。即識得寒山子。脫或擬議。老僧在你脚底。師云。千鈞之弩。不為鼯鼠而發機。三大老也是為他閑事長無明。開福結夏已十五日了也。堂中兄弟。盡是諸方煨了底金。總不須問著。行但行。住但住。坐但坐。臥但臥。忽若露柱著衫南岳去。燈籠沿壁上天台。狸奴白牯無消息拾得寒山笑滿腮。山僧却有箇細大法門。為汝說破。下座。巡堂喫茶。

上堂。早間侍者覆上堂。山僧病餘要打睡。聽得堂前法鼓鳴。又把眉毛重剔起。說張三話李四。淨行何曾有些子。打殺應知狗不噉。何事諸人妄相許。喝一喝。

上堂。真淨和尚一日舉教中道。不見一法是大過患。喝一喝云。有什麼過。卓拄杖云。有什麼患。復橫按拄杖云。德山棒臨濟喝。舉世何人解提掇。天高地迴萬象閑。總是僧家好時節。擲下拄杖云。是什麼時節。喝一喝。下座。老真淨。可謂知時識節。善說法要。檢點將來。不免大驚小怪。所以開福尋常不要捏怪。拈拄杖云。大

眾還見麼。若道見。見个什麼。若道不見。却是諸人捏怪。靠拄杖云。見怪不怪。其怪自壞。下座。

上堂。一夏工夫餘半月。也堪懽喜也堪驚。山僧有口不敢道。留得雙眉蓋眼睛。且道。是什麼眼睛。若也道得。一大藏教八萬四千法門。不消一擊。若道不得。莫道無事好。下座。

上堂。舉二十五祖婆舍斯多。與外道無我尊論議。外道曰。請師默論。不假言說。祖曰。不假言說。孰知勝負。曰但取其義。曰汝以何為義。曰無心為義。曰汝既無心。安得義乎。曰我說無心。當名非義。曰汝說無心。當名非義。我說非心。當義非名。曰當義非名。誰能辨義。曰汝名非義。此名何名。曰為辯非義。是名無名。曰名既非名。義亦非義。辯者是誰。當辯何物。如是往復四十九反。外道杜口信伏。大慧和尚云。婆舍斯多何用忤怛。當時若見他道請師默論。不假言說。便云。義墮也。即今莫有要與妙喜默論者麼。或有箇衲僧出來道義墮也。我也知你向鬼窟裡作活計。師云。騎賊馬趕賊。奪賊槍殺賊。回天轉地。合水和泥。教外一宗。掃土而盡。開福門下。今日忽有箇漢出來道。請師默論。不假言說。劈脊便棒。還委悉麼。棒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裡看。

上堂。僧問。摩竭掩室意旨如何。師云。打破天關。掀翻地軸。進云。毗耶杜詞。又作麼生。師云。一狀領過。進云。不涉二途。如何舉唱。師云。蛇無頭不行。進云。與麼則出他古人圈績不得。師云。你喚什麼作古人圈績。僧擬議。師便打。乃云。摩竭掩室。毗耶杜詞。打破天關。掀翻地軸。山僧與麼答話。已是屈辱先宗。汝等諸人。擬更蹈步向前。未免畫蛇添足。喝一喝云。參堂去。

上堂。好箇中秋節。莫言無供養。風吹丹桂華。清香滿天上。諸人眼裡也飽。耳裡也飽。鼻裡也飽。只恐肚裡不飽。若得肚裡飽去。則不疑佛。不疑祖。不疑天下老和尚。拈出袖裡金鎚。打開光明寶藏。不涉凡聖路岐。便是渡河香象。喝一喝。

上堂。真不掩偽。曲不藏直。一句截流。萬機寢息。拈拄杖卓一下云。寒山拾得。

祖忌拈香。碧眼胡尊性急。一語不投機。闔國追不及。少林面壁弄盡精神。只消斷臂師僧三拜而立。伎倆既盡。心事亦休。隻履西歸。空棺示跡。後代兒孫。充滿中國。莫不向今日燒牛頭栴檀之香。具酥酪醍醐之食。用伸追遠。用報恩德。正眼觀來。何異捧漏卮以灌焦釜。而終莫能濕。所以開福比丘。蒸雲門胡餅。烹趙州醎茶。雖然禮貌粗疎。畢竟臭味相入。

上堂。僧問。掬水月在手時如何。師云。弄花香滿衣。進云。和尚因什麼。攬行奪市。師云。闍梨莫曾到此間麼。進云。曾到。師

云。大似不相識。僧便禮拜。師乃云。大洋海底蓬塵起。百尺竿頭掉臂行。三世如來說不到。扶桑日午打三更。

小參。一年來一年去。來既無從。去亦無至。北禪分歲勾賊破家。汾陽罷參知慚知愧。所以山僧三四年間。來此與諸人相聚。行則與諸人同行。住則與諸人同住。臥則與諸人同臥。起則與諸人同起。直饒起倒不同。畢竟脫離泥水。與麼與麼。平地上喫交。鬼門中貼卦。不與麼不與麼。跛驢蹈倒摘茶輪。草菴卸下瑠璃瓦。阿呵呵。會也麼。一釋迦。二元和。三佛陀。從將支遁鶴。喚作右軍鵝。復舉僧問雲門。如何是雲門一曲。門云。臘月二十五。師云。大小雲門。盡力只道得到者裡。今夜忽有問。如何是開福一曲。只對他道。明日是新年。且道與古人是同是別。聽取一頌。臘月二十五。一曲喧今古。明日是新年。袈裟搭半肩。同不同別不別。珊瑚枝枝撐著月久立。

元宵。進退兩序上堂。十五日巳前。明中有暗。十五日巳後。暗中有明。正當十五日。明暗雙忘。體用俱寂。譬如千燈洞照一室。光光交羅各不相借。且道。是知事分上事。頭首分上事。諸人分上事。莫有道得底麼。拈拄杖卓一下云。蟪蛄睫上放元宵。狸奴倒上菩提樹。

上堂。僧問。天不能蓋。地不能載時如何。師云。闍梨得自由。僧便禮拜而出。師云。依稀越國。彷彿楊州。師乃云。天不能蓋。地不能載。依稀越國。彷彿楊州。打開布袋。隨流入流。今朝有酒今朝醉。明日無錢明日求。拍禪床。下座。

上堂。日月有晦明。虛空沒明晦。佛佛體皆同。塵塵自三昧。拈將須彌盧。塞斷香水海。動靜不留情。是名觀自在。

上堂。舉雲門問疎山。如何是法身邊事。山云。枯椿。又問。如何是法身向上事。山云。非枯椿。門云。還許學人說道理也無。山云許。門云。枯椿豈不是明法身邊事。山云是。門云。非枯椿豈不是明法身向上事。山云是。門云。只如法身。還該一切否。山云。爭得不該。門指淨餅云。法身還該者箇麼。山云。闍梨莫向淨餅邊會。門便禮拜。師云。雲門也善切磋琢磨。若不是疎山老漢。幾被打破蔡州。今日忽有問山僧。如何是法身邊事。劈脊便棒。若更問如何是法身向上事。便與連夜趕出。非唯坐斷天下人舌頭。且免得靈利衲僧。向枯椿邊著到。

小參。二千年前。大覺世尊。將一條斷貫索。穿你天下衲僧鼻孔。東土西天。無敢違者。二千年後。者索子落在欲上座手中。拈起也眉間掛劍血濺梵天。放下也藏海風清波平浪靜。當此四月十五。結却布袋頭。盡十方世界四聖六凡情與無情總在者裡。內不放出。外不放入。莫道諸天散華無路。外道潛覷無門。便是釋迦老子。再出

頭來。也卒摸索不著。是你諸人。二六時中。於其中間。行住坐臥。各不相妨。所以道。譬如大火聚。猛燄同時發。各各不相知。諸法亦如是。又如河中水。川流競奔逝。各各不相知。諸法亦如是。如是如是。芍藥花開菩薩面。不如是不如是。櫻櫚葉散夜叉頭。羚羊掛角無蹤跡。笑倒為山水牯牛。

復舉裴相國云。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凡夫也。欲證圓覺而未極圓覺者菩薩也。具足圓覺而住持圓覺者如來也。後來楊次公云。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如來也。具足圓覺而住持圓覺者菩薩也。欲證圓覺而未極圓覺者凡夫也。師云。者兩箇措大。可謂徐六擔板各見一邊。山僧與他捏作一團。向無星秤子上。玷捶將來。一箇恰重半斤。一箇恰重八兩。不作貴不作賤。作麼生買。拍禪床云。莫謂龍門無宿客。明朝更試錦標看。久立。

了菴和尚語錄卷第一

了菴和尚語錄卷第二

住嘉興路本覺禪寺語錄

參學比丘 可興 文康 等編

元統元年。臘月二十六日。入寺。指山門云。門門有路。達者猶迷。捩轉天關。是誰知有。喝一喝。
佛殿。性覺妙明。本覺明妙。脫却鶻臭衫。卸下膩脂帽。三世十方稱善導。
祖堂。文不文。武不武。佛不佛。祖不祖。馬頰對驢腮。五五二十五。
據室。橫按拄杖云。有正偏不犯底手。具啐啄同時底用。總須列在下風。卓拄杖。喝一喝。
廣教府疏。親承佛旨。示作王臣。以廣教化。以福斯民。其知有者不在重拈。未辯來風試聽宣讀。
山門疏。未入門來有一句子。既到者裡半字全無。畢竟如何。蘇盧蘇盧。
指法座云。高步毗盧頂。不稟釋迦文。是你諸人。常行三昧。山僧曲順時宜。和泥合水去也。遂陞座。拈香。祝聖罷。就座。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第一義諦。非智所知。一椎擊碎。徧界流輝。格外明宗。出眾相見。僧問。突雲雛鳳應昌時。炳霧文彪百世師。格外有機提祖令。好風先發領南枝。為國開堂。願聞祝贊。師云。瑞氣逢嘉運。靈苗觸處生。進云。萬歲山頭松不老。千秋澗底水長清。師云。須彌頂上擊金鐘。進云。祝聖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云。三歲孩兒抱華鼓。莫來攔我毬門路。進云。不因楊得意。爭識馬相如。師云。三生六十劫。復有僧出。師喝云。問話且止。只知問禪問道。要且不知問頭來處。且道。問頭從什麼處來。豎起拂子云。還見麼。山僧拂子。變作釋迦世尊。起道樹詣鹿苑。為五比丘。轉四諦法輪。然後周旋三百法會之中。乃至多子塔前。以實相無相微妙法門。付囑摩訶迦葉。傳付將來。無令斷絕。能事既畢。還復本形。大眾。若喚作山僧拂子。又是釋迦世尊。若喚作釋迦世尊。又是山僧拂子。若道山僧拂子便是釋迦世尊。釋迦世尊即是山僧拂子。未免顛預佛性。儻侗真如。且作麼生分得去。若分得去。便可向無中唱有。有中唱無。一為無量。無量為一。小中現大。大中現小。於一毫端。現寶王剎。坐微塵裡。轉大法輪。提祖師印。駕鉄牛機。或則先照後用。或則先用後照。或則照用同時。或則照用不同時。你要識先照後用麼。如蛇

有角。你要識先用後照麼。似虎無齒。你要識照用同時麼。背負須彌。肩橫日月。你要識照用不同時麼。掀翻地軸。踏斷天關。喝一喝。便與麼隔關山。不與麼絕遮攔。四海五湖皇化裡。吾家曲子萬年權。擊拂子。

復舉保壽開堂。三聖推出一僧。保壽便打。三聖云。與麼為人。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保壽擲下拄杖。便歸方丈。師云。用劈箭機。發千鈞弩。固是。兵隨印轉。將逐符行。且畢竟成得什麼邊事。拍禪床云。天南并地北。一舉一時收。

小參僧問。承師有言。未入門時有一句子。畢竟是什麼一句。師云。盡力吐不出。進云。既到者裡。因什麼半字全無。師云。相逢自有知音知。何必清風動天地。進云。遠離中山。來赴本覺。作麼生是不動尊。師云。嗟汝在途經日久。思量未曉却沉迷。進云。豈無方便。師云。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進云。將謂少林消息斷。一華重綻劫前春。便禮拜。師乃云。萬仞崖頭通一線。佛手未收驢脚現。平田放出焦尾蟲。那吒眼開菩薩面。所以道。機輪轉處作者猶迷。正令當行十方坐斷。直得你面前無我。我面前無你。自然聲和響順。形直影端。敲唱雙行。主賓道合。又說甚麼雲月是同溪山各異。要知坐斷天下人舌頭。只消無舌人解語。驀拈拄杖云。拄杖子走遍四天下。氣宇如王。因甚到山僧手中。却與新婦見阿家相似。還會麼。龍吟霧起。虎嘯風生。和氣一團春萬里。梅花枝上月三更。卓拄杖一下。

復舉風穴初參南院問云。入門須辨主。端的請師分。院以左手拍膝一下。穴便喝。院以右手拍膝一下。穴又喝。院舉左手云。者箇且從闍梨。又舉右手云。者个作麼生。穴云。瞎。院拈拄杖。穴云。作什麼。倒奪打和尚去。莫言不道。院擲下拄杖云。今日被黃面浙子。鈍置一上。穴云。大似持鉢不得。詐道不飢。院云。上座莫曾到此間麼。穴云。是何言與。院云。好好相借問。穴云。也不得放過。院云。且坐喫茶。精金躍冶。正要鉗鎚。赤驥追風。豈資鞭影。是佗南院末上大殺傷慈。直到下梢分疏不下。本覺者裡。設有人問。入門須辨主。端的請師分。便與連夜趕出。何故。當門不用栽荊棘。後代兒孫惹著衣。久立。

小參。僧問。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且道。是什麼物。師云。杲日當天。盲人摸地。進云。爭奈頂門上輝大寶光。脚跟下縱橫十字。師便喝。僧亦喝。師云。我喝汝亦喝。僧無語。師云。放過一著。乃云。年窮歲盡。黃梅石女子母團圓。日往月來。少室鉄牛嘗甘水草。嶺南獠獠唱巴歌。聲聲總是無生調。好大眾。九衢人靜。大野風清。燈籠與露柱爭光。耐重對

金剛[跳-兆+亭]跳。也無玄也無妙。快活須明者一竅。擊拂子云。昨日街頭賣杏華。一年春事都來了。喝一喝。

復舉北禪小參云。今夜年窮歲盡。無可與諸人分歲。未免烹箇露地白牛。燒榾柮火。煮野菜羹。唱村田樂。且恁麼過。何故。免得倚他門戶傍他墻。剛被時人喚作郎。便下座。歸方丈。時有僧隨後喚云。和尚州中有公人到來。禪云。作什麼。僧云。勾納筋角。禪遽捋下帽子擲於地。僧便拾之。禪擒住云。捉賊捉賊。僧即以帽覆禪頂云。天寒且還和尚。禪呵呵大笑。顧維那云。作麼生。那云。潭州紙貴。一狀領過。師云。大小北禪。只解捉賊。不解殺賊。莫有定當得出者麼。久立。珍重。

上堂。新年換舊年。打破又完全。衲僧雖不薦。鼻孔已遼天。看看。蟪蛄睫上放夜市。大蟲舌上打鞦韆。喝一喝。

上堂。顧視大眾云。會即便會。不會便休。別起眉毛。白雲萬里。便下座。歸方丈。侍者云。何不更道取兩句。師便掌云。識甚好惡。

元宵進退兩序上堂。以字既不成。八字亦不是。侍者參得禪。畢竟誰相委。三脚驢子弄蹄行。八臂那吒闌不住。覺皇殿上慶賞元宵。妙觸宣明成佛子住。擊拂子云。相逢不飲空歸去。洞裡桃花解笑人。

復舉藥山謂雲巖云。與我喚沙彌來。岩云。和尚喚佗作什麼。山云。我有个折脚鐺子。要伊提上挈下。岩云。與麼則與和尚共出隻手。應庵和尚云。藥山道頭。雲岩知尾。雖然頭尾兩全。要且不識羞耻。師云。老應菴。只知其一。不知其二。然儉生。不孝。義出豐年。彼時藥山一个折脚鐺子。只消雲岩提上挈下。已自有餘。較之本覺今日。若非兩班賢佐。叶力扶持。便見灰寒火冷。以故不蓄莖蠶粒米。直教來者飽齣齣地去。豈不出他古人。還委悉麼。雪後始知松栢操。事難方見丈夫心。

俊書記至上堂。隔山見煙早知是火。隔墻見角便知是牛。雲間棒頭。洞山打失鼻孔。慈明室裡。積翠換却觸體。人平不語。水平不流。欲窮千里目。更上一層樓。

上堂。桃華紅李花白。燕語鶯啼。山清水碧。聲不是聲。色不是色。作者相逢。破塵破的。觀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却是饅頭。管取一大藏中。收他不得。下座。

天壽節啟建上堂。我此法印。為欲利益世間故說。在所遊方。勿妄宣傳。豁開無上妙門。普請大家證入。便乃如貧得寶。如民得王。如病得醫。如炬除暗。頭頭物物普現威權。剎剎塵塵全彰海印。拍禪床云。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上堂。般若如大火聚。般若如金剛燄。般若如塗毒鼓。無你近傍分。無你[占*支]搽分。無你趣向分。豈不見。趙州問南泉云。如何是道。泉云。平常心是道。州云。還假趣向否。泉云。擬向即乖。州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覺。不知是無記。若真達不疑之道。廓然蕩豁。如大虛空。豈可強是非耶。好大眾。古人千門萬戶。一時打開了也。靈利底便合乘時搆取。待你眨得眼來。何翅白雲千里萬里。拍禪床云。滿地落花春已過。綠陰空鎖舊莓苔。

浴佛上堂。淨法界身本無出沒。萬象平沉。虛空突兀。大悲願力示現受生。寸絲不掛。天下橫行。以拂子擊禪床云。志士苦日短。愁人知夜長。

上堂。袖裡金椎一擊開。大千沙界絕纖埃。祖師不會渾閑事。直往流沙去不回。乃高聲喚云。來也來也。大眾擡首。師云。僧堂覷破香積厨。螭吻咬殺佛殿脊。

上堂。舉圓悟與佛燈過溪次。驀將佛燈。推向水中。便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燈云。潭深魚聚。又問。見後如何。燈云。樹高招風。又問。見與未見時如何。燈云。伸脚只在縮脚裡。師云。佛燈得即得。未免帶水拖泥。圓悟高即高。爭奈使心用行。雖然。不入驚人浪。難逢稱意魚。

天壽聖節滿散上堂。指法座云。踞天寧之寶座。提鷲嶺之宗綱。任是須彌燈王。也須倒退三舍。便陞座。拈香云。功德林中。掀天馥郁。華藏海內。特地芬芳。拈來則瑞靄九重。爇處乃懽騰萬國。當虹流電繞之日。是河清海晏之時。本覺臣僧清欲。奉為本路眾官。爇向爐中。祝延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陛下恭願。道超堯舜。德邁羲軒。空芥城而聖曆彌昌。拂劫石而皇基益壯。遂就座。召眾云。一問一答。是影子邊事。一棒一喝。是影子邊事。乃至揚眉瞬目豎拂敲床。辨似維摩。智如妙德。總是影子邊事。作麼生是本體邊事。莫有向千聖著眼不及處。道得底麼。問答罷。師乃云。列聖叢中闡化權。掃除空有示真傳。一言截斷千江口。萬仞峯頭始得玄。直得如天溥蓋。似地溥擎。如日普照。如風普吹。無一物不是真乘。無一法不是妙用。舉足下足。總是圓覺伽藍。護生殺生。莫非平等性智。便乃張起濟岸帆。撥動度人舟。於三界海內。不著此岸。不著彼岸。不住中流。運載四生。梯航九有。豈不是大力量人。成就大力量事。故我 當今聖主。離兜率降王宮。出母胎建皇極。金輪御而萬國寧。玉燭調而四時序。普天率土。共仰皇恩。草木昆虫。均霑帝澤。到者裡。不謂不知而不容。不謂知之而含育。蕩蕩乎無能名焉。皜皜乎其可尚已。所謂靈山付囑。正在於

斯。一句全提。大家薦取。還委悉麼。洪鈞妙力先天地。葉葉華華總是春。

復舉。同光帝謂興化和尚云。朕收中原得一寶。只是無人肯酬價。化云。略借一看。帝遂托起幞頭脚示之。化云。君王之寶。誰敢酬價。師云。折錐探地脉。後來雪豆云。不是興化作家。泊乎高價酬却。師云。斫額望扶桑。本覺莫有長處麼。聽取一頌。敲出鳳凰五色髓。擊碎驪龍明月珠。千古華山山脚下。只應潘閭倒騎驢。久立尊官。伏惟珍重。

上堂。舉松源和尚示眾云。古者道。拈起也天回地轉。放下也草偃風行。冶父則不然。拈起也乾坤黯黑。放下也瓦礫生光。忽有一箇半箇。驀然[翟*支]瞎頂門。達磨一宗未至寂寥在。師云。老松源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壽山即不然。拈起也南山起雲。放下也北山下雨。不拈不放時如何。三級浪高魚化龍。痴人猶辱夜塘水。下座。

散青苗會上堂。四十九年。無法可說。一代時教。玉轉珠回。透得過者。不滯兩邊。透不過者。無繩自縛。壽山有條活路。與諸人共行。豎起拂子云。還見麼。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於是中間。密雲彌布。徧覆三千大千世界。其澤普澍。率土充洽。山川嶮谷。幽邃所生。卉木叢林。諸藥草等。甘蔗蒲萄。百穀苗稼。悉皆充足。幸自可憐生。無端雲門手中扇子。[跳-兆+孛]跳上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擊拂子云。錦上鋪花又一層。

報國希白和尚訃至上堂。未達境惟心。起種種分別。達境惟心已。分別則不生。於不生法中。獨露本來面目。直是離相離名。絕對絕待。破塵破的。透色透聲。故我報國和尚。得此三昧。兩處住山。單傳正印。掃除邪解。扶樹此宗。能事既畢。撒手那邊。末後全提。甚生光彩。且道與他摩胸告眾。槲示雙趺。是同是別。拍禪床云。羚羊掛角千峯上。更有羚羊在上峯。

解夏小參。昔本不曾結。今也何須解。解結本無心。無縛無脫者。恁麼恁麼。森羅萬象徹底孤危。大地山河通上嶮峻。不恁麼不恁麼。大陽門下日日三秋。明月堂前時時九夏。恁麼中有不恁麼。不恁麼中却恁麼。一切智通無障礙。拈燈籠來佛殿裡。將山門安燈籠上。敢問大眾。九十日內。還得相應也未。其或未然。山僧却有箇方便。驀拈拄杖。卓一下云。西風一陣來。落葉兩三片。

復舉。明招行脚時。到泉州興教坦和尚處。坦上堂云。行脚高士。一人所在亦須到。半人所在亦須到。明招便問。一人所在即不問。如何是半人所在。坦無語。後來却令小師問明招。如何是半人所在。招云。你要識半人所在麼。也只是个弄泥團漢。應菴和尚拈

云。我聞獨眼龍。果然只具一隻眼。今日忽有衲僧問。如何是半人所在。劈脊便棒。更問如何是一人所在。便與趕出。何故。一不做二不休。師云。等是弄泥團漢。應菴老人較些子。復成一頌。舉似大眾。興教提持不受謾。明招隨例弄泥團。棒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裡看。

上堂。僧問。洞山云。秋初夏末。東去西去。須向萬里無寸草處去。意旨如何。師云。渾鋼打就。生鐵鑄成。進云。只如石霜聞云。何不道出門便是草。又作麼生。師云。一箇研郎當。一箇福建子。師乃云。十五日巳前。透底金剛圈。十五日巳後。吞底栗棘蓬。正當十五日。解開布袋口。衲子路頭通。卓拄杖云。有星皆拱北。無水不朝東。

中秋客至上堂。靈山指月。曹溪話月。馬祖百丈西堂南泉翫月。盤山道。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復是何物。癩馬繫枯椿。洞山道。光境未亡。復是何物。黑牛臥死水。育王師翁云。月在水中撈不上。徒勞[翟*支]碎水中天。夜深山寺開門睡。月自飛來在面前。用盡自己心。笑破他人口。本覺今日中秋。靈山上客垂訪。適值滿天風雨。既無可修行。又無可供養。終不拂袖便行。未免相與憑危闌倚曲檻。推出手面一輪。直是清光萬里。三關不立。開鑿人天。四句頓除。光揚祖道。擊拂子云。八萬四千非鳳毛。三十三人入虎穴。

開爐上堂。古鏡闊狹。火爐淺深。柴炭全無。光燄萬丈。無賓主話不用商量。殺活靈機何須舉唱。語是誑默是謗。語默向上有事在。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天下覓醫人。灸猪左膊上。喝一喝。下座。

祖忌拈香。行解相應。宗說俱通。眼空四海。氣吐長虹。未離西乾。好椎一頓。既來東土。聊且相容。一華開五葉。隨分得春風。客至上堂。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者箇說話。是人知有。只如一大藏教。五千四十八卷。是佛說是魔說。定當得出。不妨小玉聲中。承虛接響。琉璃殿上。簸土揚塵。拈三條篋。束取肚皮。到處住山去。其或未然。且聽壽山拄杖。現神變相。卓拄杖。金椎影動。寶劍光寒。一鏃三關隨手破。謝郎不在釣漁船。

上堂。僧問。如何是佛。師云。面前案山子。進云。法即不問。如何是僧。師云。三頭兩面得人憎。僧禮拜。師却問云。如何是法。僧云。明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師云。泊不問過。師乃云。相逢不拈出。舉意便知有。撥轉上頭關。大作師子吼。展開驢脚。伸出佛手。握金剛椎碎窠臼。東土西乾何似生。个个看來日中斗。

冬至小參。僧問。陰極陽生則不問。祖師門下事如何。師云。石笋抽條長丈二。進云。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華陰山前百尺井。進云。見後如何。師云。祝融峯頂萬年松。進云。去此二途。願聞法要。師云。休將閑學解。埋沒祖師心。師乃云。前佛性命。後佛紀綱。總在者裡。把住則六陰充塞。放行則一陽復生。不說笋迸石頭。不說華開鐵樹。只教行者擊鼓小參。且免諸人大家瞌睡。委悉麼。眼若不睡。諸夢自除。心若不異。萬法一如。拈須彌山秤作二兩。東頭賣賤。西頭賣貴。任是本色衲僧。到此也無辨處。豈不見。臨濟問黃檗佛法的大意。三度被打六十拄杖。如蒿枝拂相似。及至高安灘上。便解知歸。興化道。我在南方。行脚一遭。拄杖頭未嘗撥著一箇會佛法底。逗到大覺堂前。卸下衲衣。痛領一頓。却言我於此時。親見臨濟先師。在黃檗喫棒底意旨。諸禪德。全鋒敵勝。未是作家。遺劍刻舟。豈堪持論。雖然。若不藍田射石虎。幾乎悞殺李將軍。

復舉。無業國師云。若一毫凡聖情念未盡。不免入驢胎馬腹裡。白雲端和尚云。設使一毫凡聖情念淨盡。也不免入驢胎馬腹裡。師云。一毫頭凡聖情念未盡。入驢胎馬腹則固是。一毫頭凡聖情念淨盡。因什麼亦入驢胎馬腹。要見無業則易。要見白雲則難。咄。解用不須雙刃劍。延齡何必九還丹。

上堂。南泉斬猫。趙州戴草鞋而出。興化法戰。克賓設饋飯便行。是皆發揮本有靈光。要且不借別人鼻孔出氣。所以。前日首座說法。高聳人天。今朝道伴相過。光揚宗眼。且道。山僧鼓兩片皮。成得什麼邊事。拍禪床。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臘八上堂。二千年前。正覺山前。明星現時。釋迦世尊。成等正覺。二千年後。本覺山中。明星現時。我此一眾。成箇什麼。喝一喝。覺即了不施功。定慧圓明不滯空。東澗水流西澗水。南山燒炭北山紅。

泉心濮司判薦亡請小參。問答罷。師乃云。惟心淨土露堂堂。自性彌陀不覆藏。直下豁開千聖眼。更於何處覓西方。所以道。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即今時節已至。作麼生說箇自彰底道理。莫是痛念父母養育劬勞底是麼。莫是棄官辭祿菽水盡懽底是麼。莫是慎終追遠懷報罔極底是麼。莫是出離生死超越彼岸底是麼。莫是娑婆報盡淨土緣興底是麼。莫是蓮臺托質華開見佛底是麼。莫是聞佛說法證無生忍底是麼。莫是既得忍已思念度生底是麼。莫是功圓果滿成佛菩提底是麼。莫是所作已辦入般涅槃底是麼。且喜沒交涉。釋迦老子道。一念普觀無量劫。無去無來亦無住。如是了知三世事。超諸方便成十力。者裡悟去。便知成法破法。皆名涅槃。智慧愚痴。通為般若。菩薩外道。所成就法。同是

菩提。無明真如。無異境界。諸戒定慧。及淫怒痴。俱是梵行。地獄天宮。皆為淨土。有性無性。齊成佛道。如是則故安人吳氏妙善。八十二年前。生本不曾生。八十二年後。滅本不曾滅。生滅二緣離。長空輝一月。故母安人既如是。孺人錢氏亦如是。孺人錢氏既如是。現前大眾亦如是。現前大眾既如是。十方法界。若聖若凡。若僧若俗。若男若女。情與無情。悉亦如是。如是之法。佛祖密付。莫分彼我。彼我無差。法王法道。恢廓無涯。好大眾。淨極光通達。寂照含虛空。却來觀世間。猶如夢中事。三世諸佛是夢。六代祖師是夢。天下老和尚是夢。見前大眾是夢。生底是夢。死底是無。說底是夢。聽底是夢。真如解脫是夢。菩提涅槃是夢。無明煩惱是夢。六道輪回是夢。夢破塵勞一物無。焦磚打著連底凍。正與麼時。只如二安人。獨脫無依。超然邁往一句。又作麼生道。擊拂子云。國土動搖迎勢至。寶華彌滿送觀音。

上堂。今朝正月十五。壽山拔貧作富。曜滿月之心燈。掩繁星於霄路。非唯與新舊兩序慶賀元宵。抑且要謝雲峯座元遠勤垂顧。驀拈拄杖卓一下云。夜明簾外舞三臺。別有一機恢佛祖。喝一喝。佛涅槃上堂。釋迦老子道。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及至雙林示滅。却摩胸告眾云。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瞻仰取足。勿令後悔。何也今日則有。明日則無。又云。若謂吾滅度。非吾弟子。若謂吾不滅度。亦非吾弟子。且作麼生委悉。拍禪床云。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

上堂。一大藏教。是箇切脚。畢竟正文。無人道著。你要識正文麼。上大人。丘乙己。化三千。七十士爾小生。八九子。佳作仁。可知禮也。眾中忽有箇衲僧出來道。恁麼提唱。實謂聞所未聞。山僧不免分付維那。明窻下安排。忽若更道。恁麼提唱。料掉沒交涉。山僧亦不免分付。明窻下安排。何故。直鈎釣鯨鼈。曲鈎釣龜鼈。金雞啼上玉闌干。別有佳聲繼前哲。喝一喝。

秀峯長老募緣建塔至上堂。舉玄沙侍雪峯行次。峯指面前云。者一片地。好造箇無縫塔。沙云。高多少。峯顧視上下。沙云。人天福報不無和尚。若是靈山授記。未夢見在。峯云。爾又作麼生。沙云。七尺八尺。師云。一人平地上掘坑。一人虛空裡釘橛。後來琅琊云。家肥生孝子。國霸有謀臣。師云。隨風倒柁漢。今日秀峯長老。正要造个無縫塔。遠遠過我。不免贈个塔樣。良久云。會麼高而無上。廣莫可極。淵而無下。深不可測。浩浩波光。重重山色。一道清虛亘古今。八面香風惹衣袂。擊拂子下座。

上堂。一喝分賓主。三玄辨正宗。祖師門下客。無處不融通。只如道毗廬藏中有大經卷。量等三千大千世界。書寫三千大千世界中

事。藏在一微塵中。只者一塵。從甚處得來。良久云。南天台北五臺。便下座。

清明上堂。冬至寒食一百五。今朝正是三月六。山又綠水又綠。一聲欸乃漁家曲。山僧昨日偶爾郊行。作得一偈。舉似大眾。華冠不整舍那衣。秃帚還隨破畚箕。五个老婆三个醜。一雙紅杏換消梨。下座。

砌墻栽松上堂。兔不遲烏不速。九十春光頓周足。今朝物候啟朱明。依然一水當門綠。黃金為墻。白銀為屋。還他有力量人。作此無窮勝福。豈不見。黃檗謂臨濟云。深山裡栽許多松。作什麼。濟云。一為山門作境致。二為後人作標榜。道了。以鑿打地三下。檗云。吾宗到汝大興於世。古既如是。今豈不然。所以雲屋都寺。打開寶藏。運出家珍。磨磚底磨磚。礮石底礮石。直從根脚做倒下梢。峻似銀山。堅如鐵壁。風吹不入。雨打不濕。窮天地亘萬世而不撓不搖。正恁麼時。且功成不處一句。又作麼生道。擊拂子云。千峯勢到岳邊止。萬派聲歸海上消。

浴佛上堂。釋迦世尊。未離兜率。猶較些子。及乎駕日輪香象。入大術胎中。右脇誕生。七手八脚。一時呈露。却道天上天下。唯我獨尊。何異蟪蛄蟲。向蚊子眼睫上作窠。於十字街頭。揚聲大叫云。土曠人稀相逢者少。二千年後。有个折脚老比丘。忍俊不禁道。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貴圖天下太平。然雖賊過後張弓。抑且救得一半。只那一半落在本覺手裡。不免深掘坑子。與伊埋却。復牽牛踏過。直教光芒淨盡。痕跡全無。何故。不見道。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

小參。雨歇江天。時當初夏。槐陰日永。柳岸風清。會四海禪流。結靈山聖制。頓轡於華嚴法界。燕坐於圓覺妙場。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盡大地撮來如粟米粒大。拋向面前。拈斷貫索穿却衲僧鼻孔。直得鷹揚虎視。電激星馳。逢佛殺佛。逢祖殺祖。逢羅漢殺羅漢。所以道。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會得个中意。鐵船水上浮。豎起拂子云。德山臨濟雲門趙州。總在者裡。說安居法。只是鬪唇合觜。愛討便宜。據令而行。不消一擊。擊拂子云。咄咄咄。力口希。昔年覓火和煙得。今日擔泉帶月歸。復舉臨濟問黃檗云。如何是佛法的大意。三度被打六十拄杖。遂辭黃檗。檗云。高安大愚處去。徑造大愚。愚問云。甚處來。濟云。黃檗來。愚云。有何言句。濟云。某甲三問佛法的大意。三度被打六十拄杖。不知過在什麼處。愚云。黃檗恁麼老婆心切。濟大悟云。元來黃檗佛法無多子。愚乃擲住云。適來道不知過在甚處。如今又道佛法無多子。是多少。濟向大愚肋下築三拳。愚拓開云。汝師黃檗。非干我事。濟便回黃檗。檗問云。返太速乎。濟

云。只為老婆心切。壁云。者大愚老漢。待來與伊一頓。濟云。說什麼待來。即今便與。遂鼓一掌。壁笑云。者風顛漢。却來者裡捋虎須。參堂去。白雲端和尚頌云。一拳拳倒黃鶴樓。一躍躍翻鸚鵡洲。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黃龍南和尚舉了。極口稱讚。時真淨云。端兄見處。與某甲一般。龍云。你見處作麼生。淨擬開口。龍便喝云。端會。你不會。師云。真淨未曾開口。黃龍因什麼道他不。聽取一頌。萬煨爐中烈燄紅。點金成鐵顯全功。一椎擊碎渾閑事。三世如來在下風。

上堂。僧問。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時如何。師云。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進云。雲門扇子。[跳-兆+孛]跳上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傾。又作麼生。師云。西川斬畫像。陝府人頭落。僧禮拜。師乃舉。五祖演和尚云。諸莊旱澇。不以為憂。一堂兄弟。不會狗子佛性話。深為可憂。師云。重處偏墜。松源和尚云。久聚兄弟。正路行者有。只是不能用黑豆法。難以荷負正宗。佛法到此平沉。苦屈苦屈。師云。同坑無異土。克由耐耐。二大老。把他諸人。埋向萬仞坑裡。若據山僧見處。黑豆法有甚難用。僧問洞山。如何是佛。山云。麻三斤。豈不是黑豈法。僧問雲門。殺父殺母。佛前懺悔。殺佛殺祖。什麼處懺悔。門云。露。豈不是黑豈法。乾峯示眾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徑山來。却往天台去。峯云。典座明日。不得普請。豈不是黑豈法。者裡悟去。山僧性命。在諸人手裡。若也蹉過。諸人性命。却在山僧手裡。卓拄杖云。路遙知馬力。歲久見人心。

上堂。前半夏已去。後半夏未來。正當今日。謂之中夏。大眾。過去已往。未來未至。即今事作麼生。莫是二邊俱莫立。中道不須安。麼者般說話。是你諸人。嚼過了底殘羹剩飯。因什麼。拶著十个五雙。鼻孔索頭。在別人手裡。且道。利害在什麼處。一翳在眼。空華亂墜。今朝五峯先生到來。山僧下榻延致。雖然。儒釋兩歧。必竟理歸一揆。卓拄杖云。薰風作意松翠涼。白鳥不飛天在水。

上堂。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處處綠楊堪繫馬。又問。見後如何。師云。家家門首透長安。進云。見與未見時如何。師云。鮎魚上竹竿。俊鶻趁不及。僧禮拜。師乃云。豁開大解脫門。普請大家證入。鮎魚上竹竿。俊鶻趁不及。便下座。

上堂。今朝六月十五。準擬說些禪道。及乎法鼓一鳴。肚裡一時忘了。只記得。慈明和尚云。南山北嶺松。北嶺南山草。一雨潤無邊。根苗壯枯槁。好大哥。三百法會之中。會會說到者裡。自是後

代兒孫。根思遲回。當面蹉過。別別。茫茫普熱。紛紛下雪。引得學語之流。隨例掉棒打月。喝一喝。下座。

玄學處士姜公對靈小參。法身無相。會萬善以莊嚴。法眼無瑕。截群機而洞照。三乘由之而建立。五性自此而區分。開權實頓漸之門。絕生死輪迴之逕。高超物表。妙出聲前。玄所不能玄。學所不能學。雖居有為界。示無為法。而不滅壞有為之相。雖居無為界。示有為法。而不分別無為之性。可以津濟四生。梯航九有。可以修因證果。報德酬恩。無事不圓。無法不備。正與麼時。是你諸人。要見玄學處士回機轉位。超凡入聖處麼。拍禪床云。三世十方歸一念。紫金臺上覺花新。

上堂。拈拄杖。顧視大眾云。眼中見色。耳裡聞聲。圓通門戶。觸處施呈。你擬向个裡。覓什麼盃。以拄杖趕散。

師會下有僧云。和尚自有禪。只不為我說。又云。不是說不得。自是不肯說。師聞云。把定死蛇頭。有禪不肯說。滅却臨濟宗。何人敢饒舌。別別。那吒頂上喫蒺藜。金剛脚下流出血。

上堂。僧問。說法不應機。總是非時語。作麼生得應機去。師云。夜半起來失却牛。天明起來失却火。師乃云。百不知百不會。天上人間豈堪對。見得徹提得去。吉了舌頭三千里。金不博金。水不洗水。夜來月上長珊瑚。狸奴倒上菩提樹。

師一日云。文殊普賢。起佛見法見。貶向二鐵圍山則固是。且道。釋迦老子還有過也無。良久云。休。

上堂。頭上是天。脚下是地。南北東西依舊位。中間突出須彌盧。八寶七珍光煒煒。放便倒扶便起。螻蛄睫上放夜市。老胡落賺沒人知。急携隻履流沙去。喝。

小參。二千年前。有一轉語。四月十五日巳前。與諸人舉了也。所以九十日內。只貴見成。雖不行棒行喝。棒喝初不離其機。雖不說證說修。修證豈足究其用。直得。盡乾坤大地。如个鐵橛子。拋來擲去。轉換自由。今夜與汝脫却籠頭。別資一路。豈不見。洞山和尚云。秋初夏末。東去西去。須向萬里無寸草處去。末後最殷勤。石霜云。出門便是草。截斷脚跟。雖然如是。還知落處麼。拍禪床云。晝見日夜見星。妙高山色青又青。掀翻海岳求知己。撥亂乾坤見太平。

復舉。文殊三處度夏。迦葉欲白椎擯之。乃見百千文殊在前。世尊云。迦葉汝欲擯那箇文殊。迦葉休去。師云。世尊扶強不扶弱。好與一椎。本覺者裡。若有个般破規越矩底漢。却須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特榻延之。何故。莫怪坐來頻勸酒。自從別後見君希。

上堂。僧問。如何是通宗通途。師云。東去西去。進云。如何是叶帶叶路。師云。南來北來。僧退。師乃云。世界恁麼廣闊。因什麼坐在者裡動不得。拈拄杖云。東去西去。南來北來。金色尊者。獨上高臺。卓拄杖。下座。

病起上堂。昨日病前日病。病病相尋。無有自性。坐斷淨名舌頭。倒行摩竭正令。擊拂子。野狐窟裡產狻猊。獼猴各佩軒轅鏡。中秋上堂。久矣不上堂。口邊生白醜。侍者來燒請法香。拈出秦時舊[車*度]輅。金剛腦後下一錐。空裡磨盤生八角。寒山撫掌笑呵呵。夜來月向西邊落。喝一喝。

復舉。長沙與仰山翫月次。山云。人人盡有者箇。只是用不得。沙云。恰是倩汝用。仰山云。作麼生用。長沙近前。與一蹈蹈倒。仰山起來云。師叔直下是箇大蟲。師云。奇怪諸禪德。仰山大似勾賊破家。當時待他道恰是倩汝用。便與一蹈蹈倒。直饒岑大蟲。有師子爪牙。到此也無用處。久立。重九客至上堂。兩兩不成雙。三三自成九。本色住山人。何處尋窠臼。卓拄杖云。離四句絕百非。驢前馬後。莫亂針錐。

上堂。摩竭掩室。毗耶杜詞。咬定牙關。不通水泄。本覺者裡。但管飢來喫飯。困來打眠。熱則取涼。寒則向火。今朝十月初。一早間喚奴子。深開地爐。滿堆黃葉。方外高人到來。且貴大家暖熱。只如丹霞燒木佛。因什麼。院主眉須墮落。請大眾。下一轉語。祖忌拈香。此土西天。單傳直指。護得眉毛。打失版齒。隻履空棺。謾神謔鬼。可憐無事人。未能笑得你。

上堂。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相罵饒你接觜。相唾饒你潑水。南泉斬猫。作麼生。良久。人貧智短。馬瘦毛長。小參。即心即佛。非心非佛。不是心。不是佛。不是物。拈起鐵蒺藜。打破山鬼窟。是柱不見柱。非柱不見柱。是非已去了。是非裡薦取。脚跟下色線猶存。是句亦割。非句亦割。臨濟白拈。睦州擔板。似者一火太平奸賊。亂世英雄。總只無佛處稱尊。若在如今。一時與伊生按過。拈拄杖畫一畫云。山是山水是水。僧是僧俗是俗。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夜短晝長。陰消陽長。是人知有。只如一畫未形已前。吉凶悔吝。向什麼處著。到者裡。饒你似鶻捉鳩。未免撈天摸地。若只今日三明日四。坐消信施。仰愧龍天。閻羅殿前。打鬼骨髀有日在。卓拄杖云。達磨九年面壁。二祖三拜傳心。老盧腰石負春。究竟高登祖位。選佛若無如是眼。宗風那得到如今。

復舉。僧問六祖。黃梅衣鉢。什麼人得。祖云。會佛法底人得。僧云。和尚還得麼。祖云。我不得。僧云。為什麼不得。祖云。我不會佛法。師云。腦後見腮。莫與往來。久立。

上堂。夜來擊鼓小參。為存家教。今日陞堂說法。慶賀書雲。要知祖意西來。但聽山呼萬歲下座。

上堂。僧問。蟪蛄蟲吞却虎時如何。師云。賞你大膽。進云。恁麼且退身三步。師云。章泉福建頭匾似扇。僧擬議。師便打云。一任舉似諸方。乃云。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金圈栗棘。覲面施呈。擔板阿師。水中撈月。五祖和尚云。山僧有時擬為你吞却。又為咽喉小。擬為你吐却。又為牙齒礙。還有為人處也無。喝相逢不在頻頻舉。達者須知暗裡驚。

上堂。舉一明三。目機銖兩。萬仞峯頭。衝開雪浪。乾闥婆王奏樂。山河大地盡作琴聲。直得須彌岌岌。海水波騰。迦葉起舞。世尊證明。是你諸人。因什麼。一向瞌睡。喝一喝。下座。

小參。金烏飛玉兔走。暑往寒來總仍舊。不涉春緣別有條。今朝臘月二十九。祖祖相傳。佛佛授手。一句全提。萬機通透。三聖問雪峯。透網金鱗。以何為食。峯云。待汝出得網來。即向汝道。三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峯云。老僧住持事煩。真不掩偽。曲不藏直。合水和泥。巖標岳立。永嘉大師道。師子兒眾隨後。三機便能大哮吼。若是野干逐法王。百年妖怪虛開口。便是者箇道理也者箇道理。山僧不敢謾你諸人。那箇道理。諸人也莫謾山僧好。何故。諸人知處。良遂總知。良遂知處。諸人不知。喝。丫鬢女子畫蛾眉。鸞鏡臺前語似癡。自說玉顏難比並。却來架上著羅衣。擊拂子。

看藏經上堂。以字不成。八字不是。玉轉珠回。輝天鑑地。所以道。法王法力超群生。能以法財施一切。能善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敢問大眾。釋迦老子。四十九年。三百餘會。橫說豎說。直說曲說。充滿虛空。周遍法界。且道。是第一義。是第二義。汝等比丘。欽奉 聖旨。頒降御香。一七日中。三輪同轉。是動不動。者裡下得一轉語。便見波斯匿王問世尊。勝義諦中。還有世俗諦否。若言其有。知不應二。若言其無。知不應一。一二之義。其義云何。世尊云。大王汝於龍光佛時。曾問此義。我今無說。汝亦無聞。無說無聞。是名一義二義。豁開戶牖。萬里不掛片雲。堯風蕩蕩。舜日熙熙。行者讓途耕者讓畔。且因齋慶讚一句。作麼生道。拈起少林無孔笛。大家吹出萬年權。

復舉。東印度國王。請般若多羅祖師齋次。乃問云。諸人盡轉經。尊者為什麼不轉經。尊者云。貧道出息不涉萬緣。入息不居陰界。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豈止一卷兩卷。師云。大王重處偏墜。尊者薄處先穿。山僧即不然。待問諸人盡轉經。尊者因甚不轉經。但對云。請陛下高垂天鑑。設或得魚忘筌。靈山付囑有在。還委悉麼。御樓觀射獵。不是刈茅田。

上堂。今朝進退兩序。恰值上元佳節。況是大朴師兄到來。畢竟如何施設。教中道。譬如暗中寶。無燈不能見。佛法無人說。雖慧莫能了。壽山不免。倒用太湖三萬六千頃渺瀰之口。洞庭七十一二朵峭巍之舌。已說見說當說。圓融不礙行布。行布不礙圓融。借婆衫子拜婆年。井底蝦蟇吞却月。擊拂子。

上堂。即色明心。附物顯理。驢作驢鳴。犬作犬吠。三世諸佛。不知有。六代祖師不知有。建立半滿偏圓。掃除權實空有。水底藏身被火燒。一一面南看北斗。卓拄杖。

佛涅槃上堂。今朝二月十五。萬象森羅起舞。世尊入般涅槃。壽山擊動法鼓。大眾若道世尊滅度。是謗佛。若道世尊不滅度。是謗法。若道諸人不會此理。是謗僧。謗佛謗法謗僧。合入無間地獄。到者裡。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直須高高峯頂立不露頂。深深海底行不濕脚。然後荊棘林裡坐。荊棘林裡臥。開佛知見。示佛知見。令諸眾生。悟佛知見。入佛知見。喝。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拍禪床云。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闌干。

開山忌上堂。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是好手。今朝三月十五。正是夏前春後。饒你不住兩頭。當處也成窠臼。拈拄杖。即今慧靜禪師。向拄杖頭上。吹無孔笛鼓沒絃琴。非唯憂玉鏗金。直是移星換斗。卓拄杖。喝一喝。

上堂。師子吼無畏說。百獸聞之皆腦裂。香象奔波失却威。天龍寂聽生欣悅。左擊拂子云。者箇不是師子吼。右擊拂子云。者箇不是無畏說。諸人耳在一聲中。一聲偏在諸人耳。不是寂聽生欣悅。恁麼恁麼。卷舒立方外乾坤。不恁麼不恁麼。縱橫掛域中日月。恁麼中有不恁麼。不恁麼中却恁麼。下座。詣大佛殿。啟建天壽聖節。上堂。僧問。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師云。老不歇心。進云。國師因甚却道。將謂吾孤負汝。元來却是汝孤負吾。師云。頭上著枷。脚下著杻。進云。伯牙與子期。不是閑相識。師云。矮子看戲。僧禮拜。師乃云。三界無法。何處求心。掀翻藏海。別闡玄音。諸方按牛頭喫草。者裡行自己叢林。不說負吾負汝。不說照古照今。只貴一念相應。自然萬境平沉。五祖和尚云。如馬前廝撲。如辟歷閃電。會即大富貴。不會空對面。喝一喝。

浴佛上堂。大眾還見釋迦老子麼。未離兜率。滿面塵埃。既出母胎。通身泥土。饒你山河大地。草木叢林。盡為衲僧。一一衲僧。有無量杓。一一杓中。有無量香水海。直從今日。洗至窮劫。還得淨潔也無。者裡眼親手辦。倒轉杓頭。便見垢相永離。十方清淨。其或未然。釋迦老子。有沒量罪過。山僧有沒量罪過。不干諸人事。下座。

小參。山僧自來嘉禾。今夜是第三度。為諸人說安居法。好大眾。香煙起處。燈燭交輝。法鼓鳴時。人天普集。便爾散去。含元殿上。覓甚長安。古佛堂前。此時參畢。更待說佛說祖。舉古舉今。堅守蠟人。如鵝護雪。大似屈辱諸人。直饒捩轉面皮。伸出毛手。打破野狐窟宅。掀翻荊棘叢林。也是舍己從人。斬頭覓活。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喝一喝云。還知落處麼。臨濟大師道。我此一喝。如金剛王寶劍。我此一喝。如踞地師子。我此一喝。如探竿影草。我此一喝。不作一喝用。聖凡情盡。能所俱忘。拈一莖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莖草。與麼也得。不與麼也得。敢問大眾。適間為什麼不得。如今為什麼却得。得不得是不是。差之毫釐失千里。歸雲誰使就青山。落花自得隨流水。喝一喝。

復舉。僧問睦州。高揖釋迦。不拜彌勒時如何。州云。昨日有人問。趕出了也。僧云。和尚恐某甲不實那。州云。拄杖不在。苕帚柄聊與三十。師云。睦州老漢。只解高高峯頂立。不能深深海底行。忽有問山僧。高揖釋迦。不拜彌勒時如何。只消道。且坐喫茶。畢竟是賞是罰。具眼者辨取。珍重。

上堂。本覺今朝結夏。為汝約法三章。一者日裡一餐。二者夜間一寢。三者山門頭佛殿裡。東行西行。不得踏破常住塼。卓拄杖。下座。

師一日坐次。有僧云。堂中有數人兄弟。舉皓布裊法身頌。各人下語。未審契得師意也無。師云。好箇消息。且舉看。僧一一舉了。師云。相罵饒你接嘴。相唾饒你潑水。要會法身頌。更參三十年。僧云。即今問底。是法身。是色身。師云。驢前馬後漢。僧便喝。師云。驢前馬後漢。亂叫喚作什麼。便打出。

上堂。霏霏梅雨洒危層。五月山房冷似冰。莫謂乾坤乖大信。未明心地是炎蒸。老雪竇大似和麩糲。貴在一時。本覺近日喜雨。歡動雷聲。拈拄杖云。夜來木上座。向山僧道。明日待我與諸人。設箇家燕。一要慶賀好雨。二要暖熱大眾。三要捩正天下衲僧鼻孔。卓拄杖云。莫怪空踈。伏惟珍重。下座。

室中問僧云。道得也打。道不得也打。僧擬議。師便打。復問僧云。你道好打麼。僧擬開口。師便打出。復問僧云。適來打得者兩箇僧。是麼。僧云。是。師便打出。

上堂。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新羅國裡打鼓。大元國裡上堂。阿耨達池龍王請佛齋。賓頭盧尊者亦預其數。

上堂。顧視大眾云。便與麼休得也未。眾擬議。便下座。

上堂。毗盧藏中。有大經卷。主伴互融。理事俱顯。及乎點讀開科。多是討頭不見。山門保護青苗。為汝提掇一遍。卓拄杖。乃合

掌云。稽首文殊普賢。却須管取一百四十大願。下座。
上堂。一葉落天下秋。是人知有。一塵起大地收。置而不問。騎却聖僧。蹈倒水潦。是第幾機。卓拄杖云。龍生金鳳子。衝破碧琉璃。
小參。萬里無寸草。出門便是草。嘉州大象驀翻身。陝府鐵牛驚絕倒。逢人不出。賣狗懸羊。打破鏡來。天荒地老。是則金沙混雜。非則玉石俱焚。不有本分鉗鎚。難明向上一竅。卓拄杖云。一曲少林無孔笛。從來多是逆風吹。
進退頭首上堂。宗門中有四種賓主。臨濟大師已嘗點出。若也脚未跨門。一一辨得。非唯不久當作唱導之師。抑且不繆為吾家種草。其或奴郎不辨。玉石不分。要稱衲僧。未得在。豈不見。忠國師睡次。丹霞適至。乃問侍者耽源云。國師在麼。源云。在即在。只是不見客。霞云。太深遠生。源云。莫道上座。佛眼也覷不見。霞云。龍生龍子。鳳生鳳兒。遂去。國師睡起。源舉似前話。國師打二十拄杖趨出。丹霞聞云。不繆為南陽國師。喝一喝云。不解作客。勞煩主人。雖然。不因夜來鴈。爭見海門秋。
上堂。藥山久不上堂。院主椎鐘擊鼓。分明盡底掀翻。猶道一詞不措。本覺據令提綱。不作者般調度。今朝月旦拈香。撥開向上一路。誰言射虎不真。枉發千鈞之弩。
九日上堂。三四五六七八九。碧眼胡僧不知有。三更收得夜明符。天曉起來成漏逗。籬下黃華爛熳開。龍山落帽霑風埃。令人長憶龐居士。天上人間不可陪。阿呵呵。會也麼。若也不會。山僧更道兩句去也。石頭一箇住山斧。古往今來稱獨步。馬師胡亂三十年。誰道少鹽還少醋。喝一喝。
上堂。諸方今日開爐。本覺辭眾退院。耆舊上下相留。又把船頭撥轉。所以道。動若行雲。止猶谷神。既無心於彼我。豈有象於去來。去來不以象。故無器而不形。動靜不以心故。無感而不應。拍禪床云。一等共行山下路。眼頭各自看風煙。
祖忌拈香。西天著不得。東土著不得。破六宗謾有多言。對梁王全無朕迹。坐久成勞忽轉身。春風滿地花狼藉。
上堂。良久。顧視大眾云。會麼。山僧無說。汝等無聞。無說無聞。是第一義。驀拈拄杖。卓一下云。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擲下拄杖下座。
舟中值冬至。二三友請小參。一道虛明。總是自家田地。初爻既兆。全彰劫外乾坤。無去來動靜之殊。無取舍是非之異。可以騎聲蓋色。可以隨流入流。可以泛華亭半葉之舟。可以盡澤國煙波之勝。不舉任公之釣。非同濠上之遊。擊拂子云。劈口一橈已傷鹽

醋。離鈎三寸。休更回頭。拍膝云。永夜月明天在水。鴈聲飛過白蘋洲。

上堂。三日前五日後。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栖巢。古人恁麼道。猶欠悟在。山僧道。三日前五日後。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拍禪床云。但行平等事。何用問前程。

臘八上堂。深山巖崖。有甚佛法。冷坐六年。全無合殺。豁開正眼定乾坤。十方世界阿刺刺。喝一喝。箭穿紅日影。誰是射鷗人。

上堂。今日要上堂。夜來先作夢。破的那羅延。百發而百中。卓拄杖。便下座。

小參。僧問。承言者喪。滯句者迷。不涉二途。如何進步。師云。鐵壁銀山萬仞高。進云。恁麼則瞻仰有分。師云。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僧禮拜。師乃云。破顏一笑豈徒然。從此靈山有正傳。面目見前如薦得。春風不在老梅邊。喝。寐語作麼。我所得智慧。微妙最第一。眾生諸根鈍。著樂癡所盲。殊不知。我王庫內無如是刀。岩頭和尚云。若欲播揚大教。直須向自己胸中。流出將來。與我蓋天蓋地。咄哉。魍魎妖精。欺胡謾漢。雪峯云。師兄今日始是鼇山成道。一盲引眾盲。相牽入火坑。雖然恁麼。且作麼生是他成底道。莫有道得底麼。若也道得。萬古長空。一朝風月。薄批細切。儘可與諸人分歲。其或未然。倚他門戶傍他牆。剛被時人喚作郎。又爭怪得。

復舉。德山和尚。一日謂臨濟云。今日困。濟云。者老漢寐語作麼。山拈拄杖。濟便掀倒禪床。師云。是則是。兩員猛將。然雖力敵勢均。其奈無風起浪。千古之下。未免招人撿點。還委悉麼。堯舜不彰民自化。相逢何必動干戈。

元旦上堂。元正啟祚。萬物咸新。莫有不涉春緣者麼。時有僧出云。打鼓弄琵琶。相逢兩會家。望闕賀正。願聞法要。師云。八方開壽域。一氣轉洪鈎。進云。不涉春緣。乞師舉唱。師云。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進云。如何是德山棒。師云。義出豐年。進云。如何是臨濟喝。師云。儉生不孝。僧禮拜。師乃云。月生一。三世如來從此出。月生二。突出西來祖師意。月生三。森羅萬象競頭參。拍禪床云。皇基磅礴三千界。寶曆開端億萬年。

元宵上堂。釋迦老子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殞。五祖和尚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築著磕著。若向築著磕著處會得。只會得祖師禪。不會如來禪。若向悉皆消殞處會得。只會得如來禪。要且未會祖師禪在。山僧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性相平等。且道。是如來禪。是祖師禪。喝一喝云。一釋迦。二元和。三佛陀。自餘是什麼盃脫丘一个。擊拂子云。今日燒燈令節。山門進退兩序。大耆舊欽敬堂。供佛齋僧。水陸冥陽。森羅萬象。無不

周足。因齋慶贊。有个頌子。舉似諸人。休誇水上掛燈毬。妙德奇勳合預修。珍重法筵龍象眾。莫將容易度春秋。

上堂。僧出眾云。學人上來。擬伸一問。師云。鷓子過新羅。便下座。佛涅槃上堂。老胡七十九。傀儡線索斷。飲光尊者來。榔裡雙趺現。如蛇入竹筒。曲性終難斷。公案既見成。如何為批判。不若燒香供養渠。從教人道無思筭。

上堂。有一句到你。針頭削鐵。無一句到你。錦上鋪花。狗子尾巴。書卍字。野狐窟宅梵王家。

上堂。毗盧頂上一轉語。萬象森羅為君舉。昨夜三更失却牛。天明大棒打老鼠。喝。

上堂。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云。釋迦自釋迦。進云。出世後如何。師云。彌勒自彌勒。進云。承師有言。釋迦不受然燈記。畢竟受什麼人記。師云。自家肚皮自家畫。僧禮拜。師乃云。天上天下無如佛。十方世界亦無比。世間所有我盡見。一切無有如佛者。釋迦老子。塵沙劫前。將者一杓惡水。潑他先聖。及至成佛。復受一切人潑。所以道。假饒經百劫。所作業不忘。因緣會遇時。果報還自受。下座。浴佛諷經。謹白。

小參。見兔放鷹。見月忘指。大用現前。不存規矩。須彌山突出諸人額角邊。大海水灌入諸人鼻孔裡。鏗金戛玉。病在膏肓。截鐵斬釘。猶掛脣齒。踞虎頭收虎尾。第一句下明宗旨。人間五百年。彼天為一晝夜。彌勒大士。於一時間。成就五百億天子。證無生法忍。象王蹴踏。非驢所堪。雪曲應稀。徒勞側耳。山中今日結制。炊無米飯。飽不飢人。開無礙門。示解脫道。東方來者東方坐。西方來者西方坐。南方來者南方坐。北方來者北方坐。東方來者燒楓香供養伊。西方來者燒餅香供養伊。南方來者燒檀香供養伊。北方來者燒沉香供養伊。且總不與麼來時。又作麼生。拈拄杖敲香臺云。金果早朝猿摘去。玉華晚後鳳銜歸。

上堂。黃檗沒伎倆。臨濟不唧[口*留]。高安灘上多口師。末後為渠出隻手。然雖。路見不平。也是推門入臼。喝。

上堂。僧問。直指人心。見性成佛。意旨如何。師云。胡地冬抽筍。進云。心不是佛。智不是道。又作麼生。師云。六月黃河連底凍。僧禮拜。師乃云。大眾記取者僧問頭。便下座。

上堂。聞聲悟道。見色明心。鵲噪鴉鳴。風動塵起。癡人面前。不得說夢。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深山藏獨虎。淺草露群蛇。一年一度天中節。細切菖蒲泛醞茶。下座。滿散青苗經上堂。佛以一音演說法。眾生隨類各得解。靈山會上。退席五千。逝多林中。半聾半啞。眼空四海必有商量。心洞十方。

孰辨真假。卓拄杖云。綠楊陰裡戴嵩牛。芳草渡頭韓幹馬。喝一喝。下座。

上堂。舉風穴在郢州衙內陞座云。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只如不去不住。印即是。不印即是。時有盧陂長老。出眾云。某甲有鐵牛之機。請師不搭印。穴云。慣釣鯨鯢澄巨浸。却嗟蛙步躐泥沙。陂佇思。風穴打一拂子云。長老何不進語。陂擬開口。風穴又打一拂子。時牧主云。元來佛法與王法無二。風穴云。見个什麼道理。牧主云。當斷不斷。反招其亂。師云。焦塼打著連底凍。雖然。不是盧陂長老。爭見得風穴老人。不是風穴老人。爭識得牧主个漢。拈拄杖云。者一隊漢。鼻孔眼睛。總與穿却了也。是你諸人。有事近前。無事珍重。

上堂。舉師祖問南泉。摩尼珠人不識。如來藏裡親收得。珠即不問。如何是藏。泉云。王老師與汝往來者是藏。祖云。直得不往來時如何。泉云。亦是藏。又問。如何是珠。泉喚師祖。祖應諾。忽然大悟。師云。千鈞之弩。不為鼯鼠發機。者僧悟去。正是紅爐上一點雪。本覺門下。又作麼生。不貪香餌味。可謂碧潭龍。

小參。方見立春。又是冬至。百歲光陰。不消彈指。間過了。是你諸人。二六時中。還曾恁麼猛省也未。盡大地是个解脫門。把手拽不入。周金剛。據一條白棒。佛來也打。祖來也打。及乎撞著一个毛頭星到來。接住與他一送。依舊有舌如結。有口如啞。如今冷地思量。者一火魍魎妖精。知他是真是假。所以本仁和尚示眾云。老僧尋常不欲向聲前句後。鼓弄人家男女。何故。要且聲不是聲。色不是色。高懸羊頭賣狗肉。時有僧問。如何是聲不是聲。也好與一撈。仁云。喚作色得麼。渾鋼打就。生鐵鑄成。僧云。如何是色不是色。矢在弦上。不得不發。仁云。喚作聲得麼。一狀領過。又云。且道。與你說。答你話。有人辨得。許你有个人處。是何心行。雖然。曾為蕩子偏憐客。自愛貪杯惜醉人。

冬至上堂。一冬二冬。叉手當胸。逢場作戲。遇緣即宗。打瓦鼓應黃鍾。風從虎兮雲從龍。下座。

臘八上堂。老胡三更失却牛。天明起來捨得馬。從茲要騎即便騎。到處要下即便下。佛殿上螭吻。忍俊不禁肆口說禪。不覺觸著山門頭金剛。惡發把耐重子一擗。撞倒金香爐下鐵崑崙。蹈翻鴛鴦湖不留涓滴。却向山僧拂子頭上慶讚云。佛道懸曠。久受勤苦。乃可得成。喝云。被山僧一喝。直得懍懍懼懼依位而立。趙州栢樹子。却低聲近前。向他道。人無遠慮。必有近憂下座。詣大佛殿諷經。謹白。

除夜進退兩序小參。天寒歲晚。衲衣下事。正好提撕。夜暗晝明。頂[寧*頁]神光。何妨顯露。以之建立化門。以之闡揚宗旨。以之

布楊岐金圈。以之據南泉鉢位。以之回屋頭春色。以之植陰涼大樹。以之續照世燈。以之成佛子住。以之撥轉如來妙輪。以之揭示衲僧巴鼻。掀翻海岳。誰是知音。把斷要津。點頭自許。一不得有。二不得無。三十三天撲帝鐘。八臂那吒擎鐵柱。阿呵呵。釋迦老子與天帝釋。相爭佛法甚鬧。王老師忍俊不禁。打二十拄杖趨出。是則令不虛行。其奈將真珠作豌豆糶却。本覺雖是死馬醫。就中要妙。拈拄杖卓一下云。文殊普賢。寒山拾得。疥狗泥豬。者白拈賊。喝一喝。

元旦上堂。元正啟祚。上馬見路。萬物咸新。觸處通津。共惟頭首大眾。雖是死蛇。却要活弄。各各道體。起居萬福。師子哮吼。象王回旋。虎拜稽首。天子萬年。

元宵上堂。十五日已前。明不見暗。十五日已後。暗不見明。正當十五日。譬如一室中然一燈。外懸十鏡。燈鏡交輝。重重無盡。喚作境智互融。事理俱備。不妨奇特。若約衲僧分上。正是抱橋柱澡洗。把纜放船。有甚共語處。豈不見。臨濟會下。兩堂首座相見。同時下喝。直是賓主歷然。若也見得。非唯慶快平生。光揚宗眼。便可向高高峯頂行船。深深海底走馬。利劍提來斬萬機。將報不平繞天下。喝。

上堂。小盡二十九。大盡三十日。從頭檢點來。今朝二月一。春山疊亂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老明覺向者裡。打開寶藏。運出家珍。其奈坐在尊貴中。致使諸人當面蹉過。喝一喝。

無想仲謀和尚至上堂。興化接同參。傷鹽仍費醋。本覺遇知己。目擊而道存。棒喝既不施。權實將焉措。石上與松根。相對意自足。為復古人非。為復今人是。到此休論是與非。畢竟古今無二致。須彌頂上擊金鐘。下載清風殊未已。喝一喝。

上堂。前佛性命後佛紀綱。豎拂子云。總在拂子頭上。拈起也風生百谷。放下也水肅千江。今朝啟建 聖節。合作麼生舉唱。擊拂子云。臥龍纔奮迅。丹鳳便翱翔。

上堂。舉古德云。忍忍。三世如來從此盡。饒饒。萬禍千殃從此消。默默。無上菩提從此得。慈受和尚云。會得此三種語了。好个不快活漢。山僧正是得人一牛。還人一馬。潑水相唾。插觜廝罵。卓拄杖云。平出平出。師云。老慈受雖則一期逞俊。未免落賺後人。本覺即不然。三種內三種外。土塊泥團。南金大貝。衲帔蒙頭萬事休。他家自有通人愛。

上堂。春日晴黃鶯鳴。大藏小藏鼻孔眼睛。木馬嘶泥牛舞。壽山不打者破鼓。便下座。

浴佛上堂。釋迦老子。未離兜率。已降王宮。好與三十棒。未出母胎。度人已畢。好與三十棒。本覺與麼判斷。也好與三十棒。釋迦老子過處。本覺固自知之。本覺過處。諸人還知麼。良久。拍禪床云。携取詩書歸舊隱。野花啼鳥一般春。

小參。三期不立見全勳。一念纔差喪本真。拈却髑髏前妄想。大千都是法王身。諸禪德。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見在諸菩薩。今各入圓明。未來修學人。當依如是法。如是之法。不假外求。求而得之。亦非得也。所以少室西來。只說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初無勾章棘句。疊妙重玄。與你咬嚼。山僧分明與你道了。是你信也好。不信也好。信則平步青霄。不信則通身泥水。然雖如是。却須知通身泥水處。有平步青霄底道理。平步青霄時。有通身泥水底消息。豈不見。金峯和尚云。山僧二十年前有老婆心。二十年後無老婆心。時有僧問。如何是二十年前有老婆心。峯云。問凡答凡。問聖答聖。又問。如何是二十年後無老婆心。峯云。問凡不答凡。問聖不答聖。喝一喝云。當時若有人下得者一喝。非唯勦斷者老漢脚跟。抑亦可以開鑿天下後世衲僧眼目。阿呵呵。會也麼。人皆苦炎熱。我愛夏日長。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無本據有商量。卓拄杖。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裡過來香。

上堂。今朝四月十五。本覺與現前大眾。同依如來大光明藏。以一彈指頃而為長期。於其中間。修習過現未來三世諸佛。所有法門。發揮開示悟入之機。遠離作止任滅之病。所謂作無所作。為無所為。修無所修。證無所證。直得諸天散華無路。外道潛覷無門。坐斷報化佛頭。超出聖凡途轍。便與麼去。著衣喫飯。蓋是尋常。且舌頭不出口一句。又作麼生道。擊拂子。野老不知堯舜力。鑿鑿打鼓祭江神。

上堂。一大藏教。束之高閣。長期短期。無繩自縛。莫更紛紛紜紜。直須洒洒落落。楊岐一頭驢。只有三隻脚。潘閭倒騎歸。跌殺黃番綽。五味拈來饋秤錘。別有香風滿寥廓。喝。

復舉道吾和尚云。高不在絕頂。富不在福巖。樂不在天堂。苦不在地獄。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大慧和尚云。高在絕頂。富在福巖。樂在天堂。苦在地獄。誰知席帽下。元是昔愁人。師云。二大老。一人高高處觀之不足。一人低低處平之有餘。唱教門中。足可觀光。若約衲僧門下。猶欠悟在。本覺又作麼生。但將飯向無心盃。自有人提折脚鐺。

上堂。五月五天中節。不書符不捏訣。放教心地坦然平。百怪千妖自消滅。豈不見。文殊一日令善財採藥。善財云。無不是藥者。文殊云。是藥採將來。善財拈一莖草。度與文殊。文殊接得示眾云。此藥亦能殺人。亦能活人。天童華和尚云。大小文殊被善財換却眼

睛。大眾應蒼老人。可使為百世宗師。要且只知其一。不知其二。山僧道。一手不獨拍。兩手鳴擗擗。擔板禪和氣食牛。擡頭只道乾坤窄。喝。

上堂。舉龐居士訪洛浦拜起云。仲夏毒熱。孟冬薄寒。洛浦云。莫錯。士云。龐公年老。浦云。何不寒時道寒熱時道熱。士云。患聾作麼。浦云。放你三十棒。士云。啞却我口。瞎却你眼。師云。洛浦本是大人。龐公自愛小道。若也據令而行。合與本分草料。雖然如是。放過也好。會麼。饒人不是癡漢。

上堂。今朝六月初一日。陞座拈香祝 聖君。一句當陽須薦取。祖師元是嶺南人。

小參。今朝七月十四。正是休夏自恣。鼓聲既已說法。諸人何不瞥地。好諸禪德。鐘中無鼓響。鼓中無鐘聲。鐘鼓不交參。句句無前後。便是釋迦老子。再出頭來。長說短說。直說曲說。密說顯說。總不出者个道理。文殊三處度夏。也不出者个道理。迦葉欲擯文殊。也不出者箇道理。古有老宿。一夏不與人說話。也不出者个道理。僧云。不敢望和尚說佛法。得聞正因二字。也難得。也不出者箇道理。老宿云。若論正因。一字也無。與麼道了。扣齒云。適來無端不合與麼道。也不出者了道理。隣壁老宿聞云。好一釜羹。被兩顆鼠糞汗却。也不出者个道理。雪竇云。誰家鍋釜裡無一顆兩顆。也不出者个道理。仰山鋤一片畚。種一籬粟。也不出者个道理。滄山日中一餐。夜裡一寢。也不出者个道理。洞山云。秋初夏末。兄弟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也不出者个道理。石霜云出門便是草。也不出者个道理。是你橫擔拄杖。緊絆草鞋。朝遊天台。暮歸檀特。也不出者个道理。且道者个道理。從什麼處得來。得恁麼奇特。得恁麼廣大。得恁麼靈驗。得恁麼自在。卓拄杖。鴛鴦繡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復舉僧問六祖云。黃梅衣鉢什麼人得。祖云。會佛法人得。僧云。和尚還得麼。祖云。我不得。僧云。和尚因什麼不得。祖云。我不會佛法。大慧和尚云。大眾還見祖師面目麼。若也不見。山僧為你指出。乃云。蕉芭蕉芭。有葉無丫。忽然一陣秋風起。恰似東京大相國寺三十六院東廊下。王和尚破袈裟。必竟如何。歸堂喫茶。師云。祖師面目。妙喜老漢已為指出。妙喜面目。諸人還見麼。拍禪床。唵摩呢嚩唎吽嚩吒。久立。

上堂。佛歡喜僧自恣。香象渡河截流而去。有利無利不離行市。拄杖頭邊。別有天地。卓拄杖。喝一喝。

上堂。真諦以言非有。俗諦以言非無。真俗不二。是名聖諦第一義。拈拄杖。者个是拄杖子。阿那个是聖諦第一義。卓拄杖。得之於心。伊蘭作栴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

上堂。以字不成。八字不是。大用現前。丹霄獨步。無偏無黨。皇道蕩蕩。無黨無偏。皇道平平。卓拄杖。月中仙桂和根拔。海底驪龍摘角牽。

上堂。八月秋何處熱。達磨老臊胡。有語非干舌。齧鏃破關。斬釘截鐵。父子雖親不傳。未是神仙妙訣。喝一喝。

上堂。眉間掛劍。血濺梵天。大用現前。一椎兩當。普化街中木鐸。盤山猪肉案頭。驀拈拄杖。卓一下云。有時乘好月。不覺過滄洲。

源首座至上堂。二由一有。一亦莫守。一心不生。萬法無咎。首座有長處。何須更開口。萬仞峯頭把釣竿。一掣六鼇頻入手。松間石上不妨暫且盤桓。佛祖位中。自是推門入臼。大眾還委悉麼。豐城寶劍未出匣。夜夜寒光射牛斗。

上堂。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云。太平本是將軍致。進云。出世後如何。師云。不許將軍見太平。僧禮拜。師乃云。九九九。釋迦老子不知有。翻轉面皮。伸出毛手。握金剛椎碎窠臼。突出無位真人。一一面南看北斗。應菴老人一時逞俊。未免以己妨人。本覺則不然。九九九。狸奴白牯却知有。展開驢脚。伸出佛手。把住黃絹幼婦。放行外甥壘臼。鐵鞭擊碎珊瑚枝。驚起土星犯牛斗。喝一喝。

開爐上堂。丹霞和尚一日到古寺。適值天寒。取木佛燒火向。院主呵云。何得燒我木佛。丹霞以拄杖撥灰云。燒取舍利。院主云。木佛安有舍利。丹霞云。既無舍利。更請兩尊燒之。院主自後眉須墮落。山僧當時若作院主。待他道既無舍利。更請兩尊燒之。便與蹈向火中。免見千古之下。引得一類學語之流。隨例道大用現前。不存軌則。喝一喝。

小參。六爻沉伏。一氣潛回。雖是死蛇。解弄也活。拈一機而機機普應。用一法而法法全彰。廓人天未證之門。揭佛祖不傳之妙。浮幢剎外。把斷要津。賢聖劫中。位居第一。有一句到你。不萌枝上綠覆層陰。無一句到你。無影樹頭花敷五葉。別別。細不容針。大通車轍。缺齒胡僧笑點頭。衲僧眼裡添金屑。喝一喝。

上堂。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乃喝一喝云。是賓是主。是照是用。又喝一喝。是非已去了。一喝沒交涉。否極泰來。君子可八。謝秉拂冬齋上堂。法離見聞。言詮罔及。道非色相。智照洞然。首座用處即是藏主用處。藏主用處即是都寺用處。一即三三即一。木馬火中嘶。黃昏候日出。你諸人向个裡著得眼。便見都寺用處。要且不是藏主用處。藏主用處。要且不是首座用處。還會麼。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沉。

德藏大用法師至上堂。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海底泥牛吼月。山頭木馬追風。不唯透色透聲。直是破塵破的。是你諸人。向者裡打得徹去。賴有德藏與汝證明。其或未然。山僧未免別資一路拈拄杖。卓一下。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

復云。昨晚德藏和尚賜訪。熏爐茗椀。夜雨連床。話盡海月山雲。不覺揭翻金剛大士天靈。蓋釋迦老子忍俊不禁。遽然說偈曰。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世尊恁麼說。固是希有。若約衲僧門下。天地懸殊。大眾還委悉麼。聲色元非我。如來復是誰。蕭蕭風雨夜。相對眼如眉。下座。

上堂。正覺山前明星見時。釋迦世尊。與大地眾生。一時成佛。祖師門下。蹉口道著佛字。漱口三年。前行不到。末後太過。各與二十拄杖。忽有一个不顧危亡底漢出來道。本覺與麼判斷。也合喫二十拄杖。山僧却須分付明窗下安排。何故。佛滅二千年。比丘少慚愧。

上堂正旦值庚申。成湯德日新。皇元開鳳曆。八萬四千春。開山忌值客至上堂。三月十有五。打動鼓山鼓。大海既波騰須彌亦掀舞。真淨和尚道。是日已過。命亦隨滅。如少水魚斯有何樂。唯二乘禪定寂滅之樂。是為真樂。學般若菩薩法喜禪悅之樂是為真樂。三世諸佛。四無量心。慈悲喜捨之樂。是為真樂。石霜普會云。休去歇去。冷湫湫地去。是為二乘寂滅之樂。雲門云。一切智通無障礙。拈起扇子云。釋迦老子來也。是為法喜禪悅之樂。德山棒臨濟喝。是為三世諸佛。慈悲喜捨之樂。除此三種樂外。不為樂也。且道。歸宗一眾。在三種內。三種外。良久云。今日莊主設饋飯俵覓錢。參退僧堂內普請喫茶去。師乃喝一喝云。真淨老人若無後語。又如何做得他臨濟兒孫。雖然。已是點兒落節。本覺今日。一眾不在三種內。不在三種外。也無莊主設饋飯俵覓錢。適值慧靜禪師忌辰。大家喫一箸麩去。且道與他古人。還有優劣也無。擊拂子云。鶴飛千尺雪。龍臥一潭水。

小參。僧問蠟人冰鐵彈子即且置如何是金剛圈栗棘蓬。師云。我早知你吞透不下。進云。豈無方便。師喝云。捧上不成龍。僧禮拜。師乃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小參鼓鳴。大眾齊至。較之生佛未具已前。豈有者般消息。涅槃會上廣額屠兒。放下屠刀。立地成佛。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蘇。欺君不得。所以龐居士道。十方同聚會。个个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便是者个消息也。後來此菴元和尚。舉到此是選佛場處。乃喝一喝。時或菴體和尚。忽然打破漆桶。便道。商量極處見題目。途路窮邊入試場。拈起毫端風雨快。者回不作探花郎。好與三十棒。

何故。九達公子遊華慣。未第貧儒感慨多。冷地看他人富貴。等閑無奈幘頭何。喝一喝。

禮首座至上堂。法昌一力搥鼓。功臣萬象說禪。二老徐六擔板。未免各見一邊。本覺虛心閱世。一切任之自然。或則逆風把柁。或則順水行船。總不妨事。所以道。寂寥非內。寬廓非外。寂寥非內也。一毫穿眾穴。寬廓非外也眾穴一毫收。豈不見。趙州會下二僧相推。不肯作第一座。主事白趙州。州云。總教作第二座。主事云。教誰作第一座。州云。裝香著。主事云。裝香了也。州云。戒香定香慧香解脫香。應菴老祖云。趙州下一椎。不妨驚群動眾。子細檢點將來。大似泥裡洗土塊。若是薦福門下。不用相推。第一座也有人。第二座也有人。第三座也有人。雖然不免從頭註過。第一座。鐵眼銅睛靨不破。第二座。陽春白雪無人和。第三座。真實身心同達磨。且道。與趙州是同是別。若也會得。許你具一隻眼。若也不會。也許你具一隻眼。有个衲僧出來道。總不恁麼時如何。對他道。切忌向鬼窟裡作活計。隨機應變。本分作家。裂半分三。輸他敏手。到箇裡政如披圖經而升高臺。據王令以蒞萬國。非唯放收在我。抑且遐邇不遺。山僧如斯舉唱。要且不是扶他先作。簧鼓後人。何故。面前自有五百眾中。老作家。為汝作證。還信得及麼。擊拂子。棋逢敵手難藏行。琴遇知音不厭彈。

上堂。山中二三日啟建青苗會。開眼與合眼。總是法性海。三賢固不知。十聖何曾會。唯有主稼神。證此大三昧。各乘本願力。普應眾生界。眾生界無盡。此願亦不退。稽首毗盧師。和南觀自在。時有僧出云。久嚮本覺。元來是箇座主。師云。你只識箇座主。要且不識本覺。僧便問。如何是本覺。師劈脊便棒云。烈燄豈容蚊蚋泊。擲下拄杖。便歸方丈。

永福穎首座至上堂。離四句絕百非。摩訶衍法夢裡提持。敢問大眾。夢裡覺裡是同是別。若也道得。倜儻分明。非唯小釋迦無遁形之地。便可將鄱陽三百里水面。納向鴛鴦湖一滴之中。直是不寬不隘。無欠無餘。還委悉麼。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小參。秋風涼。秋夜長。三期已滿。作麼商量。以字不成。八字不是。黃牛角指天。四脚垂過鼻。我首座出世也。我首座牧牛也。我首座行脚也。我首座來也。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威音已前道得。正是第二句。還我第一句來。擊拂子云。三要印開朱點窄。不容擬議主賓分。

復舉。僧問雲門。秋初夏末。前程忽有人問作麼祇對。門云。大眾退後。僧云。過在什麼處。門云。還我九十日飯錢來。師云。者僧貪程太速。雲門薄處先穿。有問本覺。只向道。十里長亭。五里短堠。過在什麼處。勸君更盡一盃酒。西出陽關無故人。

重陽永福子有和尚歸上堂。開甘露門。據甘露室。令諸眾生食甘露味。永福禪師。即其人也。茲者龍歸舊窟。鳳返丹山。草木叢林頓增光彩。本覺法弟何幸如之。所謂物宜求新。人宜求舊。無端陳蒲鞋。手握赤梢鯉。倒跨三脚驢。跳出雲峯破桶箍中。揚聲大叫云。欲上座你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豈不聞。佛法大事。靜退小節。山僧被渠一問。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只記得汾陽和尚道。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華新。喝一喝下座。

路官馬知事至上堂。久雨不晴。天道晦冥。浸爛鼻孔。滴穿眼睛。山僧正是煩惱不暇。忽然聽得尚書履聲。呼童掃榻。喚僧點燈。抵掌劇談半餉。悶中不覺惺惺。起來豁開戶牖。萬里不掛片雲。今朝月望陞高座。一炷清香祝 聖君。

復云。十五日^巳前。未開口一句正道著。十五日^巳後。未舉足一步正蹈著。正當十五日。開口不在舌頭上。伸脚只在縮脚裡。喝一喝。三級浪高魚化龍。癡人猶辱野塘水。

祖忌拈香。三乘教外。直指單傳。手携隻履。脚踏兩船。萬里西風卷沙漠。不知賣八布衫穿。

雞足西堂至上堂。雞足峯前風悄然。能仁堂下浪黏天。騰身抹過青霄外。一曲胡笳奏未圓。山僧數日拋離大眾。昨晚歸來得與飲光尊者相見。既曰情忘彼我。自然道叶主賓。提起陳年葛藤。直是牽拽不斷。眾中莫有一刀兩段底衲僧麼。良久云。設有也是草裡漢。

小參。天地闔闔。陰陽消長。衲僧門下。有甚伎倆。放下拂子。拈起拄杖。佛來魔來。總與一棒。從教靈山會上退席五千。善法堂前草深一丈。且貴正眼流通。作个人天榜樣。所以五六年來。雖則與諸人眉毛廝結。其實水米無交。明朝節屆書雲。不免合水和泥。打開東山家燕。先舉雲門胡餅。次烹趙州醞茶。然後掇出洞山果卓。只知道有一物上拄天下拄地。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且道。是什麼物。良久云。粗餐易飽。細嚼難飢。

復舉。僧問風穴。古曲無音韻。如何和得齊。穴云。木雞啼子夜。芻狗吠天明。大慧和尚云。者黃面浙子。恁麼答話。要做他臨濟兒孫。也未得在。或有問徑山。古曲無音韻如何和得齊。只向他道。木雞啼子夜。芻狗吠天明。師云。前行不到。末後太過。要見條理始終。須是金聲玉振。聽取一頌。木雞啼。芻狗吠。兩箇老凍膿。各長三尺喙。古曲無音和得齊。安用兒孫作臨濟。喝一喝。

上堂。節序推遷。又見一陽來復。靈光洞耀。依然體露真常。撥開向上玄關。突出眼睛鼻孔。釋迦彌勒。猶是他奴。且道。他是阿誰。擊拂子云。嶺梅殘雪後。雲鬢未梳時。

上堂。三世諸佛說不到。六代祖師傳不到。天下老和尚見不到。夜來首座藏主。一一為諸人說了也。山僧贏得口喫飯。且山僧喫飯。諸人還得飽也無。者裡道得一句。直教凡聖混融。彼我不二。豈不快哉。其或未然。一曲自歌山自綠。此情不與白雲知。擊拂子。下座。

小參。去年臘月三十日。今年臘月二十九。少處不減多不添。年去年來總仍舊。舊者不去新不來。新舊何妨自前後。所以道。礙處非墻壁。通處勿虛空。若能與麼會。心色本來同。喝。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諸增上慢者。聞必不敬信。喝。當時五千比丘。禮佛而退。豈不是皮下有血。眼裡有筋。豈似如今諸方三百五百。聚面團頭。如勾闌瓦子相似。黑漆拄杖。到者裡有屈無叫處。眾中莫有滴猊血化驢乳。煎鸞膠續斷絃者麼。良久。卓拄杖。空將未歸意。說與欲行人。喝一喝。

復舉瀉山示眾云。如許多人。只得大機。不得大用。仰山乃舉似山下一菴主云。只如和尚恁麼道。意旨如何。菴主云。你再舉看。仰山擬舉。被菴主一踏倒仰山歸舉似瀉山。山呵呵大笑。師云。瀉山老漢。垂萬里勾。駐千里烏騅。却向平田淺草中。抹住一箇焦尾大蟲。諸人要識仰山麼。也是官路販私鹽。久立。

元旦上堂。古人道。拈起也天回地轉。應須拱手歸降。放下也草偃風行。必合全身遠害。本覺即不然。拈起也群機普應。放下也萬化咸新。不拈不放時如何。擊拂子百年難一遇。元日子時春。

元宵南山和尚至上堂。盡法界是一真燈。徧塵區是一佛剎。靈利漢一踏踏翻。非唯可以觀光上國。獨步大方。便乃控佛祖宏機。廓人天幽跡。好大眾。頭峭五岳眼生三角。左刮龜毛。右截兔角。焦尾忽乘雲雷飛。金毛亂觸日月落。月裡仙人巧畫眉。九達擺動黃金鐸。喝一喝。

浴佛上堂。釋迦已滅。彌勒未生。今朝正當四月八日。天下叢林無有不浴佛者。畢竟浴底是什麼佛。佛真法身。猶若虛空。應物見形如水中月。且作麼生說个浴底道理。豈不見。遵布衲在藥山會中作殿主浴佛次。藥山云。你只浴得者个。且浴不得那个。遵布衲云。把將那箇來。藥山休去。藥山休去。天下人摸索不著。將謂。遵布衲平地上贏得一籌。殊不知。正是黠兒落節。雖然。易分雪裡粉。難辨黑中煤。

小參。長期短期。日面月面。一毛端上乾坤。石火光中閃電。你有拄杖子。與你拄杖子。你無拄杖子。奪却你拄杖子。人平不語。水平不流。山僧十三年前。海上參尋。只是遇茶喫茶。遇飯喫飯。寒則向火。熱則取涼。朝悠悠暮悠悠。不知白盡少年頭。逗到被人推出住山。把人杓柄。寧免顛顛預預。儻儻侗侗。有時半夜穿針。有

時空中覓縫。若非現前尊眾戮力贊成。便見將東作西。指南為北。草滿法堂。苔封古屋。所以。今夏堂中兄弟。雖曰不多。盡是諸方羅籠不住。呼喚不回底漢。掃除異見稠林。拈却佛病祖病。那更永福禪師在此。輔車與脣齒相依。卓拄杖。一曲少林無孔笛。逆風吹了順風吹。

復舉教中道。以大圓覺為我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乃豎拂子。豈不是圓覺伽藍。擊拂子。豈不是平等性智。一一明妙。一天真。你若擬心動念。即沒交涉。且不擬心不動念時如何。狗子尾巴書卍字。野狐窟宅梵王宮。

小參一玄門。三要路。一一當機巧分布。門門具足一切門。一切門中賓主句。喝一喝。是賓是主。若也辨得。可謂動絃別曲。葉落知秋。其或未然。不免別資一路。好大眾。甬道呈祥。瑤堦獻瑞。老檜舞樓閣之風。層壇壯林泉之美。方來之士豁爾心開。作者之功夫豈虛棄。豈不見。臨濟大師往在河北。建立黃檗宗旨。克符普化便乃戮力相成。是皆法運當興。人天叶贊。山僧繆此承乏。豈敢妄擬前脩。莫非諸德痛念法道湮微。宗壇委地。各施敏手。相與扶持。追還百代典刑。振起一方叢席。時當自恣。事有變通。用舍行藏。各得其所。卓拄杖云。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色長威寧。

上堂。菩薩覺成就故。不與法縛。不求法脫。不厭生死。不愛涅槃。不敬持戒。不憎毀禁。不重久習。不輕初學。何以故。一切究竟覺。彼此成佛故。大眾。如是則無結無解。無修無證。無取無舍。無得無失。無是無非。無長無短。又說什麼萬里無寸草。出門便是草。卓拄杖云。野色更無山隔斷。天光直與水相通。

子有和尚赴仰山上堂。最初機末後句。把斷要津。還同遊戲。豈不見。小釋迦一日坐次。大禪佛到翹一足云。西天二十八祖也與麼。唐土六祖也與麼。和尚也與麼。某甲也與麼。小釋迦下禪床。打四藤條。後來雪豆云。藤條未到折。因什麼只打四下。圓悟云。胡餅討甚麼汁。大眾。斬釘截鐵。本分宗師。虎驟龍驟。天然氣宇。山僧今日。幸遇新仰山發軔之初。不免借帔拜年。就窠打劫。一要見前一眾飽足觀光。二要專使參隨普資忻慰。三要新仰山展九萬里之脩程。追數百年之勝軌。拍禪床。滿堂無限白蘋風。明明不自秋江起。

古林和尚忌拈香。不垂巴陵三轉語。不作楊岐女人拜。以香扣爐云。只將此箇報深恩。大似藏身露衣帶。貴賈精神休賤賣。漆桶自來多不快。留取雙眉蓋眼睛。鳳臺老人相體解。

小參。僧問。達磨未來時。還有者个消息也無。師云。是什麼消息。僧提起坐具。師云。兔子喫牛糞。僧拂袖便行。師云。莫謾山僧好。乃云。莫更有問話者麼。有則逆風把舵。無則順水張帆。任

他八面四方。管取縱橫得妙。豈不見。德山小參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劈脊便棒。僧云。某甲話也未問。因什麼便打。德山云。你是甚處人。僧云。新羅人。山云。未跨船舷。好與三十棒。臨危不悚。真大丈夫。後來雪豆云。你要識新羅僧麼。也只是撞著露柱底瞎漢。車不橫推。理無曲斷。東山演祖云。山僧今夜為大眾。與他古人相見去也。待他道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只向伊道。某甲話也不問。棒也不喫。且道。還契他德山老人麼。到者裡。也須是箇漢始得。宗師眼目。須至恁麼。山僧今夜有問即答。也不行棒。也不下喝。一條古路坦然平。今古何人敢闌過。捎清風拂明月。萬煨爐中拈得雪。和盤托出示諸人。幾箇衲僧能辨別。擊拂子。庭前鐵樹本無華。強被一陽輕漏泄。

復舉雪峯示眾云。若論此事。如一面明鏡相似。胡來胡現。漢來漢現。時有僧問。忽遇明鏡來時如何。峯云。胡漢俱隱。師云。古人可謂隱顯無礙。去來自由。山僧即不然。忽遇明鏡來時如何。只向他道。禮拜了退。且道與他古人相去多少。若也道得。自然不坐在明鏡裡。若道不得。且向胡漢邊著到。久立。

臘八上堂。毛頭星現出山來。此日平生眼豁開。大地眾生總成佛。與誰携手上高臺。

除夜小參。如來無禪。祖師無意。明眼衲僧。討甚巴鼻。一年三百六十日。七十二候。二十四氣。一時過了。明朝依舊孟春猶寒。即今夜靜更深。諸人正好休去歇去。若真箇休歇得去。佛也不奈你何。祖也不奈你何。更說什麼生魔死魔煩惱魔五陰魔。天魔鬼魔。便好出三界破魔網。與他眾魔同一手作諸勞侶。外道六師是汝之師。汝師所墮。汝亦隨墮。毀於佛。謗於法。不入眾數。阿呵呵。會也麼。自從舞得三臺後。拍拍元來總是歌。

復舉五祖和尚云。祖師說不著。佛眼看不見。四面老婆心。為君通一線。便下座。師云。貪觀白浪。失劫手橈。莫有撿點得出者麼。久立珍重。

上堂。元正改旦。一句全提。萬機休罷。千聖不携。紫煙籠 帝闕。睿筭與天齊。

元宵上堂。若論此事。正如一燈分為千燈。燈燈相續。無有窮盡。在東則為知事。在西則為頭首。在方丈則為住持。在閑寮則為耆舊。至於三條椽下。七尺單前。經行坐臥。卷舒出沒。莫不以此燈而為佛事。一明一切明。一用一切用。重重主伴。歷歷交參。無黨無偏。無新無故。只貴見成受用。到頭不涉安排。任是疥狗泥豬。少他一分不得。擊拂子。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了菴和尚語錄卷第二

住平江路靈巖禪寺語錄

參學比丘 祖運 志道 等編

師於至正五年七月十一日入寺。指山門云。撥開向上玄關。掃蕩聖凡途轍。萬古乾坤。一朝風月。
佛殿。世尊三昧。迦葉不知。一會靈山。儼然猶在。
據室。此是從上老宿。烹佛煉祖煨聖鎔凡之地。新長老平高就下舍窄從寬。且放你諸人吐氣。
拈院疏。權衡在手。與奪臨時。政化宣流。風行草偃。
拈江湖疏。鐵心石腸。河舌海口。贊之則確觜生華。毀之則佛面百醜。贊毀不及處。面南看北斗。
指法座云。大眾還見麼。須彌頂上闊著步。大千剎海清風起。便陞座。拈香云。此香結為寶絲網。散作光明雲。爇向寶爐。祝延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陛下恭願。文明齊北極。睿筭等南山。次拈香云。此香遇賤則價重娑婆。遇貴則分文不直。爇向爐中。奉為前住保寧古林茂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就座。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論第一義。法鼓未鳴。人天未集已前見得。猶虧一半。何況一椎擊碎。影迹不留。苟非具眼衲僧。未免喚鐘作甕。莫有定當得出者麼。時有僧出眾云。祖師心印鐵牛機。直要當陽決是非。第一峯頭垂隻手。塵塵剎剎盡知歸。為國開堂。願聞法要。師云。萬人遐仰處。紅日到天心。進云。一統乾坤歸聖化。萬人叢裡奪高標。如何是出世邊事。師云。橫按鑊錐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進云。如何是三世諸佛不知有。師云。一字不著畫。進云。如何是狸奴白牯却知有。師云。古錦寫回文。進云。千聖不傳真妙訣。灼然能有幾人知。便禮拜。師云。且莫詐明頭。師乃云。石門巖險鐵關牢。舉目分明萬仞高。四十年中重到此。始終不隔一絲毫。好大眾。湛湛湖光平開鏡面。青青山色上插雲霄。乃智積應現之方。誠圓照嘉遁之所。繼茲芳躅。實愧非才。不免向普賢毛孔寬著程途。維摩掌中拓開世界。直教四聖六凡重重普會。風不鳴條。雨不破塊。天清地寧。時康道泰。報不報之。深恩。揚不揚之真化。拈起鐵蒺藜。驪珠盡擊碎。千古萬古黑漫漫。填溝塞岳無人會。喝一喝。
復舉僧問趙州。晝升兜率。夜降閻浮。為什麼摩尼珠不現。州云。道什麼。僧擬進語。州云。毗婆尸佛早留心。直至而今不得妙。師

云。還見趙州立地處麼。王令已行天下遍。將軍塞外絕煙塵。久立尊官。伏惟珍重。

小參。只者是。只者是。金不博金。水不洗水。是句亦割。非句亦割。揭開萬里神光。提出倚天長劍。三登九到滯殼迷封。撩起便行白衣拜相。山僧今者椎碎蟠桃核。得見舊時仁。拽將師子峯。與天平山鬪額。且貴大家知有。自餘七十三八十四。癩馬繫枯椿。黑牛臥死水。有甚共語處。拍禪床云。好雨洗將殘暑去。涼風吹得早秋來。

復舉僧問雲門。佛法如水中月。是否。門云。清波無透路。僧云。和尚從何得。門云。再問復何來。僧云。便與麼去時如何。門云。重疊關山路。師云。雲門善舞太阿。著著有出身之路。這僧貪觀白浪。失却手橈。雲岩不惜眉毛。與汝。拈却水除却月。還見佛法麼。喝一喝。久立珍重。

解夏小參。釋迦不出世。達磨不西來。佛法遍天下。談玄口不開。便與麼去。可殺省力。山僧四月十五日。在萬壽山中結夏。今朝七月十五日。又向靈岩山頂解夏。然雖有解有結。畢竟無去無來。無去無來。冥通三際。非中非外。洞徹十方。以此發揮祖道。以此建立宗乘。以此成就毗尼。以此弘範三界。是你諸人。還見山僧麼。拈拄杖。卓一下云。莫怪渠農多意氣。他家曾蹈上頭開。

復云。說東道西。拋沙撒土。截斷葛藤。休去歇去。珍重。

上堂。昨日雨今日晴。依舊中秋月色明。四海高賓團欒打坐。諸莊耆舊趨促成。智積擎拳懽喜。叢林又見重興。卓拄杖云。但行平等事。何用問前程。

祖忌拈香。千燈續燄。五葉芬葩。明來震旦。暗度流沙。關空鎖夢年年事。一炷栴檀一盃茶。

上堂。舉松源和尚云。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驀拈拄杖云。切忌認驢鞍橋。作阿爺下頷。雖然如是。有時乘好月。不覺過滄州。師云。三咬下見骨。一舉四十九。喫飯了。瞌睡。幾箇能知有。所以山僧尋常。與諸人眉毛廝結。只是未曾道著箇不字。何故如是。卓拄杖云。禍不入謹家之門。

上堂。道由心悟。豈假外求。法離見聞。言詮罔及。三世諸佛。只可自知。六代祖師全提不起。山僧今日不是峴山師兄到來。又安敢妄通消息。卓拄杖云。客來無茶點。蒿湯備禮儀。

小參。即心即佛。咄。非心非佛。咄。不是心不是佛不是物。咄。豎起拂子云。雲門大師在者裡。咄咄咄。力因希。禪子訝。中眉垂。畢竟是何宗旨。臨濟大師云。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常在汝諸人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時有僧出。濟便擒住云。道道。僧擬議。濟便拓開云。無位真人。是什麼乾屎橛。殺人刀活人劍。乃

上古之風規。亦今時之樞要。龍睛鵲眼。一覷覷透。便可驅耕夫之牛奪飢人之食。驅耕夫之牛令他苗稼滋盛。奪飢人之食。令他永絕飢虐。政如上將軍臨陣破敵。制鼓擐旌。寸刃不施。橫屍萬里。直教四夷入貢。八表來歸。豈不是大丈夫兒成就大丈夫事。其或未然。仲冬嚴寒。季冬極寒。莫把是非來辨我。浮生穿鑿不相關。復舉僧問長慶。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慶云。怕爛却那。僧又問睦州。州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師云。二員古佛與麼答話。可使千古流芳。苦要坐斷衲僧咽喉。則未可在。今夜有問靈岩。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只向他道。冬至寒食一百五。上元定是正月半。久立。上堂。化育之本。物我同途。生佛之元。古今不易。所以雪峯道。盡大地撮來。如粟米大。拋向面前。漆桶不會。打鼓普請看。卓拄杖云。六爻未動群陰塞。一氣潛回萬彙新。臘八上堂。釋迦世尊。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因甚却道。子夜逾城。六年苦行。明星現時。始成正覺。若也道得。不繆為嫡子親孫。其或未然。掩鼻偷香。空遭罪責。除夜小參。德山小參不答話。人貧智短。趙州小參要答話。馬瘦毛長。靈岩今夜小參。有問即答。無問即休。終不將珍珠作豌豆糶却。豈不見。南泉和尚云。王老師自小牧一頭水牯牛。擬向溪東放。不免食他國王水草。擬向溪西放。也不免食他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雖然如是。未免笑破衲僧鼻孔。且道。衲僧有甚長處。還委悉麼。一年三百六十日。一日還他十二時。禪客相逢只彈指。此心能有幾人知。復舉道吾真和尚云。鋒刃上[跳-兆+孛]跳。微塵裡走馬。勞勞去復來。箇是知音者。師云。真點胸名不虛得。檢點將來。也只是三步四步。未見七跳八跳在。靈岩今夜分歲。無可與諸人暖熱。隨分也說四句。燈籠拜露柱。露柱拜燈籠。明朝添一歲。含笑舞春風。為嘉興善慶雲岡長老對靈小參。大用現前。大機圓應。截斷聖凡途轍。拔除生死根源。便見。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全心即佛。全佛即心。無一法不是真乘。無一物不是妙用。所以道。處處真處處真。塵塵盡是本來人。真實說時人不識。正體堂堂沒却身。全體與麼來。全體如是住。住則孤鶴冷翹松頂。去則片雲忽過人間。豎起拂子云。無量壽世尊。即今在山僧拂子頭上。放大寶光。其光清淨。無壞無雜。三世諸佛。於此光中。成等正覺。轉大法輪。六代祖師。於此光中。直指單傳。聯芳續燄。天下老和尚。於此光中。各立化門。播揚大教。現前大眾。於此光中。各務本業。器量堪任。順寂慧明。通濟廣福。雲岡長老。於此光中。始自受生。出家具戒。六十二年間。成就勝業。不可思

議。所謂。以精進攝懈怠。以持戒攝毀禁。以布施攝慳貪。以慈悲攝瞋恚。以禪定攝亂意。以般若攝愚癡。福資善慶。建立大乘。澤及榮枯。全章寶印。能事既畢。奄爾真歸。末後全提。甚生光彩。至竟不離此光。而與山僧兩得相見。豈唯與山僧兩得相見。亦與現前大眾。兩得相見。豈唯與現前大眾。兩得相見。亦與諸山宿德天下老和尚。兩得相見。豈唯與諸山宿德天下老和尚。兩得相見。亦與三世諸佛六代祖師兩得相見。豈唯與三世諸佛。六代祖師。兩得相見。亦乃與無量壽如來。兩得相見。大眾。雲岡長老於無量壽如來光相之中。不起于座。而入龍奮迅三昧去也。擊拂子云。行樹影搖金地月。一池香散白蓮風。

上堂。修山主道。二破不成一。一法鎮長存。若作一二會。永劫受沉淪。山僧道。二破即成一。一法永無存。不作一二會。擺手出迷津。恁麼恁麼。一莖草玉殿瓊樓。不恁麼不恁麼。玉殿瓊樓一莖草。恁麼中不恁麼。不恁麼中却恁麼。橫吞栗棘。豎透金圈。拈三條篾。束取肚皮。到處住山去。豈不坐斷報化佛頭。擊拂子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復舉臨濟栽松次。黃檗問云。深山裡栽許多松。作什麼。濟云。一為山門作境致。二為後人作標榜。道了。以鑿打地三下。乃噓一聲。師云。大眾還委悉麼。黃檗有陷虎之機。臨濟用劍刃上事。喝。路從平處險。人向靜中忙。

佛涅槃上堂。釋迦已滅。彌勒未生。正當今日。佛法付在靈岩手裡。把住也乾坤失色。放行也日月交輝。且道。把住為人好。放行為人好。擊拂子云。志士苦日短。愁人知夜長。

上堂。言無展事。語不投機。一句截流。萬機寢息。智積大士於無生中。示現受生。即不問。智者大師親見靈山一會。儼然未散。什麼處得者消息來。若也道得。首座有長處。藏主定不識。藏主有長處。侍者元不知。所以道。譬如河中水。川流競奔逝。各各不相知。諸法亦如是。喝一喝。清平世界。切忌訛言。便下座。

上堂。大眾。山僧二三日來。同穆蒼首座。往洞庭回禮。恰值宿靄初消。水色天光。一碧萬頃。逮乎到岸。風雨驟作。雲霧晦冥。明覺堂前。盤桓信宿。昨早開船。又值大明東生。景物澄霽。反思前日所見境界。纖毫無有。於其中間。求其起滅之相。了不可得。今朝月望陞堂。大方高士。雲輸川委。莫有為山僧點得出底麼。拈拄杖。若點得出。分付拄杖子。若點不出。靠向臥床頭。急要打老鼠。靠拄杖。下座。

聖節啟建上堂。今朝三月十有七。

天壽聖節啟建日。大家圓證金剛心。摩訶般若波羅蜜。

上堂。古德云。我說法要。譬彼天澤。汝緣合故。當見其道。山僧今日。與諸人眼眼相見。心心相知。不是緣合。且作麼生是見道。這裡會得。人情若好。喫水也肥。若也不會。近在眼睛中。遠過河沙國。

結夏小參。正因出家。正因行脚。正因辨道。正因為人。三世諸佛是你。六代開士是你。天下具大眼目尊宿是你。何以如此。所因既正。感果亦真。脫若因地不真。果招紆曲。以若所為。求若所欲。魔軍是你。魔民是你。外道六師是你之師。彼師所墮。汝亦隨墮。謂之妄想根苗。謂之地獄種子。謗大般若。出佛身血。千佛出世。不通懺悔。所以道。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達磨大師。遠從南竺。來至中華。傳持此心。直接上根。二祖云。我心未安。乞師安心。達磨云。將心來為汝安。二祖云。覓心了不可得。達磨云。為汝安心竟。一印印定。透頂透底。上無攀仰。下絕已躬。常光現前壁立萬仞。無端雲門手中扇子。[跳-兆+孛]跳上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傾。到者裡。三世諸佛也摸索不著。六代開士也摸索不著。天下具大眼目尊宿也摸索不著。是你諸人。又向什麼處承當。若承當得去。何必九旬禁足。三月護生。堅守蠟人。無繩自縛。便可以無邊虛空為一壇場。無央數劫為一期限。於一出入息內。承事過現未來恒沙諸佛。脩行證入恒沙法門。即諸佛智。現魔王身。登刀山入火聚。吞栗棘透金圈。婢視聲聞。奴呼菩薩。正恁麼時。且喚你作佛則是。作魔則是。拈拄杖云。魔之與佛。總與穿却鼻孔。卓拄杖一下。無孔笛吹雲外曲。相逢知我者還稀。

復舉。黃檗問百丈。從上相承底。和尚如何指示於人。百丈據座。黃檗云。後代兒孫。將何傳授。丈云。我將謂你是箇漢。便歸方丈。師云。百丈便歸方丈。黃檗豈辨端倪。若是山僧。待問從上相承底。如何指示於人。劈脊便棒。更問後代兒孫。將何傳授。便為連夜趂出。還委悉麼。棒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裡看。

上堂。研池拍拍浪翻空。箇是吳中第一峯。三萬頃湖歸眼底。二千年事在胸中。涅槃妙性無留礙。圓覺伽藍自混融。嚼碎東山鐵餛飩。始知風味不雷同。

天壽節滿散上堂。金剛正體。普應塵區。般若靈光。綿亘沙劫。天地以之而覆藏。日月以之而照臨。風雨以之而順時。雷霆以之而號令。江河以之而流注。山岳以之而穹崇。萬類以之而資生。聖人以之而現瑞。直得四夷稱慶。八表歸仁。樵唱漁歌。交相鼓舞。且林下臣僧如何舉唱。只將此个真消息。仰祝吾皇萬萬春。

復舉。宋太宗幸大相國寺。見一僧看經。帝問云。看底什麼經。僧云。仁王護國經。帝云。既是寡人經。因甚在卿手裡。僧無語。後

來雪豆顯禪師代云。皇天無親。惟德是輔。師云。大人具大見。大智得大用。向聖凡莫測處。下這一著。雖然不動聲色。直是駭古震今。若非雪豆深辨端倪。往往只成虛設。今朝滿散陞堂。臣僧重為頌出。丹山鸞鳳來阿閣。御殿簫韶奏九成。野老不知黃屋貴。六街猶聽靜鞭聲。

謝秉拂上堂。法王法力超群生。能以法財施一切。善能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諸禪德。諸供養中。法供養最。無前無後。一時周遍。堂中首座。前日為眾作那一場佛事。不同小小。山僧觀來。實謂今古罕聞。雖然。眾中莫有不受者般茶飯底麼。喝。意氣不從天地得。英雄豈藉四時推。

上堂。舉楊岐和尚示眾云。舉古人一轉公案。供養大眾。良久云。口只好喫飯。師云。作家宗師。天然有在。雖然。檢點將來。大似傷鹽費醋。靈岩今日。也舉一轉語。供養大眾。便下座。

上堂。一出一入。一動一靜。一彼一此。一語一默。且道。山僧與諸人還有間隔底道理也無。若道有間隔。那裡是有間隔。若道無間隔。那裡是無間隔。於此緇素分明。九旬無虛棄之功。百劫在今時之用。其或未然。緇田無一簣之功。鐵圍陷百刑之痛。所以道。霏霏梅雨洒危層。五月山房冷似冰。莫謂乾坤乖大信。未明心地是炎蒸。喝一喝。歸依佛法僧。下座。

請維那上堂。機不離位。墮在毒海。智不到處。切忌道著。古人恁麼道。大似人家新婦子。有甚共語處。山僧者裡則不然。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有什麼機。有什麼位。有什麼忌。有什麼諱。拈拄杖云。這箇是興化打克賓底拄杖。擲下云。有伎倆者收取。下座。巡堂喫茶。

上堂。舉陸巨大夫問南泉云。弟子家中。有一片石。亦曾坐。亦曾臥。如今欲鑄作佛。得麼。泉云。得。大夫云。莫不得麼。泉云。不得。雲岩云。坐即佛。不坐即非佛。洞山云。不坐即佛。坐即非佛。保福云。南泉看樓打樓。雲岩洞山。一起一倒。五祖戒云。南泉只解移風。不解易俗。雲若洞山。夢中說夢。五祖演祖云。夫善知識。須明決擇。為什麼。他人道得也道得。他人道不得也道不得。還知南泉落處麼。白雲為你注破。得又是誰道來。不得又是誰道來。師云。如上老宿。各出一隻手。扶樹南泉。檢點將來。總欠勦絕。若是問著山僧。只向他道。用鑄作麼。非唯善赴來機。抑且不失宗眼。

上堂。三世諸佛。日日出興。大藏靈文。時時顯露。諸莊禾苗正青。山門作福保護。諸人未開卷時。是一段義。諸人正開卷時。是一段義。諸人既開卷後。是一段義。所謂初善中善後善。其義深遠。其語巧妙。直是純一無雜。具足清白梵行之相。過去諸佛已

說。現在諸佛正說。未來諸佛當說。卓拄杖。野水自添田水滿。晴鳩却喚雨鳩歸。

上堂。舉子湖和尚。忽一夜於僧堂前叫捉賊。大眾昔驚。有一僧從堂中出。子湖擒住云。捉得也捉得也。僧云。不是某甲。湖云。是即是。只是你不肯承當。師云。子湖好與二十拄杖。何故。誣人之罪。以罪罪之。

上堂。東山演和尚云。病來又病皮黏骨。可殺驚人。抖擻起來無一物。却較些子。行不成步語聲低。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鼻孔依然高突兀。築著磕著。好大眾。古人發揮到無發揮處。直是驚天動地。邁古超今。山僧一夏已來。病來病去。病得起來。內不見有四大五陰。外不見有山河大地。上不見有諸佛。下不見有眾生。中不見有自己。淨裸裸赤洒洒。沒可把。幸自可憐生。無端侍者進退。一段公案未了。今朝月望。拈香底拈香。揖客底揖客。濡毫底濡毫。請法底請法。直要山僧向太虛空中。大書皇帝萬歲四字。莫有為山僧代筆者麼。舉起拂子云。文明齊北極。睿筭等南山。擊拂子下座。

上堂。今朝七月一。一夏相將畢。汝等參玄人。也須明得失。喝。得又得箇什麼。失又失箇什麼。擊拂子。白雲乍可離青嶂。明月難教下碧天。

解制小參。秋風淅淅。玉露溥溥。蟬噪林間。蛩吟砌下。揭示生佛未具已前。一段奇特大事。借使千聖出頭。各以出過天女辯才音聲。善巧發揮。莫過於此。所以道。欲從觀音門入者。蝦蟆蚯蚓。與汝發機。欲從文殊門入者。墻壁瓦礫。與汝發機。欲從普賢門入者。一亘晴虛。森羅萬象。與汝發機。豈不見。鏡清一日問僧云。門外什麼聲。僧云。蛇咬蝦蟆聲。清云。將謂眾生苦。更有苦眾生。一日又問僧云。門外什麼聲。僧云。雨滴芭蕉聲。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一日又問僧云。門外什麼聲。僧云。簷頭雨滴聲。清云。眾生顛倒。迷己逐物。僧云。和尚。尊意如何。清云。泊不迷己。僧云。泊不迷己意旨如何。清云。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好大眾。劍輪揮處。日月沉輝。寶杖敲時。乾坤失色。欲明恁麼事。須是恁麼人。若是恁麼人。愁甚恁麼事。即今秋初夏末。兄弟家東去西去。前途忽有人問。如何是恁麼事。畢竟作麼生祇對。若道不得。木上座與汝代一轉語去。卓拄杖。自出洞來無敵手。得饒人處且饒人。

復舉仰山夏末上問訊滄山。滄云。子一夏都不上來。在下面做得箇什麼。仰云。鉏得一片畚。種得一籬粟。滄云。子可謂不虛過一夏。仰山却問滄山云。和尚一夏作得箇什麼。滄云。日裡一餐。夜後一寢。仰云。和尚亦不虛過一夏。道了。不覺吐舌。滄云。寂

子何得自傷已命。師云。為仰父子。大似萬仞龍門。動即生風起浪。爭如靈岩這裏。一夏以來。上既無言。下亦無語。自然平帖帖地。還委悉麼。水歸大海波濤息。雲到蒼梧氣象閑。然雖如是。更聽一頌。鉏畚種粟功非少。飽飯安眠德不孤。倒腹傾腸都說了。不知秋色在庭梧。久立珍重。

上堂。一葉落天下秋。神仙何必更封侯。一塵起大地收。萬里銀河輓玉毬。卓拄杖。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進退頭首。并謝大雲長老上堂。一椎便就。揭開華藏十三重。不假一椎。抹過無邊香水海。兩堂下喝。賓主歷然。照用同時。與奪自在。便見大雲彌覆。六合清風。甘澤順時。百果成熟。且結角羅文一句。作麼生道。趁時蓋却屋。乘時刈却禾。輸納王租了。鼓腹恣謳歌。

上堂。年年是好年。日日是好日。因什麼三年一閏。九日重陽。青青翠竹。總是真如。鬱鬱黃華。無非般若。因什麼道。得之於心。伊蘭作梅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雲門道。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時節。如何是全提時節。參。

末宗西堂至。并謝頭首上堂。一大藏教道什麼。如是我聞先已錯。廣福堂前正令行。空裡磨盤生八角。主賓互換。縱奪臨時。掀翻大海。躍倒須彌。擊拂子。大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上堂。更月已來。有三種奇特大事。諸人還猛省麼。昨早陞堂。拈香祝贊。是第一種奇特事。夜來小參。為存家教。是第二種奇特大事。今朝擊鼓慶賀書雲。是第三種奇特大事。每一種奇特事。有百千萬億種奇特事。為其眷屬。過去諸佛已說。未來諸佛當說。見在諸佛正說。過去菩薩已聞。未來菩薩當聞。見在菩薩正聞。說已說了。聞已聞了。畢竟奇特事。在什麼處。擊拂子。鴛鴦繡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上堂。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二由一有。一亦莫守。一心不生。萬法無咎。就地捉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臘八上堂。半夜逾城。六年苦行。忍凍吞飢。做盡伎倆。明星現時。正眼豁開。便道。盡大地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只為妄想執著。不能證得。於是起道樹詣鹿苑。便有涅槃音。法僧差別名。咄。也是為他閑事長無明。

上堂。首座已出世。首座已行脚。掀翻華藏海。撼動黃金鐸。萬仞峯頭不露身。擡眸始信乾坤窄。

上堂。入城思量上堂。歸來舉似大眾。只恐聽事不真。未免喚鐘作甕。便下座。

上堂。前無釋迦。後無彌勒。中無自己。鐘樓上念贊。床脚下種菜。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時有僧問。心不是佛。智不是道。還端的也無。師云。喫飯止飢。飲水定渴。僧云。智不到處。切忌道著。作麼生。師云。塞却耳根。分明聽取。僧擬進語。師震威一喝。便歸方丈。

小參。今夜又是臘月三十日了也。你諸人。一年三百八十四日內。所作所為。神通光明。不可思議。因什麼。特地忘却。鼓聲纔動。大小雲臻。擬聽山僧說黃道黑。山僧又豈肯向淨地上。拋沙撒土。塗沆諸人。蓋為諸人分上。各有一段神通光明。實謂不可思議。還信得及麼。還檢點得出麼。其或未辨端倪。山僧不借眉毛。却須為汝點出。你諸人眼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諸人耳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諸人鼻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諸人舌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諸人身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諸人意處所有神通光明。不可思議。你若心不附物。意不停玄。眼處便可作耳處佛事。耳處便可作鼻處佛事。鼻處便可作舌處佛事。舌處便可作身處佛事。身處便可作意處佛事。一根既爾。諸根亦然。一法既爾。諸法亦然。一人既爾。諸人亦然。所以知事能作知事佛事。頭首能作頭首佛事。耆舊能作耆舊佛事。大眾能作大眾佛事。脫若彼我混融。能所俱泯。知事便可作頭首佛事。頭首便可作知事佛事。頭首知事。便可作耆舊大眾佛事。耆舊大眾便可作頭首知事佛事。譬如摩尼映於五色。又如帝網交光相羅。一一融通無壞無雜。豈惟諸人分上如是。三世諸佛亦如是。六代祖師亦如是。天下老和尚亦如是。山僧亦如是。拄杖子亦如是。拈拄杖。即今拄杖子。以本有自性神通光明。却作德山臨濟廣大佛事去也。卓拄杖。喝一喝。

復舉三角示眾云。若論此事。眨上眉毛。早已蹉過。時麻谷出眾云。眨上眉毛則不問。作麼生是此事。三角云。蹉過也。麻谷便掀倒禪床。三角劈脊便棒。師云。二員古佛。然則縱奪可觀。其奈傷鋒犯手。山僧者裡。自來未曾提著此事。諸人也未曾眨上眉毛。中間固無蹉過不蹉過底道理。諸人既不掀倒禪床。山僧也不劈脊便棒。自然聲和響順。形直影端。非唯主伴互融。抑亦人天欣悅。擊拂子。水歸大海波濤息。雲到蒼梧氣象閑。

上堂。岩居閭寂遠塵囂。多謝同人訪寂寥。心月有光吞萬象。普天無夜不元宵。所以道。當明中有暗。勿以明相遇。當暗中有明。勿以暗相覩。明暗各相對。比如前後步。咄。這裡是什麼所在。說明說暗。說前說後。咄。道火何曾燒却口。

佛涅槃上堂。僧問。摩胸告眾。入般涅槃。釋迦老子。誑謔閭閻。合與三十拄杖。和尚合作麼生。師云。你也合喫六十拄杖。進云。

過在什麼處。師云。癡人棒打不死。師乃云。如來不出世。亦無有涅槃。以本大願力。示現自在法。拈拄杖。不是大願力。卓拄杖。不是自在法。舉起也千身彌勒。放下也隨處釋迦。只為諸人眨上眉毛。却入娑羅雙樹間去也。靠拄杖。見之不取。千載難忘。

上堂。毗盧藏中有大經卷。量等三千大千世界。書寫三千大千世界中事。藏在一微塵中。擊拂子。只這一塵向什麼處得來。塵既不可得。經亦何有。於此薦得。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豈不見。德山初參龍潭。便云。久嚮龍潭。及乎到來。潭又不見。龍又不現。潭云。子親到龍潭。一印印定。透頂透底。上無攀仰。下絕已躬。常光現前。壁立萬仞。因甚却向吹滅紙燭處。方始腦門著地。便乃拈一條白棒。佛來也打。祖來也打。畢竟誚訛在什麼處。喝一喝。選佛若無如是眼。宗風那得到如今。

上堂。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是什麼字。師云。一大藏教裡尋取。進云。恁麼則輝天鑑地去也。師云。爍破闍梨面門。僧又問。雲門放洞山三頓棒。意旨如何。師云。沙裡無油。又問。鳥窠吹起布毛。又作麼生。師云。石中有髓。進云。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金鎚影動。進云。如何是佛法大意。師云。寶劍光搖。進云。為復只這是。為復別更有在。師云。海裡須彌日月高。僧禮拜。師乃云。以字不成。八字不是。一大藏教。輝天鑑地。雲門放洞山三頓棒。沙裡無油。鳥窠拈起布毛吹。石中有髓。金鎚影動。寶劍光搖。海裡須彌日月高。拍禪床。下座。

天壽聖節啟建上堂。三千年黃河清。五百歲聖人出。胸中懷日月。掌中握乾坤。金輪御而萬國寧。玉燭調而四時序。光昭文武。德邁犧軒。八方歌有道之君。四海樂無為之化。正與麼時。且知恩報恩一句。作麼生道。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浴佛上堂。舉遵布衲在藥山會中充殿主。浴佛次。藥山云。你只浴得這箇。要且不俗得那箇。遵云。把將那箇來。山便休去。師云。大眾。還知二老落處麼。其或未善參詳。山僧與諸人點出。只浴得這箇。不浴得那箇。是第一杓惡水。把將那箇來。是第二杓惡水。這兩杓惡水。無古無今。無高無下。一時潑出了也。三世諸佛回避無門。六代祖師回避無門。天下老和尚回避無門。眾中莫有不受這般惡水底麼。良久云。舉頭天外看。誰是箇般人。

小參。未言先領。會無邊剎境於毫端。未舉先知。融十世古今於當念。見前眾等。適茲夏首。莫不踞菩薩乘。脩寂滅行。同入清淨實相住持。以大圓覺。為我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如斯標致。足可觀光。檢點將來。未免笑破衲僧口。豈不見。雲門大師道。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時節。大眾。你要識全提底時節麼。我若全提去。便須荒却

院。散却眾。是你諸人。擬向什麼處措足。事不獲已。隨汝顛倒所欲。南斗七北斗八。多處添些子。少處減些子。有時拈一莖草。作丈六金身。有時將丈六金身。作一莖草。或則於無中唱有。或則於有中唱無。或則於聖中顯凡。或則於凡中顯聖。或則於賓中辯主。或則於主中辯賓。或則有證而有修。或則無修而無證。或則先照而後用。或則先用而後照。或則照用同時。或則照用不同時。是皆從無住本。立一切法。如將蜜菓換苦胡蘆。豈有實法與汝持論。喝。一法不存。翳汝眼睛。眼睛不明。世界崢嶸。卓拄杖。劈開華岳連天秀。放出黃河到海聲。

復舉。古者道。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我立地待你搆去。法眼云。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我坐地。待你搆去。佛果云。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我今與汝當面慶懺。師云。立地待你搆。坐地待你搆。慶懺別有上聞。未免違時失候。山僧道。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自是你不肯承當。且道過在什麼處。良久云。在家疑是客。別國却為親。久立珍重。

上堂。今朝四月十五。隨分椎鐘擊鼓。燈籠動地放光。露柱掀天起舞。揭開臨濟三玄。抽却雲門一顧。擊拂子。發機須是千鈞弩。聖節滿散上堂。金剛正體。洞徹十虛。般若靈光。該羅萬有。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覩。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與天地同一覆燾。與日月同一照臨。與山嶽同一穹崇。與江河同一流注。所謂。佛佛授手。祖祖相傳。若聖若凡。皆承恩力。慶逢嘉運。仰祝堯齡。一句當陽。如何舉唱。劫石有消日。君恩無盡時。

上堂。古德道。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會得箇中意。鐵船水上浮。山僧道。有生還有殺。無殺亦無生。不勞鵝護雪。管取蠟人水。這箇說話。前日首座已說。今日山僧現說。異日諸人當說。已說。現說。當說。不出者箇時節。且道是什麼時節。茫茫普熱。紛紛下雪。倒流四河。再發枯柢。臨濟德山特地癡。枉費精神施棒喝。雖然如是。誰知遠煙浪。別有好思量。

上堂。僧問。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師云。拈燈籠來佛殿裡。將山門安燈籠上。進云。還有為人處也無。師云。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僧禮拜。師乃云。離四句絕百非。西來祖意。獨露當機。拈燈籠來佛殿裡。將山門安燈籠上。咄。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

上堂。時節不相饒。今朝五月五。東家釘桃符。西家懸艾虎。孤峯絕頂頭。也須資一路。拈起須彌椎。且擊虛空鼓。翻身躍倒鬼門關。大地山河無寸土。喝一喝。下座。

請提點上堂。楊岐栗棘蓬。東山鐵餛飩。多處添些子。點即不到。少處減些子。到即不點。萬機俱赴。八面玲瓏。一句全提。風行草

偃。擊拂子。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色長威寧。

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國師三喚侍者。無端賣弄風流。靈巖則不然。大空升堂。小空入室。擊拂子。多處不如少實。小參第一句下薦得。堪與佛祖為師。第二句下薦得。堪與天人為師。第三句下薦得。自救不了。三句內則不問。三句外道將一句來。若也道得。不妨坐斷報化佛頭。超出聖凡途轍。又何必九旬禁足。三月護生。堅守蠟人。無繩自縛。豈不見。文殊三處度夏。迦葉欲擯文殊。乃見百千萬億佛刹。一一佛刹。各有文殊。悉現在前。世尊云。迦葉汝欲擯那箇文殊。迦葉休去。可惜許。將成九仞之山。不進一簣之土。當時迦葉見世尊恁麼道。只消便擊椎一下。和這釋迦老子。一時擯出。豈不頭正尾正。當時既已放過。如今合作麼生。擊拂子。但存心地正。何用問前程。

復云。敘謝已畢。擬舉一段因緣。供養大眾。其奈有妨久立。然而知是般事便休得也。且作麼生是此事。喝一喝。今朝七月十四。珍重。

上堂。安居禁足。此土西天。向上一路。千聖不傳。卓拄杖。清淨界中纔一念。閻浮早已八千年。

上堂。二三日來。智積大士。向這裡。與諸人說發生萬物。無礙法門不到得。雷聲浩大。雨點全無。直得頭上漫漫。脚下漫漫。若非諸人咬定牙關。未免浸爛鼻孔。山僧即今與汝拔本去也。萬人遐仰處。紅日到天心。

上堂。僧問。智不到處。乞師指示。師云。南天台北五臺。進云。只如古人道。切忌道著。道著則頭角生。又且如何。師云。識法者懼。師乃云。一塵入正受。諸塵三昧起。坐斷上頭關。千華生確觜。雲門大師道。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是好手。只知開口易。不覺舌頭長。時有僧出云。恁麼則堂中上座有長處也。雲門云。蘇噓蘇噓。雲門若無後語。爭服得人。若是真正衲僧。直須荊棘林裡坐。荊棘林裡臥。前面牛頭獄卒。後面馬面阿傍。左邊銅柱鐵床。右畔烈河灰刃。中間吞底熱鐵丸。飲底洋銅汁。於一晝夜。有萬生死。求一毫苦相。了不可得。求一毫樂相。亦不可得。求一毫不苦不樂相。亦不可得。然雖如是。要作半箇人。也未得在。作麼生得十成去。良久云。劈破華山雷未迅。照開滄海月非光。瞎驢滅却正法眼。直得哀聲滿大唐。

進退頭首上堂。今朝九月九。萬物隨時候。滿泛茱萸茶。何用菊華酒。畢竟醉兀兀。不似長醒醒。諸人若也信得及。便見堂中上座決有長處。知得堂中上座。決有長處。便知釋迦老子。橫說豎說。直說曲說。四十九年。重重敗闕。知得四十九年。重重敗闕。便知興化堂前。饋飯吹香。克賓維那。全鋒敵勝。知得克賓維那。全鋒敵

勝。便知古雪竇抑揚有準。韓大伯笑裡藏刀。知得抑揚有準。笑裡藏刀。便知國師三喚。侍者三應。將謂吾孤負汝。却是汝孤負吾。雖然且道。節文在什麼處。擊拂子。閃電爍開千聖眼。好山多在大湖中。

上堂。僧問。和尚未見保寧時如何。師云。眉毛在眼上。進云。見後如何。師云。鼻孔大頭垂。進云。恁麼則全承渠力去也。師云。夜半放烏雞。師乃云。三世諸佛。向火燄上轉大法輪。演出一大藏。火燄為三世諸佛說法。三世諸佛立地聽。演入一大藏。拈出一大藏。與誰論出入。鮎魚上竹竿。俊鷄趁不及。離四句絕百非。小玉聲中得路歸。活袞袞阿刺刺。千里萬里橫該抹。

小參。大智非名。真空絕跡。欲得現前。莫存順逆。盡十方世界。是箇華藏海。盡十方世界。是箇舍那身。一椎便就。塞壑填溝。不假一椎。輝天鑑地。可以弘揚祖道。可以建立化門。可以全主全賓。可以同生同死。其或情存限量。識昧圓常。枯木巖前。寧免蹉路。僧問趙州。如何是不錯路。州云。識心見性。是不錯路。妙喜云。棒打石人頭。剝剝論實事。不用作禪會。不用作道會。你要得不錯路。直須是識心見性始得。且作麼生是識底心見底性。有般漢便道。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恁麼見解。正是鄭州出曹門。大眾。好本天下同。豈不見。兜率悅和尚云。撥草參玄。只圖見性。即今上人。性在甚處。既見性了。即脫生死。眼光落地時。作麼生脫。脫得生死。即知去處。四大分散時。向什麼處去。前箭猶輕後箭深。你禪和家。出叢林入保社。正是為什麼邊事。你若能識自本心。見自本性了。便如白衣拜相。等閑平步丹霄。出一言施一令。自然風行草偃。水到渠成。且不用倚人門戶。傍人墻壁。便乃能驅役一切人。一切人無有能驅役汝者。豈不是大丈夫兒。成就大丈夫事。若也尋言覓句。逞解逞能。以有思惟心。測度如來圓覺境界。如取螢火燒須彌山。終不能著。以拂子畫一畫云。今夜群陰剝盡。明朝一陽復生。大家履踐通天路。莫向時人行處行。

復舉。五祖演和尚云。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恁麼會便不是了也。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恁麼會方始是。師云。一等是恁麼說話。就中因甚有是不是。山僧借婆帔拜婆年去也。幽幽寒角發孤城。十里山頭漸杳冥。一種是聲無限意。有堪聽有不堪聽。久立珍重。

上堂。舉保寧和尚云。若說佛法。供養大眾。未免眉須墮落。若說世法。供養大眾。入地獄如箭射。去此二途。當說什麼。三寸舌頭無用處。一雙空手不成拳。師云。用盡自己心。笑殺他人口。

上堂。雪嶺六年。弄巧成拙。出得身來。天闊地闊。好事大家知。今朝臘月八。

仙巖仲謀和尚遺書至上堂。杜城山頂。打鳳羅籠。黃池水邊。張蝦釣鼈。逗到衣錦還鄉。一味斬釘截鐵。如今傀儡線索斷。五色祥麟步天岸。有伴何妨却再來。了却先師舊公案。且先師公案。作麼生了。卓拄杖。喝一喝。

上堂。恁麼恁麼。真不掩偽。不恁麼不恁麼。曲不藏直。恁麼中有不恁麼。不恁麼中却恁麼。南天台北五臺。一大藏教五千四十八卷。半滿偏圓。權實空有。鳥窠吹起布毛。侍者便悟去。即不問。兔頭截角。道將一句來。明招云。這裡風頭稍硬。且歸暖處商量。大眾隨至方丈。明招云。纔到暖處。便要瞌睡。以拄杖一時趕散。通方上士。未舉先知。後學初機。椎聲斷後。

上堂。顧視大眾云。這裡莫有作家戰將麼。時有僧出眾云。盡大地是箇問頭。和尚作麼生答。師云。遍虛空是箇答語。是你作麼生領。僧云。萬福。師云。拄杖不在。苕帚柄與你三十。僧云。諸方有明眼人在。師云。你莫是患盲麼。僧無語。師喝云。將謂是收燕破趙之才。元來也做未得行間小卒在。出去。師乃云。若論戰也。箇箇力在轉處。到者裡。直須通方上士。本色英流。寸刃不施。全鋒敵勝。其或未然。擬議不來。觸體粉碎。卓拄杖。喝一喝。下座。

為曙講主下火。幾時不得問平安。今日重來已涅槃。寶鐸自從天上去。金棺還向火中焚。某人。親見老南。高提正印。四河翻辯。兩董名藍。不離百界千如。妙闡一心三觀。能事既畢。袖手來歸。高臥一菴。大忘人世。(以火把打圓相)敢問大眾。且道。者箇是假觀耶。空觀耶。中觀耶。若向者裡科點得出。便見暘谷講師六十四年前。無假不空。無空不假。六十四年後。全空即假。全假即空。正當六十四年中。假空俱不立。中道亦非安。直饒與麼批判得去。也出者箇圈子不得。出得出不得。拈向一邊。畢竟勝熱婆羅門。今日說什麼法。咄。看渠五熱炙身時。十虛猛燄同時發。

普說釋迦老子。三大阿僧祇劫來。做盡伎倆。至於離兜率。降王宮。出母胎。行七步。分手指天地。作大師子吼。甚生氣槩。泊十九逾城。三十成道。顛倒開口不得。便乃脫珍御著弊垢。起道樹詣鹿苑。周旋三百法會之中。大似泥裡洗土塊。逗到精神用盡。向靈山會上。百萬眾前。拈起一枝花。不是大迦葉。曲相成禩。也好些無折合。便乃乘者一笑。而對眾曰。我以正法眼藏。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法門。付囑摩訶迦葉。教外別行。傳付將來。無令斷絕。元來從前。做盡伎倆。只為發明者一著子。所謂。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便是者箇時節。不是從前布置。到羅紋結角處。心眼相似。力量一般。未免勞而無功。自滅度後。聲教所至。若師若徒。多是不省得者箇意思。各宗其宗。各黨其黨。各熱其說。互

相是非。所謂。師子身中蟲。自食師子肉。殊不知。教之與禪。只是一箇道理。以要言之。禪是教之父。教是禪之爺。毀父而譽爺。非愚則狂耳。前大慈雲屋瑞華嚴法師。學該內外。聲聞四馳。自忘其大。紆訪南堂。區區以禪宗要旨為問。自非高識遠見。略去邊幅。何能下人之若是。雲屋既以真誠相及。余雖衰繆。又豈可不以真誠相報。遂喝一喝云。若向者一喝下便領得去。可謂作家。其或未然。不免為蛇畫足去也。吾宗自大迦葉。二十八傳。而至菩提達磨。入此土為初祖。良以真丹有大乘根器故。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直接上根。不論中下者。斯蓋上承佛祖付授之重。固非下劣種草所能擔荷。垂一機示一境。莫非發揚千聖頂[寧*頁]上一著子。是以簡繁剔冗。自有不期然而然者。若夫旁蹊曲徑。普攝圓融。則一大藏教已具。又何俟別。傳之說。是以達磨西來。十萬餘里。逾沙越漠。遠汎重溟。三周寒暑。至於中國。游梁歷魏。無所契合。兀坐少林者九年。不料撞著一箇渾鋼打就。生鐵鑄成底。硬脚禪和。名曰慧可大師。渠本是箇博綜群書。靈利座主。左淘右汰。莫稱已懷。乃慨然曰。周孔之教。禮術風規。莊老之言。未盡妙理。吾聞洛陽有菩提達磨者。吾之師乎。此志既發。便有脫胎換骨之祥。空神顯告之驗。既至立深雪聞誨勵。取利刀斷左臂。以示懇切。於是達磨。示以安心法門。遂登祖位。又四傳而至六祖大鑑。道滿天下。其間青原南嶽。兩枝尤盛。又三四傳。而五家宗派出焉。實為龍驤虎驟。鶻擊鷹揚靈機妙用。可以神會。難以事求。子細看來。大似箇賣卜樣子。豈不見六祖謂南岳曰。昔般若多羅。語達磨曰。震旦雖闊無別路。要假兒孫脚下行。金雞解銜一粒粟。供養十方羅漢僧。向後佛法。從汝邊去。出一馬駒。踏殺天下人去在。病在汝心。不須速說。內卦已成。更求外象。先天二年。居南岳般若寺。開元中有沙門道一者。在衡岳常習坐禪。岳知是法器。外象來也。往問曰。大德坐禪。圖什麼。一曰。圖作佛。行年在坎。岳乃取一塊磚。於菴前磨。一曰。磨作什麼。岳曰。磨作鏡。一曰。磨磚豈得成鏡。家先作崇。岳曰。磨磚既不成鏡。坐禪豈得成佛。五鬼臨身。一曰。如何即是。化紙燒錢。岳曰。如牛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一校受領。一無以對。病在膏肓。岳又曰。汝學坐禪。為學坐佛。若學坐禪。禪非坐臥。若學坐佛。佛非定相。於無住法。不應取捨。汝若坐佛。即是殺佛。若執坐相。非達其理。動遭天羅。一聞示誨。如飲醍醐。靜遭地網。禮拜問曰。如何用心。即合無相三昧。佛也救不得。岳曰。汝學心地法門。如下種子。我說法要。譬彼天澤。汝緣合故。當見其道。且試一服返魂湯。又問道非色相。云何能見。岳曰。心地法眼。能見乎道。無相三昧。亦復然矣。一曰。有成壞否。岳曰。若以成壞

聚散。而見道者非見道也。聽吾偈曰。心地含諸種。遇澤悉皆萌。三昧華無相。何壞復何成。一蒙開悟。心意超然。死中得活。有甚用處。侍奉十秋。日益玄奧。後開法江西。是為馬祖。漢州什邡縣人也。姓馬。本邑羅漢寺出家。容貌奇偉。牛行虎視。引舌過鼻。足有二輪文。祖既符懸記。密受心印。大弘玄化。弟子堪為人師者。一百三十九人。自餘潛光匿跡者。不可以數計。洪州百丈海禪師。初參馬祖一日侍行遊山次。見一群野鴨子飛過去。祖問曰。是什麼。丈曰。野鴨子。祖曰。什麼處去。丈曰。飛過去。祖遂扭丈鼻。丈忍痛失聲。祖曰。又道飛過去。那邊落節。者裡拔本。丈於言下有省。却歸侍者寮中。哀哀大哭。等閑拋一釣。驚起碧潭龍。同事問曰。憶父母耶。丈曰。無。事曰。被人罵耶。丈曰。無。依實供通。事曰。哭作什麼。丈曰。我被和尚扭得鼻頭痛。實問實對。事曰。有什麼因緣不契。丈曰。汝問取和尚。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同事往問馬祖。祖曰。是伊會也。冬瓜印子。汝去問取他。撥轉船頭。同事歸寮。丈乃呵呵大笑。者風顛漢。事曰。適來為什麼哭。如今為什麼笑。描也描不成。丈曰。適來哭。如今笑。畫也畫不就。同事惘然。後來松源和尚拈云。當時若撞著聾頭。說什麼百丈馬祖。也須倒退。大慧頌。有時笑有時哭。悲喜交并暗催促。此理如何舉向人。斷絃須是鸞膠續。大慧和尚。甚生氣槩。猶向古人背後叉手。薦福亦有一頌。哭不徹笑不徹。倒腹傾腸向君說。父子非親知不知。擡頭腦後三斤鐵。松源老祖。搜出心肝五臟。也未出得他古人。南堂不肖孫。亦有一頌。苦便哭樂便笑。苦樂雙忘不同調。高山流水少知音。明月清風古皇道。還委悉麼。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明日祖陞堂。眾方集。丈便卷却面前禮拜席。生死根本。祖便下座。歸方丈。丈隨至。祖問曰。我未曾說話。汝因甚便卷却席。何須更問。丈曰。昨日被和尚扭得鼻頭痛。破也破也。祖曰。汝昨日向甚處留心。探竿影草。丈曰。今日鼻頭又不痛也。墮也墮也。好與本分草料。祖曰。汝深明今日事。研郎當漢。丈作禮而退。異日再參次。祖以目顧視繩床角拂子。無風起浪。丈曰。即此用離此用。也好與一撈。祖曰。汝已後開兩片皮。將何為人。就窠打劫。丈取拂子豎起。草本不勞拈出。祖曰。即此用離此用。一箭中紅心。丈掛拂子於舊處。喪身失命。祖震威一喝。不為分外。厥後開法於百丈山。道化尤盛。得法上首。黃檗運禪師。一日辭丈。丈曰。什麼處去。檗曰。欲禮拜馬祖去。丈曰。已遷化也。檗曰。未審有何言句。丈遂舉再參因緣。乃曰。我當時被馬大師一喝。直得三日耳聾。檗聞之不覺吐舌。見箇什麼。丈曰。汝已後莫承嗣馬祖麼。甕裡何曾走却鼈。檗曰。不然。今日因師舉。得見馬大師大機之用。且不識馬祖。若嗣馬祖。

喪我兒孫。赤土塗牛爛。丈曰。如是如是。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授。接得封皮作信傳。槩便禮拜。禍事禍事。大慧和尚曰。百丈被喝。直得三日耳聾。黃檗聞舉。不覺吐舌。百丈疑其承嗣馬祖。後因臨濟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被打。六十拄杖。便是與三日耳聾出氣。日中陽燄。臨濟始覺如蒿枝拂相似。眼裡空華。既是師承有據。因甚用處不同。會麼。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沉。也只分踈不下。看他老大慧。將他祖父子孫四世機緣。只據自己見處。與伊批判。直是毫髮不差。蓋妙得活祖師意。自與尋常人不同也。若是自家眼目不明。便看他古人不破。看他古人不破。便是自家眼目不明。自餘印板上打來。模子裡脫出。有甚共語處豈不見。宋徽宗時。太尉陳良弼。設千僧齋。圓悟勤祖。法真一公。慈受深公。蹯菴成公。及善華嚴等。十大法師。皆在會。而善公遽起問諸禪曰。吾佛設教。自小乘至于圓頓。掃除空有。獨證真常。然後萬德莊嚴。方名為佛。嘗聞禪宗一喝能轉凡成聖。則與諸經論。似相違背。今一喝。若能入吾宗五教。是為正說。若不能入。是為邪說。把髻投衙。抱臑叫屈。圓悟以目顧蹯菴。菴乃云。承法師所問。不足以勞三大禪師之答。只淨因小長老。亦可使法師無惑。雷聲浩大。兩點全無。菴乃召善。善應諾。菴曰。法師所謂吾法小乘教者。乃有義也。大乘始教者。乃空義也。大乘終教者。乃不有不空義也。大乘頓教者。乃即有即空義也。一乘圓教者。乃不有而有。不空而空義也。如我一喝。非唯能入五教。至於工巧技藝。諸子百家。悉皆能入。乃震聲喝一喝。問善曰。聞麼。曰聞。菴曰。汝既聞則此一喝是有。是能入小乘教。良久又問善曰。汝今還聞麼。曰不聞。菴曰。汝既不聞。則此一喝是無。是能入始教。遂顧善曰。我初一喝。汝既道有。喝久聲銷。汝復道無。道無則元初實有。道有則而今實無。不有不無。是能入終教。我有喝之時有非是有。因無故有。無喝之時。無非是無。因有故無。即有即無。是能入頓教。須知我此一喝。不作一喝用。有無不及。情解俱忘。道有之時。纖塵不立。道無之時。橫徧虛空。即此一喝。入百千萬億喝。百千萬億喝。入此一喝。是能入圓教。善乃起再拜。澤廣藏山。理能伏豹。菴復謂曰。非唯一喝為然。乃至一語一默。一動一靜。從古至今。十方虛空。萬象森羅。六趣四生。三世諸佛。一切聖賢。八萬四千法門。百千三昧。無量妙義。契理契機。與天地萬物一體。謂之法身。三界唯心。萬法唯識。四時八節。陰陽一致。謂之法性。是故華嚴經云。法性徧在一切處。有相無相。一聲一色。全在一塵中含四義。事理無邊。周徧無餘。參而不雜。混而不一。於此一喝中。皆悉具足。猶是建化門庭。隨機方便。謂之小歇場。未至寶所。殊不知。吾祖師門下。以心傳

心。以法印法。不立文字。見性成佛。有千聖不傳底。向上一路在。空拳諄小兒。善曰。如何是向上一路。莫妄想。菴曰。汝且向下會取。放過一著。善曰。如何是寶所。含元殿上。猶問長安。菴曰。非汝境界。灼然灼然。善曰。望禪師慈悲。把手拽不入。菴曰。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可煞壁立萬仞。善乃膠口而退。遲八刻。當時徽宗私幸。目擊盛事。皇情大悅。將謂無人證明。是你諸人。要識善華嚴麼。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豈不見。昔日周金剛。名重西蜀。於性相諸宗。無所不達。嘗謂同學曰。一毛吞海。海性無虧。纖芥投鋒。鋒利不動。學與無學。唯我知焉。洎聞南方禪宗大盛。氣為不平。乃曰。出家兒。千劫學佛威儀。萬劫學佛細行。不得成佛。南方魔子。敢言直指人心。見性成佛。我當搜其窟穴。滅其種類。以報佛恩。遂擔一擔青龍疏鈔。出至灋陽。路上見一婆子賣餅。因放下擔子買點心喫。爛泥裏有刺。婆指擔子曰。者箇是什麼。答云。青龍疏鈔。婆云。講何經。周云。金剛經。婆云。有一問。若答得。施與點心。若答不得。且別處去。經中道。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未審座主點那箇心。生鐵蒺藜當面擲。周無以對。塞斷咽喉。遂往龍潭。至法堂曰。久嚮龍潭。及乎到來。龍又不見。潭又不見。好箇消息。潭於壁內。引身出云。子親到龍潭。著忙作麼。周無語。當面蹉過。遂放下擔子。朝夕咨參。一夕侍立次。潭云。更深何不下去。周珍重便出。却回云。外面黑。潭度紙燭與之。擬接。便吹滅。周大悟。便禮拜。潭云。子見箇什麼。周云。從今去。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玄沙道底。來日潭陞座謂眾曰。可中有箇漢。牙如劍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向孤峯頂上。立吾宗去在。乞兒籬易滿。周於是取疏鈔。堆向法堂前。舉火炬云。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焚之而去。始終作家。李都尉云。參禪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直趣無上菩提。一切是非莫管。便是者般樣子也。後來出世住德山。其道大振。示眾曰。道得也三十棒。道不得也三十棒。臨濟聞得。謂侍者洛浦曰。汝去問他。道得為什麼三十棒。浦如教而問。山便打。浦接住與一送。山便歸方丈。浦回舉似臨濟。濟云。我從來疑著者漢。雖然。你還識德山麼。浦擬議。濟便打。是精識精。是賊識賊。然而精金百煉要須本分鉗鎚。若是鈍鐵頑銅。堪作什麼。山僧今日。被雲屋法師。輕輕一撈。直得口似乞兒破席袋。狼藉不少。眾中忽有一箇。傍不甘底。出來拽下禪床。爛椎一頓。翻身一擲。抹過太虛。將他從上若佛若祖。所有法門。盡情拈向一邊。教他盡大地人。卸下臍脂帽子。脫却鶻臭布衫。非唯截斷小淨因脚跟。抑且與善華嚴

雪屈。豈不快哉。還委悉麼。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
卓拄杖。喝一喝。
了菴和尚語錄卷第三

舉古

參學比丘 祖杲 得度 等編

舉德山示眾云。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禮拜。山便打。僧云。某甲話也未問。山云你是甚處人。僧云。新羅人。山云。未跨船舷。好與三十棒。法眼云。大小德山。話作兩橛。圓明云。大小德山。龍頭蛇尾。雪竇云。二老宿雖善裁長補短。拾重從輕。要見德山。亦未可在。何故。德山大似握閩外威權。有當斷不斷不招其亂底劍。諸人要識新羅僧麼。只是撞著露柱底瞎漢。

師云。總謂德山勾賊破家。者僧把髻投衙。法眼圓明。據案結款。雪竇扶強抑弱。逐惡隨邪。如斯理論。要契他古人。直是白雲萬里。當時者僧。若是箇漢。見他道今夜不答話。珍重便行。非唯坐斷德山。抑且光揚宗眼。

舉雪峯普請次。自負一束藤。路逢一僧。峯便拋下。僧方擬取。峯便蹈倒。歸舉似長生。乃云。我今日蹈者僧快。生云。和尚替者僧入涅槃堂始得。峯便休去。雪豆云。長生大似東家人死。西家助哀。也好與一蹈。

師云。雪峯是則下坡不走。快便難逢。若不是長生。未免勞而無功。雖然。且道。雪峯一蹈。何似雪豆一蹈。

舉百丈再參馬祖侍立次。祖以目視禪床角拂子。丈云。即此用離此用。祖云。爾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丈取拂子豎起。祖云。即此用離此用。丈掛拂子於舊處。祖便喝。百丈直得三日耳聾。雪豆云。奇怪諸禪德。如今列其派者甚多。究其源者極少。總道百丈於喝下大悟。還端的也無。然刁刀相似。魚魯參差。若是明眼漢。瞞他一點不得。只如馬祖道。爾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百丈豎起拂子。為復如蟲禦木。為復啐啄同時。諸人要會三日耳聾麼。大冶精金。應無變色。

師云。精金百煉。要資本分鉗鎚。苟非三日耳聾。爭見賈增十倍。刁刀相似。魚魯參差。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漉始應知。

舉崇壽指凳子云。識得凳子。周帀有餘。雲門云。識得凳子。天地懸殊。雪豆云。澤廣藏山。理能伏豹。

師云。驢揀濕處尿。

舉永嘉到六祖。遶禪床三帀。振錫一下。卓然而立。祖云。夫沙門具三千威儀。八萬細行。大德從何方而來。生大我慢。雪豆喝云。

當時若下得者一喝。免見龍頭蛇尾。又再舉遶禪床三匝。振錫一下。卓然而立。代祖師云。未到曹溪。與爾三十棒了也。

師云。大小雪豆。續晷截鶴。夷岳盈壑。不妨好手。據令而行。好與二十棒。何故。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沉。舉仰山指雪師子云。還有過得此色者麼。雲門云。當時便與推倒。雪竇云。只解推倒不能扶起。

師云。雲門推倒。雪竇扶起。直饒過得此色。也未是金毛師子。舉香巖垂語云。如人上樹。口銜樹枝。手不攀枝。脚不蹈枝。樹下忽有問。如何是祖師西來意。不對則違他所問。對則喪身失命。當恁麼時。作麼生即是。有虎頭上座云。上樹即不問。未上樹請和尚道。香巖呵呵大笑。雪竇云。樹上道即易。樹下道即難。老僧上樹也。致將一問來。

師云。香巖用盡神通。不消虎頭一撈。便乃四稜塌地。雪竇縱有生機。也只扶他不起。舉僧問魯祖。如何是不言言。祖云。爾口在什麼處。僧云。某甲無口。祖云。將什麼喫飯。僧無語。雪竇云。好劈脊便棒。者般漢開口了合不得。合口了開不得。

師云。者僧貪觀白浪。失却手橈。若是箇漢。待他道你口在什麼處。便與掀倒禪床。非唯魯祖高豎降旗。且免雪豆馬後喝節。舉僧問雪峯。古澗寒泉時如何。峯云。瞪目不見底。僧云。飲者如何。峯云。不從口入。僧舉似趙州。州云。不可從鼻孔裡入。僧却問趙州。古澗寒泉時如何。州云。苦。僧云。飲者如何。州云。死。雪峯聞舉云。趙州古佛。從此不答話。雪竇云。眾中總道。雪峯不出者僧問頭。所以趙州不冝。如斯話會。深屈古人。雪竇即不然。斬釘截鐵。本分宗師。就下平高。難為作者。

師云。雪峯一期答話。不知爬著趙州痒處。趙州忍俊不禁。不覺筭著雪峯痛處。痛處痒痒處痛。一時移在雪竇身上。且道。者僧還曾夢見也無。

舉僧問西堂。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堂云。怕爛却去那。僧問長慶。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慶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雪竇云。何不與本分草料。

師云。三頭兩面得人憎。有問靈岩。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只向他道。甕裡何曾走却鼈。舉臨濟示眾云。我於先師處。三度問佛法的大意。三度喫六十拄杖。如蒿枝拂相似。如今再思一頓。誰為下手。時有僧出云。某甲下手。濟拈棒度與。僧擬接。濟便打。雪竇云。臨濟放處較危。收來太速。

師云。說什麼放去較危。收來太速。須知臨濟有陷虎之機。者僧未具透關眼。待他道再思一頓。誰為下手。便與掀倒禪床。非唯坐斷者老漢咽喉。抑且出身有路。

舉欽山一日上堂。豎起拳又開云。開即為掌。五指參差。復握云。如今為拳。必無高下。還有商量也無。一僧出眾豎起拳。山云。你只是箇無開合漢。雪竇云。雪竇即不然。乃豎起拳云。握則為拳。有高有下。復開云。開則為掌。無黨無偏。且道。放開為人好。把定為人好。開也造車。握也合轍。若謂閉門造車。出門合轍。我也知。你向鬼窟裡作活計。

師云。展也不是掌。握也不是拳。兩頭俱坐斷。一劍倚天寒。且道。還有為人處也無。喝。西風吹渭水。落葉滿長安。

舉僧問睦州。高揖釋迦。不拜彌勒時如何。州云。昨日有人問。趕出了也。僧云。和尚恐某甲不實那。州云。拄杖不在。苕帚柄聊與三十。雪竇云。睦州只有受壁之心。且無割城之意。

師云。雪竇與麼批判。深屈古人。山僧道。睦州和杵托出。只是罕遇知音。

舉棗樹問僧。近離甚處。僧云。漢國。樹云。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僧云。賴遇問著某甲。問著別人即禍生。樹云。作箇什麼。僧云。人尚不見有。何佛法可重。樹云。闍梨受戒多少時。僧云。二十夏。樹云。大好不見有人。便打。雪竇云。者僧棒即喫。要且去不再來。棗樹令雖行。爭奈無風起浪。

師云。者僧句裡藏鋒。棗樹棒頭有眼。說什麼去不再來。直須棒了出院。

舉趙州問婆子。什麼處去。婆云。偷趙州笋去。州云。忽遇趙州時如何。婆便掌。州休去。雪竇云。好掌。更下兩掌也。無勘處。

師云。將謂胡須赤。更有赤須胡。

舉保壽開堂。三聖推出一僧。保壽便打。三聖云。恁麼為人。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壽下座。便歸方丈。雪竇云。保壽三聖。雖發明臨濟正法眼藏。要且只解無佛處稱尊。當時者僧。若是箇漢。纔被推出。便掀倒禪床。直饒保壽全機。也較三千里。

師云。手眼通身。拳躍相副。保壽三聖。固是作家。若要發明臨濟正法眼藏。直是未在。雪竇道。者僧若是箇漢。便與掀倒禪床。不是射鵰手。徒說李將軍。

舉僧問無業。如何是佛。業云。莫妄想。雪竇云。塞却鼻孔。又僧問馬大師。如何是佛。祖云。即心是佛。雪豆云。拄却舌頭。

師云。塞却無業鼻孔。拄却馬師舌頭。還見雪豆麼。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舉德山因廓侍者問。從上諸聖。向什麼處去。山云。作麼作麼。廓云。勅點飛龍馬。跛鼈出頭來。山便休去。至來日。山浴出。廓過茶與山。山撫廓背一下云。昨日公案。作麼生。廓云。者老漢。今日方始瞥地。雪竇云。然精金百煉。須要本分鉗鎚。德山既以己妨人。者僧還同受屈。以拄杖一畫云。適來公案且置。從上諸聖。什麼處去。大眾擬議。一時打趲。

師云。德山固是作家爐鞴。本分鉗鎚。爭奈廓侍者。鍛過了底金。從他以己妨人。畢竟無屈可受。靈岩與麼批判。莫有為雪竇作主者麼。

舉保福簽瓜次。太原孚上座到來。保福云。道得與你瓜喫。孚云。把將來。福度瓜一片與孚。孚接得便行。雪竇云。雖是死蛇。解弄也活。誰是好手者。試請辨看。

師云。猛虎口中奪食。飢鷹爪下分餐。太原較些子。保福若具奔流度刃底手。待伊擬接。便與拋向背後。看他把什麼蛇弄。

舉南泉示眾云。道非物外。物外非道。趙州出問。如何是物外道。泉便打。州云。和尚莫錯打某甲。向後錯打人去在。泉云。龍蛇易辨。衲子難謾。雪豆云。趙州如龍無角似蛇有足。當時不管盡法無民。直須喫棒了趁出。

師云。趙州物外相從。善能回互。南泉棒頭有準。收放自由。雪竇雖欲盡令而行。未具辨龍蛇眼。

舉洞山到雲門。門問。近離甚處。山云。查渡。門云。夏在甚處。山云。湖南報慈。門云。幾時離彼。山云。八月二十五。門云。放你三頓棒。山至來日。却上問訊云。昨日蒙和尚放三頓棒。不知過在甚處。門云。飯袋子。江西湖南。使與麼去。洞山於此大悟。雪竇云。雲門氣宇如王。搵著便冰消瓦解。當時若據令而行。子孫也未到斷絕。

師云。雲門買帽相頭。雪竇因齋慶讚。諸人要見洞山麼。掀翻海岳求知己。撥亂乾坤見太平。

舉馬祖因僧參。乃畫一圓相云。入也打。不入也打。僧便入。祖便打。僧云。和尚打某甲不得。祖靠拄杖休去。雪竇云。二俱不了。和尚打某甲不得。靠却拄杖。擬議不來。劈脊便打。

師云。殺人刀活人劍。

舉興化問克賓維那云。汝不久當為唱導之師。賓云。不入者保社。化云。會了不入。不會了不入。賓云。總不恁麼。化便打。乃云。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設饋飯一堂。至來日齋時。興化自白椎云。克賓維那。法戰不勝。不得喫飯。即便出院。雪豆云。克賓要承嗣興化。罰錢出院且置。却須索取者一頓棒始得。且問諸

人。棒既喫了。作麼生索。雪竇要斷不平之事。今夜與克賓維那雪屈。以拄杖一時打散。

師云。興化全師出征。克賓堅壁不戰。及乎力盡技窮。未免牽羊納壁。雪豆要斷不平。直為克賓雪屈。會麼。雖得一場榮。別却一雙足。

舉僧問長慶。眾手淘金。誰是得者。慶云。有伎倆者得。僧云。學人還得也無。慶云。大遠在。雪豆代者僧。當時便喝。復云。有伎倆者得。一手分付。有伎倆者不得。兩手分付。學人還得也無。蒼天蒼天。

師云。長慶和棒托出。者僧當面蹉過。雪豆忍俊不禁。不免按牛頭喫草。今日忽有問靈岩。眾手淘金。誰是得者。只向他道。物見主眼卓豎。又問學人還得也無。答云。又爭怪得老僧。

舉大慈示眾云。山僧不解答話。只是識病。時有僧出。大慈便歸方丈。雪竇云。大凡扶豎宗教。須辨箇得失。且大慈識病不答話。時有僧出。便歸方丈。雪竇識病不答話。或有僧出。劈脊便打。諸方識病不答話。有僧出。必然別有長處。敢有一箇動著。大唐天子只三人。

師云。雪竇可使千古流芳。與且未得勦絕。若據山僧見處。直須打了拖出。何故。大海不宿死屍。

舉趙州到黃檗。檗見來便閉却方丈門。州於法堂上叫云。救火救火。檗便出擒住云。道道。州云。賊過後張弓。雲竇云。直是好笑。笑須三十年。忽有箇衲僧問。雪竇笑箇什麼。笑賊過後張弓。

師云。重門擊柝。黃檗過於隄防。齧鏃破關。趙州慣得其便。雖然兩不相傷。笑破雪竇鼻孔。

舉僧問鏡清。學人未達其源。乞師方便。清云。是什麼源。僧云。其源。清云。若是其源。爭受方便。雪竇云。死水裡浸却。有什麼用處。侍者問。適來成禩伊。清云。無。侍者云。不成禩伊。清云。無。侍者云。和尚尊意如何。清云。一點水墨。兩處成龍。雪竇云。猶較些子。雪竇不是減鏡清威光。要與者僧相見。是什麼源。其源三十年後。與你三十棒。

師云。鏡清一點水墨。兩處成龍。直得傾湫倒岳。雲黯長空。雪竇要減他威光。與者僧相見。且款款地。山僧見處也。要諸人共知。是什麼源。其源。劈脊便棒。直下悟去。裂破古今。

舉僧問香林。如何是衲衣下事。林云。臘月火燒山。雪竇云。臘月燒山。萬種千般。翹松鶴冷。蹈雪人寒。達磨不會。大難大難。

師云。大小香林。答話也不了。僧問衲衣下事。却云。臘月燒山。累及後代兒孫。築底分踈不下。有問山僧。如何是衲衣下事。只向他道。猶堪齋粥對賓客。也勝時人著錦衣。

舉本仁示眾云。尋常不欲向聲前句後。鼓弄人家男女。何故。且聲不是聲。色不是色。時有僧問。如何是聲不是聲。仁云。喚作色得麼。僧云。如何是色不是色。仁云。喚作聲得麼。僧禮拜。仁云。且道。與你說。答你話。若人辯得。有箇入處。雪竇云。本仁也甚奇怪。要且貪觀天上。既非聲前句後。且作麼生入。

師云。雪竇也甚奇怪。既非聲前句後。作麼生不入。

舉雲門示眾云。世尊生下。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云。天上天下。唯吾獨尊。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貴圖天下太平。雪竇云。便與掀倒禪床。

師云。老胡傍若無人。雲門一棒打著。雪竇掀倒禪床。正是助桀為虐。

舉國師三喚侍者。雪竇云。點即不到。侍者三應。雪豆云。到即不點。將謂吾孤負汝。誰知汝孤負吾。雪豆云。謾雪竇不得。雲門云。作麼生是國師孤負侍者處。會得也是無端。雪竇云。元來不會。門云。作麼生是侍者孤負國師處。粉骨碎身未報得。雪竇云。無端無端。

師云。有呼有應。蓋是尋常。負汝負吾。翻成特地。雲門雪竇。不識好惡。吹毛求疵。拈拄杖畫一畫云。當門不用栽荆棘。後代兒孫惹著衣。

復舉僧問投子。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投子云。抑逼人作麼。雪竇云。垛跟漢。僧問興化。化云。一盲引眾盲。雪竇云。端的瞎。僧問玄沙。沙云。侍者却會。雪豆云。停囚長智。僧問趙州。州云。如人暗中書字。字雖不成。文彩已彰。雪豆便喝。僧問雪豆。豆便打。也要諸方檢點。乃成頌云。師資會遇意非輕。無事相將草裡行。負汝負吾人莫問。任從天下競頭爭。

師云。雪竇若無後語。蹉過國師。有僧問。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師云。年老心孤。復成一頌。國師年老覺心孤。三度頻將侍者呼。饒你粉身并碎骨。不和酬得此恩無。

舉僧問智門。如何是佛。門云。踏破草鞋赤脚走。僧云。如何是佛向上事。門云。拄杖頭上挑日月。雪竇云。千兵易得。一將難求。

師云。驢作驢鳴。犬作犬吠。

舉師祖問南泉。摩尼珠人不識。如來藏裡親收得。如何是如來藏。泉云。王老師與汝往來者是藏。雪竇云。草裡漢。祖云。不往不來者。泉云。亦是藏。雪竇云。雪上加霜。祖云。如何是珠。雪竇云。險。百尺竿頭作伎倆。不是好手。者裡著得箇眼。賓主互換。便能深入虎穴。或不溜麼。縱饒師祖悟去。也是龍頭蛇尾漢。

師云。南泉入草求人。雪竇橫身虎穴。且道。師祖悟去。畢竟承誰恩力。者裡著得箇眼。便見頭正尾正。

舉雪峯因僧禮拜。峯打五棒。僧云。某甲有什麼過。峯又打五棒。雪竇云。雪竇不曾與人葛藤。前五棒日照天臨。後五棒雲騰致雨。你若辨得。也好與五棒。

師云。什麼處得者消息來。山僧道。前五棒是騎虎頭。後五棒是收虎尾。若人辨得。領取雪竇五棒。不干山僧事。

舉馬大師令智藏馳書上徑山。山接書開見一圓相。乃於中。下一點封回。國師聞舉云。欽師猶被馬師惑。雪竇云。徑山被惑且致。若將呈似國師。別作箇什麼伎倆。免被惑去。有老宿云。當時坐却便休。亦有道。但與畫被。若與麼。只是不識羞。敢謂天下老師。各具金剛眼睛。廣作神通變化。還免得麼。雪竇見處。也要諸人共知。只者馬師當時畫出。早自惑了也。

師云。欽師被惑。國師被惑。天下老師被惑。至於馬師自惑。雪竇無不檢點得出。且道。雪竇還免得麼。山僧到此。大似醒人看醉人。不覺手舞足蹈。喝一喝。

舉鏡清問僧。趙州喫茶去。你作麼生會。僧便出去。清云。邯鄲學唐步。雪竇云。者僧不是邯鄲人。為什麼學唐步。若辯得出。與你茶喫。

師云。鏡清親見者僧。是邯鄲人。雪竇因什麼道不是。拈拄杖畫一畫云。有口不得茶喫者多。

舉僧問雲門。如何是法身向上事。門云。向上與你道即不難。作麼生會法身。僧云。請和尚鑒。云鑑即且置。作麼生會法身。僧云。與麼與麼。云者箇是長連床上學得底。我且問你。法身還喫飯麼。僧無語。雪竇云。將成九仞之山。不進一簣之土。過在什麼處。

師云。若論戰也。箇箇力在轉處。者僧眨得眼來。槍頭早在雲門手裡。直得上天無路。入地無門。雪竇更要進土在。還委悉麼。箭穿紅日影。須是射鷗人。

舉趙州訪茱萸。纔上法堂。萸云。看箭。州亦云。看箭。萸云。過。州云。中。雪竇云。二俱作家。蓋是茱萸趙州。二不作家。箭鋒不相拄。直饒齊發齊中。也是射堞漢。

師云。二老宿。爾我同氣。情均天倫。自然手眼相似。雪竇云。直饒齊發齊中。也只是射堞漢。看則有分。

舉普化與臨濟。一日同赴施主齋。濟問。毛吞巨海。芥納須彌。為復神通妙用。為復法爾如然。化躍倒飯床。濟云。太麤生。化云。者是甚所在。說麤說細。濟休去。來日又同赴一施主齋。濟復問。今日供養。何似昨日。化又躍倒飯床。濟云。太麤生。化云。瞎漢。佛法說甚麼麤細。濟吐舌。雪竇云。兩箇老賊。喫飯也不了。好與二十棒。棒雖行。且那箇是正賊。

師云。雪豆與麼道。也好與二十棒。且道。過在什麼處。不見道。正賊走却。邏蹤人喫棒。

舉三角示眾云。若論此事。眨上眉毛。早是蹉過。麻谷出云。蹉過即不問。如何是此事。角云。蹉過。谷便掀倒禪床。角便打。雪豆云。兩箇有頭無尾漢。眉毛未曾眨上。說什麼此事蹉過。有僧問。眉毛為什麼不眨上。雪竇便打。

師云。麻谷掀倒禪床。三角便打。作家作家。眉毛為什麼不眨上。雪竇便打。作家作家。前面作家。自是麻谷三角。後面作家。自是雪竇者僧。只今莫有欲知此事者麼。時有僧出。劈脊便打。復問云。作麼生是此事。僧擬議。師又打。擲下拄杖。分明記取。舉似作家。

舉睦州喚僧。大德。僧回首。州云。擔板漢。雪竇云。睦州只具一隻眼。者僧喚既回頭。固甚却成擔板。

師云。雪竇打失一隻眼。者僧喚既回首。却是睦州擔板。

舉岩頭參德山。纔跨門便問。是凡是聖。德山便喝。岩頭便禮拜。洞山聞云。不是巖公。也大難承當。岩頭聞云。洞山老漢不識好惡。我當時一手擡一手搦。雪豆云。然則德山門下。草偃風行。要且不能塞斷人口。當時纔禮拜。劈脊便棒。非唯勦絕洞山。亦乃把定巖老。還會麼。李將軍有嘉聲在。不得封侯也是閒。

師云。家肥生孝子。國霸有謀臣。雪竇云。然則德山門下。草偃風行。要且不能塞斷人口。當時纔禮拜。劈脊便打。非唯縲絕洞山。亦乃把定巖老。說得道理好。歸依佛法僧。

舉巴陵示眾云。祖師道。不是風動。不是幡動。既不是風幡。向什麼處著。有人與祖師作主。出來與巴陵相見。雪竇云。風動幡動。既是風幡。向甚麼處著。有人與巴陵作主。出來與雪竇相見。

師云。為他閑事長無明。

舉則川與龐居士摘茶次。士云。法界不容身。師還見我麼。川云。若不是老師。洎答龐公話。士云。有問有答。蓋是尋常。川不管。士云。適來莫怪相借問麼。川亦不管。士云。者無禮儀漢。待我一舉似明眼人去在。川拈茶籃便歸。雪竇云。則川只解把定封疆。不能同生同死。當時好與捋下幞頭。誰敢喚作龐居士。

師云。說什麼捋下幞頭。當時便與一蹈蹈倒。莫道法界不容身。要且覓起處不可得。

舉僧問雲門。一言道盡時如何。門云。裂破。雪竇彈指三下。

師云。白雲萬里。

舉僧問睦州。一言道盡時如何。州云。老僧在你鉢囊裡。雪竇呵呵大笑。

師云。大蟲裹紙帽。

舉本生以拄杖示眾云。我若拈起。爾便向未拈起時作道理。我若不拈起。爾便向拈起時作主宰。且道。老僧為人在什麼處。時有僧出云。不敢妄生節目。生云。也知闍梨不分外。僧云。低低處平之有餘。高高處觀之不足。生云。節目上。更生節目。僧無語。生云。掩鼻偷香。空招罪犯。雪竇云。者僧也善能切磋。爭奈弓折箭盡。然雖如此。且本生是作家宗師。拈起也天回地轉。應須拱手歸降。放下也草偃風行。必合全身遠害。還見本生為人處也無。復拈拄杖云。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師云。伎倆不如帳樣。且道。本生拄杖。何似雪竇拄杖。若也辨得。天下橫行。其或未然。放在臥床頭。急要打老鼠。舉僧問雪峯。聲聞人見性。如夜見月。菩薩人見性。如晝見日。未審和尚見性如何。峯打三下。其僧復問岩頭。頭打三掌。雪竇云。應病設藥。且與三下。若據令而行。合打多少。

師云。前三後三。應病與藥。據令而行。別有一著。顧侍者云。且道。是什麼一著。侍者擬議。便打出。舉太原孚上座參雪峯。至法堂上。顧視雪峯。便下看知事。雪竇云。一千五百人作家宗師。被孚上座一覷。便高豎降旗。孚至來日。入方丈云。昨日觸忤和尚。峯云。知是般事便休。雲竇云。果然。僧問雲門。作麼生是觸忤處。門便打。雪竇云。打得百千萬箇。有甚用處。直是盡大地人喫棒。方可扶豎雪峯。且道。太原孚具什麼眼。

師云。眼眼相覷。心心相知。僧問雲門。作麼生是觸忤處。門便打。棒頭有眼明如日。雪竇云。打得百千萬箇。有甚用處。要識真金火裡看。

舉安國問僧。得之於心。伊蘭作旃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我要箇語。具得失兩意。僧豎起拳云。不可喚作拳頭。國云。只為喚作拳頭。雪竇云。無繩自縛漢。拳頭也不識。

師云。我不似安國論得論失。一語兩意。拈拄杖。我此拄杖。能殺能活。活中有殺。殺中有活。或則殺活同時。或則殺活不同時。若善用去。世出世間。無法不備。便乃縱奪可觀。卷舒無礙。若用不得。總是無繩自縛。

舉僧請益雲門玄沙三種病人話。門云。你禮拜著。僧禮拜起。門以拄杖便拄。僧退後。門云。你不是患盲。復喚近前來。僧近前。門云。你不是患聾。門云。還會麼。僧云不會。門云。你不是患啞。僧於此有省。雪竇便喝云。者盲聾啞漢。若不是雲門。驢年去。如今有底。或拈槌豎拂不管。教近前又不來。還會麼。不應。諸方還奈何得麼。雪竇若不奈何。爾者一隊驢漢。又堪作箇什麼。以拄杖一時打趲。

師云。玄沙點出三種證候。雲門一試九轉還丹。幸自可憐生。然而病久多變。雪竇早是不奈何。山僧今日。不免作死馬醫去也。豎起拂子召眾云。者裡悟去。合眼可見。塞耳可聞。閉口可說。三十年後。不得道佛法無靈驗。

舉僧問香巖。如何是王索仙陀婆。巖云。過者邊求。雪竇云。鈍置殺人。僧問趙州。王索仙陀婆時如何。州曲躬叉手。雪竇云。索鹽奉馬。

師云。雪竇只知有王索仙陀婆。不知蹉過二員古佛。有問山僧如何是王索仙陀婆。只向他道。退後退後。

舉鼓山示眾云。若論此事。如一口劍。時有僧問。承和尚有言。若論此事。如一口劍。和尚是死屍。學人是死屍。如何是劍。山云。拖出者死屍著。僧應諾。歸衣鉢下。打疊便行。山至晚問首座。問話僧在否。座云。當時便去也。山云。好與二十棒。雪竇云。諸方老宿總道。鼓山失却一隻眼。殊不知重賞之下。必有勇夫。雖然如此。若子細點檢來。未免一時埋却。

師云。吹毛在握。遍界冰霜。者僧忘軀。敢衝雪刃。可惜不斬作兩段。却向賊過後張弓。雪竇雖則一手擡一手搦。也只是箇鼻死屍漢。

舉睦州問武陵長老。了即毛吞巨海。始知大地一微塵。作麼生。云和尚問誰。云問長老。云何不領話。云我不領爾不領。雪竇云。墮也墮也。復云。者葛藤老漢。好與畫斷。拈拄杖云。什麼處去也。

師云。赤洪崖打白洪崖。雪竇要畫斷者葛藤。墮也墮也。

舉仰山坐次。大禪佛到。翹一足云。西天二十八祖亦如是。唐土六祖亦如是。和尚亦如是。某甲亦如是。山下禪床打四藤條。雪竇云。藤條未到折。因什麼。只打四下。須是箇斬釘截鐵漢始得。大禪佛後到霍山。白云。集雲峯下四藤條。天下大禪佛參。山云。打鐘著。禪便走。雪竇云。者漢見幾而作。爭奈有頭無尾。

師云。小釋迦。不能把斷牢關。致令者漢擔四藤條。到處賣弄。不是霍山。幾被打破蔡州。雪竇云。藤條未到折。因甚麼。只打四下。識甚好惡。

舉玄沙與天龍。入山見虎。龍云。前面是虎。沙云。是汝。雪竇云。要與人天為師。前面端的是虎。

師云。天龍是虎。玄沙是汝。大小雪竇。要與人天為師。別作箇眼始得。

舉南泉山下。有一菴主。行脚僧經過。謂菴主云。近日南泉和尚出世。何不去禮拜。主云。非但南泉。直饒千佛出世。亦不能去。泉聞令趙州去看。州見便禮拜。主不管。州從西過東。主亦不管。州又從東過西。主亦不管。州云。草賊大敗。拽下簾子便行。歸舉似

南泉。泉云。從來疑著者漢。雪豆云。大小南泉趙州。被箇擔板漢勘破了也。

師云。渾鋼打就。生鐵鑄成。雪竇云。大小南泉趙州。被箇擔板漢勘破。只知開口易。不覺舌頭長。敢謂天下宗師。不消此老一覷。

舉僧問風穴。語默涉離微。如何通不犯。穴云。常憶江南三月裡。鷓鴣啼處百華香。雪竇云。曾有人問雪竇。對他道。劈腹剜心。又且如何。復云。因風吹火。別是一家。傷鼈怒龜。必應有主。

師云。不涉離微。全超語默。鷓鴣啼處令人憶。劈腹剜心露一機。別是真人好消息。還見二老宿麼。拈起少林無孔笛。夜深吹過汨羅灣。

舉岩頭。雲峯。欽山。到德山。欽問。天皇也溷麼道。龍潭也溷麼道。未審德山作麼生道。山云。爾試舉天皇龍潭底看。欽擬議。山便打。欽被打。歸延壽堂云。是即是。打我太殺。岩云。爾恁麼。他後不得道見德山。雪竇云。諸禪德。欽山致箇問頭。甚是奇特。爭奈龍頭蛇尾。爾試舉天皇龍潭底看。坐具便搥。大丈夫漢捋虎須。也是本分。他既不能。德山令行一半。令若盡行。雪峯岩頭。總是涅槃堂裡漢。

師云。三人行必有一智。欽山既道不得。雪峯岩頭還道得麼。道得道不得即且置。雪豆道。德山令行一半。令若盡行。雪峯岩頭。總是涅槃堂裡漢。只如雪竇。還免得也無。

舉僧問智門。如何是般若體。門云。蚌含明月。僧云。如何是般若用。門云。兔子懷胎。雪竇云。非惟把定世界。亦乃安帖邦家。若善能參詳。便請丹霄獨步。

師云。蚌含明月。兔子懷胎。什麼處得者消息來。把定世界。安帖邦家。且信一半。

舉烏臼因玄紹二上座到。臼云。二禪伯近離甚處。僧云。江西。臼便打。僧云。久聞和尚有此機要。臼云。爾既不會。第二箇近前來。僧擬議。臼亦打云。同坑無異土。參堂去。雪竇云。宗師眼目。須至恁麼。如金翅擘海。直取龍吞。有般漢。眼目未辨東西。拄杖不知顛倒。只管說照用同時。人境俱奪。

師云。烏臼當軒據坐。正令方行。者僧自遠趨風。[拚-ム+去]得喫棒。若是慣戰作家。何處有烏臼也。更若未會。看取雪竇葛藤。

舉僧辭大隋。隋問。甚處去。僧云。峨眉禮拜普賢去。隋豎起拂子云。文殊普賢。總在者裡。僧畫一圓相。拋向背後。隋云。侍者將一帖茶與者僧。雲門別云。西天斬頭截臂。者裡自領出去。雪竇云。殺人刀活人劍。具眼底辯取。

師云。文殊普賢。總在者裡。大隋只為慈悲之故。有落草之談。僧畫圓相。拋向背後。咄。者死蝦蟇。隋云。侍者將一帖茶與者僧。是何心行。雲門別云。西天斬頭截臂。者裡自領出去。雪上加霜。雪竇云。殺人刀活人劍。好手鑑不出。

舉雪峯問僧。見說大德。曾為天使來是否。僧云。不敢。峯云。爭解與麼來。僧云。仰慕道德。豈憚關山。峯云。你猶醉在。出去。僧便出。峯乃召大德。僧回首。峯云。是什麼。僧亦云。是什麼。峯云。者漆桶。僧無語。峯却顧謂鏡清云。好箇師僧。向漆桶裡著到。清云。和尚豈不是據款結案。峯云。也是我尋常用底。忽若喚回是什麼。被他道者漆桶。又作麼生。清云。成何道理。峯云。我恁麼及伊。你又道據款結案。他與麼及我。你又道成何道理。一等是恁麼時節。其間有得不得。清云。不見道。醍醐上味。為世所珍。遇此之人。翻成毒藥。雪竇云。看他父子相投。言氣相合。知之者謂。粉骨碎身。此恩難報。不知者謂。扶高抑下。臨危悚人。毒藥醍醐。千載龜鑑。還會麼。者漆桶。

師云。者僧親為天使來。無端撞在漆桶裡。雪峯鏡清。素稱敏手。要且救他不出。毒藥醍醐。千載龜鑑。不是知心者。徒勞話歲寒。

舉僧問大梅。如何是祖師西來意。梅云。西來無意。僧舉到鹽官。官云。一箇棺材。兩箇死漢。玄沙聞舉云。鹽官是作家。雪竇云。三箇也得。

師云。螳螂捕蟬。

舉雲門問新羅僧。你是甚處人。云新羅人。門云。將什麼過海。僧云。草賊大敗。門云。為什麼在我手裡。僧云。恰是。門云。一任[跳-兆+孛]跳。雪豆云。雲門老漢。龍頭蛇尾。放過者僧。為什麼。在我手裡。恰是劈脊便打。

師云。者僧過得海來。恰值落在雲門手裡。雪竇推波助瀾。可謂小出大遇。

舉北禪問僧。近離甚處。僧云。黃州。禪云夏在甚處。僧云資福。禪云。福將何資。僧云。兩重公案。禪云。爭奈在我手裡。僧云。在手裡則收取。禪便打。者僧不甘。隨後趨出。雪竇云。奇怪宛有超師之作。還知者僧麼。只解瞻前。不能顧後。若在雪竇手裡。棒折也未放在。

師云。一不做二不休。打人須是鉄拳頭。

舉睦州示眾云。我見百丈。不識好惡。大眾方集。以拄杖一時打散。復召大眾。眾回首。丈云。是什麼。有什麼共語處。黃檗和尚。大眾方集。以拄杖一時打下。復召大眾。眾回首。檗云。月似彎弓。小雨多風。猶較些子。雪竇云。說什麼猶較些子。直是未

在。若據雪竇。眾集一時打下便休。或有箇無孔鐵槌。為眾竭力。善能擔荷。可以籠罩古今。乾坤把斷。驀拈拄杖云。放過一著。

師云。三段不同。收歸上科。

舉玄沙見鼓山來。作一圓相。山云。人人出者箇不得。沙云。情知你向驢胎馬腹裡作活計。山云。和尚又作麼生。沙云。人人出者箇不得。山云。和尚與麼道得。某甲為什麼不得。沙云。我得汝不得。雪竇云。只解貪觀白浪。不知失却手橈。

師云。道得也出者箇不得。道不得也出者箇不得。貪觀白浪。失却手橈。閑言語。

舉南泉示眾云。王老師賣身去也。還有人買麼。一僧出眾云。某甲買。泉云。不作貴不作賤。作麼生買。僧無語。臥龍代云。和尚屬某甲。禾山云。是何道理。趙州云。明年與和尚做一領布衫。雪竇云。雖則作家競買。要且不解輸機。且道。南泉還肯麼。雪竇也擬酬箇價直。令南泉進且無門。退亦無路。不作貴不作賤。作麼生買。別處容和尚不得。

師云。南泉善賣。雪竇善買。牙保不來。只成賒話。不作貴不作賤。遇物應緣。乘巧便。流出天涯也可憐。不如且在家中轉。咄。

舉茱萸把一橛竹上堂云。莫有虛空裡釘得橛者麼。時有靈虛上座出云。虛空是橛。萸便打。虛云。莫錯打某甲。萸休去。雪竇云。若要此話大行。直須打了趨出。

師云。茱萸空中釘橛。靈虛旱地遭釘。雪竇不管盡法無民。只要話行千古。檢點將來。總是一隊掠虛漢。

舉夾山與定山同行言話次。定云。生死中無佛。則無生死。夾云。生死中有佛。則不迷生死。互相不肯。同上大梅相見了。具說前事。梅云。一親一疎。夾問。那箇親那箇疎。梅云。且去明日來。夾至來日又問。未審那箇親。梅云。親者不問。問者不親。夾山住後云。我當時在大梅。失却一隻眼。雪竇云。夾山畢竟不知換得一隻眼。大梅老漢。當時聞舉。若以棒一時打出。豈止畫斷兩人葛藤。亦乃天下宗匠。

師云。夾山失却隻眼。住後方知。雪竇畫斷葛藤。作得天下宗匠。雖然。李將軍有佳聲在。不得封侯也是閑。

舉僧問保福。雪峯平生。有何言句。得似羚羊掛角時。福云。我不可作雪峯弟子不得。雪竇云。一千五百箇布衲。保福較些子。

師云。做得雪峯弟子則不無。要見羚羊掛角。三生六十劫。

舉僧問長慶。羚羊未掛角時如何。慶云。草裡漢。僧云。掛角後如何。慶云。亂叫喚。僧云。畢竟如何。慶云。驢事未去。馬事到

來。雪竇云。寧可碎身如微塵。終不瞎箇眾生眼。長慶較些子。復云。一般漢設使羚羊未掛角。也似萬里望鄉關。

師云。長慶怎麼答話。瞎却天下人眼去在。雪竇道。終不瞎箇眾生眼。萬里望鄉關。

舉僧問巴陵。祖意教意。是同是別。陵云。雞寒上樹。鴨寒下水。僧問睦州。祖意教意。是同是別。州云。青山自青山。白雲自白雲。雪竇云。問既一般。答亦相似。其中有利他自利。瞞人自瞞。若點檢分明。管取解空第一。

師云。雞寒上樹。鴨寒下水。青山嵯峨。白雲澹泞。祖意教意。在什麼處。若約檢點分明。有利無利。不離行市。

舉趙州示眾云。今夜答話去也。有解問者出來。時有僧出。州云。比擬拋磚引玉。引得箇墜子。法眼遂乃舉問覺鐵觜。先師意作麼生。覺云。如國家拜將。乃問。甚人去得。時有人出云。某甲去得。須云汝去不得。法眼云。我會也。雪竇云。靈利漢。聞舉便知落處。然雖如是。放過覺鐵觜。夫宗師語不虛發。出來必是作家。因什麼。拋磚引墜。諸禪德。要識趙州麼。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

師云。覺鐵觜名喧宇宙。搵著便作屎臭氣。人問拋磚引墜。便謂如國家拜將。當時法眼若解拈出本分草料。何止清風萬里。雪竇云。靈利漢。一舉便知落處。豈堪共語。然雖如是。放過覺鐵觜。賴有此語。

舉耽源辭國師。歸省馬祖。於地上作一圓相。展坐具禮拜。祖云。你欲作佛去。源云。某甲不解捏目。祖云。吾不如汝。雪竇云。然猛虎不食其子。爭奈來言不豐。諸人要識耽源麼。只是箇藏身露影漢。

師云。耽源歸省。獻箇胡餅。馬祖舐犢。自不勝情。雪竇云。然猛虎不食其子。爭奈來言不豐。檢點將來。恰蹈著耽源影子。

舉瀉山問仰山。甚處來。仰云。田中來。瀉云。田中多少人。仰插鋤叉手而立。瀉云。南山大有人刈茅。仰拔鋤便行。玄沙云。我當時若見。蹈倒鋤子。鏡清云。不奈船何。打破辱斗。僧問明招。古人意在插鋤處。叉手處。招喚某甲。僧應諾。招云。還曾夢見仰山麼。雪竇云。諸方咸謂。插鋤話奇特也大似隨邪逐惡。若據雪竇見處。仰山被瀉山一問。直得草繩自縛。去死十分。

師云。瀉仰父子。一問一答。未見譎訛。却是玄沙無風起浪。鏡清云。不奈船何。打破辱斗。一波纔動萬波隨。不是明招捋下面皮。未免總死在鋤子下。雪竇云。仰山被瀉山一問。直得草繩自縛去。死十分。咄。以己妨人。

舉玄沙問僧。近離甚處。僧云。瑞巖。沙云。瑞巖有何言句。僧云。常喚主人公。自應諾。惺惺著。他後莫受人謾。沙云。一等是弄精魂。也甚奇怪。沙云。何不且在彼中住。僧云。已遷化也。沙云。如今還喚得應麼。僧無語。雪竇云。蒼天蒼天。

師云。者僧只是接響承虛。道聽途說。若親從瑞巖來。因甚喚不應。雪竇云。蒼天蒼天。東家人死。西家助哀。

舉雪峯問僧。近離甚處。僧云。覆船。峯云。生死海未度。為什麼覆却船。僧無語。雪竇代云。久嚮雪峯。侍者老漢擬議。拂袖便行。其僧歸舉似覆船。船云。何不道渠無生死。僧再到雪峯舉此話。峰云。此不是你語。僧云。是覆船恁麼道。峯云。我有二十棒。寄與覆船。二十棒老僧自喫。不干闍梨事。雪竇云。能區能別。能殺能活。若人辨得。天下橫行。

師云。雪峯善問。覆船善答。者僧有馳達之勞也。合與二十棒。還委悉麼。不因楊得意。爭識馬相如。

舉德山圓明示眾云。但有問答。只豎一指。寒則普天普地寒。雪竇云。什麼處見俱胝老。熱則普天普地熱。雲竇云。莫錯認定盤星。森羅萬象徹下孤危。大地山河通上險絕。甚處得一指頭禪。

師云。圓明借手行拳。雪竇捕風追電。畢竟俱胝老子。不在一指頭邊。

舉僧問南院。從上諸聖。什麼處去。院云。不上天堂即入地獄。僧云。和尚又作麼生。院云。還知寶應老落處麼。僧擬議。院以拂子驀口打。復喚僧近前云。令合是你行。又打一拂子。雪竇云。令既自行。且拂子不知來處。雪竇道箇瞎。且要雪上加霜。

師云。南院有不犯之令。者僧無自全之策。雪竇道箇瞎。天堂未就。地獄先成。

舉保福問長慶。盤山道。光境俱亡。復是何物。洞山道。光境未亡。復是何物。據二老宿。總未得勦絕。作麼生道得勦絕去。慶良久。福云。情知爾向鬼窟裡作活計。慶云。你又作麼生。福云。兩手扶犁水過膝。雪竇云。俱亡未亡總由我。保福因甚麼道。未得勦絕。灼然能有幾箇。諸人又作麼生道。免得長慶在鬼窟裡。雪竇云。柳絮隨風。自西自東。

師云。俱亡未亡。不離光境。盤山洞山。總未勦絕。長慶鬼窟。

保福泥犁。雪竇風絮自東自西。者一隊漢。鼻孔索頭。盡在山僧手裡。一任橫拖倒拽。無人知此意。雞向五更啼。

舉大梅聞鼯鼠聲云。即此物非他物。善自護持。吾今逝矣。雪竇云。者漢生前莽鹵。死後顛預。即此物非他物。是何物。還有分付處也無。有般漢不解截斷大梅脚跟。只管道。貪程太速。

師云。大梅平生。脊梁硬似鐵。末後向鼯鼠聲中。全然放倒。雪竇不辯端倪。却道。還有分付處也無。更要截斷他脚跟。彌勒下生去。

舉雪峯示眾云。望州亭與汝相見了也。烏石嶺與汝相見了也。僧堂前與汝相見了也。保福問鵝湖。僧堂前且置。望州亭。烏石嶺。什麼處相見。湖驟步歸方丈。福便乃入僧堂。雪竇云。二老宿。是即是。只知雪峯放行。不知雪峯把定。忽有箇衲僧出問。未審雪竇作麼生。豈不是別機宜識休咎底漢。還有望州亭烏石嶺相見底衲僧麼。良久云。擔板禪和。如麻似粟。

師云。我要問雪峯。除却望州亭烏石嶺僧堂前。什麼處不是相見處。我要問雪竇。什麼處是雪峯把定放行。古人且置。即今作麼生。設有一箇半箇。別休咎識機宜。豈不是為眾竭力。其或未然。只知事逐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

舉趙州問大慈。般若以何為體。慈云。般若以何為體。州呵呵大笑。至來日。州掃地次。慈却問。般若以何為體。州放下掃帚。呵呵大笑。雪竇云。前來也笑。後來也笑。笑中有刀。大慈還識麼。直饒識得也未免喪身失命。

師云。是精識精。是賊識賊。又云。識得不為冤。

舉德山一日飯遲。托鉢過堂。雪峯見云。者老漢。鐘未鳴鼓未響。托鉢向什麼處去。山便歸方丈。雪峯舉似巖頭。頭云。大小德山。不會末後句。山聞令侍者喚來。頭至方丈。問。爾不肯老僧那。頭遂密啟其意。山至來日上堂。與尋常不同。頭於僧堂前。撫掌大笑云。且喜老漢。會末後句。他後天下人不奈何。雖然如是。也只得三年活。明招代德山云。咄咄咄。沒處去沒處去。雪竇云。曾聞說獨眼龍。元來只有一隻眼。殊不知。德山是箇無齒大蟲。若不是巖頭識破。爭得明日與昨日不同。諸人要會末後句麼。只許老胡知。不許老胡會。

師云。末後一句。始到牢關。把斷要津。不通凡聖。巖頭密啟其意。赤土塗牛糞。明日上堂。與昨日不同。疑殺天下人。殊不知。德山年老成魔。不是巖頭領過。莫道三年遷化。更三十年也死未得在。明招代云。咄咄咄。沒處去。沒處去。知心能幾人。雪竇云。德山是箇無齒大蟲。若不是巖頭識破。爭得明日與昨日不同。閉門不造車。出門自合轍。諸人要會末後句麼。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

舉雪峯一日見獼猴。乃云。者獼猴各背一面古鏡。三聖便問。歷劫無名。何以章為古鏡。峯云。瑕生也。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峯云。老僧住持事煩。雪竇云。好與二十棒。者棒放過也好。免見將錯就錯。

師云。前箭猶自可。後箭射人深。
舉僧問國師。如何是本身盧舍那。國師云。與老僧過淨餅來。僧將到淨餅。國師云。却安舊處著。僧安舊處。復來問。如何是本身盧舍那。國師云。古佛過去久矣。雲門云。無朕迹。雪竇云。直得一手指天一手指地。爭得無。還會麼。雲在嶺頭閑不徹。水流澗下太忙生。

師云。國師不得雲門。泊好勞而無功。總似雪竇。未免白日見鬼。如今有問山僧。如何是本身盧舍那。只向他道。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舉僧問洞山。時時勤拂拭。莫遣惹塵埃。為什麼。不得他衣鉢。山云。直饒道本來無一物。也未合得他衣鉢。且道。什麼人合得。僧下九十六轉語。皆不契。末後云。直饒將來他亦不受。山深肯。雪竇云。他既不受。是眼。將來底。必應是瞎。還見祖師衣鉢麼。若於此入門。便乃兩手分付。非但大庾嶺頭。一箇提不起。設使闔國人來。且款款將去。

師云。者僧下九十六轉語。正是九十六種外道。末後道。設使將來。他亦不受。稍有衲僧氣息。雪竇云。他既不受是眼將來底必應是瞎。還見祖師衣鉢麼。若於此入門。便乃兩手分付。話作兩橛。非但大庾嶺頭。一箇提不起。設使闔國人來。且款款將去。救得一半。

舉僧問投子。依稀似半月。彷彿若三星。乾坤收不得。師於何處明。子云。道什麼。僧云。想師只有湛水之波。且無滔天之浪。子云。閑言語。雪竇云。投子古佛。不可道不知。檢點將來。直是天地懸隔。纔問便和聲打。

師云。投子放頑。天下人不奈何。雪竇據令。未免犯鋒傷手。舉洛浦久為臨濟侍者。到夾山問。自遠趨風。乞師一接。山云。目前無闍梨。此間無老僧。浦便喝。山云。住住。且莫草草忽忽。雲月是同。溪山各異。坐斷天下人舌頭即不無。爭教無舌人解語。浦無對。山便打。雪竇云。者漢可悲可痛。鈍置他臨濟。他既雲月是同。我亦溪山各異。說什麼無舌人不解語。坐具劈口便搥。夾山若是箇知方漢。必然明窻下安排。

師云。洛浦未出臨濟門。氣吞宇宙。及至夾山面前。直是展手不得。似者般漢。不打更待何時。雪竇云。者漢可悲可痛。鈍置他臨濟。他既雲月是同。我亦溪山各異。說什麼無舌人不解語。坐具劈口便搥。見事不平爭忍得。衲僧正令自當行。

舉三聖問雪峯。透網金鱗以何為食。峯云。待汝出得網來。却向汝道。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峯云。老僧住持事

煩。雪竇云。可惜放過。好與二十棒。者棒一棒也饒不得。只是罕遇作家。

師云。三聖固是透網金鱗。爭奈雪峯釣鼈手段。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等閑擺動三山。峯云。老僧住持事煩。坐得船頭穩當。雪竇云。可惜放過。好與二十棒。喝。小神作麼。

舉伏牛為馬祖馳書。到國師處。國師問。馬祖有何言句示人。牛云。即心是佛。國師云。是什麼語話。良久再問。更有什麼言句。牛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國師云。猶較些子。雪竇代云。當時便喝。牛却問。和尚此間。如何示人。國師云。三點如流水。曲似刈禾鎌。雪竇云。是什麼語話。也好與一撈。見之不取千載難忘。

師云。伏牛也不虛行。既識國師。又識馬祖。雪竇下者兩著。不妨好手。爭奈落在國師殼中。具眼者辯取。

舉玄沙問鏡清。我不見一法為大過患。爾道不見什麼法。清指露柱云。莫是不見者个法麼。沙云。浙中清水白米從爾喫。佛法則未在。雪竇云。大小鏡清被玄沙熱謾。我當時若見。但只向道。靈山授記也未到如此。

師云。雪竇只知鏡清被玄沙熱謾。不知玄沙被鏡清熱謾。靈山授記也未到如此。謾自己不過。

舉先報慈問僧。近離甚處。僧云。臥龍。慈云。在彼多少時。僧云。經冬過夏。慈云。龍門無宿客。為什麼在彼許多時。僧云。師子窟中無異獸。慈云。爾試作師子吼看。僧云。若作師子吼。即無和尚。慈云。念汝新到。且放三十棒。雪竇云。奇怪諸禪德。若平展則兩不相傷。據令則彼此俱險。還點檢得出麼。

師云。真師子兒。善師子吼。慈云。念汝新到。且放三十棒。作家宗。師天然有在。雪竇云。平展則兩不相傷。據令則彼此俱險。鈎在不疑之地。

舉船子云。千尺絲綸直下垂。一波纔動萬波隨。夜靜水寒魚不食。滿船空載月明歸。雪竇云。者漢勞而無功。忽若雲門道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又作麼生。免此過。良久云。莫謂水寒魚不食。如今釣得滿船歸。

師云。不貪香餌味。可謂碧潭龍。雪竇云。莫謂水寒魚不食。如今釣得滿船歸。跛鼈盲龜。有甚用處。

舉投子問巨榮禪客。老僧未曾有一言半句。掛諸方耳目。何用要見老僧。僧云。到者裡不施三拜。要且不甘。子云。出家兒得與麼沒碑記。僧遶禪床一帀而出。子云。有眼無耳朵。六月火邊坐。雪竇云。也不得放過。纔轉便與擒住。便喝云。是誰不甘。若跳得出。不妨是一員衲僧。

師云。老僧未有一言半句。掛諸方耳目。何用要見老僧。是何相待。僧云。到者裡不施三拜。要且不甘。出乎爾反乎爾。出家兒得與麼沒碑記。靠倒者僧。僧遶禪床一帀而出。若是德山臨濟。棒折也未放在。雪竇云。也不得放過。纔轉便與擒住。喝云。是誰不甘。若跳得出。不妨是一員衲僧。識甚好惡。

舉祖師道。六塵不惡。還同正覺。雪竇云。拄杖子是塵。有什麼過。過既無應合辯主。所以道。糞掃堆頭丈六金身。拈向一邊。赤肉團上壁立千仞。又放過一著。直饒八面四方。正好連架打。

師云。聞見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穿却祖師鼻孔。換却雪竇眼睛。莫有喫得棒底漢麼。靠拄杖。放過一著。

舉古云。眼裡著沙不得。耳裡著水不得。有般漢。信得及把得住。不受人謾。祖佛言教。是什麼熱椀鳴聲。便請高掛鉢囊。拗折拄杖。管取一員無事道人。又古云。眼裡著得須彌山。耳裡著得大海水。一般漢受人商量。祖佛言教。如龍得水。似虎靠山。却須挑起鉢囊。橫擔拄杖。亦是一員無事道人。復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然後沒交涉。三員無事道人中。要選一人為師。

師云。高掛鉢囊。拗折拄杖。未是無事道人。挑起鉢囊。橫擔拄杖。亦未是無事道人。與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然後沒交涉。亦未是無事道人。一即三。三即一。木馬火中嘶。黃昏後日出。喝一喝。

了菴和尚語錄卷第四

了菴和尚語錄卷第五

頌古

參學比丘 文煥 克明 宗成 等編

世尊初生

指天指地獨稱尊。不是興家便滅門。拋却金輪聖天子。却來方外立乾坤。

世尊拈華

鷲峯龍象數如麻。獨有頭陀解笑華。半座平分多子塔。密傳金縷衲袈裟。

世尊陞座文殊白椎

電卷星飛下一椎。早成狼藉徧坤維。靈山密意無人會。秋後黃華白滿籬。

未離兜率已降王宮

臘月華開火裡蓮。神仙秘訣許誰傳。一毛端上三千界。買斷風光不費錢。

不問有言。不問無言

剪斷群機立問端。舌頭拖地觸體乾。影鞭良馬知何往。月上青山玉一團。

調達謗佛生陷地獄

莫問今吾與故吾。胡須赤對赤須胡。吹毛未動頭先落。烈漢元來是丈夫。

梵志獻華

兩手空來放下難。一椎擊碎鬼門關。堂堂大道如絃直。白月清風任往還。

金棺自舉

金棺三帊繞尸羅。常與無常會也麼。面皺只因陪笑得。背駝偏為曲躬多。

阿難問迦葉金襴外別傳何物

金襴之外傳何物。問處分明答處端。倒却門前剎竿著。弟兄終是不相謾。

殃崛摩羅持鉢

賢聖中來不殺生。依言說與產家聽。當時子母便分免。佛法元來自有靈。

維摩示疾

病人膏肓念未灰。勞他佛子領徒來。不消一服清涼散。毛孔重重盡豁開。

善財南詢

覺城東際太顛顛。走得娘生兩腿酸。樓閣門前一彈指。念頭空盡觸體乾。

阿育王問賓頭盧

阿耨宮中請佛齋。本來無位可安排。只知隨例餐餽子。也得三文買草鞋。

廓然無聖

廓然無聖全提正令。撼動東土西乾。拈却佛病祖病。寶公既解賞音。武帝何妨聽瑩。折得莖蘆便度江。老子從來太著忙。少林一路如絃直。五葉華聯劫外芳。

龐公問馬祖不昧本來身

當陽不昧本來身。直上何如直下親。一曲無絃彈得妙。只今誰是賞音人。

肅宗問國師十身調御

十身調御露堂堂。直蹈毗盧頂上行。但見皇風成一片。不知何處是封疆。

馬祖即心是佛

肥不露肉。瘦不露骨。戲海鯨龍捎空俊鷗明眼漢莫輕忽。握金剛椎碎窠窟。

趙州勘婆

衲僧脚下路通天。舉目臺山總是煙。婆子趙州俱勘破。不教空費草鞋錢。

狗子佛性

狗子佛性無。狗子佛性有。擊碎兩重關。何處尋窠臼。山頭木馬嘶。海底泥牛吼。堪笑堪悲老趙州。黑黑明明三八九。

寒暑到來何處回避

急切相投事有由。臨川重下釣鰲鉤。因看月掛松梢上。不覺青天在屋頭。

百市千重是何人境界

當陽擊碎連城壁。手面分開萬仞崖。明月清風兩無價。碧潭雲外絕安排。

俱胝豎指

俱抵一指開浩浩。十方剎海俱掀倒。如今浪靜風亦恬。綠陰滿地無人掃。

趙州訪臨濟

千金駿骨無尋處。兩箇木人相耳語。白雲飛盡海天高。落華片片隨流水。

大禪佛到霍山

集雲峯下四藤條。夾鏡方瞳駿馬驕。一抹煙沙幾千里。相逢誰是霍嫫媯。

庭前栢樹子

九九百百。半青半白。祖意西來。庭前老栢。

日面佛月面佛

名不得。狀不得。日面月面。釋迦彌勒。馬師病入膏肓。證候鬼神莫測。打瓦鑽龜數似麻。除却耆婆有誰識。

有句無句

樹倒藤枯意若何。瀉山特地笑呵呵。布單賣却猶閑事。惹起無風雨波。

僧問趙州。晝昇兜率夜降閻浮。為甚摩尼珠不現

圓陀陀光爍爍。影跡不留。十虛昭廓。往古來今幾箇知。一聲天外黃金鐸。

臘月火燒山

臘月燒山。天寬地寬。衲衣下事。更不相瞞。無影樹頭。鶴驚殘夢。不萌枝上春在曲闌。推倒生公點頭石。碧潭雲外不相關。

體露金風

樹凋葉落。體露金風。雲收大野。月皎長空。華鯨殷殷。鼉鼓逢逢。神山中聳。江漢朝宗。

如何是道墻外底

大道透長安。嚴冬日日寒。少林深雪裡。北斗面南看。

前三三後三三

前三三與後三三。數目分明不用參。師子教兒迷子訣。斷崖千尺倚層嵐。

丹霞燒木佛

高燒木佛禦嚴寒。和氣如春四體安。自作要知當自受。與他院主不相干。

丹霞燒木佛。院主眉須墮。古今競商量。往往成口過。壽山爐排開。與君重註破。重註破。還知麼。五熱炙身。迷逢達磨。

夾山見船子

明明法眼本無瑕。不奈傍觀冷笑何。撥轉船頭逢洛浦。也能平地起風波。

德山托鉢

德山托鉢小兒嬉。賴有巖頭點破伊。活得三年便遷化。箇中消息幾人知。

仰山問漚山云。大用現前請師辨別

暗裡抽衡骨。明中坐舌頭。幸然平似鏡。何用曲如鈎。

常在家舍不離途中

家舍途中同一轍。不論空劫與如今。鬼神茶飯休拈出。南北東西意自深。

法眼問覺鐵觜趙州栢樹子話

暗去明來自有因。莫將容易辯疎親。鴛鴦繡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洞山恁麼道即易相續也大難

覲面相呈道即難。一毫端上萬重山。直須坐斷毗盧頂。堪與他家共往還。

鼇山雪夜

胸襟流出始相應。直得三千海岳崩。描不成兮畫不就。鼇山店裡喚師兄。

雪峯鞦韆

截嶺橫岡鼇鼻蛇。遭他毒口數如麻。無端更把三毬鞦。又是重添項上枷。

雪峯示眾

大地撮來無粒粟。毛端湧出須彌山。晨朝打鼓普請看。南海波斯念八還。

玄沙白紙

白紙封來落二三。鳴鐘集眾為開緘。同風句在言詞外。不是通人不易諳。

中原一寶

中原一寶見還難。不在張眉引手間。金殿日高旗影轉。一爐沈水萬機閑。

五祖室中舉小艷詩

聲前句後太無端。金鴨香消夜未闌。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闌干。

鉢囉娘

一大藏教是切脚。東山直示鉢囉娘。靈巖今日為君舉。醉後添盃禮數長。

如何是佛肥從口入

波波挈挈。憨憨癡癡。人情若好。喫水也肥。

向上一路千聖不傳

夫子不識字。達磨不會禪。脚跟不點地。水底火燒天。

贊語

參學比丘 宗胤 起宗 等編

出山相

棄金輪位入深山。麻麥無功歲又闌。開得眼來天地闊。斗杓正插鬼門關。

梅檀佛

怛薩阿竭。梅檀瑞像。肇自優填。造於智匠。佛從天降。像亦地升。震旦之記。廣利有情。歷歲二千。三百有七。屆于皇元。延祐三秩。聖主仁宗。眷茲聖容。史臣奉詔。纂緝始終。勒文于石。用昭聖德。前聖後聖。聖心允格。善哉振鵬。王氏之子。慕君効忠。摹刻以施。譬諸滿月。影現千江。大光普照。靡間遐荒。瞻之仰之。以欣以抃。我作贊詞。捕風追電。

有異比丘以金剛經寫成釋迦佛像。高不五寸。廣則半之。可視不可讀為作贊曰

三十二相。金剛法寶。色見聲求。是行邪道。應無所住。而生其心。夢幻露電。功德之林。縱橫倒植。珠明玉潤。毫端發揮。攝入方寸。如明鏡中。而現色像。善哉佛子。顯此智藏。

高安陳茂卿。書四大部經。求贊

善哉茂卿大居士。深入諸佛法性海。乘彼無始大願力。而於一念了萬事。隨順世間。一切相。不壞不雜悉平等。與我法性無差互。然此法性不可得。彼諸世相亦無有。以無有故無罣礙。於一切處無順逆。譬如虛空無所依。為諸色相所依止。不即不離無取舍。具足成就一切法。而於一切無作受。若能若所寂靜。故居士既入此法性。無復發起世間想。若利若祿。如夢幻。豈有智者於夢幻一毫端許。生染著。是名菩薩。如幻智。居士以此幻智力。遊戲一切翰墨海。於一微塵出經卷。量等三千大千界。開敷一切三昧華。莊嚴諸佛法性土。具足無上大智慧。絕生死流到彼岸。眾寶積聚如須彌。涅槃自性無繫屬。發起普賢諸大願。於一切處為先導。而此居士翰墨海。瀰漫洶涌無有涯。於一滴中具眾智。一一滴中無不爾。以一切智入一滴。一切智亦復然。是為菩薩無盡藏。於一切處作利益。是為菩薩大法船。於一切處作津濟。是為菩薩精進幢。於一切處無退屈。一切諸佛淨天眼。證我作此無畏說。普願一切法界海。與我所說無涉入。令彼居士法性身。與諸佛等菩薩等。而於諸佛法末世。興起廣大諸佛事。普使沈溺諸有情。同見自性天真佛。

何山復藏主。血書法華。募印藏教。建殿曰毗盧性海

我觀如來真法界。清淨廣大如虛空。若性若相悉平等。故能建立於一切。能作所作不可得。而於諸法不染著。善哉佛子證此法。即見本身盧舍那。三際洞然入一念。不越一念了三際。譬如皎月行太空。不作明照一切想。是為菩薩無功用。於一切處作佛事。交光相羅無壞雜。體用涉入如帝網。小溪不隔逝多林。遮那不起菩提樹。所以莊嚴大樓閣。動念俱息開復閉。於此不作奇特想。亦復不作無奇特。是為不捨根本智。而能成就諸願海。今觀佛子所建立。始終不離如是義。毫端顯示妙蓮華。隨說而行血滴滴。乘時破彼妄想塵。全出無邊大經卷。普為來者作饒益。不出遮那同體悲。自然常在於其中。若經若行若坐臥。求其實性不取相。即是諸佛所受用。我今隨喜說伽陀。聊為太虛安耳穴。作是觀者為正觀。異是說者即邪說。

承天量維那。集同志。書雜華大經。為十卷。其二乃吾雪心所寫。端楷入神。求余題之。說偈以贊曰

毗盧遮那華藏海。七處九會熾然說。文字句義悉平等。悲智行果所成就。不起于座徧塵刹。一切諸佛亦如是。重重主伴互開演。歷歷交參同帝網。一經普攝一切經。一義具足無量義。言詞道斷心行滅。此經真體即無寄。是名華嚴大法界。若理若事無有礙。情與無情本一體。能所動靜性空寂。善哉心量十比丘。智願弘廣北溟水。安住無住冰雪心。各於毫端現神變。縮此大經八十一。萃為十卷悉周備。我觀如來本無說。爾諸比丘未嘗寫。無說而說是真說。不寫而寫是真寫。受持讀誦與供養。開示悟入亦復然。佛子當作如是觀。安住解脫不思議。深入普賢行願海。同證遮那根本智。

天台碧上人歸百丈山。建楞嚴精舍求贊

釋迦如來有顯訣。直截根源最無比。隨順一切群生心同人諸佛法性海。諸佛性海無有涯。群生心體亦如是無形無相不可名。強而目之首楞嚴。迷之背覺而合塵。慶喜乃為魔所冒。悟之背塵而合覺。登伽即登無漏果。不迷不悟非背合。即修即證離證修。善哉無上妙蓮華。金剛寶覺無畏地。此方教體在音聞。彼觀自在從中證。文殊師利擇法眼。標顯實謂當其根。審是五五圓通門。豈以勝劣有取舍。譬如良醫療眾病。對病與藥無差互。病去藥除心體空。忽然超越十方界。末世眾生善根少。罕有知此勝法門。唯此道友碧上人。而於此法能信入。能信能入不思議。復能推廣利有情。我觀赤城百丈山。即是祇桓大精舍。是中宜建堅固幢。是中宜發光明藏。是中宜集諸佛子。一一圓通互開演。而於如來滅度後。令此慧命不斷絕。我以父母所生口。隨喜贊歎作是說。聞者見者悉信受。同乘普賢大願輪。

靈隱昇藏主書華嚴塔。求贊

毗盧遮那大經卷。量等三千大千界。書寫大千界中事。一一事相各差別。理隨事徧一即多。事得理融多即一。即多即一即事理。交攝融通了無礙。是為諸佛法性海。儼然藏在一塵中。有大比丘名可昇。出生如來法末世。發起廣大同體悲。為欲饒益諸含識。以淨天眼普觀察。破此微塵出經卷。書成廣大華嚴塔。高顯挺特踰須彌。圍繞重重香水海。基陛下極金輪際。相輪上徹有頂天。五十二位列層級。一百一十布闌楯。十虛彌漫寶絲網。流出一切供具雲。覺樹

開敷智慧華。園池涌現功德藏。佛之身光蔽日月。菩薩聲聞眾無數。而諸世主稱妙嚴。一一雲集普光殿。雖分七處與九會。其實不離菩提場。我此本師盧舍那。與十方佛當不異。我觀十方諸世尊。所現身土悉平等。而諸世尊剎網中。應有比丘出經卷。方便善巧總殊勝。所作佛事無有別。佛等剎等眾會等。悲智行願亦復然。如此無上翠堵波。全是遮那法身王。遮那法身入我性。我性即與遮那合。我願一切身眾雲。咸具無量辯才海。窮未來際贊此塔。而與我今無有異。我此言詞相寂滅。懸契諸佛真如心。若見若聞若隨喜。各悟自性獲道記。

法華塔贊

道人夏坐蓮華峯。晨起為寫蓮華塔。深入法華妙三昧。旋而證得陀羅尼。八萬四千毛孔中。咸放光明照天地。是身即塔塔即經。離名離相絕能所。十方諸佛皆歡喜。異口同音贊善哉。當知世尊釋迦文。一代時教三百會。開權顯實示真要。難信難解唯此經。當時靈山大會中。嘗以此經囑累汝。是故佛子乘本願。篤生五濁法末世。通身被服精進鎧。畢生扶植堅固意。為滅荒唐癡暗獄。耀此熾盛光明幢。開廓自己神通門。顯發諸佛知見海。方其點畫未形初。此塔徧界已充塞。塔中古佛與今佛。不從地涌從心現。所以引筆與行墨。行布圓融了無礙。相輪層級甚高聳。寶網香雲悉周徧。天華繽紛雨新好。法音清揚振金鐸。若聞若見悟本智。是名真法供如來。咨爾天神及龍鬼。在在處處為訶護。令此寶塔鎮浩劫。永為群生作饒益。

法華經塔為道藏主贊

是法華經藏。深固復幽遠。開示與悟入。彌綸大千界。善哉道上人。以無作妙智。攝諸一毫端。幻此大寶塔。高廣至梵世。綿亘恒沙劫。無斷亦無滅。不騫亦不崩。仍於念念中。興起諸佛事。若見若供養。疾得成佛道。當知此寶塔。全是芬陀利。開權而顯實。一切義成就。是名經中王。於塔最第一。古佛與今佛。常在於其中。剎網互輝映。而諸分身佛。一時皆集會。能說與所說。言詞相寂滅。無取亦無證。脗合諸佛心。能契此心者。得法華三昧。我為贊此塔。說此妙伽陀。以爾精進力。激我懶墮意。則知此上人。是我善知識。我觀十方國。此經無不在。諸佛法末世。無不書此塔。亦有贊塔者。與我將不異。安住四法故。即具普賢道。稽首釋迦文。證我如是說。

王朋梅摹刻阿育王塔贊

維阿育王。有大因地。昔為幼童。聚沙嬉戲。邂逅佛來。拜瞻欣樂。蔑以致誠。奉沙為麩。佛贊善哉。即授其記。再世當得。鐵輪王位。十善具足。萬方臣服。雖處世間。而享天福。造我寶塔。八萬四千。安我舍利。廣利人天。莊校嚴飾。不舍晝夜。驅役鬼神。布諸天下。佛滅度後。果符宿緣。凡所應作。靡不皆然。時有尊者。名曰耶舍。放五指光。紛如箭射。光所及處。塔乃隨至。華雨雜飛。天龍森衛。此真丹國。會稽之東。舍利所止。是謂鄮峯。感應道交。非近非遠。以劉薩訶。而乃出現。相輪五層。觚稜四起。高尺有四。廣則半耳。寶磬中懸。聖像外設。瑞采祥光。玲瓏瑩徹。由晉泊梁。閱陳而唐。吳越南宋。靈異迭彰。逮我皇元。混一車書。遂迎寶塔。入于京都。迭興大會。為國祈福。光燭禁庭。耀奪群目。百寮進賀。

龍顏大悅。頂禮繞旋。情均布髮。曰咨爾眾。佛慈等視。攝化有方。寧容久滯。宜從護送。歸奠于鄞。永永萬萬。以康吾民。後四十載。金華王氏。殫伎厲精。圖刻以施。自東自西。自南自北。如法供養。無量功德。我觀十方。惟一佛身。而此舍利。普現諸塵。一一塵中。含十方界。佛身舍利。無在不在。胡隱而顯。胡生而滅。一念洞然。空華水月。我如是說。真實不虛。稽首世尊。釋迦牟尼。

文殊大士

大智非名。真空絕跡。凡聖兩忘。體用雙寂。眸閃閃而電輝。髮披披而雲碧。握利劍逼老瞿曇。揮如意對維摩詰。入泥入水。道出常情。非默非言。義有所極。暗裏藏機。明中辯的。墻壁瓦礫。動地放光。疥狗泥豬。全威返擲。

漆眸炯炯。紺髮垂垂。執卷特立。孤風凜而。斥諸徒。破碎大道。弘正智掃蕩群疑。是文殊非文殊。雲開碧落。出法界入法界。月滿坤維。龍蛇混雜。兮凡聖同居。草衣勃窣兮七佛之師。

我真文殊。不可描貌。無是文殊。將錯就錯。金毛師子奮全威。等閑觸折祥麟角。

普賢大士

心聞之宗。願海之祖。蓬鬢蕭蕭。草衣楚楚。雖從寶威德藏王國而來。不離毗盧遮那佛身而住。通身是眼莫辯蹤由。觀體全真那堪覷

捕。象王回處百華紅。剎剎塵塵面相覩。
破一微塵。出大經卷。點畫未形。文彩已現。理隨事變日照天臨。
事得理融珠回玉轉。體周沙界普眼猶迷。心洞十方曼殊莫辯。固知
龍象蹴踏非驢所堪。宜其合水和泥而蓬頭垢面者也。

維摩居士

彈偏擊小門風。歎大褒圓宗旨。示疾毗耶離城。攪得五天鼎沸。毛
吞巨海。斷妙喜如陶家輪。芥納須彌。有解脫名不思議。靠倒文殊
幾個知。伸脚只在縮脚裡。
瘦骨嶮嶮。老懷虛曠。文殊不來。全無伎倆。喚作金粟應身。政是
敲空取響。堪笑靈山一會人。个个望風先膽喪。
只个渾身沒奈何。又持妙喜入娑婆。不知一默酬人外。截斷群機更
有麼。
毗耶一默。不二門開。手提大千。毫端往來。

觀音大士

聞熏聞修精進力。金剛三昧不思議。六根互用真圓通。善哉神力不
共法。一法具足一切法。彌綸剎海不相礙。似月行空空印水。波波
頓現非實相。於此明達洞無際。返觀自性悉平等。惟物與我既不
二。乃能普運慈悲心。一念智入無量劫。無量劫智入一念。前際不
往後不來。現在如如亦無住。一身遍至十方界。萬類交作而不勞。
十方界復入一身。寂湛真常離喧雜。即樂即苦非苦樂。是謂如幻三
摩提。我此父母所生口。含吐無量廣長舌。流出一切言詞海。發揮
大士功德藏。大士功德無有邊。我此言詞亦無盡。從旦至暮月至
歲。展轉聯屬不斷絕。一處既爾諸處同。見聞隨喜互相攝。圓證無
上妙蓮華。安住金剛王寶覺。
吠琉璃椀。天甘露漿。無邊熱惱。一味清涼。證真圓通。得大自
在。不動本際。普應殊方。峭壁巉巖。空中鐵脊。蚪枝橫出。劫外
春光。發揮普門之妙境。顯示如幻之金剛。杲日麗天無幽不燭。清
風布地厥德孔彰。海岸乾坤自孤絕。白華香雜紫檀香。
泛泛香水海。屹屹金鼈背。於心既無作。於法得自在。餅中甘露
漿。眼底眾生界。如幻三摩提。鐵椎打不壞。精誠忽感通。夢寐見
光怪。譬如磁石針。合處無違碍。又如大圓鏡。形影自融會。我不
離大士。大士不離我。偉哉功德山。面面長相對(感夢而畫)。
大圓照中。滿月慈容。六根互用。一性融通。香水海層層波浪。寶
蓮座布布祥風。攝五濁全歸清泰。發眾吼普迪群聾。是所謂如幻聞

熏聞修金剛三昧。不動本際遍至十方而無來無去全始全終者也。
開圓通門。說無畏法。慈眼普視。慈心普攝。毫端十方。剎那萬劫。
是所謂被精進鎧發堅固意。於生死暴流之中。為舟為楫。而不退不怯者也。

從聞思修。證觀自在。開示不思議解脫法門。入一切眾生喜見三昧。
直行徑前。妙轉不退。六根互用而非正非偏。剎海同觀而無向無背。

法門圓通。三昧如幻。一念了知。十方溥現。惟此大士。善巧方便。
搏人天龍。置涅槃岸。坐斷巍巍萬仞崖。地右旋兮天左轉。髮彼兩髦。
屈斯五指。得真圓通。普施無畏。龍護法而不潛。鳥衛華以頻至。
瑠崖玉樹寶光浮。碧海無雲天在水。

三無漏學。大哉普門。耳根圓證。眼裡同聞。竭群生之業海。布萬德之慈雲。
五蘊本空猶用照。滿身泥水若為分。

圓通入正觀層崖落飛水。大千一毛端。三際小彈指。業海無邊涯悲心豈得已。
寂照兩俱忘。念念從緣起。

金剛三昧。圓通法門。不以耳聽。而以眼聞。入諸佛智。應眾生根。
巖前懸水三千丈。落落聲光貫碧雲。

六用圓通。一機獨露。覲面相呈。了無回互。說甚三十二應入國土身。
檢點將來政是秤錘蘸醋。

此方真教體。清淨在音聞。良哉觀自在。發此妙耳門。峭壁懸崖同一舌。
寶雲香篆滿乾坤。

萬法圓通門。一月千江影。心精自遺聞。性相悉平等。峭壁懸崖露半身。
巍巍坐斷毗盧頂。

妙辯如飛流。定力若山岳。六用總圓通。諸塵洞昭廓。生佛由來體本同。
白牯狸奴成正覺。

漚生漚滅。自起自倒瀑能說法。石解體道。大悲行相。寂而常照。照亦何有。
白日杲杲。

海印發光。玉壺寥廓。月滿滄州。風生碧落。普門示現。妙力無作。
絕毫絕釐。如山如嶽。

縞衣不重。蓮舟素輕。耳中觀色。眼裡聞聲。善財一去。無消息。覺海風休月自明。

廓圓通門。握菩提印。眼耳同觀。智悲獨運。銀山鐵壁露全機。業海無邊空一瞬。

峭壁懸崖。春容月影。極萬法源。徹千聖頂。小白華開大劫前。繁興永處那伽定。

正觀無我。垂手為誰。六根互用。一等慈悲。圓通法界空三際。剎剎塵塵普應時。

寶石玲瓏。玉壺寥廓。一根返元。六用無作。童真相好月輪孤。海岸風清夜潮落。
根塵同元。動靜無二。耳色眼聲。見聞超詣。萬仞崖前獨露身。普門境界非天地。
孰動孰靜。匪泉匪石。孰見孰聞。匪聲匪色。童真稽首兩忘言。六用。圓通自空寂。
一月在天。影含眾水。大慈悲行。只這便是。擬議還同萬仞崖。擡眸早已三千里。
願海無邊一葉蓮。普門方便廓心天。耳根不借眼根力。此是圓通自在禪。
返聞聞後竟何為。回首塵勞未有時。獨倚蒼崖看飛瀑。春風不在綠楊枝。
眾生界上相逢少。五欲波中獨運遲。無我無人亦無佛。此心那許善財知。
金剛石上水天開。童子南詢遠遠來。八萬四千煩惱海。浪頭高處是塵埃。
六根互用三昧海。一切眾生喜見身。脉脉流泉遶蒼石。黃金地上不栖塵。
坐而倚俯而視。從聞思修。入三摩地。絕壁春回薜荔椿。滄溟月輾珊瑚樹。
籃裡金鱗始褪潮。尋聲回首入塵勞。自緣今日無行市。莫道奴奴索價高。
善應無方自在身。縞衣蓬鬢不栖塵。一般經紀難將就。只合和聲送與人。
放下魚籃便展經。白蓮華帶錦鱗腥。玉鈎掣斷紅絲線。水漾金沙月滿汀。
碧崖丹嶂。玉樹瑤草。圓通法門。紅日杲杲。
空華無蒂。願海有船。按膝俯視。朝宗百川。
琅玕寶石。栴檀香風。大慈悲行。月影春容。
童真妙相。滿月慈容。反聞自性。懸水生風。
六用休復。一真圓通。蒼崖古木。劫外春風。
圓通法門。洞無邊表。石裂崖崩。聊露一竅。
釵橫鬢亂。口是心非。賣不著主。提取魚歸。
耳見眼聞。諸法無尋。大圓照中。金剛三昧。
六用無作。一機獨露。師子嘯呻。象王回顧。

布袋和尚

倒拈金錫。穩靠布袋。低眉斂目。袒肩露背。成佛尚隔一生。且入
瞌睡三昧。料想龍華會中。也無如此自在。
拄杖頭邊。有照有用。破布囊中。無罅無縫。拋却兜率陀天。愛向
人間賣弄。稽首彌勒世尊。何得與麼鄭重。
指端光怪本相現。肚皮雖大眼已眩。放浪多遊族姓家。一个布囊推
不轉。
挈挈波波走市廛。逢人伸手乞文錢。杖頭日月明中去。囊裡乾坤暗
裡旋。
柳栗短長。布囊輕重。寬著肚皮。一笑自奉。

布袋魚籃同轡

長汀水邊。金沙灘上。一種風流。十分孟浪。破布袋有甚珍珠。無
底籃好些魚樣。全肩擔荷。狹路相逢。赤手提持。是行不放。如斯
顯異惑人。合喫手中拄杖。

寒拾二大士

混俗威儀。出塵標格。見个甚麼。自笑自拍。明月清風三百篇。流
落人間無處著。
展開經卷。橫看豎看。脚瘦鞋寬。頭髮眼眩。萬行門中一法無。手
面神機日千變。
兩眼覷地。隻手指天。應得好拍。走不上前。國清寺裡齋鐘響。孤
負巖西瀑布泉。
一笑相看兩弟兄。面皮塵土髮鬍鬚。驚人有句無題目。說與森羅萬
象聽。

阿羅漢(六)

內祕外現。陸飛空走。龍獐而降。虎猛不驟。猴果于前。鹿花其
後。跏趺忽作象王回。噴嚏也成師子吼。深則厲淺則揭有許周章。
老者負少者携。無他怪醜。明朝又赴娑竭齋。想得人間未曾有。山
高尚可登。水深實難渡。下有不測淵。蹈著蛟龍怒。神通不用時。
欣厭情盡露。豈無小歇場。未是安身處。前者勿作得度想。後者要
君為榜樣。石罅雲根急轉頭。日輪正照高山上。
乘虛誰言落空。度水自賴濕脚。龍王宮殿雖深。羅漢應供不薄。天
上人間知未知。夜叉頭上擎雙角。

攫霧拏雲漫作狂。忽看平陸浪翻江。是何尊者從何至。彈指聲中即受降。

一嘯腥風生百谷。垂頭妥尾向應真。傍觀不用多驚訝。人若無心虎自馴。

三明六通。天上天下。一點水墨。千變萬化。

朝陽對月

凍日含春。霜風劈箭。綿密工夫。竹針麻線。

半舒半卷。如癡若呆。一笑自領。月滿瑤臺。

四睡

閉眉合眼人如虎。伏爪藏牙虎似人。夢裡乾坤無彼我。綠鋪平野草成茵。

咄哉豐干。抱虎而睡。拾得寒山。正在夢裡。可憐惺惺人。未能笑得你。

達磨大師(五)

下視竺乾。平欺震旦。直指單傳。胡揮亂搥。掉三寸舌而電掃六宗。蹈一莖蘆而風生兩岸。劫外春光喚得回。五葉千葩何爛爛。倒拈鐵錫。側佩金環。屠龍有伎。畫虎無斑。不得宋雲輕捉敗。誰知隻履竟西還。

目前起浪。脚下生風。西天可著。東土難容。羚羊掛角處。遍界絕行蹤。

碧眼胡天下無。赤兩脚。蹈莖蘆。為愛洛陽春色好。長江不管浪頭麤。

齒缺不關風。眉粗膽氣雄。一言曾觸諱。無面見江東。

栽松道者

放下長鑿繼祖燈。重來恰值嶺南能。一絲倒引千鈞重。說與兒孫幾個聽。

八十翁翁七歲心。一機括盡去來今。鑿頭邊事知多少。不似頭陀用力深。

破頭山下荷鋤翁。笠底乾坤不世同。但得髯郎露寸土。不愁無地著春風。

栽松粥薪圖

落照蒼黃路欲迷。擔頭薪重首頻回。荷鋤有語君知否。我出頭時汝用來。

李習之見藥山和尚

雲在青霄水在餅。客來無火強敲冰。無絃琴上無生曲。不是知音不易聽。

白樂天見鳥窠和尚

夷險忘來樹上身。無邊風月自為隣。使君問法休驚訝。行得方為說得人。

李軍容見瀉山和尚

破壁蕭條自上泥。不知背後客官來。看他轉笏相成處。直得虛空笑滿腮。

呂洞賓見黃龍禪師

幕阜山前陷虎機。且無雷厲與風飛。不徒剖破葫蘆去。收得雙雙寶劍歸。

三笑圖

攢眉不作入社客。送別乃復過虎溪。一笑三人幾絕倒。廬山高壓楚天低。

德山和尚

未離西川。有些柄把。泊到南方。全無說話。白棒一揮。天上天下。佛被訶祖遭罵。神見神憎。鬼見鬼怕。不是岩頭點破伊。爭得三年便遷化。

船子和尚

一蓑一笠老生涯。獨向江干理釣車。[拚-厶+去]得滿船空載月。直鈎端不在魚蝦。

普化和尚

木鐸震吼。蒲扇生風。打个筋斗。何處尋蹤。

自初祖至先保寧。凡二十八世。日東壽藏主。各求一贊。
歸而圖之。刻諸楞伽院

十萬西來亦苦辛。逆鱗一批便翻身。九年面壁成何事。五葉華敷劫外春。

覓心無處即心安。大地山河鉄一團。一曲胡笳吹不徹。和腔留與後人看。

皖公山下人中寶。玉葉聯芳繼斷肱。接得沙彌年十四。白頭能許再來僧。

六十餘年脇不床。九天三詔自回翔。紫雲鎖斷雙峯頂。七歲人來付鉢囊。

濁港江頭夢未回。黃梅峯頂白蓮開。傳衣只作小兒戲。勾得新州獗獠來。

把定西乾屈昫衣。曹溪吞海百川歸。群機普應三千界。萬鍛爐中片雪飛。

坐禪成佛釘根楔。作鏡磨塼陷虎機。點得觸體雙眼活。車行更不打牛兒。

即心佛非心佛。清冷雲中雷光拂。即此用離此用。疾雷破山海水涌。耳聾吐舌顯宗風風。從虎兮雲從龍。

頭嶄岩。耳卓朔。哭一落。笑一落。酌古準今。制禮作樂。奇特事。難描貌。獨坐大雄峯。車輪生八角。

大雄山下插翼虎。文彩斑斑牙爪露。親遭一口可憐生。說與傍人須照顧。咄咄咄。噓噓噓。凌辱宗風个是渠。

這小廝兒。是白拈賊。不往河南。便往河北。糾合克符普化建立黃檗宗乘。熱謾三聖瞎驢。覆滅老胡種族。令行吳越付兒孫。六六依然三十六。

紫羅帳裡撒真珠。八角磨盤空裡轉。雷厲風飛法戰場。棒了罰錢趁出院。

八華九裂無縫塔。壁立千仞赤肉團。餓虎投崖鬼爭桶。盲枷瞎棒太無端。

大用現前。不拘小節。駕鉄牛機。雷奔電掣。木雞啼處。韻出青霄
芻狗吠時。光吞皓月。是渠親見作家來。哮吼一聲魔膽裂。

白兆堂前收草賊。和賊捉敗豈徒然。一言截斷千江口。萬仞峯頭始
得玄。

龍袖拂開。全體露現。象王行處。狐兔潛藏。酒肉僧不堪師法。亡
父母特地為殃。皮膚脫盡。海印發光。築底六人成大器。灼然門戶
冠諸方。

西河師子嘖呻句。佛與眾生一口吞。鉄額銅頭元不會。黃河九曲出
崑崙。

老楊岐無旨的。栽田博飯招人喫。拋金圈擲栗棘。和麩糶麩成狼
藉。三脚驢子弄蹄行。十影神駒追不及。

出茶陵門。入楊岐室。少減多添。多虛少實。情盡圓明一顆寒。得
錢買个油糍喫。

辛辛苦辣。婆婆和和。接來機用錄公手段。操蜀語唱。綿州巴歌。
丹霄彩鳳。古路鉄蛇。惟其克肖。滅門破家。

本色川荔枝。用處不雷同。壞東山家法。滅臨濟正宗。棒頭擒虎
兇。喝下辯蛇龍。獨立乾坤外。那知萬馬空。

於菟肉醉呼不覺。腥風蕭騷撼林壑。長安路上斷人行。額下金鈴除
不落。

出家行脚。總是正因。氣吞佛祖。眼蓋乾坤。妙喜徑山禪師太白。
叔姪相望。二甘露門。衲衣有托。佛日再暎。檢點將來。成什麼三
家村裡臭胡孫。

破沙盆正法眼。掀天紀截地維。青山九鎖兮中峯巍巍。

開口不在舌。明眼人落井。秃帚攪滄溟。魚龍俱乞命。把住楊岐黑
驂衣。兩耳聾來呼不應。

平生一味督黃牙。不解成家只破家。郎罷耳聾兒口吃。眼頭何處辯
金沙。

鄮峯崛起定綱宗。一旦追回萬古風。猊血真堪化驢乳。此心能有幾
人同。

虛空為口萬象為舌。寄妙辯於風霆。致方來于冰雪。橫身異類中。
何處尋途轍。轉身蹴折大龍橋。千古鳳臺高嶺嶮。

龐居士

吸得西江徹底乾。說難說易太無端。大兒却倚長鑱立。一曲希聲不
用彈。

靈運淵明

邂逅相逢處。論心不自欺。永嘉為郡後。彭澤賦歸時。只許通人會。難教俗子知。有僧堪結社。無酒却攢眉。

黃山谷參晦堂和尚

老桂吹香。打失鼻孔。黔南道中。開眼作夢。從茲倒跨青石牛。貫華散作天女供。顧陸百巧畫不得。六月黃河連底凍。

大慧禪師

湛堂室中。口鑷舌沸。逮見勤巴。無出氣處。薰風殿閣。白汗通流。生擒虎項。活捉蛇頭。黑漆竹篋。掀翻海岳。白日青天。雷霆雪鬢。前佛性命。後佛紀綱。本色草料。衡陽梅陽。

宏智禪師

丹霞克家。真歇畏友。顯君臣相向之機具。正偏不犯之手。平高就下。知清稅之未貧。捨短從長。愛曹山之顛酒。是所謂隰州古佛笑談而起。洞上宗風。顧盼而碎邪師窠臼者也。

耀菴超禪師

臥壑松枯。懷雲石耀。雙領山中再來古佛。隰州會裡兩脚書厨。白晝喚回空劫夢。元來鼻孔大頭垂。

野菴璿禪師

播揚大教。埏埴後昆。捫空揣骨。斫水求痕。由大仰而大瀉。聲喧海岳。既入魔而入佛。道滿乾坤。末後句若為論。午夜寒蟾出海門。

無準和尚

中峯再世。破菴嫡傳。宗通眼活。鑑地輝天。真四川本色荔枝。結七世衲子生冤。萬仞龍門饒峻險。不妨袖手看風煙。

先保寧和尚

無住為本。妙有為用。入佛入魔。百發百中。碎惡叉聚。樹金剛幢。不離本際。普應殊方。一柱擎天。三關巨關。東山瓦鼓歌。少林無孔笛(為天柱住無住贊)。

咄哉休居。若為描畫。三尺竹篋。天上天下。便是補處慈尊也。須勘過了打。只个破沙盆。索起遼天價。秋林十萬莫學渠。學渠和我遭人罵(為兜率挂秋林贊)。

滅却正法眼。平生恣拍盲。面南看北斗。當午打三更。此闕詔不起。西丘話大行。扶桑東畔看。萬國日輪明(為日本感出玖石室贊)。虹光貫地氣衝天。肋下真堪築痛拳。黑漆竹篋掀海岳。正宗滅向瞎驢邊(為興聖琦元璞贊)。

文廟御書大光明藏四字僧光獲一明字求贊

日月合璧。光耀九天。毫端發揮。萬象爭妍。以明繼明。明終無盡。何以致之。篤於自信。睿哲文明。過於日月。覆盆之下。罔不昭徹。元首明哉。股肱良哉。庶事康哉。夫豈日月之可方哉。

高峯幻住千岩三翁同幃僧傳請贊

目視雲霄。心空佛祖。不出死關。全是活路。獅岩吞却伏龍山。夜半日輪高卓午。

盧谷和尚真梅長老請贊

聲震雷霆。氣吞寰宇。合眼驗人。點頭自許。四藤條令不虛行。三轉語總是活句。凌霄峯頂白浪滔天。師子窟中兒孫遍地。

曇芳和尚真鉄佛燈自明請贊

堂堂師表凜凜風骨。道契梁王。衣傳鉄佛。振金剛王之寶杵。碎野狐精之窠窟。掃鍾阜龍河之劫灰。幻玉殿瓊樓之突兀。九天飛下御爐煙。八面清森香弗弗。

壽昌別源和尚真。天童宬明請贊

粵若此菴。有功宗教。掃蕩邪說。開闢正道。暮翁休居。異曲同調。屈信千古。俛仰一笑。別源秀出。分座玉峯。月犀雷象。風虎

雲龍。簫臺巍巍。雙溪浩浩。鉢水投針。長庚橫曉。妙性元明。離諸名相。我作贊詞。捫空追響。

聖壽敬叟諲和尚真。景德雲海請贊

神機絕倫。駿骨空群。大坐當軒。風行草偃。橫揮短拂。電卷雷奔。發天泉見東平。為兩浙之義虎。虛半座俟雲海。猶靈樹之雲門。賣弄黑豆法。鏗錡破沙盆。是所謂峨峯庸叟之真子。徑塢虛舟之嫡孫者也。

南楚和尚真。為延聖剛中贊

無面目漢。未描先像。黑漆竹篋。不可近傍。盡云打得剛中痛。不知被渠爬著痒。只好奪來拗作兩截。且看老漢有甚伎倆。既然放過合如何。深炷栴檀為供養。掛角羚羊沒處尋。岌岌龍門五峯上。

珩琅一關和尚真。小師雲渺首座請贊

渺渺滄溟。汪汪襟度。即之煦日非春。激之雷霆不怒。架大屋養閑漢。開大口吞佛祖。知之者謂是本色白拈。不知者謂是再來杯渡。眉間長劍倚天寒。手面鉄蛇橫古路。

開福。月菴老衲。月林。無門。法燈。高山。凡七世。日東久藏主繪其像。請贊以歸

春山青春雨晴。白雲三片四片。黃鳥一聲兩聲。賣弄東山家法。開熱開福門庭。咄。大悲不展手。通身是眼睛。奚仲造車一百輻。拈却兩頭除却軸。只因錯認定盤星。正音往往無人續。無人續。六六依然三十六。控佛祖大機。廓人天正眼。鮎魚上竹竿。巴蛇入蘆管咄。物相本無何用斷。

一門超出是烏回。喝下曾經海岳摧。竺國不傳唐土信。薰風吹得桂華開。

白日青天。迅雷激電。萬象耳聾。虛空眼眩。須彌[跳-兆+孛]跳舞三臺。千古無門八字開。

正眼洞明。真風卓邁。親見無門。話行天下。八十二載。脇不印床。三百餘人。入大爐鞴。髮毛爪齒動地放光。青紫緇黃。望塵再拜。是所謂日本國九十九歲法燈國師。火後摩尼珠鉄鎚打不壞。高

山仰止。景行行止。大名之下不可久處。賓則全賓。主則全主。三千里外定譎訛。打破鏡來相見去。

仙岩仲謀和尚真。敬藏主請贊

甘露室中打失鼻孔。鳳皇臺畔換得眼睛。坐斷杜城。廣揚大教。掀翻曠古。撲滅真燈。百草頭邊全正令。三姑潭上鼓雷霆。

自贊

大雲志長老請贊

作者相逢。未言先契。譬如大雲。普覆一切。卷而藏之。不過膚寸。散而六合。豈曰逾分。或為風霆。或為霖雨。萬化蠢蠢。各得其所。雖有是作。其本無心。雲兮雲兮。唯吾與爾。能以此道。自任者也。

長蘆毅長老請贊

會塵刹為保社。莫羈汝身。廓十虛為度門。靡愜汝意。時緣既稔乘興而來。氣象政嘉興盡即去。德山之棒未折。臨濟之喝未匱。以此扶樹達磨正宗。以此接引大乘根器。大似真州望長蘆。何啻九十餘里。吁。傲睨萬物。徜徉一丘。芳聯箴屬。赤縣神州。

慶善皓長老請贊

松源室中三轉語。今古無人敢插觜。驀然突出委羽山。一口吸盡西江水。沒巴鼻有來由。揭翻大洋海。重整釣鼈鉤。

世首座請贊

大虛為體。萬象為用。日照月臨。風行雷動。即此見靈岩。劃波尋罅縫。離此見靈岩。喚鍾將作甕。不離不即兩忘言。鵲巢飛出丹山鳳。

杲藏主請贊

大象隱於無形。大音匿於希聲。發揮混沌未分消息。[翟*支]瞎金剛頂門眼睛。把住則虛室生白。放行而百川沸騰。搥碎少林心地印。杲杲赤日懸青冥。

壽藏主請贊

平生肆口說禪。知他有甚憑據。華擘臨濟三玄。掃除洞山五位。壽姪摘撮編來。灑姪鼓合刊去。只好一坑埋却。免得遞相鈍置。那堪更把丹青。畫出个般面觜。大元國土雖寬。何處著落得你。咄。掛向扶桑日本東。管取光明照天地。

度藏主請贊

終日說法。無法可說。畢世度生。無生可度。揭翻第二義門。別有向上一路。坐斷孤峯正令行。雲從龍也風從虎。

碩藏主請贊

碩大無朋。廓焉妙明。截群機而獨運。混萬化而忘形。謂其流出胸襟播揚大教。無乃愛忘其醜。聲聞過情。謂其退藏於密粗安晚節。較之以身徇禍而辱其先者或有半月之程。二俱列下。美從肚裡生。驀過弱流三萬里。海天日上夜潮平。

明岩康長老請贊

德山鼻孔。臨濟眼睛。雲門抽顧。早不惺惺。孰謂寒拾流。殊途乃同轍咄。無物堪比倫。教我如何說。

梨洲興長老請贊

口如木[木*突]。眼似鼓椎。懸羊賣狗。討盡便宜。凌滅宗風更是誰。一雙紅杏換消梨。

明因道長老請贊

道非物外。物外非道。一語不投。鞭石雷吼。笠澤風清。獅峯月皎。坐斷全吳正令行。何用將身藏北斗。

寶藏主請贊

中原一寶。若為酬價。堪笑同光。熱謾興化。天長地久。山高水深。本來無物。何處求心。提破沙盆。用黑荳法。土面灰頭輓出時。四生九有和根拔。

了菴和尚語錄卷第五

偈頌

參學比丘 汝現 元寶 慧朗 等編

次無想仲謀韻送皎首座

靈山密付。少室單傳。體用不二。事理昭然。拄杖頭分開太華。笠子下蓋覆三千。明來暗來指槐罵柳。東去西去回坤轉乾。石火流星苦未急。銀山鐵壁何其堅。徐六之板忽放下。寶八之衫還破穿。休居脚跟不點地。孰謂抹過威音前。七年四往返。掘地尋青天。移舟既別水。舉棹終逢源。將誰脊梁作砥柱。用爾鼻孔為司南。翻身天岸看日出。照耀萬象分媿妍。

次仲謀法兄韻送肇侍者

世尊三昧。迦葉不知。破顏微笑。蠡測管窺。把斷重關。鬱鬱黃華元非般若。放開線路。青青翠竹總是真如。棘林中露無邊之蕩蕩。平地上峭萬仞之巍巍。知所不到心焉可思。反常合道。提綱挈維。此是少林無孔笛。為君去也聊一吹。自東自西兮將長補短或南或北。也夷高就低。

送慧藏主

一字也無。說箇什麼。放兩拋三。弄真象假。脫體分明舉得全。草菴卸下瑠璃瓦。拈黑豆換鬼眼睛。撥虛空尋針縫罅。我面前無你。你面前無我。南北東西。八字打開。當明中有暗。當暗中有明。成住壞空。一時裂破。德山臨濟小兒嬉。靠倒西來胡達磨。

送徹上人

頂[寧*頁]機打得徹。無言童子喃喃說。妙德空生總未知。僑梵鉢提伸出舌。丁一卓二滴水冰生。放兩拋三雷轟電掣。休不休歇不歇。雪峯毳毬太孤絕。不是玄沙解斫牌。爭得清風滿寥泝。子從何方來。根器乃超越。妙悟繼先宗。慎勿循途轍。況是親承古鳳臺。為吾釘取虛空櫬。

贈住首座

虛空為口萬象舌。塵說剎說熾然說。到了依然一字無。衲僧眼裡重添屑。珠回玉轉分玄微。棒頭喝下看提持。驀然蹈著頂[寧*頁]竅。天外一擲誰能知。有時收有時放。明暗雙雙真絕唱。手面分開萬仞崖。目前衝起千尋浪。擊石火閃電光。銅頭鐵額何能當。掃蕩從前野狐窟。正好揭示金剛王。四句離百非絕。憍梵鉢提嚼生鐵。毒藥醜翻一道行。地老天荒誰辯別。

雪峯具知客禮祖

具足凡夫法。空中翻石臼。具足聖人法。面南看北斗。三毬輓出時一舉四十九。秘魔手中叉。子湖門下狗。敵勝與驚群。還他師子吼。拈起簸箕別處舂。大淮南北江西東。八十四人阿碌碌。髑髏晝夜吟松風。

送百丈清藏主

獨坐大雄峯。有什麼奇特。轉得一大藏。自然超語默。神通妙用手面施呈。換斗移星聖凡莫測。俊鶻捎空亦等閑。擡眸已過新羅國。

送懋藏主

三千剎海如來藏。語默商量總成謗。掇轉須彌看指南。石裂崖崩難近傍。央庠座主還倔奇。手面一著謾楊岐。當時一席三五百。透得金塵端是誰。山僧有口無暇說。爾也前途好咨決。打落天邊白鳳雛。七尺烏藤冷如鐵。

送祖侍者歸溫州

有一句到你。平地無風怒濤起。無一句到你。赤脚波斯入鬧市。不如拈却有與無。大開兩眼空全吳。鐵牛之機是何物。雪華點破烹金爐。若不見。禾山老人解打鼓。聲聲合著道吾舞。森羅萬象鬧啾啾。徹底自分泥水路。江上風松間月。拔却多年釘根楔。永嘉親見領南能。便是如今箇時節。少林曲調新豐吟。千里萬里誰知音。歸去西山掃煙榻。試把玉線穿金針。

送霖侍者

金剛圈鐵酸飴。多處添少處減。侍者參得禪。一斬一切斬。山河大地不見纖塵。草木叢林流光發艷。築著磕著自痛自知。把住放行如影如響。釋迦彌勒猶是他奴。文殊普賢討甚伎倆。坐斷乾坤辯正邪。伸手依然不知掌。咄。

送成侍者

男兒學道貴有成。舉步便合超途程。妙高峯頭赫日月。大洋海底轟雷震。拈來一隻蓬蒿箭。任是沙場須百戰。五位君臣列正偏。三玄戈甲隨機變。有時縱。全殺全生誰得共。有時奪。十方剎海橫該抹。君不見。文遠全師未舉時。曾與趙州爭勝劣。

送明藏主之浙東

虛空解講經。萬象側耳聽。撥轉上頭關。拈却佛祖病。東去西去前三後三。南來北來頭正尾正。倒一說對一說。鶻眼龍睛若為別。平高就下以機奪機。顯實開權。用楔出楔。辯而訥巧而拙。逆順縱橫也奇絕。君不見。螻蛄睫上土壙人稀。石火光中。霜凝凍結。百越三吳正令行。誰道同途不同轍。

送雅藏主

道純明日龍翔去。索我燈前寫長句。滿天風雨作中秋。直得千江水東注。我也豈曾參得禪。信口合著玄中玄。釋迦老子不知有。大藏小藏安能詮。君不見。瞎驢滅却正法眼。究竟只成擔板漢。堪笑東山解放收。方便依然沒方便。如今此道如泥土。塞壑填溝何足數。七金山外訪知音。夜半螻蛄吞却虎。

贈普光長老(書蓮經募緣起佛殿詔國師道場)

國師不露頂[寧*頁]句。流出曹源一滴水。沃日滔天沒奈何。浸爛虛空知幾幾。通玄峯頂非人間。掣斷金鎖開重關。百尺竿頭逞伎倆。二三四七同舒顏。芬陀利華時一現。殿閣崢嶸插霄漢。要種梧桐待鳳栖。普光心印須高提。

送能藏主之金陵

親從道場來。相見有何說。以能問不能。大巧固若拙。撥動毗盧藏中寶。萬里神光射穹昊。古今多少弄精魂。出草有時還入草。金陵山川皆故國。高不可攀深叵測。秋風吹老桂華枝。脚下鐵鞋生兩翼。

送蔣山德藏主

道林來自江之東。天寒歲晚何怱怱。橫拈倒用總自可。舌本滾滾生雷風。藏裡摩尼時一擲。五色光芒射空碧。南海波斯鼻孔深舜若多神面門黑。我觀佛祖初無他。乾城飛起陽燄波。僧繇不識鏡容老。此意往往成蹉跎。門外驚森卷黃葉。霜白長堤水天接。天關地軸總掀翻。漢不能收秦不攝。

送淨慈涇藏主

鄮峯深處曾相見。一拶虛空成八片。雖然補綴得完全。未免三頭并兩面。君談禪兮我談道。議論胡為能恰好。西風老桂吹天香。大地山河明皜皜。君不見。茶陵蹈折溪上橋。跛驢奮迅騰雲霄。至今萬象露風骨。低者自低高者高。攜李亭前重握手。拈得鼻孔失却口。笑把如來藏裡珠。撒向時人不知有咄。

送度侍者

目前無闍梨。鐵鞭擊碎珊瑚枝。座間無老僧。焦尾徑逐雲雷飛。百千三昧入掌握。知音豈在鍾子期。君不見。古皇先生拈華時。一笑豁開金面皮。承虛接響二千載。肩擔背負爭驅馳。禾山之鼓不易打。少林之笛誰敢吹。所以曹溪流。萬古清漣漪。觸著波濤忽澎湃。滔天沃日橫鯨鯢。如今且喜風色定。湛湛寒光浸空影。一舸乘流解問津。太平不用將軍令。

送初上人

混沌未分初。一句還成見。當機覲面提。日面與月面。靈利師僧不知有。昨夜三更白如晝。錦標奪得在何時。一機春斷懸河口。汝要參禪宜猛省。入得邪時歸得正。鄮峯深鎖翠雲寒。會應坐斷毗盧頂。

次絕照翁送小師藻侍者韻

萬境紛紜不須遣。語默商量看平展。威音那畔即如今。日用現行誰不見。體本無生了無速。羅剎身心菩薩面。濟北兒孫未必然。棒了罰錢須出院。

送如維那

如來禪祖師禪。拽脫鼻孔從頭穿。智者當機猛提取。蹉過只在眉毛邊。靈岩豈無興化棒。不顧危亡堪近傍。道人親見作家來。七縱七擒心愈壯。干木隨身有如此。直下同生復同死。又携明月過雙溪。一片寒雲映秋水。

送寧藏主之上藍

老胡平生多口業。且喜兒孫沒交涉。沒交涉處驀翻身。直得一華開五葉。君不見馬大師。即心即佛恢宏機。雄峯卷席奮雄略。驚群敵勝超玄微。當時拽得鼻孔脫。大似死中重得活。更言三日耳根聾。咲倒山雲并海月。道人深入如來藏。袖裡神鋒難近傍。搜其窟穴窺其蹤。謂我此言誠的當。壯哉吸盡西江口。便是龐公豈知有。但教觸處得逢渠。何用將身藏北斗。上藍法席天下奇。鍛凡鎔聖真爐錘。入門相見定相問。向道近離鴛鴦湖。

送畏上人歸省萬壽華國

拈一機示一境。截斷葛藤須猛省。三千里外定譎訛。東平打破滄山鏡。不屬玄不屬妙。吞爍乾坤迴然照。海神失却夜明簾。長汀拍手呵呵咲。倒握金桴擊金鼓。木人石人齊起舞。八臂那吒撲帝鐘。家家門首長安路。好箇佛堂須作禮。惡水潑人終不悔。門外霜風劈面來。百越脩途宜自愛。

真藏主求悟菴說答之以偈

悟則不無安用說。說則不無須用悟。悟後還同未悟時。說不說兮何足顧。大道無門從此入。五色祥麟脫羈羈。擊碎如來藏裡珠。驚倒生公鬼神泣。菴外事曾不知。耿耿睡虎方藏威。解得金鈴掉頭去。碧天皓月揚秋輝。

送明侍者參竺元和尚

汝欲參禪須妙悟。汝欲弘宗觀列祖。列祖皆從妙悟來。扶豎真宗亘千古。德山臨濟何似生。掀天撲地隨縱橫。白棒高揮日月落。喝聲迅作雷霆轟。或全賓或全主。互換機先分彼此。萬仞崖頭撒手回。箇是金毛師子子。我昔從師事參學。敲打虛空鳴剝剝。不惟萬象咲相鷹。聚鐵等閑曾鑄錯。此道年來恐難說。遇著通人試甄別。紫籀峯高豹霧深。好把烏藤輕摺折。

送達侍者

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拈起鐵蒺藜。虛空須粉碎。雷卷星飛猛提掇。十方剎海橫該抹。全身放下看如何。解弄死蛇終是活。道人道人休問吾。問吾枉著閑工夫。不如卷衣歸故廬。奴兒婢使誰家無。

送慧侍者

小艷詩新豐曲。斷絃須是鸞膠續。育王此語最分明。何須更向東西卜。鞞鐵鼓擲金鐘。鳥啼花咲春融融。干木隨身擬何適。碧崖丹嶂金仙宮。我亦乘風欲東去。望雲且種無根樹。蔚然枝葉覆行蹤。便是君來無覓處。

送機維那

機奪機楔出楔。正眼還從瞎驢滅。破關先下頂門椎。百帀千重須迸裂。興化當年不知有。法戰場中垂隻手。克賓出院是尋常。直得虛空開笑口。祥麟掣斷黃金鎖。天上人間豈唯我。勘破諸方却再來。照乘明珠消一唾。

送閑藏主之金陵

絕學無為道人事。一抽三兮二添四。山前猛虎趨於菟。草裡毒蛇吞鼈鼻。頂門突出摩醯眼。是亦割兮非亦割。鷓鴣啼斷百華春。鍾山倒卓歸雲晚。龍藏琅函五千軸。頭頭盡是新豐曲。江流不盡楚天寬。正音畢竟何人續。

送明侍者歸道場

一明一切明。一了一切了。豁開總持門。諸法不相到。高高峯頭不
露頂。千山萬山春晝永。深深海底不濕脚。李公醉酒張公醒。我不
孤負汝。汝不孤負我。放過南陽忠國師。把住嵩山破竈墮。噫吁嘻
無人知。桃華落盡楊華飛。玉簫我欲吹瑤池。只恐鳳皇飛下蹈折梧
桐枝。

送華藏性維那

性覺妙明。本覺明妙。吸乾三萬六千頃之波瀾。揭開七十一二朵之
煙島。堪咲老臨濟。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被打六十烏藤添了
幾多無明煩惱。直饒高安灘上頓解知非便乃逆探龍頷倒捋虎須。據
實商量。何似遇飯即餐。逢寒著襖。全放全收。自起自倒。出群標
格。正合如斯。廣大門風。憑誰繼紹。金椎影裡急回頭。應怪山僧
入荒草。

送茆侍者

諸法無實相。巧辯不能說。掃空知見雲。焉用辟歷舌。毗耶一默三
千年。黃河之水流接天。曼殊大士摸不著。贊歎罔及徒拳拳。爭如
德山臨濟善用事。棒喝隨機若風雨。此事如今幾箇知。分付闍梨自
看取。

送雲侍者歸雲門

香林舊入韶陽室。紙襖年深黑如漆。我今一字不曾談。且免後人論
得失。君不見若耶溪上雲千堆。一點不著人間埃。變化崢嶸亦何
有。白銀宮闕黃金臺。涼風西來吹爾急。擘破玄關求路入。浙江潮
信正如山。渡水莫教雙脚濕。

送大乘覺首座再參松月翁

識自本心。見自本性。明來暗來。頭正尾正。大乘菩薩信無疑。小
根魔子安能知。手面擎來百日月。毫端涌出千須彌。君不見。曹溪
之流非止水。一滴不來波浪起。乳峯此語豈尋常。克配乃翁三尺
髯。首座有長處。所以到這裡。摩挲兩眼對西風。白雲卷盡天無
滓。從容近前與我言再參。願求長句為司南。忽然樹頭推下金粟香
麩毳。撫掌一笑應相諳。

送仰山初侍者

最初機末後著。趙州石橋非略約。拄杖頭邊正眼開。奧域靈區無鎖鑰。君不見仰山放出四門光。照天照地何煌煌。黃河澄清貫海碧。大華突兀摩穹蒼。南斗西北斗東。空生岩畔華重重。小玉頻呼雖有意。檀郎認得元無蹤。絕思惟休擬議。忿怒那吒擎鐵柱。坐斷江西十八灘。密雲彌布陰涼樹。

送昂維那之江湘

開窗畏嚴寒。閉戶礙觀雪。跏趺萬慮寂。一性自超越。道人蹈雪來扣門。鐵石骨氣冰霜魂。笑我蒙頭紙衾重。軟語解使生春溫。明朝蹈雪江東去。天生有此濟勝具。九江江上看廬山。還向山頭看江水。鄱陽之湖天一角。洞庭秀色浮衡岳。白雲飛盡日蒼涼。幾點沙漚鏡中落。我生豈無江海興。老矣無由事馳騁。冥心物表只神遊。佳處點頭唯自領。君不見。克賓不入這保社。徹底能扶老興化。二十烏藤趁出山。饋飯吹香滿天下。

送岐藏主

對一說倒一說。黃河無聲海水竭。三千剎土坦然平。八萬法門玄路絕。祖師意如來禪。取之左右逢其原。只今坐斷千聖頂。何用顯實重開權。或全收或全放。逆順縱橫難近傍。紅爐燄上結冰華。萬仞峯頭翻雪浪。歌不徹笑不徹。海底蝦蟇吞却月。憤怒那吒撲帝鐘。金剛腦後添生鐵。

送朋侍者歸雲門

朋用良友用益。益友良朋苦難得。上何高兮爾不扳。下何深兮爾不即。扳兮即兮高與深。上兮下兮古與今。一一從頭遍探討。却來聽我無絃琴。無絃之琴有聲律。河之洋洋山岌岌。龐公馬。公骨已朽。俗耳要聽聽不入。雲門古來山水窟。雪骨冰相好人物。萬壑千岩夢寐中。布襪青鞋漫馳突。春風浩蕩吹晴波。為子一唱雲門歌。明朝雲門見親舊。定應笑我成蹉跎。

琦上人求警策

汝欲參禪求警策。我正忘言味真樂。真樂無涯只自知。警策多方待君學。虛而靈兮寂而妙。萬戶千門俱一照。除却頭陀解笑華。是誰蹈著通天竅。甑拍板無孔笛。白雪陽春明歷歷。百草頭邊聽得真。下載清風有何極。

送聚書記

雲居山頭一句子。獨龍岡頭不相似。翻身蹈著凌霄峯。井底蓬塵巨天起。驚倒象龍千七百。等閑擊碎蟠桃核。三乘教外論文章一字元來不著畫。寂音懵懂潛子癡。炊無米飯充朝飢。身如椰子膽如斗。開口便欲吞須彌。我自龜藏老丘壑。何從扣門聲剝啄。揚眉瞬目驗來風。信是丹山多鸞鷲。黃河九曲應已清。岐陽阿閣隨所鳴。鈞天廣樂政可聽。兩耳安用箏笛聲。

送楚藏主自鍾山回天台省親

百丈野狐。我自不會。一句截流。千古無對。拈却觸體前妄想。鳥啼花咲千峯上。把斷乾坤箇是誰。烈燄巨天飛白浪。鸞領祇園有何說。梵語唐言試甄別。老胡版齒欠關風。九載少林曾漏泄。爭如金陵狂寶誌。杖頭賸有閑田地。對人劈破金面皮。不妨契得西來意。長林落葉西風急。一曲高歌擬何適。白髮慈親正倚門。莫道參方無所得。咄。

示志藏主

正法眼破沙盆。金烏拍翅扶桑暎。煎膠續絃豈細事。胸次可使吞乾坤。君不見曾郎脊梁硬如鐵。鼇山雪深凍欲折。不是岩頭盡力扶。爭得光明滿寥沕。又不見瞿曇棄却金輪位。半夜翱翔雪山去。六載精修萬行林。一朝坐斷菩提樹。大丈夫兒合如此。局促軒籠不相似。五須彌頂擊金鐘。明月清風安可比。

送明侍者見松月翁

明暗雙雙底時節。山僧有口難分說。侍者親自峨峯來。猶向松江問松月。月明正照江上松。白雲散盡空曠空。一機不借萬境滅。赤手自可收全功。濟北宗風端若此。未必江西不相似。要須蹈殺天馬駒。方可人前論賓主。江南兩浙秋氣深。大江滾滾山沉沉。一曲兩曲無絃琴。天老地老誰知音。

送琦侍者

壽山初退院。侍者話行脚。築著脚指頭。清風動寥廓。天台鴈蕩春意深。百華競秀春雲陰。鑑湖一望八百里。賀老不作誰知音。雲門六寺可圖畫。禹穴年深草應隘。老夫有脚不能行。孤負東州草鞋債。

送徹藏主

徹頭徹尾有一句。一大藏教該不得。文殊肆辯正忘言。淨名杜詞夫豈默。君不見。乾闥婆王奏天樂。大地山河齊應諾。飲光善舞不善聽。草中露出祥麟角。扶桑道人真傑偉。萬里東來發玄闕。象王蹠蹈振雄風。師子嘖呻更無畏。我今既老當投閑。道人且復歸家山。後夜滄溟浴紅日。一笑懸知倚檣立。

送天童覺藏主

三世諸佛是何物。一大藏教是何語。直指單傳顯正宗。爛爛覺華生碓觜。自古上賢猶不識。中下之流豈堪測。[翟*支]瞎摩醯鬼眼睛。大地山河墨漆黑。黑中有白光熙熙。敲空作響開愚癡。空拳指上實性義。隱顯出沒超玄微。倒一說兮對一說。今古幾人能辯別。紛紛墮在光影中。大似獼猴探水月。偉哉作者何方來。江村古寺相徘徊。提金剛椎碎窠臼。用黑豆法驅英才。撒開兩手時一笑。照中之用用中照。北斗藏身豈偶然。南山下雨還同調。明朝話別歸魯松。鐵船打就成忽忽。隔山相喚解相應。管取倒行摩竭令。

送慧禪人禮祖

打破觸髓。揭却腦蓋。四七二三。泥團土塊。青草堆中撥得著。鑑地輝天光爍爍。丈夫膝下有黃金。握節當胸何太錯。錯不錯。善斟酌。嘉州大像驀翻身。陝府鐵牛擲折角。

次韻贈忻侍者

國師三喚。失錢遭罪。侍者三應。認賊為子。說什麼牙如劍樹口似血盆。檢點將來。總是事不獲已。等閑驀過上頭關。自然不在平地裡。相唾饒你潑水。相罵饒你接觜。會則全放全收。不會則自倒自

起。即色明心。附物顯理。撥火求漚。敲空取髓。盡情拈出與君看。認著依然還不是。直須自解倒騎牛。我也誰能管得你。

送煥藏主

八吉祥。六殊勝。一大藏教。頭正尾正。老胡舌端長復短。說盡偏圓并半滿。拈來固好拭瘡疣。放下豈能登彼岸。東山道箇鉢囉娘。和杓托出誰承當。好手從來自無敵。捉賊要須先捉賊。摩尼之珠光燦爛。永嘉收得良堪歎。撒向人前人不知。拾磔春池有何限。

送聰藏主謁晉卿學士為竺元和尚求塔銘

歸源老人示真寂。草木叢林俱失色。眼睛不壞牙齒存。火後莖茅掃空碧。平生說法如春雷。震驚蟄戶迷雲開。高風亮節激浮儒。傲世絕俗遺紛埃。休居後師恰五歲。入滅先師十七載。叢林未甚嘆寥落。尚賴東南有師在。師今既往如之何。山頹海竭江無波。衲子拊膺爭慟哭。淚雨不斷空成河。君不見。湛堂末後一段事。赫赫光明在僧史。晉卿只今無盡公。子也孰知非妙喜。須彌為筆天為碑。大書特書不一書。南泉遷化正不惡。東家作馬西家驢。

送見書記歸仰山

相見已了。燒香換茶。一語不發。彼此作家。無端提起五色筆。濺得虛空半邊濕。撒出仰山圓相來。電激星馳海水立。尚喜老僧心眼正。鐵輪旋頂氣自定。坐看天外黑風收。但覺平湖淨如鏡。從容指似湖上山。劇談抵掌開懽顏。拂袖還歸集雲去。一鏃徑破千重關。

送操侍者歸道場

操則存。舍則亡。衲僧門下。不用商量。得念失念無非解脫。舉足下足總是道場。拄杖頭乾坤廓落。鉢囊裡日月交光。向去底舍父逃逝。却來底久客還鄉。全超法報化。坐斷威音王。平高就下。振領提綱。左顧右盼兮龍騰霧集。前遮後擁也虎嘯風生。

次仲謀師兄韻贈煥上人

不道相似。只是不別。南北會同。上下交徹。一句忽當機。開口非干舌。佛海之龍。僧林之月。五領三湘。七閩兩浙。騎聲蓋色也賣

弄風流。簸土揚塵兮豈存芳烈。齧鏃破關。斬釘截鐵。從頭檢點看如何。拽脫多年繫驢橛。

送源侍者歸江心

從源討流。葉落知秋。漆桶不快。騎牛覓牛。泝流逢源。洗脚上船。溟鵬九萬。遼鶴三千。老僧口角無憑據。試問通人是非是。是也山環九斗城。非兮江抱龍翔寺。振錫參方宜自決。負吾負汝俱休說。百鍊剛為繞指柔。何似紅爐一點雪。

送裕侍者省師

菟菜根頭足生意。折脚鐺兒提挈去。迢迢自不涉程途。綽綽誰知有餘裕。有呼有應今古同。手面推倒須彌峯。塵毛剎海露迴迴。談笑便可恢吾宗。師勝資強水傳器。釋尊不受然燈記。沒蹤跡處解相逢。萬法豈能為伴侶。

送明書記

萬仞崖頭轉身句。金毛師子自不類。一吸西江徹底枯。馬師縮首龐公畏。忽然平地波濤翻。浸爛鼻孔何時乾。虛空失笑萬象舞。梅檀葉底香曼曼。拈却洞山三頓棒。凜凜英風爭近傍。北往南來總未知。蕭洲水落沙痕漲。

送慶雲東歸積善

海上日出雲之東。天南地北光曠曠。六龍夾飛黃道正。幽岩邃谷皆春風。少林一花開五葉。竺國支那沒交涉。沒交涉處忽融通。若聖若凡俱慶愜。一大藏教說不到。半座平分顯圓照。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誰不了。誰不了。梅檀林裡梅檀繞。

次松月翁韻。送育王旭書記

運斤之手受斤質。二妙相遭眼雙碧。鐵鞭鞭起泐潭龍。驪珠迸散慈明室。辟歷一聲飛上天。三關大啟天不言。捋虎須是分內事。豈惟濟北能風顛。咳唾隨風落珠玉。著渠政用天為屋。曹溪波浪拍天高。天瑞流芳恢正續。

贈萬壽澤藏主

一代時教明什麼。十箇五雙聾復啞。楞伽山裡有真僧。不動舌頭談得也。最初一句不在東。扶桑曉日光曛曛。末後一句不在西。玉樓撞動黃昏鐘。蒼蘊噴香芻草碧。萬境樅然自虛寂。長鯨輾碎珊瑚林。白月清風太狼藉。

送浩首座東還

甘露室中親得旨。掃蕩休居三轉語。大藏小藏俱不留。等閑坐斷南泉位。驅耕奪食何雍容。東敲西擊開盲聾。轉步徑超空劫外。到頭不離尋常中。興來唱起還鄉曲。調入陽春許誰續。九天風正一帆懸。遠水真成鴨頭綠。

次仲謀法兄送徒弟徹藏主韻

三乘教外。付法傳衣。大哉聖謨。誰其似之。方鑿圓柄。皆曰可疑。遊神絕域。妙證無師。電光匪急。石火還遲。粉身碎骨。分張髓皮。動絃別曲。伯牙子期。此戒定慧。彼貪瞋癡。迷其所悟。悟其所迷。萬機休罷。一體無為。我以智眼。觀汝設施。言雖逆耳。心不汝欺。掃除四句。併蕩百非。懸崖撒手。乃到家時。飲水定渴。喫飯濟飢。但了許事。焉問其餘。稽首慈尊。三界大醫。直說曲說。理如事如。我作是偈。黃門栽須。

送永知客

庭前栢樹子。趙州無此語。築著老清涼。蹉過覺鐵觜。傍觀一笑真可驚。太華劈裂黃河崩。彈指八萬四千歲。日下不用張孤燈。畢竟同途不同轍。客到喫茶珍重歇。合浦明珠射斗牛。南山毒蛇鼻如鼈。

送榕藏主

榕葉滿庭鶯亂啼。一大藏教開金鑰。妙高峯頭赫日月。三千剎海無塵泥。逆順縱橫總三昧。捏不成團椎不碎。善財七日謾追尋。文殊百劫何曾會。楊子江心夜潮落。枯楊槎牙枕龍角。定回金殿鐵琅璫。目送孤鴻度寥廓。

送瑾侍者之廬山

廬山山南與山北。白蓮香風日充塞。滿空晴雪洒飛流。九江政作琉璃碧。道人胸次吞九江。骨氣直與山低昂。蹈著遠公行道處。朝鐘暮鼓相舂撞。玉峽飛龍掣岩電。久視不知雙眼眩。霜猿啼斷最高峯。回首孤雲海天遠。

華亭陸子才書華嚴經三部。善住玉岡作偈美之。寶林別峯仲寬潘公輩十人咸和之。玉岡索予次韻

雲間九峯如卓筆。畫破虛空不成一。煥然文彩發天章。元是毗盧藏中出。毗盧之藏超斷常。杲杲赤日飛清霜。妙高嶄巖露迴迴。百城助握何芒芒。心垢未除須用洗。不洗安能契真理。理絕情忘真亦非。白牯狸奴兩同體。宗亦通兮說亦通。頂門之眼懸三瞳。重重無盡法界觀。歷歷不昧空假中。酥酪醍醐最殊勝。寶林琪樹尤瓏瓏。別峯相見是此日。握手一笑應相容。以禪為悅法為喜。陸潘豈亦滄洲子。善住堂前演貫華。舌本瀾翻四河水。

送天平士瞻之仰山為其師佛智立碑

金雞銜來一粒粟。石上迸出雙雙玉。江西從此闡宗風。捩轉天關并地軸。全機獨晦唯乃翁。羚羊掛角那留蹤。涅槃後有大人相。光明爍破無邊空。奎章學士千鈞腕。筆端點出金剛眼。但將日月作穹碑。開鑿人天有何限。夏復夏秋復秋。掛帆西上風颼颼。山悠悠水悠悠。春光盡在梅華洲。

送柔首座(字克中以漚華室自榜)

四句離百非絕。兜率宮中熾然說。八萬塵勞一掃空。珊瑚樹底懸明月。道人胸中有丘壑。道人胸中有天地。祖意明明百草頭。全潮滾滾漚華裡。七年契闊方再逢。碧眸貫日磨青銅。淨掃松堂掩黃卷。洞庭煙浪搖晴空。趙州茶雲門餅。覲面當機須痛領。轉身拶倒石門關。不妨親到琴臺頂。

送義侍者之何山

字則不識。義即請問。一句截流。群機自償。百草頭上。薦得老僧。六十蒿枝再思一頓。祖禰不了殃及兒孫。似鶻捉鳩。方堪持

論。妙峯聳峻天外青。小溪流水聲泠泠。領取八萬四千偈。歸來舉似吾與聽。

送玄首座之台鴈(妙菴)

道人金陵來。志氣吞佛祖。燒香坐長夜。出入論今古。眉間掛劍全生殺。手面有機分與奪。翻著襤衫舞柘枝。電光石火橫該抹。台山鴈山何峇嶷。掛帆東度錢塘潮。春風浩蕩徧八極。石上正好栽瓢苗。

送資首座禮佛性塔還江心

欲識休居大人相。屎臭熏天難近傍。若謂華開臘月蓮。正是龜毛長數丈。鳳臺崢嶸春復秋。三山倒卓長江流。瑠璃殿上無知識。湘南潭北何悠悠。四句百非俱一掃。中川月色連蓬島。謝郎只在釣魚船。黃塵自沒長安道。

送昇侍者遊江西

日日日東昇。日日日西落。君山一點洞庭秋。衡岳千峯倚寥廓。遠公胸次吞九江。高揭太古窺洪厖。手挽飛流濯芒屨。幻視寵辱如枯椿。向來白蓮池上華。金臺隱現凌彤霞。浩歌一曲千載下。天風撩亂吹袈裟。

送靈隱康首座

法法向上有一句。特地思量無覓處。忽然突出口皮邊。萬象森羅眉卓豎。東行西行天地寬。左轉右轉珠走盤。金椎揮空日月落。寶劍出匣波濤翻。透網金鱗重躍浪。回途石馬爭相向。握手威音大劫前。明投暗合看敲唱。東山之曲下水船。妙自非妙玄非玄。拈來塞斷衲僧口。破的絕勝那羅延。第一峯頭如此去。八臂那吒留不住。勘破諸方却再來。別有清風動寰宇。

次韻送仰山珍藏主

不然不然。如是如是。道得分明。較三十里。金烏啄破瑠璃殼。舜若多神剛發惡。當陽拶倒鐵圍山。歷劫昏衢頓昭廓。話盡山雲并海

月。抹過江湘與閩浙。競誇赤驥解追風。誰信螳螂能拒轍。斷常已破談真空。二邊不立那留中。將南作北西為東。熱喝痛棒驅雷風。

次韻贈熙侍者

見得到。說得好。者箇事。無少老。不明自己擬謾誰。纔說為人先落草。收虎尾踞虎頭。謾誇倒岳仍傾湫。提將來無有輕放過之理。撞著底是不共戴天之讎。忍辱衣慈悲室。到此總須勾一筆。平田淺草驀翻身。佛手未伸驢脚出。正覺場須彌座。把斷乾坤能幾箇。只應侍者解參禪。始信祖翁家活大。

送敬藏主歸永嘉

一徑直。二周遮。大藏小藏。水月空華。永嘉謾誇一宿覺。遶床振錫成聾牙。韶陽老師倒一說。覲面豈免揚塵沙。舍窄從寬。欺胡謾漢。將長較短。把髻投衙。盡情列下。別有生涯。掣動六鼇三島轉。直鉤端不在魚蝦。

送梓藏主北上省師南山

北山來自凌霄峯。眼光爍爍寰宇空。掀翻華藏世界海。舉措不墮言思中。電轉星飛看布武。法戰場中肝膽露。叱咤暗鳴陷虎機。倒戈卸甲河沙數。西祖傳來古鐵鉢。誰道年深少提掇。碎打零敲不足論。千里萬里橫該抹。阿師黃金臺上客。鶴貌雲樣好標格。五位君臣列正偏。三玄體用超明白。我昔始搥塗毒鼓。曳杖來尋岩下路。奮翻長驅北海風。澤毛笑指南山霧。用舍行藏各有時。此意未許常人知。青山從教映白髮。赤驥自合隨龍飛。君不見南陽老。昔日對揚曾草草。大耳驚翻眼底華。紫璘喪却衣中寶。今兮古兮爭幾何。影草不露仙陀婆。子母驀然同啐啄。金烏迸出琉璃殼。

次松月翁韻送清上人

佛身無為不墮數。往復要須行大路。鐵壁銀山拶得開。四方八面無回互。沒絲毫全體露。禪之龍律之虎。苦中之樂樂中苦。清禪清禪聽我言。先天未是心之祖。

送現藏主

現成公案。不涉安排。一見便見早隔天涯。三世如來開眼作夢。一大藏教撒土拋沙。雪峯三登投子。九上洞山。泊乎鼇山店中。未免從頭列下。興化南方行脚。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逗到大覺棒頭。深明臨濟在黃檗喫棒意旨。政好掘地深埋。咄咄。如今是什麼時節。初冬暴寒。長河凍結。可行則行。當歇便歇。此事何須待人說。

次仰山了堂韻贈齊藏主

一大藏教破故紙。未解為人先為己。眼底纔明向上機。口頭自沒閑言語。東山酸餡苦無多。嚼破方知滋味美。賢也由來固可尊。愚也如何便輕鄙。魯祖見人即面壁。俱胝見人唯豎指。隨宜施設有多門。究竟還源無別旨。一毛端上忽翻身。百億毛頭總如是。蓋天蓋地更由誰。脫體承當都在汝。

送國清朗藏主歸太平

大藏小藏。風高月朗。全提半提。鴈蕩天台。羅漢寺裡一年度三箇行者。真淨老子甚處得者消息來。倒一說對一說。明眼衲僧如何辯別。即此用離此用。太平寰宇迴絕疑猜。如此如此。俊哉俊哉。堪笑當年馬駒子。震威一喝聲如雷。

送道藏主歸蔣山

出得靈岩門。便入蔣山室。搥碎摩尼珠。乾坤黑如漆。寶公擘開十二面。僧繇閣起丹青筆。夜半放烏雞。觸著泥牛吼。正宗堂下草連天。三佛家風俱漏逗。咄。

次東山法兄韻送允藏主

三乘教外無能過。領略得去還仙陀。諸方豈乏斷貫索。奈此六馬追風何。見說虛名掛官府。點額曝腮多少苦。肯信深山窮谷中。別有高標繼先祖。我家大兄東山翁。玄關一擊千萬重。入泥入水寫妙偈。且可與子開青瞳。

前江心無言作偈。送暢藏主。來靈岩。無際仲謀和之。會余已謝事。因次韻以贈

法法本圓成。塵塵自參互。當知日用中。不離寂光土。鷺池鷺嶺拋沙土。何曾說著到家句。三翁苦口力提持。密意明明元屬汝。可憐王老師。不打者破鼓。休將理事論。迴出言思處。龍兮焉用攀。鳳也何須附。海上橫行儘自由。妙德空生俱欠悟。

送袒藏主

真性心地藏。日用無差忒。截斷萬機先。何處尋蹤跡。透脫不過金圈金圈。吞吐得行栗棘栗棘。鐵壁銀山劈面來。箇是真人好消息。

次韻贈仰山繁侍者

大仰拋來圓相。慈氏豁開樓閣。透出向上玄關。總是機先妙著。千年舊話重行。萬里神光閃爍。鳥窠吹起布毛。畢竟如何領略。諸方大有明珠。只作豌豆糶却。

次松月法兄韻送杲上人

黑漆漆地明杲杲。丈六金身一莖草。神頭鬼面謾施呈。聖解凡情須淨掃。下自無底高無巔。毫端特地分天淵。破瓶不可作瓶事。如電久住芭蕉堅。萬里秋光連海嶠。霜清大野歸鴻叫。朗誦寒山三百篇。何待拈花發微笑。我觀古佛松月翁。老氣往往吞長虹。不知禪源倒溟渤。俱覺筆陣驅雷風。普應群機了無怠。天瑞流芳轉光采。撲碎驪龍頷下珠。一粟真堪眇滄海。

次韻送靈隱芳侍者

國師三喚。曹溪一宿。會則白雲萬里。不會寸釘入木。支那竺國兩沒相干。四七二三有甚付屬。以一重兮去一重。湖光瀲灩山空濛。不以一重去一重。海棠帶雨燕脂紅。白髮老僧夢初覺。屋角風響聲丁東。德山之棒臨濟喝。金剛腦後添生鐵。糞掃堆邊輓出來。笑倒柴桑陶靖節。

送芾藏主歸翠岩

道人天馬駒。蹴踏空寰宇。勘破主中賓。作得賓中主。信脚躍翻華藏海。日用頭頭自無導。眉毛落盡又重生。翠岩可怪還堪愛。怪也

怪不盡。愛也愛不徹。三千里外謾多情。覲面相看政無說。無說多情誰與知。爛爛黃菊開東籬。瓦盆炊黍秋日微。清霜滿地黃葉飛。

送効藏主之國清

少林之曲琴無絃。一鳴一息三千箇。諸方欲和和不全。翻腔轉調徒喧闐。東山後來下水船。逸韻絕出玄中玄。節拍于今落誰邊。知音未遇還堪憐。和風吹衣陽艷天。浩興突兀三台連。石橋飛雪噴長川。豐干一笑寒拾顛。

送理藏主

以字既不成。八字亦不是。截斷心意識。顯示真如理。鳳臺主山頭倒卓。六月炎天洒霜雹。眼裏無筋不易窺。脚跟有路通寥廓。水就濕兮火就燥。擬究宗風須撥草。百尺竿頭舞柘枝。二三四七俱驚倒。

次紫擇了堂法兄示智上人韻

上既無傳。下亦無授。截斷眾流。涓滴不留。杓卜聽虛。承訛接謬。孰有智人。為物所誘。合眼作夜。開眼為晝。病入膏肓。神醫莫救。絕後再蘇。如鐘待扣。泉何盜而不飲。餌何驕而不齶。物何以而謀新。人何以而求舊。爾其索玄珠於罔象。慎毋役聰明于契話。庶幾契心祖于先天。政不必論遙遙之華胄。

和仲謀兄韻送墳侍者

參底未是禪。學底未是道。真參與實悟。無好無不好。東山老祖翁。求人曾入草。日午金雞啼。非晚亦非早。握手報長廊。殊堪慰清抱。高風三百年。撫掌贈一笑。隨聲逐色漢。何處尋頭腦。道流弓冶子。箕裘應自紹。平生白雪歌。毋勞語山獠。

送隱侍者

向上一著。不涉言詮。會即便會。擬即招愆。若是本分人。愁甚本分事。當知佛與祖。盡從者裡去。拈須彌山。秤作二兩。東山老漢。可殺生獐。用黑豆法。換人眼睛。松源聵翁更不覩是。一絲一糝去不盡。動即遭他神鬼領。說妙談玄太可憐。馬後驢前恣馳騁。

快須剪斷五色索。騰身坐斷千聖頂。阿呵呵。會也麼。古今天地。古今山河。晝明夜暗。日暖風和。一曲高歌歸去好。擘開千嶂入煙蘿。

送淨慈明藏主

宗門有體復有用。後以智拔先定動。棒頭五岳落崢嶸。喝下千江乾洶涌。即今拈却棒與喝。全與何妨亦全奪。戴角擎頭與麼來。幾箇死中能得活。維揚道友真倔奇。一大藏教難羈縻。揭開宗鏡照塵刹。炯炯壁月揚清輝。昨宵為我留一宿。話到無言心自足。撥轉船頭歸去來。斷絃誰把鸞膠續。

送廣藏主

佛法遍在一切處。何曾覓得芥子許。一芥子許不可得。遍一切處俱昭著。天之高地。之廣。日月星辰明朗朗。狸奴白牯念摩訶。妙德空生剛鹵莽。有照有用。有罰有賞。七棒對十三。幾人知痛痒。他日孤峯正令行。會須揭此毗盧藏。

送遠藏主歸省白鶴雪心

道無方。行者未易窺其疆。脚跟不動忽蹈著。誰謂近在眉睫旁。雖近而遠遠而近。至無所至那容量。春已過日正長。入夏更覺南風涼。八紘雲收宿雨霽。一日萬里天蒼蒼。道人昨日離錢唐。今秋又云歸故鄉。阿師禪心瑩如雪。真與松月爭明光。往來不往來。是藏不是藏。除却南泉王老師。一曲清歌有誰唱。

贈模藏主

打破鏡來相見了。一輪杲日當空耀。三世如來不出頭。五千餘卷何從討。不權不實非偏圓。教外所以稱單傳。少林直指早成曲。瞎驢滅却方超然。道流頂門三眼正。草偃風行看號令。堪悲堪笑老瞿曇。昨日定兮今不定。

送皓藏主

我師休居。不師其道。不師其德。不師其當默即語當語即默。不師其生擒周金剛。活捉白拈賊。惟無所師而師之。畢竟何如。豈不

見。白雲老祖曾有言。一文大光錢。買得箇油糍。嚙向肚裡了。當下便不飢。又誰管你南天台北五臺。清涼山中萬菩薩。引得長汀老子拍手笑哈哈。咄。

送慶侍者之淨慈

大千總是如來藏。宗鏡高懸空萬象。赤梢一躍透龍門。平湖漲起千尋浪。老僧急卷袈裟角。看汝青天飛雪雹。朝生便是鳳皇兒。笑倒松頭千歲鶴。

次韻送僧歸蜀

行甚驢脚馬蹄。惹起千疑萬疑。要識本來面目。好看秋月揚輝。多少點兒落節。重來眼上安眉。著衣方堪禦冷。畫餅豈可充飢。搗破劍門關子。回頭日在松西。

次育王雪窻韻贈印書記

一句子。龍無龍。總拈却。稱長雄。灼然不墮言思中。單非隻兩非二。老胡打失當門齒。妙彈無絃誰賞音。還我東山左邊底。最卓犖端尋常。毫毛豈足論短長。搗著三關應手破。海印湛湛涵秋光。跨三賢超十哲。頂門別有通天穴。滿肚文章一字無。賊面似人人似賊。

送淨慈拱藏主再參前蔣山正宗

經頭一字無人識。作者相逢拱而默。懸河四辯一時乾。八萬法門空寂寂。湖天雨足涼氣浮。翠波蕩漾風颼颼。語默商量不到處。柳岸數聲黃栗留。剔起眉毛眼如月。老我何須更饒舌。東歸會見鍾山翁。自有生機為君說。

次韻送洽侍者

接響承虛真浪受。大丈夫兒還肯否。便請從頭放下休。不然且向東西走。今年已過還明年。祖意的的教誰傳。三喚三呼絕消息。未必落在空王前。南堂老比丘。有口不說禪。饒你領得去。且不涉語言。咄。如斯舉唱澆心田。須信壺中別有天。

贈操栢庭

趙州說禪真逸格。人問西來指庭栢。坐令門戶生清風。豈唯體用超明白。突出楊岐尤傑特。栗棘金圈亂抱擲。弄蹄驢子快騰驤。蹈碎乾坤了無跡。兩翁不作知幾年。靈山一會還依然。剔起頭陀笑華眼。攢峯峭壁開青蓮。春滿江南又三月。柳絮漫天作飛雪。為君傾盡此時心。昔也不來今不別。

送杲藏主

百丈再參遭熱喝。黃檗聞之驚吐舌。正宗滅向瞎驢邊。衲僧有口難分說。慈明易服歸汾陽。風餐水宿何皇皇。孤標拔俗三百載。高義乃復摩穹蒼。不顧危亡何太錯。虎頭截得蒼龍角。蹈著鴛湖徹底乾。萬里秋空飛一鶚。

韻碩藏主

一大藏中無法說。道人慎勿生枝節。少林直指早成紆。我也安能更饒舌。千葩萬卉方爭春。出頭天外今何人。壁立萬仞轉身句。一蹴大地無纖塵。豎抹橫該君自看。寂兮寥兮光爛爛。百鍊金為繞指柔。直須再入紅爐鍛。

送慧藏主歸上江。兼來能仁清懶圓通約之歸宗玉嶼

以戒為身。以慧為命。演出演入。無少無剩。開口便吞三世佛。嚼碎虛空吐出骨。虎頷編須未作家。兔頭戴角方奇倔。我有一句在汝邊。白雲堂下波粘天。圓通不開生藥鋪。頭陀石被莓苔纏。

送錫藏主自大仰東還寧親

辭親依師年尚少。辭師寧親豈容老。父母師僧兩不違。孝順端稱古皇道。白雲孤飛海天碧。岸柳江梅得春早。我亦有親當一歸。斑衣兒啼笑絕倒。出家終無在俗理。懽笑幾何還懊惱。悲歡本自無根蒂。情愛牽纏苦懷抱。要須揭起大圓鏡。愛垢情塵俱一掃。只今非往昔非來。覺慧發光明杲杲。以此報師師謂然。以此報親親謂好。萬機休罷到家鄉。一體無分是僧寶。

先保寧和尚送宣維那偈。弘藏主求和

昨夜虛空都撲落。天明火中尋得雹。威音那畔訪知音。曹溪撞著一宿覺。大都說話不倒邊。折筯攪動蒼龍淵。擊碎驪珠亦閑事。坐看平地波黏天。亘古亘今唯有此。欲觀前人先所使。擡眸何處討三賢。舉步等閑超十地。此宗此宗須自得。自得不借他人力。同鍋喫飯共床眠。肝膽到頭成異域。休居唱出南堂酬。毗盧藏裡堪遨遊。萬法不能為伴侶。孤月自解隨三舟。

送雪竇良藏主

妙高臺上雲。錦鏡池中月。清影落人間。孤光滿寥泐。四十九年說不到。老猿啼斷中岩曉。草中逸出睡於菟。驚起二靈行鳥道。

送萬壽真藏主遊台鴈

台山鴈山高且寒。五月六月飛冰湍。山形杖子既在握。探蹟自可資遊觀。危峯爭為寶幢立。線路或作羊腸蟠。不知應真說何法。但見花雨飛漫漫。何如撥轉毗盧藏。一道神光吞萬象。掀翻海岳更無倫。隔靴豈用拳抓痒。

行可出先保寧贈偈求和

樹提婆宗。結衲僧舌。龜背刮毛。針頭削鐵。觸著人我無明。討甚法喜禪悅。三冬枯木滿林華。九夏炎天連地雪。作家還我老玄沙。解道靈雲曾未徹。磊磊落落處大段周遮。怛怛時不消一掣。萬機休罷而千聖不携兮。內空外空內外空。逼蛇化龍而尅期取證兮。一月二月三四月。

送法喜滅宗

威音已前無授受。釋迦枉落然燈後。鷲嶺拈華謾泄機。少林得髓爭呈醜。黃梅夜半築底錯。老盧把住元非惡。可憐馳逐天下人。接響承虛都不覺。道人且喜相忘久。來去不妨空兩手。邁古超今豈等閑。奪食驅耕咬猪狗。君不見。當年臨濟辭黃檗。禪板拈來與燒却。正宗滅向瞎驢邊。草裡鐵蛇頭戴角。

次韻贈思侍者

渡水穿雲訪師友。朝談天台暮賢首。已躬下事合如何。揆著人人少知有。未善參詳聽我言。只者如今誰動口。彼此僧中大丈夫。何用隨人脚跟走。東山頂上闊著步。玉几峯前展雙手。撥開萬象見全身。截斷群機示真吼。小根那敢妄搏量。佛祖始堪論授受。金鴨香銷錦繡帷。地戶天門俱脫臼。

贈南宗

南宗密印傳來久。十聖三賢不知有。拽轉虛空背面看。錦縫重重貫牛斗。棒頭曷下明真機。德山臨濟還堪悲。脫窠裂臼領得去。風飛雷厲方相宜。我是乾坤無事客。驗盡銅頭并鐵額。竭來拋向大湖中。一枕高眠真上策。

用本覺楚石韻贈怡雲屋

楊岐石窓好尊宿。襟度潭潭如廈屋。舉措彌增佛祖光。行藏廣布人天福。贊成宏智匡慈明。等是鷲峯親付囑。斷絃妙在鸞膠續。與吾一鼓雲門曲。高山流水少知音。白雪陽春和何速。楚翁平生五鳳樓。無媿大悲千手目。我去靈岩三載回。喜見雕甍起平陸。柱石端為不世資。棟梁豈是尋常木。主伴能操不二心。今古還同一機軸。如風從虎雲從龍。似地擎山石含玉。大匠固知無棄材。善賈何曾有停蓄。撮將大千為粒粟。體亦足兮用亦足。用亦足。羅湖不生誰可錄。

贈無為道者

歸峯道者稱無為。傲睨物表超希夷。有時分身徧塵刹。直與佛祖爭驅馳。佛祖何先我何後。為而不為終傑斗。夜升兜率晝閻浮。問著時人罕知有。多少疑眸覷破壁。兀兀堆堆守空寂。到頭不會轉身句。如此修行有何益。要識無為聽吾說。孤蟾冷浸千江月。波波頓現是尋常。處處相逢元不別。我心與月同虛閑。照天照地相循環。光境俱忘照自寂。一聲鶴唳來雲間。

次石佛元菴韻送聚維那之龍河

新昌石佛聞名久。無邊刹海毫端有。九霄雲外現全身。萬仞峯頭垂隻手。眾生顛倒難教化。往往東行却西走。佛也由來不奈何。我又如何開得口。道人袖裏黃金椎。自堪殞碎魔軍首。妙用靈機苟現

前。不妨觸處為真吼。君不見。龍潭老人吹滅燈。光射七星并八斗。子也親承石佛來。不知石佛曾言否。更從言外訪知音。眼中何處存妍醜。黑暗女與功德天。有智主人俱不受。南堂與麼老婆禪。未必七分能構九。

送輿藏主歸省保福一菴法兄

即心即佛與麼住。狸奴倒上菩提樹。非心非佛與麼去。生鐵秤錘被蟲蛀。松華為食蓮為衣。懸崖峭壁何巍巍。把定牢關欠活脫。放開線路終相宜。藏主近前出隻手。撿動金毛師子吼。若問靈岩事若何。黑黑明明三八九。

和仲謀韻贈舟維那

噓一噓吹一吹。脚跟不點地。鼻孔大頭垂。全身入草處。打失兩莖眉。聲前非聲。布漫天之鐵網。色後非色。揚徧界之風漪。或暗鳴而叱咤。或顧盼以踟躕。高來卷舒方外。俊處穎脫囊錐。沙場百戰氣浩浩。太華一擲空巍巍。作家相見有縱奪。千聖向上無鉗鎚。覺天之日忽已墮。魯陽之戈誰與揮。馬祖堂前再參句。妙峯孤頂清霜飛。一喝果然聾兩耳。大唐國內無禪師。

送珍上人回鄉

從門入者。不是家珍。百草頭上。覓得全身。拈一放一有甚好。出此沒彼徒因循。衲僧拄杖六七尺。敲風打雨驚天人。手面靈機絕思筭。頂門正眼無疎親。出生父母只者是。凌滅佛祖超常倫。蹈著石橋成兩截。一聲喝散千峯雲。

次仙岩仲謀韻贈堯上人

究已明宗自為策。何用迢迢遠相索。未離歐阜早差池。蹈破吳雲轉懸隔。君不見。月兮不待風而涼。又不見。日兮不待火而赫。要知生佛兩同源。合信曹溪無正脉。窮玄微善探蹟。烏本非玄鵠非白。無明煩惱是真如。虎穴魔宮總安宅。英俊流終逸格。九萬扶搖方展翮。塵沙劫海剎那間。百億乾坤一毛窄。敲東擊西。喚叔作伯。阿刺刺。透網金鱗遭點額。

雪菴瑾和尚偈禪者求和

眼中之句中眼。眨上眉毛還不見。有時提起金剛王。有時獨弄無文印。神仙祕訣誰堪傳。劫外日月壺中天。太白山頭燄爐雪。鼈鼻徑把長蛇吞。

送蔣山淵維那歸蜀

道人曾見三佛來。桶箍脫處心眼開。回首成都一萬里。峽流春漲爭喧豕。君不見。德山老漢初出蜀。未戰全鋒先剗刃。那堪夜參吹滅燈。從茲不唱還鄉曲。拈得拄杖寧如龍。訶佛罵祖鞭雷風。如今叢林無此翁。作偈且送淵性空。

送敏侍者

訥於言。敏於行。參方且要求宗匠。即今海內誰可師。之子行行好尋訪。汝不見。嘉禾古有雲門翁。手面一著驅雷風。顧鑑機先重遭撲。電光石火從忽忽。東山顛佛果瞎。特地分身徧塵刹。金雞拍翅一聲啼。便解人前施孟八。

示中上人

我此法門中。大本在見性。一見一切見。如臨大圓鏡。穠纖既可鑑。本末自澄瑩。迷時聖是凡。悟後凡為聖。迷悟兩超越。聖凡同響影。廓然洞無疑。參學事已竟。

次韻贈善上人閱經

一大藏教。五千餘卷。剗剗全彰。塵塵頓現。耐重撲倒金剛神。釋尊不坐空王殿。高來低應。谷響泉聲。暗合明投。神彩鬼面。爾既擔枷過狀。我則據款結案。機先領旨。討甚仙陀。格外明宗。早不著便。除是本色流。一見即便見。咄咄咄。還知麼。直須斬釘截鐵。輒莫綴齒粘牙。不涉安排。群機普應。現成受用。毫髮無差。兩手擎來。耳朵中堪容四大海。寸絲不掛。眼睛裡可著恒河沙。揭開摩竭。靠倒毗耶。天上人間有此沒量大漢。騎聲蓋色實謂妙不可加。會則目前包裹。不會別立生涯。熱即取涼寒向火。飢來喫飯困來茶。

次韻示僧道舍人

我此一宗。不立文字。四七二三。如水傳器。欲得親切。去却藥忌。匪學而能。匪行而至。俱抵一指。大士千臂。知是妄覺。不知無記。決要完全。直須打碎。是頭頂天。是腳踏地。父子主恩。君臣主義。辨色分香。有眼有鼻。可進則進。可退則退。能使於物。不為物使。凡聖兩忘。自他兼利。咨爾僧道。固爾初志。念茲在茲。圓成覺智。爾本無求。我亦無示。廓然現前。非言非意。宜善護持。毋自輕易。

送曙藏主

道人信宿來禾城。三反無覓南堂處。乃知善財參德雲。七日之間亦如是。德雲不離妙峯頂。山僧豈出南堂裡。中途百念忽頓息。白鳥蒼煙盡知己。握手一笑載以歸。尋得匡床倒身睡。明朝欲唱還鄉曲。睡起先求贈行句。我觀汝昔元不來。今也何為却言去。不來不去兩俱捐。故國清風半帆耳。山僧為人無實法。汝也臨機好看取。更說甚麼雪峯老漢九上洞山三登投子。撿點將來。政是黑山下鬼窟裡活計。直饒鼇山店上盡底掀翻。何異鄭州出曹門。遠之遠矣。咄咄。住住住。歸向扶桑更那邊。別有光明蓋天地。

贈徑山經侍者

百尺竿頭進一步。一步超越河沙數。平田淺草驀翻身。幾箇解分泥水路。荒郊雨後泥水多。在江滿江河滿河。老農晨興鋤苗草。作勞群起高聲歌。赫日炎炎燒碧漢。喜有風生楊柳岸。道人不憚泥水深。矻矻通身流白汗。入門一見忘主賓。道義篤切情彌親。話盡山頭十年事。如夢如幻如浮雲。坐到水乾泥亦去。雪車往往羅冰柱。金鴨香銷意自閑。別有嘉聲繼先祖。

贈淨慈馘藏主

一大藏教永明旨。山色湖光照窻几。永明宗旨一大藏。梵語唐言提不起。碧海紅塵貼日飛。牛胎生得香象兒。蹈碎乾坤無朕跡。大悲千眼焉能窺。天台道流何卓犖。未言先領俱昭廓。丹山鸞鳳九苞文。祥麟只有一隻角。

示靈隱景岩藏主

是大法藏。不涉名言。衲僧日用。諸佛本源。豈唯智者。親見靈山一會。儼然未散。即今老僧與汝同處普光明殿。揖舍那尊。把斷要津。不通凡聖。掃除露布。迴脫根塵。咄。珍重橫肩鐵拄杖。莫教築碎破沙盆。

送來維那參松月翁

真淨界中無一法。畢竟度河須用筏。幡竿尖上驀翻身。誰管石頭行路滑。浩然一月千江心。松風正奏無絃琴。八紘雲靜夜氣肅。老龐不作誰知音。子欲參玄宜撥草。桶底脫時方是了。袖裡金鎚影動搖。家家門首長安道。

送壽藏主東歸

扶桑道人來自東。一舉九萬乘天風。探珠不入沙竭宮。十年蹈徧中華中。中華之中何所遇。白日西飛水東注。始看楊花作雪飛。還驚白雪如飛絮。大華礫裂黃河乾。已躬下事何顛顛。掀翻大藏五千卷。一句未始曾開端。驀然來見南堂老。萬種千般俱一掃。曠劫無明當下消。先師公案登時了。明窗之下下一榻。百尺竿頭恣騰蹈。外道天魔總倒戈。龍泉太阿初出匣。明朝歸去楞伽巔。順風依舊三日船。親朋有問本參事。向道晨朝熱水洗面。脫下脫襪打眠。畢竟如何。咄。神仙祕訣。父子不傳。

洞庭謠送本藏主

東洞庭西洞庭。七十二點浮螺青。涼風吹衣日色薄。白浪遠接天冥冥。盧公高臥歲月老。今古有誰同此道。涵空閣上豁雙眸。長嘯一聲欣絕倒。掛角羚羊本無跡。之子何須苦尋覓。翠雲不動石屏閑。岸蓼汀花弄秋色。壯遊豈是耽奇勝。仰止先宗作龜鏡。隔江相喚解知歸。堪與虛空安把柄。

台鴈謠送景侍者

台山青鴈山青。千朵萬朵轟轟攢高冥。橫空石梁鬪雪瀑。飛流濺沫。往往散作銀河星。潛奇毓秀狀不盡。坐殺五百一十六箇聲聞僧。嗟予生緣在其下。兩脚未暇躋峻嶒。上人從何來。便欲舒幽情。攀蘿陟磴到絕頂。俯視萬象無逃形。願言學道亦如此。探蹟理窟開玄局。吸乾佛海。掀翻祖庭。使夫寒拾撫掌。詎那服膺。庶幾

懸天心之寶月。朗劫外之真燈。苟不然者。又何必陋燕雀誇雲鵬。而與世俗同愛憎。

廬山謠送迪首座

廬山橫截九江口。五老崢嶸欲哮吼。曉風吹斷香爐煙。玉龍噴雪飛晴晝。遠公向來栽白蓮。社中人物何超然。山靈勒回俗士駕。勝地盡囑西方僊。陶令攢眉真白拂。夜郎有意嗟乾沒。還丹浪說透瓶香。到頭莫換凡夫骨。我生元是山中僧。別來轉眼三千齡。此日因君話疇昔。陡覺秀色盤空青。盤空青可攬結。清淨之身廣長舌。一笑掀翻九疊屏。摩訶衍法非言說。

杯渡尊者祥雲菴偈珩琅渺首座求和

十行十住十回向。杯渡老人常實相。阿惟越致等妙覺。壽命光明無有量。佛佛境界體性同。隨說而行自非強。雙溪鐵牛喫一椎。等閑吞却嘉州象。百千如來咸助喜。頻伽盛空滿相餉。登高望遠意自殊。祥雲翠結瓊林上。

珩琅一關法兄用前韻見招因答之

三千里外遙相向。弟兄孰謂無心相。毛端涌現寶王剎。胸次政餘吞海量。工夫已到應從容。道力未全安可強。昔年杯渡今再來。截流顧盼真香象。瓷罌滿貯黑石蜜。妙語緘題遠分餉。暮年只合赴嘉招。劇談抵掌雲巢上。

蘆圖室歌(并序)

杯渡尊者。應跡宋朝。神異非一。常荷蘆圖而行。至廣陵。赴李氏齋。置圖中庭云。四天王福爾家。李欲移圖。數人莫能舉。有豎子窺圖中。四小兒長數寸。齋訖提之而去。又赴究牧劉與伯招。伯令舉圖來視。數十人亦不勝。伯即之。惟破衲木杯耳。宣慈濟西竺蘭若。尊者所居也。住山熙菴春公。欲剏丈室。榜以蘆圖。不遂而終。囑其徒智明誼上人為之。逾年而成。厥孫渺師。求余題復和尊者祥雲菴偈韻。并敘其大略。使刻之云。挈箇蘆圖來復往。大似全無大人相。看渠坐斷珩琅峯。脫盡凡情超聖量。四王虎踞圖之中。感應道交何木強。掀翻海岳驗行蹤。蹈碎

乾坤無影象。下載清風木作杯。上方鉢飯人爭餉。智明作室吾作歌。大書蘆圖榜其上。

妙乘舟歌(并序)

妙乘舟。前御史蒼山之泛宅也。治書廉公亮榜其額。金山即休為之頌。曹溪月翁為之敘。可謂具美。猶以為不足。來徵余言。不得已。謂之曰。真性吾舟也。願智吾水也。六度萬行吾帆檣篙舵也。吾乘之而游乎三界之海。流行坎止。惟意是適。是非之風不得驚。寵辱之渦不得溺。內無珍異以起盜者之心。外無聲色以動觀者之議。人方拘拘。我獨浩浩。人方戚戚。我獨怡怡。誦華亭載月之章。樂鄂渚煙波之趣。不住彼此。不著中流。而錦鱗頰尾。或有所遇。不亦妙甚矣夫。又何必東拂弱水。西掠流沙。南放炎海。北極玄溟。浪為無益之游。而蕩無所歸哉。系之以歌曰。天地浩蕩兮放吾之舟。萬化無息兮乘之以游。返吾心兮復吾性。廓然大通兮餘將焉求。罷釣收綸兮華亭船子。呈橈舞棹兮鄂渚岩頭。嗟余生兮季世。所不見兮前脩。開帆捩舵以力追之兮。慨情緒之繆悠。豈無清風朗月以壯吾之趣兮。曾何塵勞妄想之未休。匪殘山剩水之可愛兮。自無意於公侯。有超宗異日之開士兮。固宜衝寒冒暑而激揚唱酬。殆將濕心浴德於清涼之池兮。采芙蓉於芳洲。雖薄俗昏墊終莫我知兮。亦庶免漱石而枕流。渺江漢之無際兮。當不限余之去留。惟歲寒之高義兮。尚或慰乎寂寥之秋。

止止軒贈張君茂

君茂作軒名止止。止其所止。毋乃是。要知真止初不然。止無所止方通理。疏之所以明其元。泥之所以塵勞起。漆園老吏豈解事。虛空生白謾自喜。若能轉物即如來。自然躍出齷齪裡。六窗寥寥秋月明。山長海闊天冥冥。漁歌斷續蘆華汀。止止於此將忘情。

半山古原作嚙居榜曰信菴。因璉藏主來徵偈

偉哉信菴能自信。古聖今賢同一印。盤結孤峯豈等閑。棒頭喝下無生忍。覺城東際信不及。走遍南方無處立。彈指聲中得路歸。法界重重曾頓入。一念不起無浮漚。廓然三際空悠悠。萬仞崖前布鐵網。九重淵底拋金鈎。君不見。汝家開山真淨翁。邁往之氣凌長虹。一生善弄大旗鼓。力排戲論恢真宗。公作信菴吾作偈。落落風規宛然在。謝墩吞却寶珠峯。還放秦淮東入海。

竹堂贈琦藏主

竹間著此半間屋。夢中盡是鈞天曲。覺來宴坐寂不動。但見繞簷排翠玉。風簌簌雨簌簌。月色天光蕩心目。神也清骨也清。八萬四千毛竅俱通靈。君不見。東坡道人鐵拄杖。敲空有時能作響。不問人家與僧舍。脚頭到處成真賞。又不見。當年香巖老古錐。等閑一擊忘所知。潑天富貴赤骨律。卓錫無地良堪悲。如來禪祖師意。劈箭機鋒建瓴水。百尺竿頭掉臂行。筭定乃兄三尺觜。

芥室贈靈藏主

道人一室如一芥。大小輪圍無不在。中有百億須彌盧。圍繞無邊香水海。一室既爾百室同。千差萬別俱圓融。毛端寶剎乃其戲。似水入水空藏空。君觀見行三昧事。諸佛眾生本非二。聖凡情盡體如如。是則名為不思議。踈簾高卷心境閑。團蒲曲几安如山。光風霽月相回環。孰謂此地非人間。

煑雪齋贈壽首座

道人不烹龍。道人不炮鳳。道人兀坐深齋中。爛煑雪團充法供。一飲毛孔生清風。再飲肌骨冰玲瓏。東土西乾接手句。玉應未了仍金舂。品字柴頭春滿室。紅麒麟誰敢輕觸。後夜夢升兜率宮。覺來床上伸雙足。

靜趣軒

保安招提古城裡。法師作軒名靜趣。一心不動萬機閑。三際泊然如止水。軒前脩竹參天綠。竹下清池浸寒玉。妙談般若本無言。安用琅函五千軸。好風吹折芬陀利。權實同時盡昭著。靜猶不立趣何存。未入此軒須瞥地。

大樹軒

老禪作軒臨大樹。樹下栖禪真得趣。直將大樹榜禪軒。千里求余寫禪句。問君此樹何年栽。綠雲翠地青崔嵬。長天不放日月下。挾座只驚風雨來。一道陰涼同濟北。空盡勞生心意識。六十蒿枝痛未伸。再思一頓何從得。

聽夢樓

百尺樓頭展雙足。一枕黃梁午炊熟。江城五月落梅華。舉世真成蓋蕉鹿。者一曲那一曲。天鼓希聲斷還續。閉一目開一目。起來更把身翻覆。三際寥寥萬境閑。六用門門總休復。大原何有建隆眠。永嘉謾向曹溪宿。風流輸與老滄山。二子神通良不俗。面湯纔去手巾來。一碗醞茶濃似粥。

環翠樓

道人高居環翠樓。筠窻面面山光浮。白雲朝飛宿雨霽。甘露夜注青玉甌。長林乘風怒濤吼。當暑忽復如清秋。金經琅琅華藏海。公案了了蒲團頭。童子南詢斂念入。彈指千劫何悠悠。東歸未盡若耶興。尚可為子聊一遊。

聽松堂

風來松韻清。風去松韻停。松堂得松韻。六月生清水。重陰覆瑤席。時作韶鈎鳴。世無寒山子。好在誰解聽。我欲呼朱絃。和此大古音。忽聞深澗泉。悠然契吾心。

空空室

道人一室如懸磬。榜以空空頗相稱。忽然突出三萬二千師子床。攝入毫端無少剩。謂之有。佛面等閑成百醜。謂之空。帝珠寶網光重重。空而不空。有不有。象王回旋師子吼。白戰將軍不用兵。太平天子垂雙袖。唧嗚咿誰與知。水晶簾外天華飛。兩頭白牯脚踏拍。三面狸奴舞柘枝。

歸雲亭

作亭竚歸雲。雲歸宛亭亭。道人本無心。澹與雲相應。夾徑樹嘉木。沿溪羅翠屏。人閑境逾寂。雲白山自青。看山坐亭上。披雲濯清冷。

綠雲軒

長松翠竹當軒窗。奇峯削玉摩穹蒼。綠雲隔日南薰涼。竺墳魯誥堆滿床。道人深居萬慮忘。知見散作毛孔香。客來問法呼煑湯。一試車聲繞羊腸。

朴菴贈華侍者

朴菴朴菴求我歌。時之不古如朴何。窮奢極侈世所尚。懷貞抱素無乃訛。朴菴朴菴聽我語。羲皇上人葛天氏。有耳不聞絲竹音。有眼豈知軒冕貴。低可穴兮高可巢。蓋頭何處無莖茅。汗樽杯飶本自足。蕘桴土鼓焉用教。歲晚忽然情偽作。七竅崩分混沌鑿。有時拔劍斬風輪。驚起泥牛鬪折角。我歌此歌居莫嗤。大空小空渠得知。萬事到頭難準擬。早來百鳥銜花去。

止堂贈運侍者

止堂止堂求我歌。三請不止如止何。不若如今便休去。免教平地生風波。止堂止堂聽我語。川之方增豈得已。倒流三峽迷九淵。崩騰澄渟皆此水。動兮靜兮誰所作。卷兮舒兮亦昭廓。寥寥虛室生白光。落落靈機洞靈覺。動相元無安有止。尤搓茅繩縛山鬼。銅沙羅裡滿盛油。坐斷乾坤只者是。靜相亦無安有動。百華競作春風夢。東山家燕此時開。囉囉招兮囉囉送。我歌此歌清夜闌。萬籟聞寂神思閑。何人披雲發長嘯。一聲迸落千林間。

承天毅首座號木翁。松月翁更曰剛中。求正於余。余曰。剛中其字也。木翁其號也。為說歌曰

阿翁胡為事木訥。口不能言意奇倔。一機截斷凡聖情。裂石崩崖露風骨。松月見之呼剛中。諸方見之稱木翁。一為其字一為號。落落總可魁群公。君不見。牟尼化身千百億。多少嘉聲振金石。兩元非異一非同。究竟真成白拈賊。

獨木贈林侍者

臨濟樹只一株。蓋天蓋地曾無遺。閻浮金光耀日月。無晝無夜香風吹。三伏茫茫洒冰雪。徧身毛孔清涼徹。五濁炎氣悶殺人。惆悵無因為伊說。

獨峯贈昂侍者

千山萬山橫玉案。一點青螺出天半。白雲不作雨聲乾。只有鳴禽自呼喚。何人坐斷最上頭。眼空四海無春秋。碧落紅塵兩懸絕。菜葉莫遣輕隨流。壓破坤維鎮南極。五岳要齊齊不得。徑須推倒葛藤椿。免使天華惹衣袂。

無生贈度藏主

無生道人來自何。繾綣求我無生歌。生既元無歌豈有。撥火為子揚清波。君不見。覺海澄圓一漚發。四生九有相挨拶。若知漚跡本來空。始證無生真實說。真不有妄亦空。推倒百億須彌峯。十虛直下頓銷殞。三世諸佛無行蹤。寂寥寥明朗朗。撥轉玄關何倜儻。夢中合眼跳黃河。豁開兩眼長床上。東海魚打一棒。等閑躍出千重網。跛鼈盲龜總不知。帝釋修羅俱膽喪。嗔不嗔喜不喜。笑殺寒林七賢女。百種供須不稱情。剛然要索無根樹。阿呵呵。會也麼。不萌枝上春風多。執死蛇頭懵懂漢。放活鷄子仙陀婆。無生歌少林曲。彈到無絃聲自足。泥牛吼破碧潭煙。石上栽蓮藕如玉。

白牛贈昌山主

白牛之白白如雪。性情迥與常牛別。一犁耕遍劫空田。四脚慣曾行嶮嶮。懶安香巖稱善牧。豈揀平原與幽谷。鼻孔遼天不受穿。角長未免東西觸。牧之既久終相忘。水足草足溪風涼。火宅商量誘諸子。四衢軒蓋何煌煌。

了菴和尚語錄卷第六

天印示普侍者

覺天無雲海波靜。萬象森羅同一印。聖凡情量莫能該。爍破面門應自信。鉄牛之機本如此。言下承當不相似。令行吳越在于今。誰解同。生復同死。印泥印水還印空。二三四七俱潛蹤。暗合明投總兒戲。抹過虎穴并魔宮。印空印泥還印水。賓則全賓主全主。曹溪脫出未為奇。擒得盧陂始堪喜。印室印水還印泥。玉犬夜吠金雞啼。紫綬煌煌揭日月。金章隱隱蟠虹蜺。祖也無傳我無授。去來且可空雙手。相逢有問護身符。好與攔腮擱其口。

滅宗示胤侍者

瞎驢滅却臨濟宗。黃河九曲不敢東。東山拋出暗號子。鉄蛇彩鳳盤晴空。堪笑堪悲川土苴。覷面當機看脚下。打失眉毛萬事休。引得傍觀笑聲啞。宗風似此爭不滅。此心合對瞎驢說。說向瞎驢驢不聽。喝聲迸落千巖月。

東白贈昇侍者

金雞拍翅扶桑暎。萬國曡曡開乾坤。少室西來豈無意。後生欲見嗟無門。五葉千燈輝震旦。一色明邊何爛爛。更從向上透玄關。曠劫重昏蕩然散。碧海澄澄照虛室。萬象莫能逃影質。堪笑當年老趙州。眼前渾是金州漆。

思遠贈傳侍者

祖祖相傳有何說。地久天長無斷絕。無端滅向瞎驢邊。添得兒孫釘根楔。此楔欲出出者誰。神仙祕訣超離微。山青山黃日月老。屋前屋後花信稀。傳兮遠兮我與爾。思而不思知幾幾。

東雲贈海侍者

道人心地如雲海。隨風行空了無碍。曉來一片橫日東。萬里濃陰覆天外。在東為東何定方。卷舒出沒皆相當。釘釘著兮懸掛著。南陽指出談宗綱。有眼衲僧誰不見。未達此心遭境眩。逐物迷真意轉移。識性紛紜日千變。我願人人如此雲。贊之不喜罵不瞋。動既無營靜無住。飄然寂爾超緣塵。雲兮雲兮許多好。人果如雲少煩惱。得時行志作甘霖。一洗炎埃潤枯槁。

物外示道侍者

道非物外。物外非道。以要言之。孰臻其奧。南泉拂袖便行。馬祖看得恰好。木葉落盡四山黃。金雞拍翅千江曉。

宗遠示世侍者

未分天地誰為祖。接響承虛自今古。竺國支那兩下看。扶桑日輪正卓午。威音已後威音前。著著落在兒孫邊。馬駒踏殺不足怪。瞎驢滅却方堪憐。日可冷兮月可熱。此事如何對人說。關心大段是寒梅。盡把春光都漏泄。

默堂贈辯侍者

淨名一默喧今古。塵塵剝剝開門戶。散華天女解隨邪。擘破虛空旋脩補。八紘雲盡清晝閑。踈簾半捲來秋山。道人有口且掛壁。坐聽萬象提玄關。鉄馬嘶風木雞叫。野水自流華自笑。碧眼胡僧暗點頭。妙德空生曾未了。

雪窻贈瑩藏主

雙峯歌雪窻。寶華雪窻歌。兩口無一舌。奈此二老何。拈却廉纖與直截。推起松窻進明月。鷺鷥飛入蘆花中。一片清光對寥泐。莫問少林深幾多。莫問雪山高嵯峨。蹲鴟出火香噴鼻。一飽之外安知他。雪窻見我作此語。點首掀眉心唯唯。滿幅書來一字無。前路逢人休錯舉。

大明贈韜侍者

大包無外還同小。明察秋毫未忘照。大而無大明無明。不妨蹈著通天竅。通天之竅既已開。九野蕩蕩無纖埃。翻思龍潭撲滅紙燭處。

爍爍雲漢遠近俱昭回。燒却疏兮焚却鈔。蚋解螢光何足道。坐斷孤峯正令行。瞎棒盲枷真草草。道人光明非小大。耀古騰今長不夜。九鳥射盡一無存。把得栗棘渾崙吞。

無我贈吾藏主

我自無我誰為誰。鉄笛把得縱橫吹。雲門一曲。敲出鳳皇五色髓。洞山五位。擊碎驪龍明月珠。向去底如猫捕鼠。却來底似井觀驢。通紅了也。再下一椎。大唐國裡火星迸。新羅燎却黃門須。

性海贈明書記

覺海澄圓性清淨。湛湛寒光浸空影。一波纔動萬波隨。便有六凡兼四聖。我觀動靜初無作。只為妄能生妄覺。覺妄元空達本真。一道虛明白昭廓。君不見。靈山拈華伎倆盡。少室單傳重鑄印。三交謾駕鉄牛機。臨汝全提還弄引。南堂五月松吹涼。茶甌滿泛毛孔香。客來問話莫啟口。只有棒喝無商量。

秀岩贈挺首座

千岩秀出萬物表。下視乾坤一何小。散華無路到諸天。只許青山自圍繞。青山不尋白雲飛。丹崖豈逐春風老。擬問巖中事若何。春來拂曉聞啼鳥。

愚中贈哲藏主

威音已前無正句。何從立許閑名字。愚中之哲哲中愚。意外遣言言外意。摩竭掩室開口難。毗耶一默心自閑。契誥離朱兩俱失。罔象自得同癡頑。癡兮頑兮幾多好。困來一覺和衣倒。鼻息如雷喚不應。開得眼來天大曉。手指東西話南北。肚飢買箇油糍喫。畢竟愚中事若何。直待當來問彌勒。

樂菴贈常首座

世間之樂色與聲。一菴冷淡誰留情。千峯萬峯聳寒碧。道人得之雙眼明。眼既樂兮心亦樂。心空眼空樂何著。無著樂處空亦空。空有華開與華落。華開華落春復秋。世間萬事空悠悠。一菴冷淡只如此。無樂之樂將焉求。是禪悅是法喜。口不能言心自語。木人撫掌

唱陽春。石女含笙和流水。一拍一拍高復低。玉兔搗藥金雞啼。拈出青原白家酒。清稅爛醉如春泥。

月鏡贈滿書記

碧海飛來大圓鏡。吞爍乾坤無少剩。靈山指出未全真。東平打破方相稱。光鏡俱亡是何物。舜若多神露風骨。蚩尤倒走軒轅驚。今古何人敢輕忽。

香巖贈芷首座

栴檀香風滿岩谷。蘭芳芷秀同芬馥。萬木千林競獻酬。鼻觀無聞心自足。道人坐我巖之中。遍身毛孔吹香風。八萬四千身眾海。互相涉入俱融通。舉一毛端眾毛集。一一香光翠雲濕。不出普賢毛孔中。誰道心聞無路入。

夢菴贈一侍者

未結此菴先作夢。夢入華胥選梁棟。菴成夢覺兩茫然。八表十虛空洞洞。或擎拳或豎指。遮莫謾神并諱鬼。金雞啼上玉闌干。山是山兮水是水。

椿庭示壽藏主

春八千秋八千。一瞬萬古何茫然。綠疏含風夜氣肅。朱簾卷雨朝容鮮。濟北豈從穿鑿得。睦州謾自相成全。既然黃檗棒頭。揭出佛法的大意。安用大愚肋下。痛築三拳。總是桑條著箭。柳榦出汁。說甚擔泉帶月覓火和煙。翻身一擲。抹過五天。皮膚脫盡見真實。閻浮猶在海南邊。

古音贈韶藏主

我有太古音。不是今時曲。馬師曾一彈。清風滿林麓。無絃舉手難。絕聽意自足。禪窻春雨餘。依依遠山綠。

中山贈穎侍者

突突兀兀撐空虛。青青黯黯何孤危。不偏不倚露一機。除是頑石無人知。首陽餓夫工採薇。豈識空生巖畔天花飛。噫吁嘻。亘千百載兮其誰與歸。

太虛

太虛無門絕關鑰。扣之作聲鳴剝剝。萬象森羅側耳聽。石人木人齊應諾。金烏東昇兔西墜。天風吹華落香雨。道人燕坐寂不動。笑看須彌同鼓舞。我與太虛真體合。絕點純清離紛雜。電光影裡急翻身。石火星中恣騰蹈。未明此旨成掠虜。靠實說話難提持。直向虛中了真實。始知實外元無虛。虛兮實兮今復古。有相無相何足數。說與聰明道者知。打破將來重捏聚。

空巖

空巖好空巖好。住來歲久無煩惱。蒲團禪板儘相忘。竹杖芒鞋隨起倒。有時坐。選甚少林胡達磨。一念全超曠劫前。不覺日輪頭上過。有時立。水色山光澹相入。拂曉清風劈面來。過雲小雨霑衣濕。有時行。一片夕陽天外橫。信意不知山遠近。躋攀或與猿虎爭。有時臥。曲水枕頭消一箇。不奈多情黃栗留。幾[口@日]好夢都驚破。空巖好空巖好。落華滿地無人拂。人空法空空亦空。如何說與時流道。

雪山

帀地漫天雪三尺。千山萬山齊一色。普賢失却香象王。踏碎虛空尋不得。六花飛入銀椀中。瓊林玉樹光玲瓏。重巖邃谷香草茁。白牛穩臥忘西東。瞿曇半夜逾城去。掉頭不顧金輪位。脫將袈服貿皮衣。回首人間不知處。

牧石

道人牧牛如牧石。鞭索不施終省力。縱然遍界露迴迴。寂爾虛閑還默默。有時一曲溪東西。長堤綠草煙萋迷。人間萬事不入耳。席地且聽黃鸝啼。

空海

覺海無邊空索索。白日東昇月西落。蒼龍睡穩初不知。額下神珠照寥廓。信手一擊百雜碎。騰身已在須彌背。不犯清波意自殊。他家自有通人愛。

自牧

我有水牯牛。生來惟自牧。鞭繩既在手。且免東西觸。原上春草青。原下春水綠。隨宜不多求。得飽意自足。如是三十載。養之頗純熟。豈無他人稼。示之非所欲。毛色日已化。頭角空自全。既不逆人意。又不蹊人田。三春農事罷。一堤楊柳煙。人牛兩何有。庶以終天年。

空漚

覺海澄圓一漚發。起滅無從自虛豁。廓然全露十方空。四生九有和根拔。空自非空離我所。囊栝無邊入環堵。金雞曉拂扶桑枝。玉兔夜輾珊瑚樹。漚中之空空中漚。隨機鼓蕩成沈浮。沈浮本來無實性。六鼈一掣隨金鈎。我開此室還自榜。榜以空漚豈相誑。踈簾半卷篆煙青。三際寥寥餘鏡象。

贈陸平原兼示灑姪諸子

一從海宇吹腥風。三年蹤跡如轉蓬。平原道人情分濃。招我卜築平原中。灑能結搆進負春。矻矻蹇蹇忘秋冬。蠶不滿甕粟不鍾。煙筇雨笠何憧憧。君不見雄峯作息與眾同。大瀉橡栗成禪叢。又不見。栽田博飯楊岐翁。一旦扶起臨濟宗。吾今老矣百事慵。眼昏頭白雙耳聾。不作俗子悲途窮。不圖聞望傾王公。只願皇化浹浴佛道隆。時和歲稔舟車通。飛潛動植得善終。一丘一岳皆天宮。

送壽藏主

世尊祇是付金襴。迦葉何須到剎竿。且喜鳳臺無授受。免教開福有相謾。鵝雛眼底風光別。蚊子眉間境界寬。一擊虛空成粉碎。却來平地滾波瀾。

送英侍者回彰教

禪者三年在侍傍。機先一著解承當。到家不用多言語。叉手惟知聽舉揚。破柱疾雷驚熱喝。倚天長劍發寒光。忽然倒岳傾湫去。方信龍於淺處藏。

慧藏主微格外提持之句

格外提持也不難。面前推倒鐵圍山。祖師鼻孔曾穿却。外道頭皮有甚頑。情與無情都是妄。法非有法自成閑。一毛頭上三千界。知與何人共往還。

復藏主寂照寂

一念無生洞十虛。纔分靜躁即懸殊。維摩室裡金光現。善法堂前寶網舒。舉足便須超限量。到家何必問程途。只今六用成休復。禪板蒲團儘自如。

送輦真巴大師再之補陀

頻伽飛出海門東。日照扶桑萬國紅。法體只如今日見。潮音還與舊時同。天無四壁心何壯。劫有三祇業自空。童子南詢真軌在。杖頭隨處得春風。

送空上人之金山

德雲端坐妙峯頭。山自高寒水自流。三際不興諸境寂。萬機俱泯一心休。舟橫野渡潮聲夜。更轉星河桂魄秋。金錫影搖天地動。潛鱗衝起釣鼈鉤。

答渭友竹寄傳燈錄

劫外真燈豈易傳。祇應滅向瞎驢邊。試從七佛探深委。堪與諸家辯正偏。脫印誰驚文彩露。同風自覺道情全。壽山有眼不識字。留在明窗伴暮年。

次松月法兄韻送京維那歸省龍翔

勛業於君較幾籌。獨知真樂在無求。江西老宿誰非馬。社裡遺民自姓劉。舉話罕聞當路虎。逢人休說過窻牛。只應興化能延敵。不似

群兒輓繡毬。

送淨藏主遊浙

我忘言也汝亦忘言。擘破三玄作兩邊。開口便能吞佛祖。轉身端可利人天。三乘教外機關少。百草頭邊體用全。剔起衲僧行脚眼。大江南北興悠然。

送忍侍者上徑山

不向楊州聽落梅。只思洗眼看全提。山頭頰尾拏雲去。井底黃塵白晝迷。聖解未除猶滯殼。凡情纔盡自忘蹄。諸方五味都拈却。花滿千岩水滿溪。

次韻江心無言方外乾坤

方外乾坤豈易窮。同中還異異中同。萬機不墮境根識。一念頓超空假中。頑石有時能點首。太虛無跡可形容。豁開戶牖歸來也。相見依然在別峯。

靈澄和尚山居偈寶藏主求和

西來無意與人言。開到梅華自換年。三事壞衣殊稱體。一頭華髮任齊肩。行收落葉供茶鼎。坐倚蒲團對瀑泉。世出世間都是夢。孰論身後與身前。

次松月翁韻送承天藏維那禮祖

未了目前須用了。已明心地更何求。巴蛇昨夜吞香象。陝府今朝灌鉄牛。馬祖下人阿錄錄。桐城投子道油油。只今此話無人舉。看盡青山自白頭。

贈隱禪人默法華經

七喻三周一默收。無人能到最深幽。權機可向聲前薦。實相那容紙上求。菩薩涌升金地裂。天龍恭敬寶華浮。豁開火宅光明藏。携手同乘露地牛。

送雲蓋師首座歸隆興

東土西乾妙不傳。現成公案亦昭然。睦州豈是閑擔板。黃檗難教在下肩。南浦鷺華春滿路。西山煙雨翠摩天。諸方脚債都還了。一曲松風兩耳邊。

送琬上人之四明兼柬翠山大朴

蹈遍吳雲志未灰。又思入海看蓬萊。金剛石上頻伽見。玉几峯前窅堵開。問法問心何卓犖。尋師尋友莫徘徊。憑君說與翠岩老。留取眉毛頷下栽。

送璘上人遊四明天台省親

揭翻父母未生前。行脚參方話已圓。萬法不離心地印。好山都在屋頭邊。鄞江有水通三島。方廣無雲見五天。秋滿乾坤風信好。卷衣歸趁浙東船。

次松月翁韻送育王竺首座歸閩

古鄞山中有此郎。揮戈佛日可重光。胸襟政自空今古。尺寸何勞較短長。好箇法門真種草。堪於惡道作津梁。蒲鞋價重無人售。又挈藤枝返故鄉。

次韻送曙藏主禮宏智塔

洞下宗師太白翁。一機不墮正偏中。羊腸鳥道開玄路。白日青天鼓黑風。超越古今端可見。鍛烹凡聖本無功。涅槃後有大人相。山冷雲寒月滿空。

鐵鼓歸根塔

根元非有擬何歸。回首人間萬事非。八面玲瓏無縫罅。十虛磅礴自孤危。空華著處揚真諦。鐵鼓隨時藏化機。未作死埋先活葬。笑看天岸夕陽微。

次韻吞龍翔一首座

寄來佳偈是前年。落落盤珠妙轉旋。嚼碎水霜和字噉。夢成風雨對床眠。縱橫得路誰相委。啐啄同時自可傳。鳳舞龍翔看賓主。出頭天外豈無緣。

送僧省香山雪溪

八月九月西風涼。片帆高掛逾錢塘。眼頭擬覲雪溪雪。鼻觀已作香山香。師資合處形跡絕。知見盡時機路亡。莫學耽源畫圓相。教他馬祖費論量。

用雲深韻謝中竺空海見招

白髮蒼顏委羽翁。稽留峯頂闡玄宗。棒頭日月吞千界。喝下風雷撼九重。爍火且須閑白晝。寸筵何必撞洪鐘。故交總是劉文叔。足壓龍腰自不容。

寄報國無住慧雲木岩萬壽大明

荏苒年華七十翁。與誰握手話先宗。平生朋友二三輩。動隔雲山千萬重。安樂自從撾退鼓。睡來多是不聞鐘。歲寒只有長松在。不為冰霜改舊容。

寄杲宗二侍者

攜李亭東落魄翁。口同心語亦弘宗。金針雙鎖天機密。寶印微開錦縫重。慧照深思三頓棒。羅云再擊一聲鐘。爭如普化風顛子。傳得盤山老漢容。

寄旻春谷

桂子堂前侍乃翁。笑看江漢自朝宗。菱華掃盡風千片。香水飄來雨一重。兜率夢中推鐵鼓。乾城影裡擲金鐘。籌盈石室渾閑事。戶外其如履巨容。

寄演福大用

南天竺國絳衣翁。語默雙忘顯正宗。提起天台中道義。化行華藏十三重。香雲縹緲縈珠網。花雨繽紛撲講鐘。見說年來頭也白。可如

雪後看山容。

寄覺宗聖敏仲膚起滅宗

凜凜高風似睦翁。起吾宗也滅吾宗。發揮濟北龍瞳正。籠絡韶陽鉄網重。雪頂自擎彌勒像。霜空誰扣約齋鐘。城市山林兩奇絕。一湖秋水浸天容。

次東山無際送玫侍者來靈岩韻

後生喜有超方志。恰值岩頭散席餘。留得東山送行語。勝如南岳不通書。和杓托出先呈我。兩手擎回却付渠。擺尾搖頭如此去。何妨密處放教踈。

贈中竺時首座

中峯一个破沙盆。大徹投機廓頂門。掃蕩三玄扶濟北。掀翻百法起慈恩。夢陞兜率如何舉。講得虚空作麼論。晏歲裹糧來伴我。拓開方外立乾坤。

懷龍華會翁福臻希文

弟兄絕跡到南堂。豈是山長與水長。所向自從多險惡。有書無計問安康。何人解展回天力。此日來施活國方。但得河清任頭白。尚須携手話宗綱。

次雪竇華國韻贈明首座

中峰月下出門時。眷眷無言只自知。脫殼笑他靈利漢。破家還我寧馨兒。摩訶衍法談來妙。覩史陀天夢覺遲。海上橫行從此去。重關一試頂門椎。

送光侍者歸廣化

上人親自萬松來。却著雙檣紙襖回。直指宗乘心印在。廣施方便化門開。芒鞋竹杖何多事。綠水青山絕點埃。昨夜春風到南麓。煩君問訊嶺頭梅。

送觀首座歸三祖

白鶴峯高翠插天。灑溪一水碧漣漣。宗門有路人行少。智海無風鑑自圓。山谷石牛頭角露。金容癩狗脚皮穿。險崖機外翻身去。收取蒲鞋舊價錢。

贈雲藏主默誦蓮經

髻年便誦芬陀利。倒指于今二十霜。眼底不存元字脚。眉間自放白毫光。炎炎火宅神通藏。轟轟雲山解脫場。舌本流來建瓴水。一聲聲和鉄琅璫。

送天台玄藏主之江西

此行直到大江西。不用從人乞指迷。黃檗痛施三頓棒。大愚相聚一莖齏。有玄有妙非真際。無正無偏是半提。蹈遍匡廬見衡岳。洞庭霜白水天低。

華頂天心同墳大章至。出似懷蘊怨中之什。次韻二首。一以為東遊之贈。一以簡能仁用章天章用貞

雪壓梅梢卒未消。絕憐紙襖勝麻袍。風生谷口千江吼。月到天心一鏡高。吞爍十虛眸炯炯。倒流三峽辯滔滔。德雲不下妙峯頂。童子南詢幾許勞。

天鏡宏開宿靄消。蘭亭春日試春袍。千鈞力在毫端上。五鳳樓成手段高。蔓草難圖何糾糾。橫流當道正滔滔。東尋禹穴非無興。兩脚年來弗耐勞。

次韻答圓通約之時留天章

死猫頭話久無傳。千里緘題慰老年。句句盡同師子吼。聲聲裂破野狐禪。華開鉄樹春無跡。燄發冰河雪滿川。別有一機煇祖業。不愁無路可通玄。

次前韻答天章用貞文明天民

名實相應豈浪傳。風流堪繼永和年。不離一念觀塵劫。盡脫三灾到四禪。曲水流觴新主客。茂林脩竹舊雲川。墳箎迭奏瘖群響。調轉

胡笳拍拍玄(時約之天民皆辟難於此)。

金襴之外復何傳。末法迢迢一萬年。爛嚼東山鉄酸飴。生吞會祖栗蓬禪。群星拱北天垂象。萬派朝宗海內川。倒却門前剎竿著。從他鵠白與烏玄。

次前韻寄能仁用章寶林別峯

住山鋤斧得真傳。東渡錢塘又一年。插草等閑成梵剎。隨機逆順入諸禪。斬新日月開天鏡。依舊風霆似雪川。老我不吹無孔笛。還伊一語具三玄。

賢首宗中擅正傳。雲腰還憶普通年。盡知潛子能弘教。誰識圭峯早悟禪。電掣一機過劈箭。瀾翻千偈瀉長川。灼然蹈著通天竅。法法何曾落妙玄。

國清栖雲閣

黃獨何心致紫泥。高居自占白雲栖。五峯削出半天上。雙澗勒回孤嶼低。龍作人來聞法去。猿從月落帶霜啼。轉身別有通玄路。南斗東移北斗西。

贈天寧壽首座

曾自雙峩入室來。南湖分座亦悠哉。百非四句從頭剗。萬戶千門盡豁開。碧海錦鱗衝雪浪。青原白酒潑春醅。鉄船打就渾閑事。浩劫真風喚得回。

懷天封一宗龍華友石

我家兄弟唯一宗。連床夜雨難再同。樹金剛幢擊石鼓。用黑豈法開天封。看渠大作師子吼。顧我何有羚羊蹤。龍華補處得勝友。石上頗說南堂翁。

次韻答芷首座

西風庭院散天香。相對忘言意自長。莫遣聲光輕烜赫。好將蹤跡穩韜藏。深思大教頻開卷。仰止前脩只望洋。七載祖庭燒得盡。三邊旗幟尚飄揚。

萬壽愚隱。先天瑞嫡孫。開法中吳。未皇修賀。先勤書問
侑以湯濟。因過其孫仁壽天澤。閱白馬元明偈和二首。一以謝
愚隱。一以贈天澤。庶延聖剛中見之同一笑也

老向荒郊學種禾。不愁不奈祖庭何。三吳旺化逢禪月。一國宗風得
鳥窠。書外有言皆藥石。罽中無地著干戈。盡知師叔無禪道。打鉄
為船理則那。
異畝重觀合穗禾。不知談笑入無何。主賓道協寧存跡。凡聖情忘自
脫窠。雷動九淵摩竭令。日回三舍魯陽戈。瀑花飛作懸河辯。驚倒
龍湫諾詎那。

松月翁。佛生成道涅槃梅檀像觀音五偈。善禪人求和

佛佛同生是此朝。眾生與佛本非遙。不能自用香湯沐。却把渠來惡
水澆。悉達打頭呈伎倆。雲門好棒出心苗。驚天動地男兒事。金屋
休誇貯阿嬌。
自從嚴駕越春城。六載深山志始平。佩項圓光銀漢月。通身寒露玉
壺冰。河沙三昧同時證。剎海真乘一道登。末法師僧不知有。假衣
求食謾騰騰。
大哉無上涅槃門。本自無亡豈有存。法眼親傳飲光勝。宗風不墜釋
迦文。窮玄極妙流聲教。續燄聯芳在嫡孫。打破虛空求影跡。分明
一棒一條痕。
優填只在世情間。真佛何嘗去不還。相好儼然如滿月。雕餽剛爾費
沈檀。未曾舉手功全著。纔涉思惟見不寬。古往今來同一日。煌煌
一座紫金山。
百寶莊嚴妙色身。為依為蔭亦侯甸。聞思修是三摩地。悲智行為千
輻輪。說法自來空物我。散華隨處擁天神。圓通境界無關鑰。小白
香飄海岸春。

送可上人歸省隆教古鼎

圓顱稱釋子。難遇是明師。鉢水投針處。須彌輞芥時。無心同鏡
像。脫穎見囊錐。豈謂南詢後。重安眼上眉。

次韻答伯儀張教授

危言竦縉紳。真氣掃邪氛。未展圖南翮。先空冀北群。尋僧言大道。渡水到深雲。三教從何立。窮源自不分。

贈岡書記

一字不著畫。相看眼似眉。難教夫子會。只許老胡知。文彩全彰處。機輪妙轉時。十方俱一照。石火太遲遲。

贈端禪人默蓮經

掩卷轉蓮華。寧論歲月賒。未明窮子喻。難到法王家。雨露無高下。根莖有等差。頭頭開示處。功行幾恒沙。

次韻送心侍者

欲作宗門客。先須發大心。苟非師子吼。那副象王任。著著超方處。頭頭顯妙音。豁開行脚眼。山海未高深。

和晦機和尚韻贈定上人

大海波心立。千峯頂上行。芻襟無日月。手面有權衡。梅柳春光動。湖山雪意晴。那伽定中句。全死又全生。

和松月法兄韻送明首座遊五臺

蹈著臺山路。真成汗漫遊。劍眉何凜凜。殺氣只浮浮。可數無餘子。難當這一頭。曹溪好風月。碧淨冷涵秋。

次韻送阜上人

一日復一日。千山又萬山。要明心地印。須透祖師關。道韻誰堪並。塵緣自絕攀。權衡俱在手。應笑管窺斑。

送顯維那禮五臺

驀直臺山路。誰誇陷虎機。未言先勘破。携手即同歸。師子空中現。頻伽脚下飛。天華政多事。繚亂撲禪衣。

次韻贈蔣山輔侍者

不住朝廷寺。閑居近道傍。依然遇賓客。顛倒著衣裳。沉爾鍾山至。難將北斗藏。鷹窠出威鳳。談笑發天香。

送緣藏主之金陵

息菴息不盡。又欲去金陵。宇宙空雙眼。江山老一藤。發揮無盡藏。紹續祖師燈。莫學暹禪者。無言戀碧層。

示昂禪人

要明行脚事。不用別馳求。滅得偷心盡。方知道念周。蕩蕩空三際。昂昂出一頭。懸崖能撒手。脫體更風流。

次韻贈志侍者

把住犀牛扇。堪稱席上珍。莫為斷佛種。須作利生因。百煉金除鑛。重磨鏡絕塵。飄然來又去。一箇自由身。

次韻贈本侍者

啐啄相投處。難教子母知。斯須能不異。遠大始堪期。自信皆由我。群居更問誰。八紘雲散後。一月正流輝。

次韻送宗侍者再參蔣山

大法宜修學。明師勿久離。須知末後句。不是最初機。掛拂遭呵處。升堂卷席時。紙衣抄不到。携手孰同歸。

次韻送檀維那

道人曾法戰。叱咤破金城。去就鴻毛重。勛名海岳輕。餅盂過攜李。節候近清明。百越三台路。徬羊不計程。

次韻悼感聖雲菴

之子喜不兼。持身只守謙。開門臨野水。為客卷疎簾。古寺如風穴。宗乘繼此菴。話頭元自在。今後許誰拈。行脚走三千。探珠下九淵。倒拈苕帚柄。痛掃野狐禪。已辦今生事。還思未了緣。老胡真軌在。挈履過西天。未來先寄信。欲去又牽衣。白髮憐吾老。朱顏借爾輝。有懷弘道統。無命與時違。千聖頭邊路。還同把手歸。

勉菴贈邵上人

要會此門風。須憑策勵功。孜孜忘早夜。矻矻感秋冬。自棄溝中斷。相成爨下桐。一拳恢活業。千古繼先宗。

鈍潛贈穎上人

鋒芒都去盡。似兀又如癡。萬境不相到。一真聊自怡。忘機猶罔象。藏密是便宜。自昔知音者。獨存王老師。

次蔣山正宗韻送琦侍者

扇破索牛兒。千鈞弩發機。正宗誰復論。秋月自揚輝。礎杵千家動。雲天一鴈歸。西川回未得。易服問東碕。

竺元和尚山謳四首。壽藏主求和

投老無所營。身安萬事足。雖承教外傳。還把楞伽讀。東峯多土酥。西塢富溪蕨。一飽謝塵世。焉用銜花鹿。茫茫六合中。箇箇無非客。一人萬夫敵。六馬御朽索。魯陽不揮戈。白日即西落。咄哉老趙州。八十方行脚。我有無絃琴。中含太古音。豈無少林曲。不入時人心。白鶴千年歸。丹鳳一日吟。嗟嗟精衛子。弗顧滄海深。我有無孔笛。有口誰解吹。吹者不易得。聽者誠難知。空山晝寂寂。草座春依依。一箇黃栗留。啼上高高枝。

禮應菴祖塔

不受雲居腦後錐。却來虎穴奮全威。關情最是梅陽老。遙付楊岐五世衣。

禮大梅祖塔

爛梅無色又無香。碎嚼猶堪誑老龐。筭定馬師三寸舌。倒流東海入西江。

和皎首座雜言韻

一靈不昧古猶今。妄想塵塵自陸沉。合浦明珠生蚌腹。涼秋白月到天心。
得失雙忘語意真。當機拶倒主空神。千門萬戶無關鑰。八臂那吒現半身。

送光知客歸雙溪

入門深已辯來風。莫是機先有路通。後夜雙溪弄明月。却疑身在水晶宮。

悼報國希白和尚

無常既到趣行裝。浴罷更衣即坐亡。潮落海門新月上。不知全體露堂堂。
大涅槃城此日開。廓周沙界淨無埃。為人方便知多少。親切無如者一回。
四大分飛五蘊空。此時端可定綱宗。廣長舌相吞寰海。伸出炎炎火聚中。

送德茂鑑三禪人禮祖

湘南潭北路悠悠。不若春風百草頭。後夜匡廬看瀑布。大江如練月如鉤。
五葉流芳滿大唐。黃金靈骨轉難藏。鐵鍬正好頻提挈。休問湖南塚子長。
祖師靈骨徧乾坤。一段光明徹曉昏。鑑在機先如不會。却成容易上人門。

和竺元和尚閑居雜言韻

童子南詢錯較量。又尋初友見清涼。眼睛只在眉毛下。庭際春深草自長。
于時無夢老巖房。問道何須太著忙。據令提綱成特地。聽他梁燕說真常。
世路難行滑似苔。山居容易得心灰。時人自是不肯到。老子柴門終日開。
寒山拾得是勅敵。百靈龐老非同參。雲自高飛水自下。馬頭向北牛頭南。
皮髓碎分憐鼻祖。箭鋒相拄笑三平。八坳九埕山中路。只許孤雲管送迎。
金剛正印獨心傳。不在威音大劫前。數筆遠山滄海日。一溪流水綠楊煙。
拾枯煑雪烹月團。博山煙細瓷甌圓。香巖大仰小伎倆。原夢直到瀉山前。

示僧

六十蒿枝痛不痕。攔腮一掌為知恩。虎頭虎尾齊收處。三世如來總滅門。

送僧

雪曲陽春調未高。海天空闊看鯨濤。轉身蹈著通玄頂。八十翁翁著繡袍。
形山有寶莫他求。坐斷乾坤百念休。飛瀑界開千丈石。亂雲堆裡看龍湫。
馬師一口吸西江。昨夜三更月到窻。懶攢巖前黃獨火。春風吹長葛藤椿。
廬山山下大江橫。帆飽東風水正生。翠堵波中無佛祖。虛空背上有人行。
今無受也昔無傳。一句全超曠劫前。未入門時先辯的。大江煙水碧連天。

次韻悼華頂無見和尚

世出世間無別法。涅槃生死豈殊途。祥麟掣斷黃金鎖。萬里長空桂魄孤。

短髮毵毵耿夜光。身前身後總堪傷。頂王三昧無人見。空使波旬笑一場。
海天空闊暮雲低。華頂峯高北斗齊。月照石床群動息。夜深還聽木雞啼。
擊碎渾崙吐又吞。此時消息許誰論。霜鯨喚醒輪迴夢。業海無邊佛本根。

送魁藏主歸省竺元和尚

鄮嶺真傳一暮翁。擘開千嶂倚長松。羚羊掛角無蹤跡。逐塊韓獹豈易逢。
根塵脫盡耀靈光。日用何曾有覆藏。路入籙峯三月盡。好風吹綻百華香。

送靜維那歸越上

三過堂前法戰回。鑑湖風月擁高臺。水華不著閑塵上。還許青山送影來。

析玉峯講主送小師皓侍者偈

教門深廣若塵沙。說妙談玄路轉差。凡聖兩忘知見盡。大千都是法王家。
容易如何得到家。百城煙水渺無涯。脚跟未動筍鞋破。涼月正高松影斜。
子去要須明直指。即是杪樞塔廟東。拈起別峯相見事。講臺華雨正濛濛。
靈山只是笑拈華。出窟金毛弄爪牙。辟歷一轟天地黑。坐觀巖電掣金蛇。

送相胤慧明四禪人之金陵

寶珠峯下是金陵。煙水遙連鐵甕城。今古幾多興廢事。江山無口為君評。
百尺層臺古意深。隔江煙靄暮沉沉。鳳皇不作梧桐老。疲馬自嘶楊柳陰。
真慧華敷覺苑春。月林星渚淨無塵。世波不動安禪石。雲葉偏隨自在身。

道過雪竇不歸鄉。強項仍饒硬脊梁。落日古臺三百尺。六朝煙樹鬱蒼蒼。

送炬禪人歸省瑞岩萬里

惺惺石上舊因緣。落在闍梨父子邊。九萬里程歸一瞬。海天霜夜月孤圓。

次韻示興平二禪客

當機突出句中玄。語默商量總未然。推倒門前案山子。闍浮樹在海南邊。
擬報人間兩不平。脚跟正好喫烏藤。春光只在梅花上。何用重敲火裡冰。

病中

病無起處藥無靈。四壁秋聲獨照燈。五濁世中安樂法。分明說與枕頭聽。
胸中不著元字脚。室內自生金色光。三際湛然諸境寂。屋頭風撼鐵琅璫。

追和西丘太師祖梅屋偈韻

大白山頭第一層。一枝春信見無能。何年飄落人間世。散作長街六月冰。

送脩知客

脩無脩句如何舉。門裡出身身裡門。千歲岩前歌一曲。天香桂子落紛紛。

送靜上人歸雲門

明知靜是真消息。却要橫身鬧市中。一箇白雲無住著。又隨孤月掛長松。

送忠侍者省師

秋高木落鴈聲稀。天外忻逢白鳳歸。紙襖莫教文彩露。阿師全用險崖機。

和訥無言十二時歌韻

十二時誰與知。眼上隨分安雙眉。神珠謾逐黑月隱。白雲自傍青山飛。

半夜子。睡著是人呼不起。清風皓月四簷秋。輸我幕天廉席地。
鷄鳴丑。錯認七星為八斗。馬駒踏殺天下人。石頭可是能真吼。
平旦寅。一窻紅日破群昏。幾多猶作夢中夢。一炷清香為返魂。
日出卯。只箇平常心是道。眼中童子面前人。斑白何須讀黃老。
食時辰。白頭傾蓋無故新。向來梵志語言好。吾猶昔人非昔人。
禺中巳。知音賴有寒山子。拶倒毗耶不二門。上大人兮丘乙己。
日中午。三十三天擊天鼓。乾闥婆王總未知。迦葉無端起來舞。
日昃未。敵體有誰分觸背。萬機休罷即歸來。一法何曾在門外。
晡時申。一喝當機體用分。不知雪嶺同風句。何似雲門透法身。
日入酉。暗裡也須垂隻手。見聞都道透根塵。舌本何曾離得口。
黃昏戌。萬象森羅同一律。月明照見夜行人。一二三四五六七。
人定亥。八穴七穿堅固鎧。鬼山之下驀翻身。抹過無邊香水海。
阿呵呵。見也麼。有佛無佛須經過。飢來喫飯困來睡。天上天下如吾何。

四威儀

行不與人共行。蹈著脚下苔生。堪笑空生未了。無諍還同有諍。
住不與人同住。鐵鞭擊珊瑚樹。山中明月一家。門外白雲何處。
坐不與人共坐。省得脩因證果。解開三篋肚皮。贏得口吞飯顆。
臥不與人共臥。惺惺何若慳懼。待得玉兔走來。不覺金烏飛過。

次韻送滿鎮成康四上人

禪子心如滿月明。定乾坤句合相呈。三千里外親携手。九曲黃河徹底清。
滿懷傾出鎮海珠。仰山却道無言語。爍破乾坤驚倒人。雪裡芭蕉不知暑。
欲成大樹作陰涼。撥草參方道念長。回首宜春臺畔路。胷中知見自含香。

千岩萬壑趣何多。戲海金鱗出網羅。滿院清香噴簷蔔。莫教孤負老維摩。

送金山栢首座禮峨眉

金鼇背上急翻身。西望峨眉道念淳。要識普賢真面目。碧天霜月帶重輪。

資福道元法兄惠筆且謂少助貫華之興答以二偈

坐斷禹泉正令新。猶能把筆寄陳人。何如自用腕頭力。點出嵩山萬古春。
遠遣宣毫助貫華。要看靈豔吐天葩。老來無許閑心力。此事而今付作家。

癡絕翁所廣白雲端祖山居偈忠藏主求和

閑居無事可評論。一炷清香自得聞。睡起有茶飢有飯。行看流水坐看雲。
夢回樓上曉鐘鳴。落月穿窻夜氣清。政喜世間緣業盡。靜聽童子課經聲。
淨智如如本妙圓。不分凡聖體皆然。只今六用俱休復。即是威音大劫前。
一性虛閑百念停。剩將雙眼掛空青。深村院落無塵土。萬本長松繞石屏。

送訖藏主禮永安塔

掃空邪說顯真乘。只有藤州一箇僧。試看永安山裡月。只今猶是著書燈。

寄報忠直菴

不赴芝雲也自高。鴛湖且可泛輕舸。長竿留取釣東海。一舉三山連六鼇。

寄謝石山孤月雪山

風月平分豈等閑。倚天長劍在眉間。可憐鷲嶺拈花日。只有頭陀解破顏。
心月孤圓道念堅。自應般若有因緣。超然迴出塵勞外。不見南堂也會禪。
萬里青霄一桂輪。照空群象淨無塵。滿身風露不知冷。光境亡來有幾人。
紹續宗風在己躬。掀翻藏海十三重。須知佛祖垂慈處。超出情塵語路中。
黃岩淡葛偏宜暑。絕勝青州做得衫。却寫伽陀遠相報。前三三與後三三。

贈宗嵩妙三上人

參禪學道悟真宗。三要三玄一句中。舉步蹈翻千聖頂。碧天紅日自西東。
千峯影裡看嵩山。正是秋風落照間。大地撮來如粟粒。曾郎不是誑癡頑。
妙唱不搖三寸舌。真機只在一毫端。頂門豎亞金剛眼。六合還從掌上看。

送尹侍者

高披紙襖出南湖。空盡塵勞一物無。好向金陵訪知己。前頭大有赤鬚胡。

次天寧空海韻送珂維那

袖裡金鎚解放收。風光盡在月波樓。豁開兩眼空寰海。帷幄毋勞更運籌。

送南華立首座

曹侯溪上南華寺。那羅延射豎洛叉。半座平分風與月。寶林輝映衲袈裟。

雨窻示聚上人

空階滴滴雨中聽。不覺思量到鏡清。迷己眾生多逐物。不知真聽本無聲。
滴滴空階妙指陳。返聞聞後見全真。後生未達圓通境。莫謗如來正法輪。

悼建長竺仙法兄

五住招提盡大方。座中冠蓋擁朝行。雷音遠震扶桑國。繕寫歸家作寶藏。
承虛接響喚來來。把得瓢苗石上栽。二十餘年真一夢。海風吹得訃音回。
難提結就稜伽頂。个是東方最勝幢。活葬死埋但了了。者回推倒葛藤椿。

送心侍者省雲岩

藥山室裡弄師子。不出雲岩手段高。萬仞崖頭輕返擲。却來平地起風濤。

送明藏主遊廬山

一大藏教是切脚。正文畢竟許誰明。大江直上三千里。突兀康山照眼青。

送壽首座

兜率宮中說夢回。幡竿尖上舞三臺。釋迦老子不知有。白牯狸奴笑滿腮。

聞北山悅堂歸東禪兼簡永懷岳雲

卷衣歸食故山薇。誰似山翁解見幾。養得身心同孺子。自栽松竹護禪扉。
纔話休居憶永懷。白頭兄弟已生理。村田角落凶年裡。馬麥風規自偶諧。

次韻答中山行可西國古航四友

睦州擔板志彌敦。接得韶陽嗣老存。多少後生遭落賺。一時埋沒向宗門。
花擘將來鐵突崙。劫空空劫鎮長存。龍睛鶻眼何曾會。三世如來共一門。
出得一番白汗了。平生毛病盡無存。神醫拱手巫咸走。不信膏肓是活門。
祖翁一箇破沙盆。東挈西提活計存。煨藥煨湯又煨粥。絕勝騎馬傍人門。

次松月法兄韻送行宏二上人

巧織吳姝不用梭。鴛鴦擲出奈渠何。郎君子弟爭先看。箇箇齊穿水上靴。
正愁吾道少人行。江上俄然見雨笠。說與捧爐神著便。莫教翻却煮茶鐺。

覺首座送松月翁遺硯至作偈贈之

法社凋零法運衰。法燈已滅法幢摧。人天慟哭波旬笑。狼藉春風又一回。
電光影裡急翻身。剎海真成一聚塵。遺我陶泓亦何用。尚須磨盡世間人。
雲門拄杖化為龍。飛入曹溪硯水中。鼓得風雷動天地。依然皓月掛長松。
無位真人乾屎橛。正法眼藏破沙盆。爭似曹溪寧馨子。金香爐下鐵崙崙(此本心悼偈之句也)。

次淨慈平山贈祖灑首座韻

長憶盧公倚石屏。無邊風月滿懷清。何如智覺懸宗鏡。半座平分接晚生。
湖上千峯列翠屏。湖中秋水帶霜清。永明宗旨無今古。細浪含風取次生。

次龜峯道元韻悼薦福竺源禪師

戴角披毛異類身。全生全死顯全真。巢湖水涸魚龍泣。去作他方轉化人。

五濁波中駕鐵船。須彌峯頂浪滔天。一聲鐵笛三千界。彈指人間八萬年。
去無所去與麼去。法門折却擎天柱。來無所來應再來。煩惱海中傾法雨。
鐵蒺藜椎當面擲。優曇鉢華火中開。可憐滯殼迷封者。盡逐聲前句後來。
大闡宗風只一拳。蕩除露布葛藤禪。南巢湖頭五六月。水滿長街雪滿天。
黃金真人鐵面相。弗立一塵重掃蕩。涅槃城外展生機。春風不在花枝上。
入佛何妨又入魔。知他為我我為他。定盤星上論輕重。斤兩元來不較多。
宗說俱通不二門。當機一喝怒雷奔。金圈栗棘閑家具。驗盡師僧鐵鵝崙。
巢湖番水定宗綱。引得波旬笑一場。三際斷時心行滅。通身是口錯論量。
真誠意思脫空歌。滅處成添少處多。萬里碧霄雲散盡。一輪霜月照松蘿。

寄九巖道純兼簡石佛清遠

石佛擡眸看九巖。弟兄情分自相諳。遙知話到難難處。抹過前三與後三。
春雨春山箏蕨肥。不知塵世有危機。何當借與安禪石。同看孤雲自在飛。

聞明巖穆菴出世

衣到松源更不傳。一生只是捻空拳。如今兩手都分付。密意明明在汝邊。

送忠藏主

暮春燈下重相見。話到三更又四更。待得鷄鳴便分首。大江東去不勝情。

寄景山岳雲

無愧軒中無愧翁。將無作有自融通。誰知千里同風事。不在玄沙白紙中。
屋裡溪聲屋外山。一心不動萬機閑。只知坐得蒲團穩。不覺高風滿世間。

悼定慧大方

佛日西傾不奈何。奮身揮起魯陽戈。向來入空操戈者。火後爭收設利羅。

彩鳳翻空出盛時。金烏爍破五須彌。全身跳入火中浴。後世無勞問髓皮。

吾衰不復夢周公。公識吾衰豈夢中。勝熱高風冠今古。硯池無底火燒空。

善惡由來只兩岐。閉眸作夜亦奚為。鄭公筆力堪扛鼎。來寫禪師活化碑。

(按鄭明德所撰銘。其略云。至正十六年春。師出世住平江定慧。時方兵興。戎旅占住佛屋。緇徒多戚戚者。師曰。何不休去。歇去。師語默跌宕。不可測識。謝院事。客靈岩山華首座房。盛稱路總管周侯義卿之賢。且曰。我將火化。須侯作證明。十八年九月八日。侯以郡事登靈岩山時蘇錄判善長。賈典史天瑞從。師聞侯至。欣然出迎。陪侯夜話曰。某將此月十四日。即此山火化。侯其為我證明。兼吾教下衰。侯念佛世尊付囑國王大臣。為法外護。侯慎無忘此言。至十三日。復以詩寄侯。詩曰。昨日岩前拾得薪。今朝幻質化為塵。慇懃寄語賢侯道。碧落雲收月一痕。侯雖得詩。亦未深信。復以偈決別眾人。是夜請於華乞以燥薪疊高棚。仍借一龕坐去。華謂薪當從命。龕則無有。指前一木床語華曰。此亦足矣。華如師言。十四日朝登殿與眾僧別。即登柴棚兩[褒-保+田]皆析燥薪。薪得火即烈燄熾然。於大火聚中。其祝香有曰。靈苗不屬陰陽種。根本元從劫外來。不是休居親說破。如何移向火中栽。於烈燄中。度數珠與華曰。聊當記憶。於是僧俗四眾。始驚信拜禮。煙燄所至。多得舍利且聞異香。身盡火滅。骨骸不壞者二。舌根齒牙。侯聞驚怛不已。為悼章二。且為建塔靈岩。乞為之銘云云。別眾偈曰。前身元是石橋僧。故向人間供愛憎。憎愛盡時全體見。鐵蛇火裏嚼寒冰)。

兵後過三塔即事

雨後駕湖入望長。巋然猶是魯靈光。有無願力如何說。只聽風甌為舉揚。

次韻答景山南洲

空盡塵緣一草菴。且無佛法許人拈。蘭峯老子情懷好。華偈時時到水南。
大是招提小是菴。最關情事未曾拈。一千七百野狐話。今日何人在斗南。

志清隱至贈以四偈

未來相見早開懷。何用橫機拶險崖。竺國不傳唐土信。自家門裡隔天涯。
二十年來話始圓。不知竇八布衫穿。掀翻海岳求冤對。擘破虛空作兩邊。
大而無外小無中。明暗雙忘體用空。薩埵競酣三昧酒。獼猴自具六神通。
天無四壁地無門。栗棘拈來吐又吞。百草頭邊千聖眼。祖翁一箇破沙盆。

次韻答雪崖

森羅萬象作參隨。北斗南辰位弗移。瞥轉機輪上頭看。此心只許老胡知。
話頭那復究離微。妙處難教佛祖知。一片雲間不相到。轉頭人境已都非。
不用欣欣不用悲。今何時也古何時。九還丹外無真藥。換盡凡胎莫厭遲。
處世難為是強顏。有懷須到古人間。閑人自有閑人骨。不是閑人不易閑。
三界無家總是賓。道存何處不相親。滿身塵土寧須洗。洗到無塵正是塵。
水因風動靜無時。山與雲高不自巍。彼我兩忘心跡泯。杳然長與世相違。

次前韻答芷首座

無邊風月自追隨。看盡江山脚未移。榔栗杖頭消息在。莫教容易使人知。
鵝眼龍睛妙入微。未曾拈起已先知。五年隔闊重相見。一句當機掃百非。

方今佛法最堪悲。正是叢林掃地時。誰與天宮問彌勒。利生時至莫教遲。
幾年不得見水顏。只隔俞溪一水間。看得清平時節近。未應長似老僧閑。
荒郊無可燕高賓。道術相忘意自親。提起祖機千七百。幾何曾未透金塵。
平田淺草轉身時。蹈著孤峯萬仞巍。莫怪南堂衰颯甚。從來無順亦無違。

懷仲文覺民一宗三弟

大雄山脚斷飛鴻。華頂峯頭路不通。七十二翁天一角。隣雞三唱五更鐘。

次韻答景德雲海法兄

白粲挨開苜蓿盤。貫華翻水墨光鮮。早來打鼓普請看。塞破華亭載月船。

常山銘贈真藏主

猗與常山。不變不滅。寂然靈然。有若其截。匪見其始。孰觀其終。鑽之仰之。維堅維隆。既極其踵。復徹其頂。廓然大觀。默然自領。華開葉落。春去秋來。一瞬萬古。惟常山哉。

坐禪銘示琳藏主

四威儀中。唯坐最安。眼如木[木*突]。口似磔盤。外絕諸緣。內心無喘。三際泊然。一真自見。父母未生。是此面目。了了常知。不背不觸。我即諸佛。諸佛即我。猛著精神。毋事慵惰。昏荒睡眠。癡暗之獄。馳驟攀緣。猿馬之屬。性體昭廓。前境自忘。隨機應變。光明之幢。

虛白銘示杲侍者

一真法界。含吐十虛。洞然明白。不隔毫釐。即虛即實。即白即黑。性相平等。體用俱寂。寂而常照。以觀其微。照而常寂。以觀

其妙。行住坐臥。不離是中。是謂無用之用。熾然作用無功之功。大哉聖功。爾道人果入此三昧於一切法乃得自在。

瑞田銘贈祥上人

惟我瑞田。不耘而秀。靈根固深。異苗翻茂。匪木匪芝。芳騰四時。合乃同穎。分而兩歧。雨露霜雪。不失其節。刈穫春炊。慰彼飢渴。詎田能瑞。我瑞于田我亦。何有化育。之元。

清隱銘贈志藏主

水之清能鑑乎物。心之清。物莫我汨。吾固知隱於道者與時偕行。不悖不忽。政不在食首陽之薇。而後見夷齊之風骨。噫嘻。碧海澄秋兮神山突兀。

少林銘贈効藏主

道人伊何。少林是效。行解相應。宗說俱到。三乘教外。獨傳此心。芳聯燄續。耀古騰今。舍而他之。無乃自欺。反己而觀。物莫我遺。觀者何人。心是何物。斫水求痕。捫空揣骨。心思路絕。言語道斷。廓然現前。月當霄漢。大哉少林。列聖所欽。八紘無際。萬年垂陰。

友石銘贈琪侍者

有美如琪。而友于石。磨錯之至。光潤外射。豈無厥質。昧于脩治。日月既逝。悔亦奚為。士之於道。其可自忽。念茲在茲。前佛後佛。

此宗銘贈任首座

猗與此宗。天然而妙。無正無偏。有用有照。如大火聚。不可近傍。如塗毒鼓。聞者皆喪。一門超出。萬古徽猷。鷲峯倒卓。曹溪逆流。

竺先銘贈元侍者

威音已前。五竺之先。是第二句。孰知其然。釋迦未出。達磨未來。拈華了也。斷臂何哉。於此透脫。全機與奪。上下四維。橫該豎抹。優曇鉢華。九枝秀草。青天冥冥。紅日杲杲。

聽松軒銘贈聞首座

松本無聲。因風而鳴。乃若廣樂。張之洞庭。我耳本靜。物來斯應。心精遺聞。默默自領。彼既無作。此亦奚受。一根返元。六用仍舊。松之青青。風之冷冷。爾聲爾色。孰經孰營。聲不自聲。色不自色。由我見聞。乃彰爾德。爾德不有。我心亦空。淨洗兩耳。聽此松風。

北窻銘贈旻首座

北窻下羲皇上。寂寥寥明晃晃。有清風來莽蒼。琴無絃松自響。或禪那或梵放。不求真不斷妄。忘能所滅影象。擔板漢難近傍。擬入門拶折膀。

西軒銘贈立信中

少室西來。單傳直指。以心印心。如水入水。後代兒孫。以曲為直。不辯東西。豈知南北。非信不立。道在其中。神而明之。廓然大通。是故此軒。以西自榜。有問如何。痛領一掌。

蒲室銘示毅本中

猗彼道人。編蒲養親。直以佛法。[田/卅]之雲門。法有以付。親有以報。古之今之。是則是效。我築是室。以名配實。巨履小履。惟縝惟密。粥之得金。甘旨是任。匪甘匪旨。聊慰我心。舊蒲既盡。新蒲既續。事親之心。何日而足。臥冰泣笋。勞而罔繼。惟此室蒲。欽于世世。

心華室銘贈吾藏主

異哉此室。燦然心華。萬境空寂。三際不譁。極小同大。隱若毗耶。客來問法。活火煮茶。視彼一默。殆無以加。於斯妙悟。智山法芽。趣解脫道。住法王家。我作銘言。永矢弗誇。庶幾覽者。墮彌戾車。

真際銘贈詣首座(道初)

凡厥有生。同一真際。覺妄為因。能所斯蔽。既失正覺。反合塵勞。棄本逐末。舍父而逃。從冥入冥。由妄續妄。苦海沉淪。死生流浪。豁然靈悟。合本妙覺。覺妙元明。無脫無縛。真以妄立。妄滅無真。凡名聖號。幻影毛輪。幸自元無。若為打破。更問如何。泥多佛大。

覺照銘

覺而常照。照而常覺。一性圓明。萬機昭廓。覺者為誰。照者何物。能所頓空。全體出沒。不於三界。而現身相。乃知此室。無背無向。經行坐臥。常在其中。匪召而應。風虎雲龍。

硯銘并序

雲岩經藏記。黃太史為死心禪師作也。有以其親墓誌。劖于碑陰。死心見而詬之。辟歷析其半為灰燼。而藏記儼然。厥後藏殿回祿。碑亦不存。抑有數爾。天曆間治殿基。僧於深土得小片。吾友秀實翁求得之。斲而為硯。三分其厚。廣則十倍之。縱又倍其廣之半。秀潤如紫玉。背有佛字。實魯直書也。求余作銘。銘曰。火炎崑岡。玉石俱焚。其不壞者。粹然而溫。斲而為硯。天葩吐芬。覆視其陰。有佛之文。匣而藏之。不見其跡。炳然金軀。隱于聚墨。善知眾藝。四十字母。於以發之以迪群有。

性空銘

諸法本來。空無自性。一句當機。十方普應。四十九年。橫說豎說。石上栽華。水中捉月。作是觀者。名為正觀。翠微禪板。臨濟蒲團。

密室銘

於穆是室。綿綿密密。八面四方。針筭不入。別有一機。電激星馳。大千剎海。不隔毫釐。左轉右轉。即隱即顯。山冷雲寒。波澄月現。

大冶銘

大冶洪爐。星飛火迸。點鐵化金。鍛凡鎔聖。萬鈞之器。何莫由斯。一模鑄就。豈假鉗鎚。不有其體。孰彰其用。道合乾坤。風行雷動。

介石銘

孰據於德。介然如石。將從之遊。以究厥極。石兮石兮。其介若此。人兮人兮。胡不相似。我心匪石。不可轉也。地老天荒。孰知予者。咨爾介石。持之有常。匪玉其蘊。而有耿光。

則堂銘

我此法門。以悟為則。一室洞開。中虛外寂。絲毫繫念。瞥起情塵。六鑿交鬪。三途業因。一心不生。萬境自淨。燕坐其中。是大圓鏡。博山煙滅。午鼎風傳。草深一丈。真規凜然。

知足軒銘贈燈藏主

受想坑穽。色聲鳩毒。何以處之。安分寡欲。智照戶牖。法堂床褥。壞衲纏身。甘露實腹。澹然無營。物莫我瀆。月冷風高。山明水綠。是故此軒。名曰知足。

鑑止軒銘

欲觀乎動。必鑑其止。我性本靜。有若此水。前波既息。後波不隨。鑑兮鑑兮。清且漣漪。六窻洞開。宿雨初霽。止兮止兮。海印三昧。

性空銘

自性元空。不可描貌。一念不生。何其昭廓。清淨本然。周遍法界。入此法門。自忘知解。寒灰烈燄。槁木陽春。聖凡情盡。覲體全真。

白雲山舍銘贈墳書記

青山之青。白雲之白。舍於兩間。亦孔之適。實際理地。不受一塵。而山而雲。幻影毛輪。舍者為誰。適亦何有。一心不生。萬法

無咎。三際一息。大千一區。吾非斯人。其孰與俱。

涵春室銘

我此環堵。中虛外密。一爐松火。半窻紅日。擁衾而坐。展脚而睡。豈不懷思。立雪斷臂。仰高而跼。俯厚而躄。融融涵春。乾乾夕惕。

山堂銘

天目之山。綿亘千里。磅礴逶迤。屹然東峙。偉哉崇福。踞乎其陽。惟茲夢菴。始構斯堂。八窻既闢。萬景獻酬。亦有師賓。能如西丘。西丘已矣。遺風麴麴。何以銘之。高山仰止。
了菴和尚語錄卷第七

法語

小師比丘 景毅 大圓 等編

示欽維那

士之慕於道者。日用夤然與流俗異。鞠其所存。未始不由忱信痛敬。而能致然者。雖安利勉行之不同。其為敬信則一也。何則非敬則無以起信。非信無以成敬。始於一念。終於永劫。而莫我渝者。其唯大丈夫哉。嘉禾欽維那。頃嘗從予遊。澹靖淳謹。切切於斯。乃以敬菴榜其室。求余發其義。以道其至。庶幾不陷於邪妄之域。予既憐其誠而壯其請。謂之曰。大哉敬乎。三世聖人。歷代開士。莫不自此而出。三千威儀。八萬細行。莫不自此而生。神通光明。辯才智慧。菩提涅槃。真如解脫。莫不由斯而起。三途六趣。生死輪回。煩惱塵勞。無明惡業。莫不由斯而斷。斷無所斷。無所不斷。起無所起。無所不起。生無所生。無所不生。出無所出。無所不出。如是了知。如是成就。於法於心。離諸執著。所謂是真精進。是名真法供養如來。豈惟天台智者。親見靈山一會。儼然未散。當知山僧即今與汝。向多寶塔中。平分半座。如是如是。雲開日出。不如是不如是。地裂天崩。如是中有不如是。不如是中却如是。打失鼻孔。換却眼睛。欽維那。惺惺著。他時後日。莫受人謾。

示寶藏主

學此道者。大貴精敏而沈潛。精敏而不為物惑。沉潛而不與物競。不為物惑。則虛而靈。不與物競。則寂而妙。然精敏沉潛。亦豈易至哉。良由內見通明。前境湛淨。莫非夙有靈骨。具大智慧。觸境遇緣。不待照燭。而諸法自泯。六根互用。一體同觀。不滯不著。離諸色相。所以觀自在。行深般若。而五蘊皆空。度一切苦厄。便是者个時節。者个時節。不從人得。只消日用現行。常自檢點。世出世間。何處有一法可得擔帶。直是淨裸裸赤洒洒。上無攀仰。下絕已躬。常光現前。壁立萬仞。如大火聚。一切物近傍你不得。如太虛空。一切物栖泊你不得。自家涵養。資人鍛鍊。却要就本色爐排。惡辣鉗鎚。發大勇猛。不退不怯。自然久久入妙。堪為法器。非惟自利。亦可利人。回入塵勞。普攝群有。總是菩薩不思議解脫。

境界。又何佛法玄妙。向上向下之足芥蒂耶。古人道。得坐披衣。向後自看。決非小緣。却須努力。

示臬藏主

學道之士。為生死未明。尋師決擇。自非志量宏遠。氣岸卓絕。未免半信半疑。半進半退。終而無益。李都尉云。參禪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直趣無上菩提。一切是非莫管。須是恁麼始得。

人身難得。正法難逢。既得人身。又逢正法。於此不堅確勇猛。究竟到百了千當處。誠為無知人也。無知之人。與草木何異。以余觀之。草木尚有用。無知之人。將焉用乎。無用且置。然而自暴自棄。汨沒生死。何時而出。可痛惜也。

禪是斷生死底刀子。禪是解執結底觸子。禪是辯妍醜底鏡子。禪是斬邪妄底劍子。禪是伐荊棘林底斧子。禪是破怨敵底策子。禪是成佛作祖底本子。以故佛祖依之而建立。眾生由之而得度。禪之功用若此。可不盡心乎。不盡心則不得其力。不得其力。則勞而無功。勞而無功。則不見禪之真體也。不見禪之真體。則無以為人。無以為人。則慧命斷絕。慧命斷絕。則何以為僧耶。佛者覺也。自覺覺他。覺行圓滿。可謂了事大丈夫矣。今世學佛而不知佛道之廣大周備。則誠為忝竊耳。豈有奇男子。肯為忝竊哉。

古德云。設有一法過於涅槃。吾說亦如夢幻。自非得夢幻之真。則不足以見涅槃之體。涅槃之體尚不見。況過於涅槃者耶。除非知有。莫能知之。

古人垂一言半句。政在解黏去縛。抽釘拔楔。豈有實法繫綴於人。多見學者。執指為月。求玄妙求解會。以當宗乘。深可憐憫所以此事在上根利智。見不為難。稍若機器陋劣。加以怠墮。棄本逐末。則無有得期。真自外也。

龐老云。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此語最好。苟能以此為心。則得無限力也。

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迷則違真逐妄。悟則舍忘歸真。到得真妄雙融。迷悟無寄。然後隨緣消舊業。任性樂天真。興慈運悲。拯濟孤露。忘能所滅影象。為過量人。住過量境界。作過量事。豈不綽綽然有餘裕哉。

示快藏主

王老師道。盡大地覓个痴鈍人難得。軒知此事不可以聰明靈利。計較機謀而得。學道之士。死却偷心。百不知百不會。如土人木偶。

一念萬年去。一條白練去。古廟香爐去。始有少分相應。死得絕氣息了。忽然猛省。如睡夢覺。如蓮華敷。歷劫未明之事。廓爾現前。百千神通門。百千三昧門。乃至一切戒門定門慧門。悉自具足。然後靠著本色咬豬狗宗師。相與入泥入水。上刀山入火聚。鼻孔相挨。眉毛廝結。徹頭徹尾。同死同生。拳來躍去。喪却目前機。脫去胸中物。回視三世諸佛。歷代開士。天下老和尚。所有伎倆。不勘自敗。等閑拈一莖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莖草。收放自在。殺活縱橫。設使德山臨濟。雲門趙州。再出頭來。也須斫額有分。自餘半青半黃。依草附木精靈。望涯而退不在言也。扶桑快藏主。天資俊敏。而能下遲鈍工夫。蓋從道場雙峩大爐排中。鍛鍊已久。不妨是一枚法器。將還本國。接物利生。卒未能相見。欲得法語。以助進修。觀其趣向。決不肯辱師友負初心。乃為書此。若是無智人前。又安敢妄通消息哉。

示景維那

古來行脚高士。為生死未明。尋師訪道。賣却布單。不問千里萬里。但有本色宗匠。可以依歸者。杭深梯險。不惜軀命。以從之遊。冀其一言開發蒙昧。至於大安樂田地。而後推以及物。非所謂遊州獵縣。看山門境致而已。近日法道陵替。居師位者。出於僥倖。不本宗猷。歆艷浮名。循習齷齪。務多其類。以為接人。新進後生。一乍入眾。無所知覺。撞入網中。不能自出。將謂。宗門事止於此。政如經鮑魚之肆。不知與之俱化耳。餘波末流。靡所不至。抑少室之道。廢興有數乎。然而諸方大刹。星羅碁布。又焉敢謂盡無作者以拯淪溺。殆恐魔強法弱。蔑如之何耳。豈不見。大愚和尚云。大家相聚喫莖蠶。若喚作一莖蠶。入地獄如箭射。者个便是楊岐金剛圈栗棘蓬底消息。蓋從上諸祖。垂一機示一境。莫非與人解粘去縛。抽釘拔楔。初無二致。所以雲峯悅禪師。服勤既久。用心益固。及乎打破漆桶。走上方丈。忘納其履。大愚望見之便云。維那且喜大事了畢。看他先德。一啐一啄。直是透頂透底。總似今時。何處有宗門事耶。建溪景維那。方事徧參。求語為龜鑑。會余謝事杜門。而請不已。不覺引起葛藤。亦何異靈龜曳尾哉。

示世侍者

世出世間。只一句子。逆順縱橫。無有不在此中也。得之於心。應之於手。則八萬四千塵勞。塵塵解脫。八萬四千法藏。法法全彰。可以津濟四生。可以梯航九有。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

但能於趙州狗子佛性話上。啐地折剝地斷。自然百了千當矣。其或未然。莫道坐破七个蒲團。走遍四天下。於此事料掉沒交涉。世侍者為者一句子使得來。大唐國裡。東尋西討。大似趨越首燕。不知不覺。被人指到山僧處。喫了多少鈍置。看渠儘自耐得拳躍。所謂大冶精金。應無變色。昔大隋參七十餘員善知識。於其中間。具大眼目者。只有一二。且作麼生是具大眼目者。於斯了了。始可罷參。脫或躊躇。鄉關萬里。

示煜藏主

我觀如來大光明藏。出生一切諸光明海。若聖若凡情與無情。無有不具此光明之體。顯示此光明之用。本末全收。卷舒無碍。自利利他。無有窮盡。如大日輪升于虛空。普照一切。無有分別。能照所照。二俱空寂。而諸有情。資其照臨。各各成辦。所作事業。從始泊終各不相知。亦不相借。殆不知所以然而然。而於日光明照無所虧減。斯蓋本有靈明。非從他得。而昧者不悟。豈終昧也夫。儻能一念回光。便同本得。故曰。道不遠人。即心而證。其不然哉。

示化主

僧問雲門。如何是塵塵三昧。門云。鉢裡飯桶裡水。靈利漢。向者裡。驀提得去。直饒攪長河為酥酪。變大地作黃金。供養你。也未為分外。其或未然。幸有七佛已前。一段奇特大事。不妨信受奉行。左穿通衢。右入聚落。拶透千門萬戶。撞著一箇半箇。徹底知音。便見所作已辦。滿載歸來。教他一眾。飽齣齣地去。豈不快哉。靈岩山中。自圓照慈受闡化之後。未曾有用這一著者。山僧此來承乏。比及三年。方外高人。來茲道聚。朝鐘暮鼓。粗成叢林。不謂丁茲歉歲。糧食既匱。而戶外之履益增。却之弗可。延之無術。念念欲棄去。忽思量妙喜樹倒胡獼散之語。以告二三友。忽徑山霖首座。雪竇璉興二藏主。翠山芾藏主。珩琅殊維那等。以持鉢為告。余笑而謂之曰。是豈爾輩所能為哉。夫比丘之法。內摧我慢。外絕貢高。方行等慈。鋪心如地。猶恐觸境遇緣。有當不過處。而況有生以來。受用自在。一旦屈已從人。未見其可。雖然。東山有云。至辱莫若乞。至樂在無求。苟得無求旨。雖乞吾何羞。淨名道。於食等者。於法亦等。於法等者。於食亦等。汝能毀於佛。謗於法。不入眾數。乃可受食。行矣厚自愛。

示芾藏主

識心達本元。故號為沙門。非徒方服圓顱之謂也。然心體虛寂。普應萬機。終日作用。而有不知之者。舍而他求。求佛求祖。求禪求道。誠為顛倒。苟悟自心。全體洞達。則不為法縛。不求法脫。便見佛祖禪道。皆具於我。而無一法從外而至者。真了事人也。僧問趙州云。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此箇公案。流落叢林。在學道之士。未有不提撕參究之者。於此悟入者固多。而錯會者亦不少。五祖和尚云。趙州露刃劍。寒霜光燄燄。更擬問如何。分身作兩段。這箇便是見得他舌頭落處底樣子。後來佛性泰和尚云。只一露刃劍。已一時頌了。後面三句。皆是展演之言。妙喜深以為然。以知得底人。拈將出來。不妨唱拍相投。言氣相合。若是承言滯句。識情卜度之徒。按圖索驥驢年去。一大藏教。是箇切脚。且道。切箇甚麼。演祖云。鉢囉娘。者老漢。初年行脚。見浮山圓鑑和尚。嘗請益興化卒風暴雨話。圓鑑云。我有一箇喻子。說與你。三家村裡賣柴漢子。肩頭夯一條檐。却問中書堂。今日商量什麼事。演祖遂低頭云。恁麼則大遠在。因見白雲。咬破一箇鐵酸餡。直得百味具足。便如師子返擲。動是驚人。一日三佛立問云。佛身無為。不墮諸數。和尚作麼生說。祖云。譬如摩尼映於五色。摩尼喻佛身。五色喻數。三佛退而議曰。者老漢。真是箇老大蟲。若是我輩。非數紙如何說得了。殊不知過量人提持過量事。自然不費力。豈不見。維摩會中。三十二菩薩。各說不二法門。雲興餅瀉。莫不自謂契理契機。維摩默然無語。文殊便乃讚云。是知無言無說。是真入不二法門。咄。識甚好惡。要知向上宗門爪牙。鮮不爾者。無他。見處透脫。力量充足。自然水到渠成。風行草偃。初不費氣力也。其或見不透脫。力量不充。依牆傍壁。終無自由分。一大藏教。總是療狂子之方書。苟見徹本元。狂心頓歇。自然可發一笑矣。雖然。恩大難酬。永嘉云。了即業障本來空。未了應須償夙債。深有旨哉。

神光不昧。萬古徽猷。入此門來。莫存知解。古人之意。終不教你坐在無魂必死之地。須知不了之人。妄認緣塵分別影事。遺失真性。流浪生死。皆知解之咎。若是超情離見。洞達本元。知解不存。而無幽不燭。如明眼人。所見無碍。而摸象之流。雖競有多說。皆可憫耳。

示道侍者

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覩。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言語動用。了無交涉。畢竟大道真體。在什麼處。看他古來老宿。提持箇事。如日行空如風吹水。靈利漢。一見便見。不假思惟。而大

道真體。不間毫髮。所謂。啐地折曝地斷。自然不借別人鼻孔出氣也。

佛祖出興。莫過為爾作箇先道。豈有法可傳授哉。故曰。大事替你不得。小事各自承當。阿難曰。將謂世尊。惠我三昧。不知身心。本不相代。其不然哉。二祖云。我心未安。乞師安心。達磨云。將心來。吾與汝安。二祖云。覓心了不可得。達磨云。與汝安心竟。政如推門入臼。若是方鑿圓柄。則無相應日子矣。

弟子求師易。師求弟子難。從上列祖。於千萬人中。撈漚一箇半箇。何異披沙揀金。將知真正衲僧。端不易得。黃梅會中。有七百眾。而衣盂獨付盧行者。此事豈可羈心。若是未得謂得。未證謂證。見勝進者。心生嫉妬。皆增上慢之流耳。決欲究明千聖頂[寧*頁]上一著。除非具鐵石身心。有吞佛祖底氣槩。始堪持論。豈不見。大隋參七十餘員善知識。具大眼目者。只有一二。以此言之。則弟子求師。亦不易也。

示琮藏主

佛佛授手。祖祖相傳。莫非以心印心。將法付法。曾無一毫自外而至者。唯是氣類相合。機感相應。發得出來。自然出人意表。蓋本於正因。不染邪解。如芬陀利華。雖生淤泥中。一點也露他不著。然而真性明妙。本自天然。一念回光。便同諸佛。豈不見。大梅見馬祖。只於即心是佛言下。便得安樂。水潦遭一蹈。遂乃呵呵大笑。至於雪峯鞦韆。俱抵豎指。是皆向生佛未具已前。揭示此箇無為宗旨。豈有玄妙密室分付。疑誤後學者哉。近世法道不振。邪解紛然。各各自謂得上人法。羅却千百眾。胡言漢語。如病狂相似。全無愧恥。而入眾兄弟。既非正因。皮下無血。眼裡無筋。將謂佛祖之道。止如此。遞相沿襲。蕪穢先宗。良可大息。除非宿有靈骨。不受人謾。超然穎脫。不與俱化。日用應緣。唯以從上佛祖為標榜。專一其心。發弘誓願。於此生中。成就百千萬劫。莫大之事。親近一箇半箇真善知識。入其爐鞴。受得鉗鎚。鍛鍊磨礱。洞絕瑕類。方始是到家時節。然後隨緣任運。推以及人。以報佛祖。庶不虛來人間。打一轉也。

示胤侍者

真性心地藏。無頭亦無尾。應緣而化物。方便呼為智。其可以有作思惟。而得之哉。直須斷却心思意想。於一切時中。豎起脊梁。卓卓地提持古德一則話頭。善自消息。放教精精靈靈。不墮在昏沉掉

舉處。則廓徹靈通。凝然湛寂。更不起第二念。所以道。不與諸法作對。便是無諍三昧。永嘉云。亦無人亦無物。大千沙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若也羸心。便謂得大安樂。正是大病。先聖目之。為解脫深坑。有氣息底。終不坐在這裡。真淨云。活衮衮明落落。拈便起把便撲。直下似俊鷹快鷄。其肯打死兔耶。

真不掩偽。曲不藏直。虎步龍驤。神號鬼泣。明眼漢沒窠臼。截鐵斬釘。移星換斗。僧問國師。如何是本身盧舍那。國師云。與我過淨餅來。僧度與淨餅。國師云。却安舊處著。又理前問。國師云。古佛過去久矣。擊石火閃電光。搆得搆不得。未免喪身失命。豈似如今一等認驢前馬後。以為極則。提得一件。便從頭穿鑿注解說將去。豈知有宗門向上事耶。且作麼生是宗門向上事。咄。只許老胡知。不許老胡會。

聲前領旨。猶迷顧鑑之端。句後明宗。尚昧識情之表。絲毫繫念。三途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要須如獅子王。哮吼一聲。直使狐狸野干。悉皆屏跡。方可作本分道流。若是隨群逐隊。醉色沉聲。一味踈狂。謾神嚇鬼。到處逢人。亂呈懵袋道。我能我解。將他古人好言句。都看壞了。從而教人遞相欺誑。凌滅宗風。真是地獄種子也。爾輩後生。趁色力強健。快須決擇教明白。見此等人。便合敬而遠之。政不必與較得失也。但念從無量劫來。於生死海中。頭出頭沒。今幸為人。遭逢聖教。既披法服。粗稱沙門。試觀他釋迦老子。出胎修道。成佛度生。所有法門。自何而起。自滅度後。大法東漸。諸祖迭興。提持正印。甚生標格。只如道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又云。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於是二中間。未嘗說一字。且四十九年。三百餘會。種種行相。作麼生消遣。到者裡。一法不明。翳汝眼睛。眼睛不明。世界崢嶸。忽若一息不來。便登鬼錄。前路漫漫。未知何往。良可痛心。故先德以生死事大。無常迅速。切切於懷。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如喪考妣。豈有閑情。安為雜事哉。

示興藏主

宗門中事。只貴真參實悟。不消嘎地一聲。自然透頂透底。若未得這一解。未免方寸間鬱鬱地。不得快活。譬如患病之人。本為風寒所搏。驀地得一服良劑。出得一身白汗。知他四大有許輕安耶。既得輕安。却須保養神氣平復。方禁得磕[翟*支]。萬一失守。舊病復作。則不可救也。僧問雲門。如何是佛。門云。乾屎橛。這裡悟去。豈不快哉。儻涉思惟。白雲萬里。

但得本莫愁末。何謂本何謂末。識心見性是本。說禪說道是末。你若識心見性了。信口而說。信脚而行。無非禪道。苟遺其本而取其末。所謂業識茫茫。無本可據。

學道之人不識真。只為從前認識神。無量劫來生死本。癡人喚作本來人。學者不善區別。妄認識心。以為自己。教中所謂。認賊為子。其家財寶。終不成就。淨名云。法離見聞覺知。若行見聞覺知。是則見聞覺知。非求法也。六祖大師云。聞見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如鳥空中只麼飛。無取無舍無憎愛。這箇始是到家說話。要得相應。一念未興已前。急著眼看。咄。

學此道。只貴腳踏實地。靠實而行。若纖毫許掠虛。總落魔界。打頭一著。且論見地明白。不受境惑。十二時中。便得力也。你若見不透脫。如何做得過量邊事。古德道。設有一法過於涅槃。吾說亦如夢幻。若是己眼未開。如何會得。是他向上人行履處。如金剛燄。如猛火聚。無你近傍分。不是強為。法如是故。

佛法本無玄妙。只是自家本分事。只為拋家失業。踰躅日久。一乍入門。覺得奇特。及乎穩坐家堂。一切境界。莫匪尋常。自然不驚怪也。臨濟云。元來黃檗佛法無多子。便是這箇消息耳。

佛道懸曠。久受勤苦。乃可得成。不是見得會得了便休。是他先聖。入水入泥。安住無功用。大人境界。其可羸心乎。末世比丘連得些子影響。便謂百了千當。經不看佛不禮。一味貢高。妄自尊大。圖人贊歎。以規利養。遞相欺誑。習以成風。真可憐憫。有志之士。政須以古人為標榜。慎勿隨順顛倒也。

示燈藏主

從上佛祖。開示此道無過使人各了本心本性。不為外物所誘。即是出世邊事。非謂別有法可傳授也。但於日用二六時中。猛著精彩。虛明寂照。截斷諸緣。澹泊無為。而不碍汎應。則工夫純熟。打成一片。不妨隨自己力量而行。但有一毫利益於人之事。勇而為之。無利益事。自不復作。亦無能為所為之相。迴絕功勛。功勛絕則損益之念不興。然而逆順境界。不著照了。當體寂滅矣。祖師云。心隨萬境轉。轉處實能幽。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一種平懷。泯然自盡是也。古德提唱一言半句。皆為慈悲之故。發揮千聖著眼不及處一著子。以破後昆之情執。貴圖作箇洒洒落落底漢。豈有毛髮玄妙。可祕重哉。後世庸妄素無知識。將謂。有佛有法。有禪有道。可以傳授。奴郎不辨。玉石不分。東奔西馳。隨聲逐色。業緣成熟。流入魔黨。各各自謂。得上人法。遞相欺誑。自悞悞他。良可太息。除非宿有靈骨。不受渠謾。直似玄珠下於濁水。不與俱

化。則救得一半耳。大凡學佛學祖。直須所見所行。出他一頭地始得。脫或徒有其言而無其志。所謂。身雖出家。心不入道。究竟為邪師所攝。無疑矣。古人云。為高必因丘陵。為下必因川澤。衲僧家一出一處。可不慎哉。

示覺首座

曹溪流非止水。一滴忽來千波競起。灼然是有這箇道理。若是力敵勢均。不言可知。稍涉思惟。白雲萬里。如今未到箇般田地。不免喚作移換人。須知宗門中向上事。斷斷是別。直饒究竟到不疑之地。苟大法不明。總成土苴。豈不見。興化在三聖處作首座。嘗云。我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未曾撥著一箇會佛法底。雷聲浩大。三聖聞得。乃問。你具什麼眼。化便喝。兩點全無。聖云。須是你始得。是何心行。化休去。咄。聖亦休去。咄。大覺聞得。乃云。爭得業風吹到大覺門下來。化後到大覺覺。請為院主。蓋與大覺元是同參。一日覺喚院主。我聞你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未曾撥著一箇會佛法底。你具什麼眼。探竿影草。化便喝。不勞再勘。大覺拈棒。化擬議。有甚用處。覺便打。矢在弦上。不得不發化又喝。棺木裡瞠眼。覺又打。灸瘡痕上重著艾炷。化明日從法堂上過。覺喚院主。我直下不疑你昨日兩喝。你為我說來。為人須為切。化云。某甲於三聖邊得箇賓主句。總被師兄折倒了也。與某甲一箇安樂法門。老鼠入牛角。覺云。者瞎漢。來者裡納敗闕。脫下衲衣。痛與一頓。殺人須見血。化於棒下。識得臨濟在黃檗處。喫棒底道理。精金百煉。要須本分鉗鎚。豈是麻纏紙裹底生活。者一段說話。蘊在胸中。有年矣。未曾敢容易對人拈出。法姪本心覺首座。自曹溪分座而來。頂門正眼。爍破四天下。兩窻拈出。以資法喜。明日東還。見老松月。却煩借問。如今何處。有者箇消息。不妨因風語我。幸甚。

示暢藏主

實際理地。不受一塵。理隨事變。萬行門中。不捨一法。事得理融。事得理融也。寬廓非外。理隨事變也。寂寥非內。古來達士。學到聖凡情盡。自然體露真常。遇物應緣。觸目無滯。猶未是向上人行履處。所以雲門大師道。直得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時節。一般漢。認得些子影響。便乃稱楊稱鄭。眼空四海。疑悞後學。出佛身血。若是眼裡有筋底。終不肯受他籠絡。舉一步抹過千聖頂門。拈一機捩轉衲

僧鼻孔。豈特天魔外道窺覷無門。便是四七二三斫額有分。豈不見。岩頭參德山。纔跨門便問。是凡是聖。山便喝。頭便禮拜。洞山聞云。不是叢公。也大難承當。頭聞云。洞山老漢。不識好惡。我當時一手擡一手搥。又不見。德山見滄山。直上法堂。東西顧視云。無。無。便下去。至山門首。復云。也不得草草。再具威儀。上方丈相見。便云。和尚。滄擬取拂子。德便喝。背却法堂。著草鞋便行。至晚滄問首座。新到在麼。座云。當時便去也。滄云此子已後向孤峯頂上。盤結草菴。呵佛罵祖去在。你看他古人。一挨一搥。略露風規。非唯虎驟龍驤。直得天回地轉。豈似今時叢林。無著眼處。政不知。諸大老向什麼處去也。雪竇暢藏主。東嘉俊流。有志相從。江心無言。春雨無際。僊岩仲謀。作偈督遣之。業已成行以母病中止。未幾會余謝事巖頂。甚不自滿。茲來南堂。道義真切。因出三老之偈。余為和之。既而又欲法語為隨身儆戒。不惜口業。怛怛怛怛。寫此一絡索。使其知有宗門體裁。脫若一念相應。蹈著實際理地。遊戲萬行門中。涵養磨鍊。無滲漏絕依倚。撞著咬豬狗手段。千盤萬折。透出金鎖玄關。然後轉向德山巖頭。洞山雲門。心眼不及處。插得手。豈不是一員本色道人耶。到者裡。方知從始泊終。未嘗不與山僧把手共行矣。又何親疎遠近之足云乎哉。

示祖灑首座

大丈夫秉慧劍。般若鋒兮金剛燄。非但空摧外道心。早曾落却天魔膽。此永嘉大師。見曹溪後。顯發自得自證三昧。以示後人之語也。看他初到曹溪。繞床振錫底氣象。直是卓絕超邁。故其所得。不在一切人下。雖與一切人同處。一切人搆他不得。除非同得同證者。瞥爾相逢。一挨一搥。略露風規。自然驚天動地。豈似今時兄弟。猥瑣儻。傍人門戶。記持野狐涎唾。到處討人商量。貴圖口裡有得說。手裡有得寫。逞能逞解。以當參學。將謂少林直指之道。如此而已。誠為苦屈。教中所謂。棄却百千澄清巨海。唯認一浮漚。目為全潮。可憐也哉。當此法道下衰之秋。全藉有志朋友。發勇猛心。立深重願。將從前所蘊。惡知惡覺。盡情颺向他方世界外。內不放出。外不放入。寂寂惺惺。不與一法作對。超然任運。兀爾忘緣。行住坐臥。常將生死事大。無常迅速。時時舉覺。脫或向眼不見鼻孔處。見得眉毛在眼上。則體本無生。了即非速。豈永嘉所得專美哉。到此境界。却須靠著本色宗匠。爐錘鍛鍊。敲打出來。不妨是箇法器。堪以荷負宗門。至於從上佛祖機緣。無問平易險峻。深密淺近。相應不相應。瞭然如人飲水。冷暖有不俟言而知矣。然後沉浸涵養。日久歲深。力量充足。日用應緣。縱橫得妙。

為人自為。總在其中。日損日益。初無二致。此乃文殊普賢大人境界。決非陋劣種性。所可企及者也。

示壽藏主

先輩灰心泯志。深山窮谷中。木食澗飲。其為枯槁。有不可勝言。而處之自若者。自非明見本體。與佛祖同一受用。其能致是哉。蓋緣末上根脚下打辦得乾淨。而宿有靈骨。稟大智願。一出頭來。便自穎脫。古今天地。古今日月。古今人倫。何古人所能。今人莫能彷彿耶。且譎訛在什麼處。竊嘗觀之。大凡今人。自始至終。鮮有且正因者。剃染行脚。撞入邪師惡友群類中。見聞覺知。無非聲色交互之事。雖有菩提種子。不能發生。究竟熏鍊成熟。築底是箇業識團子也。所得既是不真。觸著則是非人我。得失欣厭。交戰於胷中。因循苟且。遞相欺誑。借使千佛出世。也救不得除非自解猛省。一刀截斷。靠著本色師友。動靜施為。一以古來明眼尊宿為標榜。直將生死事大。無常迅速為念。理會教徹頭徹尾。然後發揮靈智。開示後人。則不負父母師友。生成之德耳。舍此則無所取矣。見地明白。履踐超詣。但有所說。自然契佛契祖。契理契機。離文字相。離言說相。坐斷千差。不存途轍。既非心意識境界。自然風凜凜地耳。

雜華云。知一切法。即心自性。成就慧身。不由他悟。固知心生則法生。心滅則法滅。一心不生萬法無咎。苟不知有轉身句。未免死在平地上。故曰。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是好手。虛而靈寂而妙。非用功純一。受用自在。則不能到此境界。

心如工技兒。意如和技者。儻脚跟下不得力。則二六時遭渠驅役。直須一念不生前後際斷。則胡孫子自死也。胡孫子既死。得絕氣息了。自然觸目遇緣。蕩蕩無礙。方見道用。

玄言妙語。道之末也。識心見性。道之本也。古人得其本之大全。發而為大機大用。雷轟電掣。日照天臨。揭揚佛祖奧旨。而使後學由是而入。雖有言語。莫非一期方便。土苴緒餘。奈何流俗摭拾寶重以為奇特。棄本逐末。何繆之甚。余嘗論之。以箴近習之痼。當知性體圓淨。智照洞明。一切語言。文字義理之說。或邪或正。到家未到家。判然無可疑者。不然則為其惑耳。

山僧自幼行脚。見善知識。未嘗有一點玄妙解會。在胸次中。但能於一切處一切時。不受人欺耳。惟其不受人欺故不自欺。惟其不自欺。所以不敢欺於人。末上下梢。只以正智獨照。然而照中無智。智中無照。以要言之。則古人所謂。紅爐上一點雪。便是者箇消息也。

了菴和尚語錄卷第八

了菴和尚語錄卷第九

題跋

師姪比丘 海壽 祖灑 等編

羅漢圖

內祕菩薩行。外現是聲聞。少欲厭生死。亦自淨佛土。住世應真五百一十六開士。莫不皆然。若夫深山大澤。實聖賢所都。決非凡夫肉眼能見。獨天台方廣。靈異顯著。畫者得以圖之。然又烏得其彷彿哉。以要言之。聚沙為塔。爪畫為佛。不失為入道之漸。況精妙若此者乎。一衲寶之宜矣。苟能返觀自心之體。廣大悉備。四聖六凡。由之建立。三昧六通。由之發現。乾坤日月。江海山川。由之出生。便可掩卷一笑。余尚何言。

佛果禪師書

佛祖傳持大事。所謂三要正印也。自非根性猛利。智願宏遠。曷致機感相應。而能荷負哉。歷觀先世。的的相承。耀古騰今。輝天鑑地。豈苟然耶。法運垂季。人根益劣。假名竊位。以芘無似之身者。比比有之。未免互相欺誑。所學既已無本。安知有建法立宗。剎生接物。始終一節之要哉。拜讀佛果老祖所答詔公嗣書。不勝感慨。竺芳首座。授受有自。惟勵精力行之。則古道或尚可見也。

大慧和尚墨蹟(三)

才高謗起。法盛魔強。此草堂以為妙喜南遷之兆也。因思五祖謂能大師曰。夫傳法者。命若懸絲。今妙喜帖中後語勿使天魔知之。又設巧便矣。可不慎哉。

參學兄弟。未有正見。而務外學。故先德有雜毒入心之誡。老妙喜榜之於門。罰及隣案。在洋嶼一夏打發一十三人。夫豈偶然。雪峯龍岩翁得此榜。時以示人。不為無補。

妙喜親書別帖。是亦殘編斷簡。却有別峯無準兩代古佛批判。二百年後得之。夜光明月不換於乎道德之能。取重於人如此。而人自不能力致之者。又將奚筭。

五尊宿真跡

天上無雙日。人間只一僧。此慈雲哭四明之語也。吾於慈雲。無間然矣。妙喜隰州。同唱斯道於玉几太白千載一時。不可復見玉山雖後於兩翁。而道德文采。曾不少讓。石溪能傳贖祖不傳之衣。亦一代宗工也。此五真跡。生氣凜然。在在當有神物護持耳。

妙喜禪師聖徒首座二帖

少時閱大慧禪師廣錄。知參禪之難。觀聖徒顏公釋難文。知為僧之不易。自是兩翁風度。常在心目間。明公從妙喜於衡陽所得亦不少已。嘗以大禪稱之。逮授衣之際。叮嚀戒飭。乃曰。如將梵位直授凡庸。你也須生慚患始得。又知付授之難如此。近世庸妄。視同兒戲。大法之微。有所自也。於此未嘗不淚下。聖徒道德才思一狐之腋。所遺敬如菴小帖詞語溫雅。筆意精熟。無在而不妙也。德侍者其寶之。

宋孝廟賜佛照禪師御札

自昔帝王。存誠佛道者。蓋常有之矣。然而日應萬機。兢兢業業。而不敢少忽。至於涵養圓熟。染淨不二。迴離四病者。其惟孝廟歟。伏讀所賜佛照御札。敘所得若此。後世臣子。不學無知。妄肆毀斥者。可憫也夫。

佛照禪師墨跡

栢岩為洞山下得一轉語好。遂開粥相延。則檀林無雜樹也。育王以之故。能慎擇以警遊惰。又謂看經不必多。但研窮法理。以悟為則。至於收拾精神。理會臘月三十日生死公案。直欲攻其兄出淤泥而登彼岸爾。老佛照此書。百世師法也。

別峯塗毒二禪師手澤

別峯塗毒其道德位望。並驅爭先。是皆人龍僧鳳也。此偈此簡。皆肆口而說。肆筆而書曾不經意。深足以發明言外之旨。彼膠於情識者。方以雕蟲篆刻為事。覩之未始不茫然自失也。悲夫。

塗毒禪師墨跡

湛堂昔因決渠水濺衣。豁然大悟以白真淨。淨詬曰。此中乃可容藟苴耶。今觀策禪師與勤道者小簡。纔有肯重。便成滲漏之語。自得之妙暗合孫吳然元酒大羹固非常流所能知味。大圓智公。不可謂不知人也。

佛燈珣和尚墨跡

昔妙喜謂。佛燈為臨濟頂中髓。楊歧眼裡睛。棒頭明殺活。喝下辯踈親。以此而罵佛罵祖。卒滅吾宗。於罵天乎何有。贈規之偈。舐犢之情。於此見佛燈。何異水中撈月。識者辯之。

長靈卓和尚手帖

靈源出晦堂之門。其粹密巖正。真萬世師範長靈克家子也。是以荷負正宗之心。咄咄不輟口。猶自謂筋疲力茶。止可暖熱些些門庭而已。若覓委托大緣。誠未易得也。讀至此俯仰今古。為之慨然。至於應涉事事與世相反。警救不逮。惟恐混而為流俗之旨。真藥石之言也。

慈受深禪師偈

老慈受散慧林之席。為台山之遊。靈岩專使。於天封寺訪尋得之圓照故隱。遂為中吳禪學都會。居三年。而有蔣山之命不赴。四明太守以阿育王山招之。亦不赴。未幾。蔣山專使再至。不得已從其請。復還三佛舊觀。吁。何其盛哉。及謝事歸洞庭包山。若將終焉。猶於靈岩。似未能忘情。因其僧堂之落成。故有我亦老來思舊隱異時去借板頭眠之句。余晚生無狀。備員洒掃者三年。覩境懷人。實深仰止之歎。覺維那出視手澤。謹拜手以識。

應菴和尚送中峯偈

堆雲鉢袋子。已是當面拈出。因甚却道未曾分付。所謂。吾有末後著。待歸要汝遵。元來老子。得與麼絮。拜觀此卷。不覺凜然。

張魏公所書心經

摩訶般若波羅密多。梵語也。此翻大智慧到彼岸。所謂。達佛心宗之徑也。觀自在即能行之之人也。照見五蘊皆空。即此智慧之力

也。度一切苦厄。即到彼岸之時也。至於空色互明。理事俱遣。即佛與眾生同一體。處處皆同真法界。受用自在三昧也。紫岩公印心於佛果。擴充於妙喜。以之致君唐虞。中興王業。觀其腕頭。盛有回天之力者。其觀自在之流亞與。故其筆是經。以壽後世。即自覺覺他之道。無有窮也。然未易與儒墨自卦者議。

陸放翁所製無用禪師語錄序

百丈得大機。黃檗得大用。兼而有者。是為德山臨濟。觀其棒喝交馳。主賓互換。莫非揭示此个宗旨。豈下劣種草。所得而與哉。老妙喜於圓悟室中。得此機用。應菴謂其黑漆竹篋。掀翻海岳。從頭打過。雖是死馬醫。就中要妙。固是抓著渠痒處。筭著渠痛處。檢點將來。大似普州人送賊。天童全禪師。出妙喜之後。啟迪學者。用而無用。語錄行世。未始有言也。今覽陸務觀所作序文。提水放火。大段可畏。至於識破韓潮州。正是說得宜其與無用同參者矣。雪間寶此遺墨。慕賢尊祖之意。歷歷可佳。夫豈徒為耳目之玩哉。

密菴和尚墨跡

密菴老祖。任少室正宗之寄。鼓一破沙盆。震驚天地。若塗毒鼓然。宜其燕坐高堂。四事供養。以應來學。而猶不免於持鉢奔走。艱難萬狀。吾不知造物之待人。固如何哉。豈必欲其顯發吾先佛軌儀。以為後世竊服踞位。妄自尊大者之戒乎。燈侍者當視其跡明其心。則破沙盆遺音可繼也。

松源老祖家書

澄照天寧。迫而後進。緣法不順。飄然去之。方事歸寧。遽聞師訃。哀慕迫修。克盡孝道。觀此幾著。則其平生事事可法也。宜其位冠諸方。德尊百代。中峯臨行。囑以編集語錄。付以法衣一頂。此衣昔楊岐以付白雲。三傳而至妙喜。喜不付諸子。而付其姪應菴。應菴再傳而及師。所云此个擔子。實難承當。而明告其親者。亦欲其知責任不輕也。所謂。在家出家。各有所務。不能兩全者。乃謙之至耳。豈有承父之命。出家弘法。光明盛大若是。而於其親。猶有遺恨哉。特不能區區盡懽於菽水之奉。然而立身揚名。以顯父母。雖曾閔之孝。無以易也。烏在而不全乎。若夫用黑豆法換盡天下衲僧眼睛。使東山正宗。與天地相終始。固非不肖孫所得言其彷彿矣。此書流落叢林。百有餘載。卒為永嘉昱首座寶而有之。遂為

傳家之券。雖萬金不售也。以法義出以相視。頓首九拜。謹誌乎下方云。

中峯老祖廣錄

五年前溫之能仁昱首座。携所蓄鷲峯贖祖所寄父親之書。來靈岩求跋。其中正言密菴和尚書至。俾其編次語錄。又付以楊歧之衣。遂有此箇檐子。實難檐荷之說。今此錄。乃是未經刪定者。較之刊本。十無二三焉。枯禪以付寂窻。窻付梅屋屋。授之道場晉翁。翁死不得其傳。保寧祺藏主。偶於南屏亡僧故紙堆中獲之。珍祕有年。茲以相示。且命志之。因謂之曰。爾為直下子孫。蓋物有所屬耳。豈偶然哉。然鳩毛落水魚鼈俱死。於此換却觸體。不消一滴。尚其勉旃。

無準和尚筆蹟

五祖下出三佛。佛眼最為謹密。日用唯恐有失。故切切自省如此。老無準書之。豈無意乎。不幸脫去前二段。環溪能補之。知父莫若子。在首座寶其迹而究其心。則不虛矣。苟徒尚其迹而遺其心亦何益於事哉。余因是跡觀是心。而作是說者。且以自儆而復儆在也。正續老師居五峯。法席之盛不下妙喜時也。眾多糧少。而重糴回祿。故奔走四方。不能自已。伏讀此帖。可以想見其曲折。苟非以荷負正宗為心。則安能籛籛若此耶。近世羨癡福。踞大方坐圍千眾。口無所說。心無所思。傲然自足。以謂師道之尊。莫過受用隨意而已。安知有荷負正宗之說哉。吁。

西丘和尚朴翁禪師吟藁

佛照禪師居鄮峯時。道福相勝。學者景從。天目老祖。上方朴翁。尤嶄嶄出頭角者。老祖因僧自薦福來。聞松源舉風幡話。豁然有省。徑有鄱陽之行。朴翁晚年亦為葛天氏之民。今觀兩翁中見鄮峯途中唱和之什。因記得黃龍出泐潭遇慈明時事。惜無懷翁不得而與焉。紛紛末流。尚以詩之江拙。而議其跡之不齊。是何足以語至道哉。

此菴師祖手帖

育王師祖。老腕有回天之力。一洗澆漓。頓還淳古。所與妙勝長老小帖。雖尋常數語。無一點俗氣。而況筆意精妙不可及。啟侍者既入保福一菴之室。寶之宜矣。

山寮雜言

岳林栴堂禪師曰。靈源大士居昭默。橫川老師居山寮。高風相去三百載。人世南朝自北朝。烏虜堂翁已為古人。此偈殆將無聞。敬書於固侍者所藏山寮雜言之後。使觀者知先哲所存也。

溫日觀手書大慧禪師過移忠小詞

妙喜過東坡影堂。作偈云。力將正說排邪說。夢到黃州與惠州竹屋數椽容老貌。大江千古只東流。今觀過秦檜之墓則云。路傍一對新華表。見說昔年官不小。爭知道冷煙寒雨埋荒草。其發忠正誅奸邪。乃天性之常。或謂。妙喜游乎方之外。而未能絕世俗之好惡。是豈知師哉。日觀書之。以傳於世。其知師者乎。

幻住禪師贈高麗瀋王十偈

懶殘方出芋魁。無暇為天使收涕。趙州危坐一室。莫知二王在前。千載之下。稗沙門失其所守。汲汲於公卿長者之門。烏知兩翁不動聲色。卒能致宗門于九鼎之重哉。今觀幻住之於瀋王。庶無愧古人耳。十偈之作。各有深旨。語溪壽上人。求余著語。時當初夏。槐陰晝清。一展玩間。不覺師子岩壁立萬仞。矍然起立。卷而還之。

古林和尚小參

休居老人。平生說法如雲如雨。而實無元字脚可得。澤維那。何從得此紙。踊躍珍祕。不翅夜光明月之珠。持以示余。所謂向上更有事在。露出師子爪牙。其間別有商量。未免當門按劍。於乎只者靈鋒。阿誰敢擬。後三十年。當有於此喪盡伎倆者。庶幾可以同唱下水船曲子也。

江山萬里圖

未達境唯心。毛端萬里。達境唯心已。萬里毛端。作是畫者。政如世人追憶夢事。於諸夢境。作真實想。以夢意識運夢筆。寫夢所

見。高為山岳。深為江河。險為劍閣連雲。惡為瞿塘灩澦。城邑聚落。舟車往來。煙雲蔽虧。千態萬狀。能作所作。均一夢中。復有夢人。覩相生愛。而珍玩之。噫。三界擾擾。孰非夢耶。本淨明妙。誰為覺者。我作是說。當有拊卷而作者矣。

孤雲翁書雲峯禪師小參

昔黃太史謂。雲峯悅禪師之語。青山白雲開遮自在。碧潭明月。撈漉方知。今觀孤雲所書小參。不啻青天怒雷。霜弓劈箭。讀未終卷。幾何不膽飛心碎也。倘或皮下無血。眼裡無筋。究竟總成虛設耳。何山壽藏主得之。出以相示。政須猛省力行。仰不愧天。俯不作人。筭斷此老舌頭。則不妨與天下衲僧。出一口氣矣。

佛果老祖示冲老法語

佛果老祖。圓悟如來無上知見。如麗天杲日。故其所說。了無疑滯。使夫聞者見者。身意及心。皆同灰燼。然而咳唾掉臂。盡是祖師西來意。豈虛語哉。觀此七段法語。何止特為嵩少冲公發耶。政如鬧市裡颺碌搏。著者當自知耳。
題跋(終)。

癡絕和尚書應菴師祖法語

此吾應菴老祖。示作禪者之語也。癡翁因偉上人之請而書之。偉亦佳衲子與。流落叢林。僅二百年。雖紙墨微蠹。精彩猶新。四明臨藏主能寶之。而求余題。二宗師三學者。出處有後先。而所存一也。以古視今益重余之感慨。

靈源癡絕二禪師二帖

黃龍昭默禪師。德尊一代。雖士大夫登其門者。未嘗假以辭色。觀此慰帖。謂既了大事。必閑居味道內遣。則亦入室之人也。若夫。言簡而意足。善於文字者皆能之。必欲見此老人。當在此帖之外著眼可也。癡翁所示道書記法語。病多諳藥性。經驗始傳方。習藏主其深味之。

陸放翁小簡

放翁先生。南渡師儒也。雅從育王佛照。徑山別峯塗毒。靈隱松源。老祖遊。其深得吾宗之蘊。故發而為翰墨。猶虎而角者也。此帖特其土苴緒餘。而覽者方且贊詠之不暇。苟知其大全之體。豈又當如何哉。

陸放翁所作海淨大師塔銘

東坡先生。平時不肯與人作塔銘。其與俗儒之索米。作佳傳者。蓋有間矣。若使如放翁為此海淨大師之文。略無愧詞。雖作何傷大體耶。

了菴和尚語錄卷第九(終)

嘉興路萬壽山南堂四禪菴師姪比丘祖灑。募緣入梓。日東比丘海壽書。天台周東山刊。時至正己亥春起手。明年庚子春畢工。

應安戊申重刊京臨川禪寺。

No. 1414-B 慈雲普濟禪師了菴欲公行道記

翰林學士亞中大夫知制誥兼脩國史金華宋濂撰

至正癸卯秋八月二十五日辛酉。了菴禪師示寂於嘉禾千佛慈雲塔院。九月朔日丁卯。闍維菩提園中。當火之方熾。有紅白二圓光。盤旋龕頂。浮空而滅。及火餘頂骨舌根齒牙俱不壞。設利滿地。不可以數計。七日癸酉。其從子比丘祖灑。遂奉函櫝。啟塔而藏焉。生平行業。既見國史危公所撰銘文。其得法大弟子文康。復謂師之道德。正而明。慈而能威。坦坦乎八達之通衢也。皦皦乎行天之素月也。鞫鞫乎啟蟄之震霆也。初何厭乎言之詳。千里致書。徵濂為行道記。會濂總脩元史。久未暇為。文康將住福之開元。必欲得濂文以行。乃申前請為尤力。濂不敢辭。禪師諱清欲字了菴。族朱氏。台之臨海人。世居大雄山下。大父元善父松孫。皆為善士。其母黃氏。夢沙門飛錫而至。既寤生師。九歲而孤。隨仲父茂上人。入雙徑山為童子。年十六。依虎岩伏公。試經得度。希白明藏主。自育王來。一見以法器期之。提誘辯詰。無所不至。且謂之曰。子氣銳甚。非佛性茂公。不足為子師。今在蘇之開元。曷往見之。師即謁佛性。佛性問云。近離何處。師云。徑山。佛性云。船來陸來。師云。二俱不涉。佛性云。汝安得到此。師便喝。佛性云。雖是後生。却堪雕琢。他日佛性又問。汝豈不是徑山來。師云。是。佛性云。山上有鯉魚。井底有蓬塵。作如何會。師云。和尚何處得此消息。佛性云。欽師因何猶被馬師所惑。師云。不可少和尚一

分。佛性云。參禪須是此子方可。師乃掩耳而出。師自是前後際斷。疑情盡釋。動靜之間。無非妙用。繼往從東嶼海公於楓橋。東州永公於虎丘。二公皆一時宿德。名重東南。與師相扣擊。見師吐言。如青天白日。氣象鮮朗。了無染著。或謂擔荷正法。將於師是賴。師之聞譽。翕然聞於諸方矣。皇慶初。佛性被上旨。復居開元。四眾推師。為入院侍者。繼司藏鑰。居亡何。還栖徑山。虛谷陵公。從大仰來主其席。選師為後堂首座。江南行御史臺。具書幣延佛性。住建業之保寧。師與佛性。分座說法。臺之大臣。聞師提引。頂禮贊歎。謂得未曾有。天曆己巳。出世溧水之開福。元統癸酉。遷嘉興之本覺。一坐十春秋。帝師大寶法王。尤企師之道。賜以金襴法衣。及慈雲普濟禪師之號。湖之巨剎。有訟於行宣政院者。鑒察御史檄師讞之。師曰。吾林下人耳。豈能效法家之深刻哉。即日升堂槌鼓。退居寺之南堂。御史大夫高公特枉駕過師。謂之曰榮名。人之所尚。師何弃之如土芥耶。嘉嘆久之而去。至正乙酉。起應吳中靈岩之請。閱三年復歸隱南堂。未幾寺燬於兵。南堂亦不存。師處之怡然。祖灤念師無所栖止。謀於[橋-矛+佳]李亭之北三里。築室以居師。師不得已從之。即所謂慈雲塔院是已。師凡三坐道場。緇素瞻依。如逢古佛出世。香華供養。所至雲擁。師日以最上一乘。相與激揚。霆馳飈行。絕無留礙。其高者則纏縛頓解。一超直入。其下者則有所持循。而不涉末伽外道之見。利益所及。可謂鴻且博矣。然於世相事為之際。亦未嘗不經意。所蒞之處。棟宇壓者新之。器物闕者補之。侵疆之久者歸之。早夜孜孜。唯恐有不及。辛丑之夏。江浙行省左丞相康里公。遣使者起師。將使領大伽藍。師堅臥不動。作三偈酬之。有軒蓋林中不得來之句。丞相知其道高。不敢強。師日坐松雲間。如出水蓮華倚風獨笑。而不知老之將至。其參學祖杲請續雪竇拈古之作。師初峻拒。已而曰。道本無言。然非言不足以顯道。為著一百則授之。一旦感微疾。默而不言。方索筆書偈云。七十六年。無後無先。聖凡情盡。明月中天。適通守陳公時來候疾。謂師曰。和尚東南大法幢也。時既至矣。能無一言啟迪我輩乎。師瞪目大笑。聲振百步外。遂泊然而逝。闔維之夕。送者幾萬餘人。無不摧慕。嗚呼。若師者可謂一代之偉人者矣。師慈和粹冲。不立城府。接人渾在春風中。遇事有不可為。輒萬夫不能奪。然惓惓於大法。唯恐其失墜。方佛性續修宗門統要之書。師力勸同袍良猷相成之。至今盛行于世。師世壽七十有六。僧臘六十。度弟子若干人。其參學門人。分燈海內者若干人。夫自教外有別傳之旨。竺乾聖人心法。授之東土諸師。歷年既多。不能無弊。至於宋季。纖巧卑陋。厭厭如欲絕之人。生氣殆盡。橫川珙公特起於衰微之際。如大獅王哮吼一聲。百獸為之震

掉。君子謂之佛道中興。橫川示寂。佛性以偉特之量。紹而承之。佛性入滅。而師以慧辯之學。演而昌之。三世之間。重徽疊照。揭日月於中天。作舟航於東海。猗歟休哉。向使橫川無賢子孫若師者。出一再傳間。或失其真。未必光明俊偉若斯之盛也。濂雖不敏。竊獲師三會語觀之。益知叢林所評。辯才無礙類妙喜。機鋒峻拔類德山雲門者。當可信不誣也。於是備書師之群行。勒諸堅珉。而復述伽陀一章以贊之。其辭曰。

大哉諸佛涅槃心	徧覆三千大千界
迦葉拈華微笑間	三際洞然一時了
菩提達磨流真丹	掃空義學一不立
此如長空孤月朗	萬水千山皆見月
此如空谷傳音聲	欲覓其蹤無處所
此如春行大地中	物物生成匪雕刻
是為如來光明藏	諸相無不具足故
更無一相之可見	大法久傳弊則有
厖襍叢濊可怖駭	流入末伽外道類
橫川起執摩尼珠	放五色光照群有
銷彼黑暗如紅日	佛性繼之得真印
九達雖異車轍同	伊誰振錫乘願輪
托胎直至大雄山	中吳一見即相契
水陸二塗俱不涉	及至機鋒相觸時
如逢金剛王寶劍	掩耳急走無留行
自茲出語絕功用	無邊功用總現前
初無一事可指名	三坐道場振法音
海潮東來極澎湃	無敢舉目睨視者
時來欲入般涅槃	示以一默顯法相
默中有聲如怒霆	大笑直振於林木
有因音聲而入者	亦可直到解脫門
矧於聲聲未嘗聲	方信無聞無不聞
圓光浮空共盤旋	設利纍纍向空聚
窅堵波中藏靈異	天龍八部共護持
達磨之道大以彰	豈非法力所攝故
大風則止有縣識	燈燈續燄願無窮
我今頂禮述贊詞	一切眾生起誠信

No. 1414-C

蘇州靈岩了庵清欲禪師。別號南堂遺老。台之臨海大雄山朱氏。母黃。九歲而孤。仲父茂上人引登徑山為童子。依虎岩試經得度。受具。希白明藏主亦師之。叔父自育王橫川會中來。一見以法器期之。提誘辨詰。無所不至。謂曰子氣銳甚。非佛性不足為師。今在蘇之開原。往見不可後。師即謁佛性。性問曰。近離何處。師曰。徑山。性云。船來陸來。師云。二俱不涉。性云。汝安得到此。師便喝。性云。雖是後生。却堪雕琢。他日性又問。汝豈不是徑山來。師云。是。性云。山上有鯉魚。井底有蓬塵。作麼生。師云。和尚甚處得這消息來。性云。欽師因甚猶被馬師惑。師云。也少和尚一分不得。性云。參禪須是些子始得。師乃掩耳而出。皇慶初。佛性被旨復住開原。師為入院侍者。繼掌藏教。還徑山虞谷陵選為後堂首座。佛性遷建業保寧。分第一座。說法。天曆乙巳。出世漂水開福。元統癸酉遷嘉禾本覺。帝師大寶法王有旨賜金襴衣。并慈雲普濟禪師號。居十年退居南堂。至正乙酉應中吳靈岩請。衲子聞風而萃。室中垂語云。文殊普賢起佛見法見。貶向二鐵圍山。則固。是且道釋迦老子還有過也無。良久云休。上堂。一大藏教束之高閣。長期短期。無繩自縛。莫更紛紛紜紜。直須洒洒落落。楊岐一頭驢。只有三隻脚。潘閬倒騎歸。擲殺黃幡綽五味拈來鑽秤鎚別有香風滿寥廓。喝一喝。上堂。前無釋迦。後無彌勒。中無自己。鐘樓上念讚。床脚下種菜。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閱五載復歸南堂。時江浙行省丞相。遣使延請師。堅臥不起。作三偈答之。有綠蘿窓下垂垂老。軒蓋林中不得來之句。癸卯秋八月十三日。感微疾默而不言。至廿五日索筆書偈云。七十六年。無後無先。聖凡情盡。明月中天。適通守陳公元禮來候疾。謂師曰。和尚東南大法幢也。時既至矣。可無一言啟迪我輩乎。師瞪目大笑。遂泊然而逝。闍維火未盛。有紅白二圓光。盤旋龕頂。良久浮空而滅。頂骨舌齒俱不壞。舍利無筭。姪僧祖灑等。収而藏之南堂即千佛塔院。

No. 1414-D

敬觀了菴禪師禪錄。如獅子王哮吼。獅子兒聞之。悉皆勇健。三世諸佛窺覷無門。六代祖師[谷*斤]額有分。擲大千於方外。納須彌於芥中。不可思議解脫法門。盡在是矣。

至正丙戌莫春前育王老師弟 正印 拜題

No. 1414-E 南堂和尚語錄續集序

中至仁澹居藁

古林禪師出東南。以無礙辯才。開大法施。使臨濟之道。震耀天下。若雷霆。若日月。真所謂命世宗師也。嗣興者南堂禪師。尤能大其聲。以鳴其道。三坐道場。學者雲奔海馳。學士大夫。莫不聞風起敬。雖退。而聞處猶蟻慕而不釋也。師咸酌其機器。飫以禪悅法喜。俾各怡然自得。釋然心悟而去。故禪師言滿天下。嘗有集而刊之者矣。今日本壽上人。又以其遺餘。續錄諸梓而傳之。乃徵予言。以弁其首。因得詳而觀焉。其辯悉類妙喜。其峻峭類德山雲門。其雄偉如怒猊擇石。金翅擊海。其神變超忽。如泰山之雲。始於膚寸。不崇朝而雨天下。其浩博汪洋。如江如海。茫乎其莫涯涘也。嗚呼盛哉。其源蓋有自矣。宋季有大禪師。曰橫川珙公。倡松源西丘之道于育王。當是時。天下之言禪者。惟浮靡纖巧是尚。其弊有不可勝言者。禪師奮起。一變時習。俾宗綱復正。卓然還禪道於高古。至今學者遵之。以為楷模也。一傳而古林。再傳而南堂。信乎世濟其美者矣。嗚呼盛哉。不有岷嶓於其前。孰能江漢於其後歟。茲因上人之請。特著其授受源委。以昭示末葉。使知有所宗仰焉。禪師天台人。名清欲。号了庵。脫築南堂於醉李之本覺。以佚其老。學者不敢名。遂以南堂稱之。壽其猶子也。愿而好道。乃吾友竺仙仙公弟子。仙嗣古林。道化盛行日本云。

無言住能仁江

南堂疏

皇天曠蕩 麗日月以長明
厚地渾沉 振江河而不泄
故知大法所繫 實有斯人存焉
某 學冠九流。
德尊一代。
肆辯袞袞 若百川之赴滄溟
有陣堂堂 如眾峯之繞天柱
回狂瀾於既倒 栗棘蓬金剛圈
洗佛日以重光 蓬蒿箭鐵絲網
從渠吞透 屬我箕裘
盍登故丘而謁舊廬 四海文明屬望
抑下喬木而入幽谷 一時公論攸歸
龍湫宴坐鴈蕩經行 飛天華之蔌蔌
鴛渚淒涼鷗波浩蕩 渺煙水之重重

一宗主護國同門

茲審 前席台之天封一宗和尚。高臨西菴。下視塵世。本路諸山。虛護國名刹用選法共聞。院堂以起之。檄文既至。而公不少屈。如法道何。吾黨敬用聰公排闥故事。緝詞以激其勇。庶幾幡然而作。幸莫大焉。

天地位焉萬物育焉 三峯巋然上雲雨
梧桐生矣鳳凰鳴矣 百鳥不敢啼春風
此菴聯佛果之燈 握全機而正斯席
堆雲佩虎丘之印 分半座以固宗盟
清振一時 曾謂境因人勝
話行千古 抑知人以道尊

某 眾香薈蔔之英。

列宿景星之瑞。

入甘露室 黑豆法早得其傳
樹金剛幢 破沙盆重增高價
有是父宜有是子 難其弟亦難其兄
何期季世之間 膺公選踞雄刹
見此一門之盛 著錦衣輝故鄉
所至蔚有成功 誰不爭先快覩
膏車秣馬 喜動乎中
同氣連枝 言之罔既

則方岩住圓覺三宗

教有辨臻禪稱璉嵩 東坡紀熙豐人物
野入青徐雲連海岱 大元混南北堤封
空五天竺缺而取耆英 善彈冠相慶
與無上法王而同教授 喜解絃更張

某 真碧落碑。

是古疊洗。

十萬胸中燈火讀 陶冶一乘
五千卷內名句身 筌蹄諸部
優鉢示明時之瑞 不離教乘而超越教乘
白蓮敷浩劫之春 具足圓覺而住持圓覺
故復進出一頭地 在我輩流
寧較等差於名位 只堪捧腹
四眾觀典刑出處 攬轡慨垂

一身佩佛法安危 矢詞羅扒

石室住育王

大覺一疏而來 高風未泯
妙喜兩居此地 芳躅愈光
是為梅檀叢林 固合龍象圍繞
某 具透關眼。
用劈箭機。
驅萬象於筆端 文章有印
驗來機於喝下 縱奪臨時
出海門國觀浙江潮 閱卷狂瀾之既倒
踞飛雪岩指烏石嶺 抹過疊障之崢嶸
是五世三大老故家
乃四明八吉祥勝地
振頹綱爭須敏手 物論攸歸
揚大教欲赴昌時 且評有在
上延睿筭 下副輿情

南堂住靈岩嘉興諸

楚石疏

車之用在輪 輪不滯則周行天下
鑑之功照物 物無遺而炳現目前
兩忌取捨之心 天人列請
一泯異同之論 泉石增光
某 衣得其傳。
辯如所證。
碌碌盆盎古壘洗 偈千言不少衰
啾啾烏群孤鳳皇 金百煉無重鑛
住山久矣 傳舍眎之
靈岳降靈 宜踞靈岩之頂
法身說法 普聞法界之中
仰瞻南斗愈明 旁挹太湖非小
青山步障 贈君二百里之白雲
紫玉茶鍋 分我三萬頃之明月

開南堂和尚語錄板

天目再傳而得休居翁 如師子踞地百獸震駭
開福一出而迁靈岩主 若洞庭粘天萬派混流
故駕馭昂栱之人必慕了菴 殺活擒縱
凡鑽仰堅高之士願禱語錄 代別拈提
明明照古照今 此日不綉諸梓
的的契佛契祖 他時慮失其真
昔汾陽現入傳燈 勸動西河道俗
況海內移多君子 樂轉南堂法輪
會齧鏃機
展揮金手
了菴和尚續集之終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前往捐款](#)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